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권해수(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교수)

정찬석(한국청소년상담원·선임상담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파악함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을 생활영역별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함.
- 이를 통해 현재 주로 속해 있는 생활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경험과 힘든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봄.
-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개념도 연구법이며 조사 대상은 대안학교 청소년 23명,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1명,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8명, 거리 청소년 10명임.

2. 주요 연구내용

- 첫째, 대안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려움은 15개 범주로 개념화되며 가장 중요한 범주는,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M=3.62).’,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M=3.57).’, ‘7. 나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 기준의 일방적인 잣대만 들이댄다(M=3.55).’, ‘5. 자퇴한 것이 후회되지만 복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M=3.51).’ 순임.
- 둘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려움은 14개 범주로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M=3.79).’, ‘3. 직업훈련체계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M=3.61).’,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M=3.40).’ 순임.

- 셋째,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려움은 14개 범주로 ‘2. 부모님께 죄송하다(M=4.03).’, ‘14. 학교 생활이 그림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M=4.03).’, ‘12.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M=3.96).’, ‘5.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 심한 정체감을 느낀다(M=3.78).’ 순임.
- 거리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려움은 8개 범주이며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M=3.88).’,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M=3.72).’, ‘7.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걱정된다(M=3.52).’,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M=3.52).’ 순임.
-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 학교중단으로 인한 선생님·친구로부터의 관계 단절, 부모님·가족·친척 관계의 어려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생 아닌 청소년’으로서 다양한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방향성 상실로 인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사회 지지 부족이 있음.
- 생활영역별 어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안학교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퇴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두려움, 검정고시 준비여부에 따른 2차적 차별을 호소함.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학력 장벽, 직업훈련 시스템의 한계, 환경적 지원 부족을 호소함.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비행에 대한 유혹, 비행 후 조사 과정에서의 비인격적·비인권적 처우, 정기적 생활교육프로그램 부재, 복학 후 학교 재중단 문제,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함. 거리 청소년은 학교중단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전반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편견이 어려움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 학교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인식 제고(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전개, 위험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외 교육·활동 강화)
- 둘째, 사회적 관계망 확보(1:1 멘토링 서비스 제도화, 비정규학교 교사·상담자 역할 강화)
- 셋째, 가족응집성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넷째, 심리정서 강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다섯째, 차별 금지 및 다양한 혜택 지원 방안 모색(신분증의 청소년 중 단일화 방안 추진, 청소년증 혜택 보장 및 확대)
- 여섯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환경적 지원 강화(관련정보 홍보강화, 학교의 체계적 정보제공 의무화, 학교밖 청소년 경제지원 확대)
- 일곱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및 관련 피해 감소
- 둘째, 복교 지원프로그램 운영
- 셋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차별 금지
- 넷째, 학력위주 취업문화 배제 및 능력위주의 취업문화 구축
- 다섯째,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직업전문학교 수강 과목 다양화, 학교밖 청소년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취업 기회 제공,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직업전문학교 수용인원 확대)
- 여섯째,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 일곱째, 비행으로의 전이 예방
- 여덟째,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비인권적 처우 금지 방안 마련
- 아홉째, 복교 후 재 학교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교사의 관심 촉구
- 열번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의 강화

이상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환경적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9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9
(2) 학교밖 청소년의 힘든 점에 관한 집단 인터뷰 실시	9
2) 연구방법	10
(1) 연구대상	10
(2) 연구자	17
(3) 자료수집 및 분석	17
(4) 분석방법	28
II. 이론적 고찰	29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및 생활영역	31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31
2)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및 생활영역	33
2.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36
1) 학교밖 청소년의 전체규모	36
2) 생활영역별 학교밖 청소년 규모	40
3.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47
1) 국내	48
(1) 국가청소년위원회	48
(2) 교육인적자원부	54
(3) 법무부	56

(4) 노동부	60
(5) 보건복지부	64
(6) 여성가족부	64
(7) 경찰청	65
2) 국외	66
(1) 미국	66
(2) 독일	71
(3) 영국	81
(4) 일본	84
 III. 결과 및 분석	89
1. 대안학교 청소년	91
1) 대안학교 청소년 개념도 작성	91
2) 대안학교 청소년 개념도 해석	98
3)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범주별 문항	101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12
1)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작성	112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해석	118
3) 직업전문학교 학교밖청소년 범주별 문항	122
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31
1)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개념도 작성	131
2)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 해석	137
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범주별 문항	140
4. 거리 청소년	151
1) 거리 청소년 개념도 작성	151
2) 거리 청소년 개념도 해석	155
3) 거리 청소년 범주별 문항	157

IV. 결론 및 제언	163
1.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비교	165
2.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	169
3.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영역별 어려움	178
V. 정책제안	193
1. 학교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95
2. 학교밖 청소년 생활영역별 정책적 대응방안	205
참고문헌	212
부록	221
1. 인터뷰 참가자 인적사항 조사표	223
2. 집단 인터뷰 녹취록	224

표 목 차

<표 I-1> 대안학교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13
<표 I-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14
<표 I-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15
<표 I-4> 거리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16
<표 II-1>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에 관한 논의	35
<표 II-2> 연도별 학업중단률	36
<표 II-3> 시도별 학업중단률(2004학년도)	37
<표 II-4> 연도별, 사유별 중도탈락자 구성비(2000년~2003년)	38
<표 II-5> 지역규모별, 사유별 중도탈락자 구성비(2004년)	39
<표 II-6> 청소년 인구 현황	41
<표 II-7> 학령인구	42
<표 II-8> 학교급별 진학률	43
<표 II-9> 교육부 인가 대안특성화학교 현황	45
<표 III-1> 대안학교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94
<표 III-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115
<표 III-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133
<표 III-4> 거리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153
<표 IV-1>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성별	165
<표 IV-2>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학교를 그만둔 시기	166
<표 IV-3>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학교를 그만둔 기간	167
<표 IV-4>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나이	168
<표 IV-5>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거주지역	169
<표 IV-6> 학교밖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범주	170

그림 목 차

[그림 Ⅱ-1] 청소년 인구구성비	42
[그림 Ⅱ-2] 학령인구변동추이	43
[그림 Ⅱ-3] 진학을 변동추이	44
[그림 Ⅱ-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 운영 모형	49
[그림 Ⅱ-5] 미국의 청소년 정책 체계	67
[그림 Ⅱ-6] 독일 아동 청소년 서비스 체계도	72
[그림 Ⅱ-7]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	74
[그림 Ⅱ-8] 영국의 청소년 정책 체계	82
[그림 Ⅱ-9] 일본의 청소년 정책 체계	85
[그림 Ⅲ-1]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대안학교 청소년의 개념도	93
[그림 Ⅲ-2]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114
[그림 Ⅲ-3]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	132
[그림 Ⅲ-4]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거리 청소년 개념도	152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수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약 7만 여명에 달하며 2005년에는 그 수가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55,525명으로 전체 학생 수 7,796,401명의 0.71%를 차지하고 있다(강성국a, 2005; 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1). 초·중·고등학교 중단으로 인한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2002년 8만6000명에서 2003년 7만4000명, 2004년 7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연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서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미국2) 전역의 고등학교 졸업율은 69.9%에 지나지 않는다.3)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 졸업자에 비해 취업과 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보조금 수혜, 이혼, 부모기로의 이른 전이를 경험한다.4) (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1) 학교급별로는 실업계 고교가 전체 학생 50만명 중 1만2910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해 가장 높은 2.57%의 학교 중단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일반계 고교 0.81%, 중학교 0.78%, 초등학교 0.42%순이었다(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2) 미국의 의무교육연수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의무교육이 16세까지인 주는 23개주로 가장 많고 17세까지인 주는 10개주, 18세까지인 주는 18개주이다(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http://www.edweek.org/dc06>, 2006년 10월 15일 인용).

3)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진급하는 때에 탈락율이 35%로 나타나 고등학교 전학년을 통 털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졸업율이 60%로 가장 낮았으며 대도시 인근 졸업률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2006).

4) 미국 교육연구센터(Education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http://www.edweek.org/dc06>, 2006년 10월 15일 인용).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대부분 ‘학교부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아정체감 및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 방안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김민정·김혜영, 2001). 이 시기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중도탈락자(중도탈락청소년),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비(非)학생 청소년, 중퇴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 학업중퇴 청소년 등으로 지칭하였다(김찬호, 2005; 조용태·배영태, 2003). 1990년대 말부터는 이들에 대해 좀 더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중도탈락 청소년의 사회적응정책 개발이나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개입전략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김민정·김혜영, 2001). 이후 최근에 와서 이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⁵⁾(한국청소년상담원, 2004)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학교

중단자의 취업률은 42%,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60%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연평균임금은 \$ 26,104인데 반해, 고등학교 중단자의 임금은 평균 연간 \$18,085에 그쳤다(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http://www.edweek.org/dc06>, 2006년 10월 15일 인용).

- 5) 엄밀하게 보았을 때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과 ‘학교제도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과 ‘정규학교자체를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규학교 자체를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이 의미하는 바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까지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무교육기간을 마치지 않은 청소년을 정규학교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볼 것인가, 초등학교 자체도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을 정규학교자체를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학교제도 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 즉 초등학교부터 진학하지 않고 홈스쿨링이나 다른 형태의 교육방법으로 혹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실태나 활동영역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통해 홈스쿨러 모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들이 정규교육자체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학교를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제도 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를 그만둔 청소년을 돕는 체제를 개발하고 그 체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실로 2003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학업중단청소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을 자퇴처리과정에서의 본인 의사 반영 여부에 따라 ‘잘린 아이’와 때려치운 아이(김혜영, 2002)로 지칭하였으며 다른 학자들은 자퇴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김기태 외, 1996;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5에서 재인용)으로 지칭하였다. 혹은 학교를 떠난 후의 생활에 중점을 두어 ‘적응형 청소년’과 ‘부적응형 청소년’(이숙영·남상인·이재규, 1997; 이소영, 1999; 이근창, 2003)으로 구분하여 보는 경우가 있었다.⁶⁾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특성에 대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다른 유형의 학교밖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밖 청소년을 생활영역별로 나누어 그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학교제도 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영역별 비교 분석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학교제도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 후속연구를 통해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이숙영 등(1997)은 ‘적응형 청소년’을 다시 복교하거나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거나 대안학교에서 수학하는 ‘진학형’과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정착하는 ‘취업형’, 사설기술학원·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형’으로 세분화하고 ‘부적응형’의 유형을 다시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보호관찰중, 요양 중)’,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분류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러한 유형분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중첩된다. 즉 대부분의 취업형, 취업준비형 청소년, 시설수용형(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은 직업훈련과 함께 검정고시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원은 직업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과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을 단순히 진학형, 시설수용형, 직업훈련형 등으로 나누고 진학형은 검정고시 등의 진학준비를, 직업훈련형은 직업훈련을, 시설수용형은 교정·선도만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 분류는 부적응형과 적응형의 이분법적 사고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학교를 떠나면서 ‘부적응’ 청소년이란 낙인이 부여된 이들에게 다시 이중적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 이러한 구분들은 자퇴와 부적응을 연결시키는 기존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적 해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가치와 문화에 근거해야 하며 이들을 보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안현의, 2002).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기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진로행동 또는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 개인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탐색하고 깨달아 가면 사회 속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색깔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그러한 발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학업성적에 의한 일률적인 평가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자아개념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환경을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적응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 자기보호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안현의, 2002).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를 떠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 걱정부터 하고 이들이 정신건강문제를 일으키거나 교육 분야의 기강과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사회 속의 위험요소가 될 것에 대해 불안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기 이전에 우선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였다.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임에 따라 각계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그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는 그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안현의, 2002).

따라서 우리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부적응적인 시선보다는 발달적인 시선, 자기를 실현하려는 건강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좀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밖 청소년을 돕고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동일한가?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학교밖 청소년의 어려움이 현재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학교밖 청소년의 중퇴 이후 생활양식은 학교로 다시 복학하거나 대안학교나 검정고시학원 등에서 검정고시 혹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거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비행으로 인해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할 일 없이 배회하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숙영, 1997; 이소영, 1999). 생활영역별 학교밖 청소년 규모에 대한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을 제외하고 학교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공식적 생활영역은 크게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보호관찰소)’ 등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복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많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새로운 생활영역인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에 속해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학교 중단자 5만 5000여 명중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3만1880명(57%)에 지나지 않았다. 중·고생의 경우 중도이탈자 3만8천 732명중 2만3446명이 복귀하지 않아 미복귀율이 61%에 달했고, 특히 실업계 고에서는 87%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의 상당부분이 학교 재적응에 실패하여 또다시 학교를 중단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제도 자체에

진입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김현주, 2002)에 힘을 실어준다.

1997년 ‘중도탈락자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예방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립, 운영하는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전국을 통틀어 수용인원이 5,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반 이상(68개교, 학생 수 2천922명)이 미인가 시설로 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고교 21곳, 중학교 7곳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의 수용인원은 2천484명에 지나지 않는다(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대부분 5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으며 학교밖 ‘청소년’ 만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 뿐이다.

즉, 연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 혹은 학교부적응,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이 되고 이 중 반 이상이 학교로 복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며 학교중단에 대한 예방책은 물론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도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나 취업훈련을 원하는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길거리를 헤매 다니는 거리 청소년이나 모든 사회활동과 인간 관계를 중단한 은둔형 청소년(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학교밖 청소년 연구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소수의 연구들도 대부분 소수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거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김순규, 2004; 조용태·배영태, 2003; Janosz, LeBlac, Boulerice & Tremblay, 1997). 학교밖 청소년들이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조차 주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이 된 이후의 생활환경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또한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학교밖 청

소년 생활환경인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보호관찰소·소년분류심사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집단으로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힘든 점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파악에 앞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파악함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을 생활영역별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서 현재 주로 속해 있는 생활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경험과 힘든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심층면접 해석에서 올 수 있는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개념도 연구법(Trochim, 1989)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ㄱ)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ㄴ) 학교밖 청소년이 어떻게 유형화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학교밖 청소년 생활영역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ㄷ)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법적 규정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정책과 서비스를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학교밖 청소년의 힘든 점에 관한 집단 인터뷰 실시

위에서 파악된 학교밖 청소년의 주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서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특히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였다. 개념도 연구법의 특성상 집단 인터뷰의 주제는 단일 문항으로 주어지며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연구자 회의, 관련문헌 검토를 토대로 단일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집단 인터뷰 결과는 생활영역(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별로 실시되고 정리·분석되었다. 각각의 생활영역별 결과를 분석한 뒤 공통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 별로 특징적인 경험과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세분화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전문가 자문, 문헌고찰, 집단인터뷰를 통한 개념도 연구법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학교밖 청소년 접촉방안,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주된 생활영역,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로 구분하고 구체적 실태파악을 위해 집단 인터뷰를 통한 개념도 연구법(Trochim, 1989)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법무부, 노동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해밀센터가 설치된 전국 5개 주요도시(서울, 대전, 경기, 광주, 제주)와 서울·경기 지역 직업전문학교, 소년원·보호관찰소·소년분류심사원, 이동쉼터, 길거리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 먼저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학교밖 청소년 보호·지원기관을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각 기관들에 유선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인터뷰 허락을 받은 뒤 해당기간(2006년 7월 1일~2006년 9월 6일)에 상담실에 내방하

는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원·보호관찰소·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학교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시설·단체를 통해 조사대상 학교밖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터뷰 대상자⁷⁾를 모집하고 각 유형별로 대안학교 청소년 23명(1차 기준: 2차는 15명 참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1명(1차 기준: 2차는 20명, 최종분석은 18명이 참여),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8명(1차 기준: 2차는 13명 참여), 특별한 소속이 없는 거리 청소년 10명(1차 기준: 2차는 8명 참여) 등 총 72명이 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다.⁸⁾

집단인터뷰는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본 연구의 연구진 4명이 2명씩 팀을 이루어 수회 직접 학교, 선도보호시설,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 유형별로 집단 인터뷰 1회 차에서는 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파악하고 관계(rapport)를 형성한 후, 브레인스토밍 하였다. 2차 집단 인터뷰에서는 추출된 문장들에 대한 개념 분류 및 평정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연령은

7) 학교밖 청소년의 주된 생활영역은 학교밖 청소년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거리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 설계과정에서 연구자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현재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주로 활용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8)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유학 및 이민으로 인한 중퇴비율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조기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유학준비학원을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외진학형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준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담당 유학학원 교사의 자문을 통해 이들을 ‘학교밖 청소년’을 연구하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기유학 및 이민의 경우,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상당부분 이질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 만 14세, 최대 만 21세였다. 생활영역에 따라 연구대상을 크게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으로 나누었다. 대안학교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실에 내방한 청소년 중 인가 혹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 자체의 협조를 얻어 해당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서울·경기지역의 노동부 인가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서울·경기지역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청소년은 서울지역 청소년 쉼터·이동쉼터의 도움을 얻어 학교중단 후 특별한 소속이 없이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각 유형별 세부 연구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대안학교 청소년

연구 참여자는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5개 지역(서울, 경기도, 광주, 대전, 제주)에서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One-Stop Service System)를 마련하여 통합적인 지원사업인 ‘해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상담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복교전 특별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 중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도시형 비인가 대안학교를 섭외하였다. 각 기관에 협조공문과 연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상담자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신청자를 받은 후 연구자에게 인적사항과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섭외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지역 비인가형 대안학교 1곳, 경기도상담지원센터 1곳, 광주광역시상담지원센터 1곳, 부산광역시상담지원센터 1곳에서 각각 5명, 3명, 10명, 5명이 신청하였다. 1차 인터뷰는 2명의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상담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5명씩 1차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2차 인터뷰 또한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에 참가했던 23명의 청소년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5명의 청소년만이

문항 분류 및 평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1차 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총 23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1> 대안학교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13(56.5)	나이	14세	2(8.7)
	여	10(43.5)		15세	4(17.4)
	계	23(100.0)		16세	1(4.3)
학교를 그만둔 시기	초등학교 때	0(.0)		17세	7(30.5)
	중1	3(13.0)		18세	4(17.4)
	중2	8(34.8)		19세	5(21.7)
	중3	3(13.0)		20세	0(.0)
	고1	5(21.8)		21세	0(.0)
	고2	3(13.0)		계	23(100.0)
	고3	1(4.4)		평균	16.96세
	계	23(1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17.4)
				부산광역시	5(21.7)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8(34.8)		대구광역시	0(.0)
	1년 이상-2년 미만	6(26.2)		인천광역시	1(4.4)
	2년 이상-3년 미만	1(4.3)		광주광역시	10(43.5)
	3년 이상-4년 미만	5(21.7)		대전광역시	0(.0)
	4년 이상-5년 미만	1(4.3)		울산광역시	0(.0)
	5년 이상-6년 미만	0(.0)		경기도	3(13.0)
	6년 이상-7년 미만	2(8.7)		경상남·북도	0(.0)
	7년 이상	0(.0)		전라남·북도	0(.0)
	계	23(100.0)		충청남·북도	0(.0)
	평균	1.9년		강원도	0(.0)
				제주도	0(.0)
				계	23(100.0)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연구 참여자는 학교측의 협조를 얻은 서울·경기 지역의 노동부 인가 직업 전문학교 3곳(서울 2개교, 경기 1개교)을 대상으로 섭외되었다. 학교 측에 협조공문과 연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교사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신청자를 받은 후 연구자에게 인적사항과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섭외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인 연구참여자는 서울 1개교와

경기 1개교에서 각각 15명과 6명이 신청하였다. 1차 인터뷰는 2명의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경기 1개교 6명(6명 모두 집단 인터뷰), 서울 1개교에 15(5명씩 3팀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명에 대한 1차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2차 인터뷰 또한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경기 1개교에 대한 2차 인터뷰는 8월 30일에 서울 1개교에 대한 2차 인터뷰는 8월 31일에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1명을 제외하고 1차 연구에 참가했던 20명의 청소년이 모두 문항 분류 및 평정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연구대상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차 집단인터뷰에 참가한 총 21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20(95.2)	나이	14세	0(.0)
	여	1(4.8)		15세	0(.0)
	계	21(100.0)		16세	3(14.3)
학교를 그만둔 시기	초등학교 때	1(4.8)		17세	4(19.0)
	초등학교 졸업 후	1(4.8)		18세	8(38.2)
	중2	0(.0)		19세	4(19.0)
	중3	2(9.5)		20세	0(.0)
	중학교 졸업 후	2(9.5)		21세	2(9.5)
	고1	7(33.4)		계	21(100.0)
	고2	4(19.0)		평균	18.00세
	고3	4(19.0)	거주 지역 ⁹⁾	서울특별시	7(33.3)
	계	21(100.0)		부산광역시	0(.0)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6(28.6)		대구광역시	0(.0)
	1년 이상-2년 미만	6(28.6)		인천광역시	2(9.5)
	2년 이상-3년 미만	3(14.3)		광주광역시	1(4.8)
	3년 이상-4년 미만	2(9.5)		대전광역시	2(9.5)
	4년 이상-5년 미만	0(.0)		울산광역시	0(4.8)
	5년 이상-6년 미만	0(.0)		경기도	9(42.9)
	6년 이상-7년 미만	2(9.5)		경상남·북도	0(.0)
	7년 이상	2(9.5)		전라남·북도	0(.0)
	계	21(100.0)		충청남·북도	0(.0)
	평균	2.7년		강원도	0(.0)
				제주도	0(.0)
				계	21(100.0)

9) 조사대상 직업전문학교 2개교는 모두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며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모집대상이 전국단위이므로 거주지역이 서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연구 참여자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서 경기도 소재 남자소년원, 여자소년원, 분류심사원의 수용자, 그리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표 I-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8(44.4)	나이	14세	0(0)
	여	10(55.6)		15세	2(11.1)
	계	18(100.0)		16세	6(33.3)
학교를 그만둔 시기	초등학교 때	0(0)		17세	7(38.9)
	중1	5(27.8)		18세	3(16.7)
	중2	7(38.9)		19세	0(0)
	중3	4(22.2)		20세	0(0)
	고1	2(16.1)		21세	0(0)
	고2	0(0)		계	18(100.0)
	고3	0(0)		평균	16.61세
	계	18(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2(11.1)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1(5.6)		부산광역시	0(0)
	1년 이상-2년 미만	3(16.7)		대구광역시	0(0)
	2년 이상-3년 미만	4(22.2)		인천광역시	3(16.7)
	3년 이상-4년 미만	5(27.7)		광주광역시	0(0)
	4년 이상-5년 미만	4(22.2)		대전광역시	0(0)
	5년 이상-6년 미만	1(5.6)		울산광역시	0(0)
	6년 이상-7년 미만	0(0)		경기도	11(61.1)
	7년 이상	0(0)		경상남·북도	2(11.1)
	계	18(100.0)		전라남·북도	0(0)
	평균	2.7년		충청남·북도	0(0)
				강원도	0(0)
				제주도	0(0)
				계	18(100.0)

각 기관에 협조공문과 연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자가 직접 청소년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신청자를 받았다 시설 수용형의 경우 참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제 관한 상세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을 수 없었다. 경기도 소재 남자 소년원, 여자 소년원, 분류심사원, 그리고 보호

관찰소에서 각각 5명, 5명, 5명, 3명을 선발하여 총 1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1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 인터뷰 또한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류심사원의 경우 신변보호상 연락처와 주소를 조사할 수 없었으며 구류 기간이 최장 20일밖에 되지 않아 2차 인터뷰시 재섭외가 불가능하였다. 분류심사원 5명을 제외한 13명의 청소년들이 문항 분류 및 평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총 18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표 I-3>과 같다.

④ 거리 청소년

연구 참여자는 서울소재 청소년쉼터의 활동 중 아웃리치(out-reach)지원 프로그램인 ‘이동쉼터’를 통해 쉼터 선생님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해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I-4> 거리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6(60.0)	나이	14세	2(20.0)
	여	4(40.0)		15세	3(30.0)
	계	10(100.0)		16세	4(40.0)
학교를 그만둔 시기	초등학교 때	0(.0)		17세	1(10.0)
	중1	2(20.)		18세	0(.0)
	중2	4(40.0)		19세	0(.0)
	중3	0(.0)		20세	0(.0)
	고1	4(40.0)		21세	0(.0)
	고2	0(.0)		계	10(100.)
	고3	0(.0)		평균	15.4세
	계	10(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10(100.0)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4(40.0)		부산광역시	0(.0)
	1년 이상-2년 미만	4(40.0)		대구광역시	0(.0)
	2년 이상-3년 미만	2(20.0)		인천광역시	0(.0)
	3년 이상-4년 미만	0(.0)		광주광역시	0(.0)
	4년 이상-5년 미만	0(.0)		대전광역시	0(.0)
	5년 이상-6년 미만	0(.0)		울산광역시	0(.0)
	6년 이상-7년 미만	0(.0)		경기도	0(.0)
	7년 이상	0(.0)		경상남·북도	0(.0)
	계	10(100.0)		전라남·북도	0(.0)
	평균	1.3년		충청남·북도	0(.0)
				강원도	0(.0)
				제주도	0(.0)
				계	10(100.0)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은 쉼터 선생님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이렇게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사전에 청소년 쉼터를 통해 연구에 협조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청소년 중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10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2명은 1차 면접 후 연락이 취해지지 않아 2차 분류 및 평정작업에는 2명을 제외한 8명의 방임형 청소년만이 참여하였다. 1차 인터뷰에 참여한 거리 청소년 총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표 I-4>와 같다.

(2) 연구자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총 4명으로 모두 본 연구의 연구진이었다. 이 중 2명은 상담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청소년상담 경력 7년 이상이었으며 1명은 대학원에서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로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이다. 1명은 사회복지학 석사로 청소년관련 연구 및 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이었다. 4명의 연구자가 2명씩 짝을 지어 각 유형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분류 및 평정과정에는 1명의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3명의 연구자가 유형을 나누어 순번을 정해 함께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개념도 연구법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참여자들이 직접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만들고 자료를 분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이다(Trochim, 1989). 이 연구방법에 이용되는 의미단어, 즉 문장들은 참여자들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에 연구

자들이 직접 분류하는 질적자료와 비교할 때, 연구자들의 편견이 줄어들게 된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또한 개념적 틀은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되고, 중요개념과 그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도표와 그림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참여자의 경험을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분석에는 다차원적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적용한다. 개념도 연구법은 준비단계, 문장 모으기 단계, 문장 구조화 단계, 문장을 개념도로 표현하는 단계, 개념도의 해석과 활용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참여자 선정과 브레인스토밍의 주제 및 평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 선정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포함될 경우에 개념적 틀의 해석에 폭넓은 의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연구의 설계와 수행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다양한 집단을 표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집단의 규모가 다양한 의견과 토론,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든 참여자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분류와 평가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단계에 참여하는 경우에 참여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의 회기에서 제시할 질문과 평정의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된다. 연구자들은 브레인스토밍에서 제시할 질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고, 평정의 기준은 주로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문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리커트 척도로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Trochim, 1989).

ㄴ) 문장 모으기 단계

연구참여자와 브레인스토밍의 주제가 정해진 후에는 연구주제의 전체 개념 영역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모으게 된다.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

밍이 진행되는데 연구자는 브레인스토밍 회기 동안에 이야기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연구자는 브레인스토밍 회기에서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비판이 없어야 함을 알려준다. 이론적으로는 문장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너무 많은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 분류, 평정 및 분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00개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브레인스토밍 회기에서 100개 이상의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문장 수를 줄일 수 있다(Trochim, 1989).

ㄷ) 문장 구조화하기: 분류, 평정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문장은 카드에 인쇄되고, 완성된 카드가 참여자에게 제시된다. 참여자는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카드를 분류하도록 지시 받는다. 분류하는 조건은 첫째, 한 개의 문장이 중복되어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문장이 하나로 분류되어도 안 되며, 반대로 문장의 수만큼 분류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는 이 조건을 따르면서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문장을 분류하고 정해진 척도에 의해 각각의 문장을 평정하게 된다(Trochim, 1989).

ㄹ) 문장을 개념도로 표현하는 단계

연구주제와 관련된 개념영역을 설명하는 데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각각의 문장들이 개념도에서 어떻게 분리된 점으로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개념도에서 문장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빈번하게 함께 묶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문장 간의 위치가 떨어질수록 덜 빈번하게 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문장을 합치거나 나누어 군집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연구자들이 합의하여 적절한 군집수를 결정한다. 세 번째는 참여자가 각각의 문장에 대해 평정한 평균값을 점이나 군집을 이용하여 표시한다(Trochim, 1989).

ㄱ) 개념도의 해석과 활용 단계

개념도는 진술문 목록(the statement list), 군집목록(the cluster list), 문장 분포도(the point map), 군집도(the cluster map), 문장 평정도(the point rating map), 군집 평정도(the cluster rating map)를 이용하여 해석되어진다. 군집도 상에서 가깝게 위치한 군집들은 개념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군집 내 하위 문장들을 분석한 후에 군집에 대한 이름을 정한다. 군집에 대한 이름이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집들이 모여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합의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준비된 개념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계획이나 평가결과를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도의 활용은 연구자의 창조성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Trochim, 1989).

② 자료수집기간

각 유형별 자료수집기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 인터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7월 10일(월)부터 2006년 7월 14일(금)까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다.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 모두 이 기간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두 번째 1차 집단인터뷰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살펴보면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7월 28일(목)부터 8월 18일(목)까지 이틀간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7월 20일(목)부터 8월 10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은 8월 7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나흘 동안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거리 청소년은 8월 2일(화)부터 8월 20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세 번째 2차 집단인터뷰를 통한 문항 분류 및 평정 작업은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8월 25일(월)부터 9월 6일(금)까지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8월 28일(월)부터 9월 1일(금)까지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의 경우 8월 31일(월)부터 9월 5일(목)까지 거리

청소년의 경우 9월 1일(금)부터 9월 8일(금)까지 이루어졌다.

③ 브레인스토밍 주제 선정

본 연구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제시된 주제는 연구자 4명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결과 “(정규) 학교를 그만둔 뒤에 힘든 점은?” 으로 결정하였다.

④ 브레인스토밍 과정

각 유형별 브레인스토밍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안학교 청소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연구 참여자들을 5그룹으로 나누어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혹은 대안학교에 직접 가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균 소요시간은 집단별로 2시간 내외이며 23명의 연구참여자들을 7월 28일(목), 8월 3일(목), 8월 7일(월), 8월 8일(화), 8월 17일(목)에 각각 3명, 2명, 3명, 10명(각 5명씩 진행), 5명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연구 참여자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직업전문학교에 직접 가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균 소요시간은 집단별로 2시간 내외이며 21명의 연구참여자들을 7월 20일(목)과 8월 10일(목) 양일 동안 6명, 5명, 5명, 5명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소년선도보호시설(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연구 참여자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소년선도보호시설에 직접 가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균소요시간은 집단별로 2시간 내외이며 18명의 연구참여자들을 7월 20일(목)과 8월 10일(목) 양일 동안 6명, 5명, 5명, 5명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거리 청소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해당 청소년과 약속장소를 잡아 8월 2일(화), 8월 15일(화), 8월 20일(일) 3일 동안 천호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3명, 2명, 5명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생활영역별 청소년을 인터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함께 모여 연구자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 및 내용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에 관한 세부진행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부에서는 인사말과 연구주관 기관소개와 연구소개, 연구진행 방법, 녹음에 대한 양해,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시간 동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으로 집단 인터뷰 구성원을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서 분위기를 푼 후 참가신청서를 나누어 주고 작성토록 하였다. 참가신청서에는 이름과 성별, 나이, 연락처, 거주 지역,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 작성과 관련 해당사항 일체를 연구가 끝나는 대로 전량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¹⁰⁾

2부에서는 본격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였으며 A4용지에 적힌 브레인스토밍 주제인 “학교를 그만둔 뒤 힘든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인터뷰가 시작될 때 브레인스토밍의 요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참가자에게 “머리에 있는 건 고민 말고 싹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며 말하기”라고 요령을 이야기 해주었다. 자유롭게 인터뷰하되 되도록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으려 하고 이야기 내용이 연구방향과 멀어졌을 경우에만 부드럽게 다시 한번 연구주제를 상기시켰다. 인터뷰과정은 전 시간 녹음되었으며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 2차 집단인터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중간 중간에 집단 인터뷰에 소외된 청소년들이 없도록 독려하였다.

10) 집단인터뷰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한 선행연구(정찬석, 2005;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의 지침을 준용하였다.

⑤ 문항 선정

문항 선정을 위해 먼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4명이 축어록을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정규) 학교를 떠나서 어려운 점’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선정하였다. 1차 문항선정 작업에서는 대안학교 청소년(유사중복문항 포함) 310개 문장,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33개 문장, 소년선도보호시설청소년 172개 문장, 거리 청소년 74개 문장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한 2차 선정 작업에서는 대안학교 청소년 139개 문장,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00개 문장,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22개 문장, 거리 청소년 72개 문장이 선정되었다. 개념도 연구법에 의하면 문장의 개수가 80개에서 100개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Trochim, 1989) 되었지만 문장의 수를 100개 이하로 줄일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생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안학교 청소년과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각각 139개 문장과 122개 문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모든 문항 선정 절차는 기오르그(Giorgi, 1985)의 ‘질적 분석의 4단계 절차’에 의거하여 충실히 수행되었다. 문장선정 작업은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4일에 걸쳐 연구진 4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기오르그의 ‘질적 분석의 4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오르그(Giorgi)의 질적 분석 4단계 절차에 대한 개관

본 방법론은 현상학(phenomenology)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바, 현상학적 심리학자들의 주된 주장은 실제상황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Giorgi, 1985; 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실제 상담에서의 중요하거나 도움이 된 측면을 상담자 및 내담자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선 피험자에게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상담에서의 중요하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에 대해 묘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은 총 4단계이다. 첫째, 내용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응답 내용을 읽는 단계이다. 둘째, 내용 전반에 대한 감을 잡았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연구목적에 염두에 두고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해내며 내용을 읽어본다. 셋째, ‘의미 단위’들이 구분되었으면 연구자는 의미 단위들을 다시 전부 읽어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심리학적 통찰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 단위들이 연구 주제를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약간 변형시키기도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통합하여 피험자의 경험을 잘 보여주는 문장으로 만드는 단계이다 (Giorgi, 1985; 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 1단계 : 전체 감을 잡기(sense of the whole)

단순하게 축어록을 읽고 피면접자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해본다. 물론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읽어도 상관없으며 여러 쪽의 내용이라면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한다. 본 단계에서는 읽으면서 전반적인 감을 얻는 단계이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무엇일까 밝히려 하거나 분석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 단계는 이후 의미 단위의 구분을 위한 기초단계이다.

◎ 2단계 : 심리학적 관점을 지니고 연구 중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의미 단위’들을 구분해내기(discrimination of meaning units within a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focused on the phenomenon being researched)

전체 원문을 동시에 분석할 수는 없으므로 다룰 수 있을만한 단위(의미단위)들로 전문을 분석해내는 단계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 이므로 그 기준을 염두에 두고 의미 단위들을 구분해 내야 한다. 단 연구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리학적

태도를 염두에 두고 나서 구체적인 축어록을 대했을 때 내담자의 축어록에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의미 단위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축어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과 관련하여 민감해(sensitive) 보이는 의미변화를 감지할 때 마다 표시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도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분을 먼저하고 나중에 분석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므로, 어떤 기준 등을 염두에 두긴 했어도 의미 구분은 어디까지나 저절로 문장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어야 한다.

일상생활이란 우리가 가진 심리학적 관점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심리학적 태도나 관점을 가지고 경험자들의 설명을 대한다는 것은 복잡한 현실의 특정 부분만 분석하도록 제한을 두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심리적 현실(도움이 된 측면 등)’이란 세상에 만들어져 있거나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탐구를 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학자는 축어록의 감춰진 의미까지도 구분해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의해 선정되는 의미 단위에 대해 거비쉬(Gurwitsch)는 요소(element)가 아니라 성분(constituent)이라고 불렀는데, 성분은 맥락 안에 포함되는 식으로 들어있는 것인데 반해, 요소란 맥락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부분들인 것이다. 이런 구분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질적 분석이 전통적인 내용 분석법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전통적인 내용 분석은 “분명히 드러난 의사소통의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기술하는 연구 기술”을 말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그런 기법이나 방법론이 아니다. 우리 분석은 양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드러난 내용에 한정지어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 단위는 문장의 글자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연구자의 태도와 문제의식과 관련되어서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내용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자는 그것의 문체를 궁금해 하는 연구자와는 동일한 글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이처럼 목적이나 태도가 달라지면 그 문장들의 형태가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는바, 그것이 우리 질적 연구법이 기존의 단순 내용 분석과 다른 점이다.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는 연구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Giorgi, 1985; 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 3단계: 내담자의 일상적 표현을 현상 파악 측면을 강조하는 언어로 변형하기(transformation of subject's everyday expressions into psychological language with emphasis on the phenomenon being investigated)

언어의 변형은 기본적인 의미 단위에 대한 숙고와 풍부한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 역시 보이는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의 세세한 내용과 보다 더 일반화된 심리적 범주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이 단계에 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축약이나 공식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철저히 살펴본 이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일반 범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변형은 필요한 것인 바, 왜냐하면 순진한 내담자의 축어록은 각 개인의 비밀스런 언어로 여러 현실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꾸어주어야 하고 또 그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려면 좀 깊이 있게 심리적 측면을 부각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Giorgi, 1985; 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 4단계 : 위에서 변형시킨 의미 단위들을, 유용한 경험에 대한 일관된 문장으로 종합하기(synthesis of transformed meaning units into a consistent statement of the structure of helpful experiences)

보통 이런 분석 자료는 한 명의 피험자에게서 얻은 자료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한 가지 경우에서 본질적이며 일반적인 구조를 언어내기란 쉽지 않다. 피험자가 많을수록 표현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을 발견하는 능력도 더 신장된다.

마지막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들에 담겨있는 연구자가 통찰한 내용들을, 상담에서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한 여러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일관된 내용으로 종합하고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 종합 과정에서는 모든 의미 단위들을 다 고려해야 하며, 표현을 통합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변형된 의

미 단위의 모든 의미들이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그 일반화된 문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Giorgi, 1985; 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질적 분석 4단계 방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장을 대상으로 2차인 터뷰를 통한 문장 분류 및 평정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⑥ 문장 분류 및 평정

문장선정 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문장을 “Concept System Software”에 입력한 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생활영역별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다시 찾아갔다.

이들은 각각의 문장을 ‘유사해 보이는 것끼리’ 주머니에 모으는 작업과 ‘각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유사한 것끼리 분류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모든 문장에 대한 범주를 각각 만들지 말 것, 둘째 모든 문장을 하나의 집단으로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정도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척도의 중요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그저 그렇다(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자 대략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의견은 ‘concept system software’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⑦ 군집 수 확정 및 군집 명칭 정하기

9월 6일(수)부터 9월 8일(금)까지 사흘간 4명의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동질적인 내용으로 묶여진 최소의 군집수인 개념도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은 군집수가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 각 21개, 19개, 18개, 15개인 개념도에서 시작하여 평정 점수와 브리지(bridge) 점수를 고려하면서 군집의 수를 하나씩 줄여가며 적절한 군집 수를 찾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은 각 유형별로 대안학교 청소년 15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3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4개, 거리 청소년 8개인 개념도가 본 연

구의 내용의 가장 잘 반영하였다고 합의하였고 이후 각 군집의 하위 문장들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군집명칭을 명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빌 트로침(Bill Trochim)이 Concept System Inc.에서 개념도 연구법을 토대로 개발한 ‘Concept Systems Program Version 4’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확산되어 있지 않으나 소수의 선구적 연구들을 통해(정찬석, 2005;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연구에 대한 개념이나 기초적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및 생활영역
2.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3.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II. 이론적 고찰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및 생활영역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밖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도탈락자(중도탈락청소년),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비(非)학생 청소년, 중퇴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¹¹⁾, 학업중퇴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이 있다(김찬호, 2005; 조용태·배영태, 2003).

‘중도탈락자¹²⁾’ 라는 말은 가장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 뜻을 풀어보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고 낙오 내지 ‘탈선’ 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김찬호, 2005). 이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대부분 ‘학교부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한 1980년대 후반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숙영 등(1997)은 중도탈락을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업을 포기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부(1997)은 학교중도탈락을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

11) 부등교 청소년이란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본말이다. 일본 문부성에서는 연간 30일 이상 장기 결석자 가운데 ‘뭔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요인과 배경 때문에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상태를 부등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탈학교나 중퇴자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일본의 부등교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문부성의 발표에 따르면 13만 명으로 중학생 40명당 1명꼴이다(김찬호, 2005).

12)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아정체감 및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학습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학교로 복귀시키려는 연구나 복귀에 따른 적응문제에 대한 연구(문선화·신심중·이춘기, 1998)와 같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 방안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김민정·김혜영, 2001)

종의 사회일탈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중퇴’나 ‘자퇴’에서 ‘퇴’는 ‘퇴학’, ‘퇴출’ 등의 단어를 연상시킴으로써 뭔가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어서 밀려난 듯한 의미를 암암리에 함축한다. 한준상(1997)은 중퇴생을 “학교생활을 싫어하거나 학교생활과 관련이 없어서 학교와는 관계를 끊으려는 학생”, 김경식(1997)은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않은 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으로서 입학, 전·입학, 재입학, 복학 등의 재학상태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및 휴학 기간만료이후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을 포함하여 일컫는 것”, 이경림(2000)은 중퇴를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 현상으로 학생의 자의 또는 학교명령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송복 등(1996)은 학업중퇴 청소년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도 졸업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영숙(1999)은 “졸업을 하지 않고 학교를 떠난 자, 즉 ‘학교중퇴자’, ‘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복교한 학생’ 모두를 포괄하는 잠재적 중퇴청소년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신현숙·구본용(2002)은 “사망이나 전학(유학 포함)을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떠난 후 학교에 재등록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로서 ‘학업 중단자(학업중단 청소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김찬호(2005)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당한 청소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¹³⁾ 여전히 이 시기의 연구들은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와 함께 부정적인 관점들이 공존해 왔다.

13)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학업중단자’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는 ‘학업중단자’가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공부(학업)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업중단자’란 용어 대신 ‘(정규) 학교중단자’라는 개념을 활용한다(이소영, 2000).

최근에 와서는 이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한국청소년상담원, 2004a)’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으며, 한편에서는 2001년 이래로 학교밖 청소년을 돕는 체제를 개발하고 그 체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청소년-근로 청소년, 무직청소년, 비진학 청소년-등을 포괄하는 개념(한국청소년상담원, 2004b)이다. 그 결실로 2003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선행연구 개념정의와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로 하고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 요인들로 인해 자의·타의적으로 정규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및 생활영역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유형은 대부분 학업중단 혹은 학업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류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유형도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혜영(2002a)은 자퇴처리과정에서의 본인 의사반영 여부에 따라 ‘잘린 아이’와 때려치운 아이 ‘로 유형화하였으며 다른 학자들은 자퇴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김기태·류기형·최송식·최인욱·홍봉선·남미애, 1996)으로 지칭하였다. 조병주 등(2004)¹⁴⁾는 적극형 청소년과 소극형 청소년

14) 학교를 떠난 후 장기 혹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 청소년’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친구나 선후배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소극적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조병주·소

년으로 구분하였다.

이숙영(1997)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크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눈 후, 다시 적응형의 유형을 복교하거나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거나 대안학교에서 수학하는 진학형과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정착하는 취업형, 사설 기술학원·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형으로 세분화하고 부적응형의 유형을 다시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보호관찰중, 요양중),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세분화하였다.

박창남 등(2001)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한 후 정착형을 진학형(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 취업형, 취업훈련형으로 세분화하고 비정착형을 시설수용형(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 방치형으로 세분화시켜 분류하고 있다.

김동일(2004)는 이숙영(1997)의 분류를 약간 수정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적응형(진학형, 건전직장취업형, 취업준비형), 부적응형(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보호관찰중),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가출청소년), 요치료형(치로나 요양 중인 청소년), 자유방임형(목적이 없거나 자유방임형 청소년)으로 유형화하였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지역사회통합연구소(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 ICI, 1994)는 중퇴생을 (ㄱ) 징계 즉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여 학교에서 밀려난 학생들(pushouts), (ㄴ) 더 이상 학교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disaffiliates), (ㄷ) 학교의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적 사망자들(educational mortalities), (ㄹ) 가정의 사회화 관습이 학교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아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capable dropouts), (ㅁ) 학교를 떠난 이후 동일 학년 중에 복학한 학생 등(stopouts, retureness, drop-ins), (ㅂ) 학교를 중퇴한 이후 복학하지 않은 청소년들(stayouts)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숙영(1997년)과 박창남(2001)의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을 바탕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다음 살펴보면 다음 <표Ⅱ-1>과 같다.

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 2004).

〈표 II-1〉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에 관한 논의

이숙영(1997)			박창남(2001)	
적응형		진학형	정착형	진학형
		건전직장 취업형		취업형
		취업준비형		직업훈련형
부적응형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	소년원 수용	비정착형	시설수용형
		보호관찰중		
		요양중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방치된 비행청소년		방치형
		유형업소 취업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		

본 연구는 비교적 가장 최근 연구이며 전국단위의 연구를 실시한 박창남(2001)의 학교밖 청소년 유형을 근간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주된 생활영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이 각 유형을 대표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비교를 통해 생활영역별 학교밖 청소년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영역별 차별적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학교밖 청소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책적 의미, 효용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대표적 생활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창남(2001)의 유형분류를 참고로 생활영역이 비교적 명확하고 정책적 효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진학형, 직업훈련형, 시설수용형, 방치형의 대표적 생활영역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로 보고 이를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으로 새로이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1) 학교밖 청소년의 전체규모

한국교육개발원(2005)의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수는 중학교 14,165명, 고등학교 24,037명(일반계 고등학교 9,427명, 실업계고등학교 14,610명)으로 총 38,202명에 달한다. 이는 1970년대의 57,756명에 비하면 감소한 숫자이나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을 나타낸다. 2004년 교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0.7%, 일반계 고등학교의 0.8%, 실업계고등학교의 2.8%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표 II-2> 연도별 학업중단률 (단위: 명,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비율	학업 중단자	비율	학업 중단자	비율	학업 중단자	비율
1970	36,087	2.7	21,669	3.7	10,304	3.3	11,365	4.1
1975	47,127	2.3	34,611	3.1	19,663	3.0	14,948	3.1
1980	35,439	1.4	50,698	3.0	24,528	2.6	26,170	3.4
1985	33,589	1.2	71,571	3.3	33,660	2.7	37,911	4.3
1990	22,348	1.0	53,865	2.4	27,649	1.9	26,216	3.2
1995	23,938	1.0	52,847	2.4	17,218	1.4	35,629	3.9
2000	13,045	0.7	47,456	2.3	14,852	1.1	32,604	4.4
2001	12,519	0.7	42,529	2.2	15,101	1.2	27,428	4.2
2002	9,262	0.5	33,437	1.9	12,421	1.0	21,016	3.7
2003	13,276	0.7	27,037	1.6	10,485	0.9	17,145	3.2
2004	14,165	0.7	24,037	1.4	9,427	0.8	14,610	2.8

- ※ 주: 1) 학업중단률=(학업중단수/당해년도 재적학생수)×100
 2) 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률(유예자·면제자수/당해 연도 재적 학생수)×100으로 산출함.
 3)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중퇴 및 휴학자임.
 4) 1995학년도 이전에는 원자료에 사망자 및 유학·이민자의 구분이 없으며,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는 원자료에 사망자는 제시되었으나 유학·이민자의 구분이 없음.
 5) 구분에 표시된 연도는 학년도를 나타냄(2004로 표시된 부분은 2004학년도로 2005년 연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2004학년도 시도별 학업중단률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서울(1.1%), 대전·경기·충남(0.8%), 인천(0.7%), 강원·충북·전북·전남·제주(0.6%), 부산·광주·경남(0.5%), 대구·울산·경북(0.4%)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3> 시도별 학업중단률(2004학년도¹⁵⁾)

(단위: 명,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비율	학업 중단자	비율	학업 중단자	비율	학업 중단자	비율
전체	14,165	0.7	24,037	1.4	9,427	0.8	14,610	2.8
서울	4,198	1.1	5,126	1.4	2,168	0.8	2,958	4.1
부산	761	0.5	1,775	1.3	459	0.5	1,316	2.8
대구	462	0.4	937	0.9	408	0.5	529	2.1
인천	856	0.7	1,210	1.2	569	0.8	641	2.2
광주	355	0.5	882	0.5	416	1.0	466	3.1
대전	525	0.8	795	1.4	389	0.9	406	2.9
울산	220	0.4	465	1.1	139	0.4	326	2.8
경기	3,544	0.8	4,663	1.3	1,855	0.8	2,808	2.6
강원	370	0.6	915	1.7	267	0.9	648	2.4
충북	327	0.6	803	1.5	323	0.9	480	2.4
충남	543	0.8	1,092	1.6	497	1.0	595	3.0
전북	440	0.6	1,202	1.7	342	0.8	860	2.9
전남	422	0.6	1,126	1.6	377	0.9	749	2.9
경북	416	0.4	1,203	1.3	458	0.7	745	2.5
경남	603	0.5	1,525	1.4	676	0.8	849	2.7
제주	123	0.6	318	1.7	84	0.7	234	3.4

※ 주: 1) 학업중단률=(학업중단수/당해년도 재적학생수)×100

2) 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률을(유예자면제자수/당해년도 재적학생수)×100으로 산출함.

3)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중퇴 및 휴학자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5) 교육통계연보에서의 학년도는 당해년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의미한다. 즉 2004학년도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수치를 말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원·전북·제주(1.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남·전남(1.6%), 충북(1.5%), 대전·서울·경남(1.4%)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0.7%)에 비해 고등학교(1.4%)의 학업중단률이 현저히 높았으며 고등학교 중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2.8%)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0.8%)보다 현저히 높았다.

연도별, 사유별 중도탈락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의 경우 유학/이민(40.6%), 기타(27.8%), 품행/부적응(25.0%), 사망/질병(6.75)의 순으로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기타(40.5%), 유학/이민(26.1%), 품행/부적응(25.6%), 사망/질병(7.8%)순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품행/부적응(52.3%), 기타(42.5%), 사망/질병(3.9%), 유학/이민(1.4%)의 순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유학/이민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품행/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I-4> 연도별, 사유별 중도탈락자 구성비(2000년~2003년)
(단위:%)

구분	2000	2001	2002	2003
중학교				
사망, 질병	6.8	6.0	5.5	6.7
품행/부적응	35.6	32.8	26.8	25.0
유학/이민	23.6	30.2	35.7	40.6
기타	34.0	31.1	32.0	27.8
일반계 고등학교				
사망, 질병	10.4	8.6	7.7	7.8
품행/부적응	29.1	29.1	26.0	25.6
유학/이민	14.5	20.0	23.9	26.1
기타	46.0	42.3	42.4	40.5
실업계 고등학교				
사망, 질병	4.2	3.4	4.0	3.9
품행/부적응	54.1	52.8	50.9	52.3
유학/이민	0.7	0.9	1.1	1.4
기타	40.9	42.8	44.0	42.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지역규모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사망/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은 도서벽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대도시 5.9%, 중소도시 6.4%, 읍면지역 13.2%, 도서벽지 24.2%), 품행/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은 대도시(23.7%)에 비해 중소도시(26.4%), 읍면지역(28.6%), 도서벽지(27.3%)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유학/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은 대도시(45.7%)가 중소도시(38.1%), 읍·면지역(16.2%), 도서벽지(3.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사망,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은 도서벽지가 가장 높고(9.0%), 읍·면지역(5.1%)이 가장 낮았으며 품행/부적응으로 인한 중단비율은 대도시(19.9%)가 가장 낮고 읍면지역(40.8%)이나 도서벽지(38.8%)로 갈수록 높았다. 유학/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대도시(33.3%)로 갈수록 높았다. 실업계의 경우 이와 반대로 유학/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도서벽지(3.2%)에서 가장 높았다.

<표 II-5> 지역규모별, 사유별 중도탈락자 구성비(2004년) (단위:%)

구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중학교					
사망, 질병	6.7	5.9	6.4	13.2	24.2
품행/부적응	25.0	23.7	26.4	28.6	27.3
유학/이민	40.6	45.7	38.1	16.2	3.0
기타	27.8	24.8	29.3	42.0	45.5
일반계 고등학교					
사망, 질병	7.8	8.1	8.5	5.1	9.0
품행/부적응	25.6	19.9	26.9	40.8	38.8
유학/이민	26.1	33.3	26.5	3.5	4.5
기타	40.5	38.7	38.1	50.6	47.8
실업계 고등학교					
사망, 질병	3.9	3.9	4.4	3.1	3.5
품행/부적응	52.3	58.5	49.7	43.5	64.4
유학/이민	1.4	1.5	1.7	0.7	3.2
기타	42.5	36.1	44.2	52.7	28.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780만 명 가운데 2005년 한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총 55,525명(0.71%)이며 학교를 마치지 않고 떠난 초·중·고교생의 숫자는 2002년 8만6천명에서 2003년 7만4천명, 2004년 7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초·중·고생 144만 명 중 1만3천719명이 학업을 중단한 서울이 0.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47%로 가장 낮았다. 각 급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교가 전체 학생 50만 명 중 1만2천910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해 가장 높은 2.57%의 중도이탈률을 보였고, 일반계 고교(0.81%), 중학교(0.78%), 초등학교(0.42%)가 뒤를 따랐다. 사립초교는 국공립에 비해 중도이탈률이 2배 이상 높았다. 2005년 중도이탈자 5만5천여 명 중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3만1천880명으로 복귀율은 57%였다. 중·고생의 경우 중도이탈자 3만8천732명중 2만3천446명이 복귀하지 않아 미복귀율이 61%에 달했고, 특히 실업계고에서는 87%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대략 한 해에 최소 2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초·중·고교를 중단한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중 40% 안팎이 유학·이민으로 인한 중퇴임을 고려했을 때, 이민이나 해외학교 진학 청소년을 제외하고도 한 해 최소 12,000명 정도의 학교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단순 계산치로 누적인구를 합산할 경우 현 시점에서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해당되는 학교밖 청소년의 인구는 대략 144,000명에 이를 것이며, 이 중 다양한 형태의 학교제도로의 재유입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0만 가량의 학교밖 청소년¹⁶⁾이 있을 것으로 임의 추정된다.

2) 생활영역별 학교밖 청소년 규모

생활영역별 학교밖 청소년의 규모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

16) 본 추산치는 학교밖 청소년의 대략적 규모를 파악해 보기 위한 단순추정치로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학교밖 추정치(5만명)과는 차이가 있다.

구를 살펴보면 <표Ⅱ-6>과 같다. <표Ⅱ-6>의 청소년 연령¹⁷⁾은 청소년 기본법상 9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한다. <표Ⅱ-6>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총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는 1960년대 31.8%에서 2005년 22.9%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청소년 인구구성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그림Ⅱ-1]과 같다.

<표Ⅱ-6> 청소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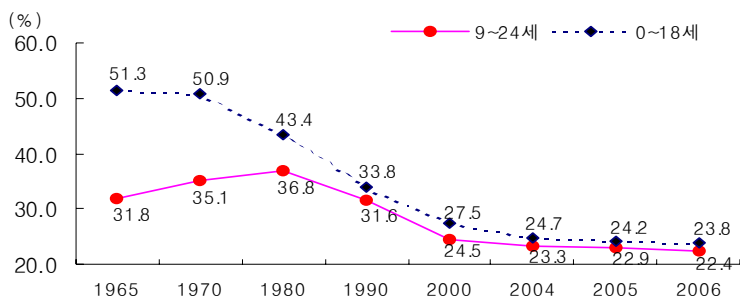
(단위 : 천명)

년 도	총인구	청 소 년 인 구(9세~24세)			
		계	남 자	여 자	총인구대비율
'60	25,012	7,957	4,073	3,884	31.8%
'65	28,705	9,121	4,700	4,421	31.8%
'70	32,241	11,330	5,849	5,481	35.1%
'75	35,281	12,886	6,652	6,234	36.5%
'80	38,124	14,015	7,216	6,799	36.8%
'85	40,806	13,975	7,188	6,787	34.2%
'90	42,869	13,570	6,988	6,582	31.7%
'95	45,092	12,751	6,581	6,170	28.3%
'99	46,858	11,640	6,035	5,605	24.8%
'00	47,275	11,485	5,965	5,520	24.3%
'01	47,343	11,420	5,954	5,466	24.1%
'02	47,639	11,378	5,946	5,432	23.9%
'03	47,925	11,330	5,937	5,393	23.6%
'04	48,199	11,242	5,905	5,337	23.3%
'05	48,461	11,101	5,845	5,256	22.9%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2005 청소년정책자료.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즉,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남자 5,845천명이며 여자 5,256천명이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5b) 이중 초·중·고생은 약 7,800천명이다(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17) 청소년의 연령명칭은 각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24세(청소년육성차원)이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18세 이하(청소년복지차원)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19세미만(청소년보호차원)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20세미만(청소년교정차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연령 차이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고 행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는 최대한 보장·지원하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제한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유엔의 청소년 규정은 15세에서 24세이며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연령기준은 10세부터 24세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b, http://youth.go.kr/Library/Statistical_list.asp, 2005년 10월 15일에 인용).



[그림 II-1] 청소년 인구구성비

청소년 인구의 약 70.26%가 초·중·고등학생인 것이다. 이 가운데 2005년 한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총 55,525명 (0.71%)으로 전체 청소년인구의 0.5%,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0.71%를 차지한다. 즉 전체 청소년인구 200명중 한 명은 초·중·고등학교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떠나 학교밖 청소년으로 생활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2006년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통계청,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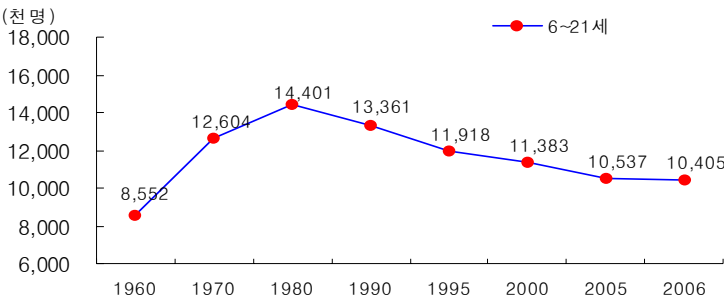
<표 II-7> 학령인구

(단위 : 천명)

년도	계 (6~21세)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37	4,018	2,064	1,840	2,615
2006	10,405	3,915	2,099	1,891	2,500

* 출처: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서울: 통계청.

2006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라 할 수 있는 6~21세 인구는 10,405천명이며, 연령대별로는 6~11세 인구(초등학교)가 3,915천명, 12~14세(중학교) 2,099천명, 15~17세(고등학교) 1,891천명, 18~21세(대학교) 2,500천명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1천명)에 비해 27.7%(3,996천명) 감소한 것이며, 2005년에 비해서도 1.3%(132천명)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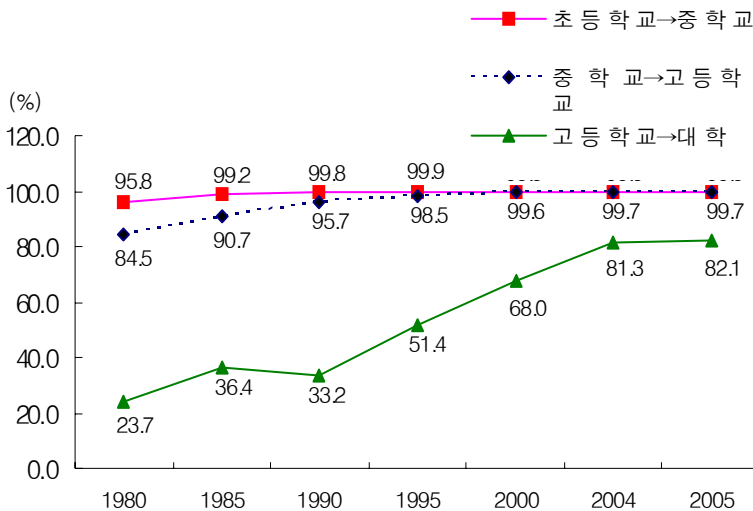
[그림 II-2] 학령인구변동추이

2005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2003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교급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학교급별 진학률¹⁾ (단위 : %)

년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80	95.8	94.1	84.5	80.8	23.7	22.5
1985	99.2	99.1	90.7	88.2	36.4	34.1
1990	99.8	99.8	95.7	95.0	33.2	32.4
1995	99.9	99.9	98.5	98.4	51.4	49.8
2000	99.93)	99.93)	99.6	99.6	68.0	65.4
2004	99.93)	99.93)	99.7	99.7	81.3	79.7
2005	99.93)	99.93)	99.7	99.8	82.1	80.8

※ 주 : 1) 진학률= (상급학교 진학자 수/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 출처: 통계청(2006). 소년통계. 서울: 통계청.



[그림 II-3] 진학률 변동추이

학교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생활영역별 규모를 본 연구의 대상인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경우 정부가 중도이탈자 등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대안학교는 2005년 12월 현재 고교 21곳, 중학교 7곳으로 모두 2천48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2005년 6월 현재 교육부 인가 대안특성화학교 현황은 다음 <표 II-9>와 같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초·중·고교 과정 68개교(학생수 2천922명)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해마다 최소 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그 중 반 정도만이 1년 안에 복교한다. 복교하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축적됨을 고려할 때 비인가·인가를 합쳐 5,000여명의 학교밖 청소년만이 대안특성화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9> 교육부 인가 대안특성화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지정연도)	모집인원(설립별)	교원수	학생수
부산	지구촌고(2002년)	30(사립)	16	47
대구	달구벌고(2003년)	40(사립)	12	70
인천	산마을고(2000년)	20(사립)	10	50
광주	동명고(1999년)	40(사립)	17	120
경기	두레자연고(1999년)	40(사립)	15	119
	경기대명고(2002년)	60(공립)	17	95
	이우고(2003년)	80(사립)	23	213
강원	전인고(2005년)	20(사립)	10	15
충북	양업고(1998년)	40(사립)	16	105
충남	한마음고(2003년)	40(사립)	14	82
	공동체비전고(2003년)	15(사립)	10	51
전북	세인고(1999년)	40(사립)	15	120
	푸른꿈고(1999년)	25(사립)	10	72
전남	영산성지고(1998년)	40(사립)	16	96
	한빛고(1998년)	100(사립)	19	157
경북	경주화랑고(1998년)	40(사립)	14	113
경남	간디학교(1998년)	40(사립)	14	98
	원경고(1998년)	40(사립)	17	101
	지리산고(2004년)	20(사립)	6	30
	고등학교 19교		271	1,754
경기	헌산중(2003년)	20(사립)	10	57
	두레자연중(2003년)	20(사립)	7	40
	이우중(2003년)	60(사립)	15	185
전북	지평선중(2003년)	20(사립)	10	61
전남	성지송학중(2002년)	20(사립)	10	64
	용정중(2003년)	24(사립)	10	69
중학교 6교			62	476
25교			333	2,230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대안특성화학교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정보자료실. (<http://www.moe.go.kr/administrative/>)

둘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전국 21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 직업전문학교는 기계와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19개 분야, 51개 직종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주로 국비로 기능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 직업전문학교는 IT, 예술, 항공, 관광 등 특색 있는 과정을 학교별로 갖추고 있으며 전국에 2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세에서 60세까지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전문학교 내의 정규 학교중단 청소년의 규모파악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직업전문학교 10 곳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 수는 10여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 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이 정규고등학교로부터 위탁받은 고3 위탁교육생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추정해 보건데 전국의 국립·사립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수는 최대 2,500명을 넘기 어려울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필수적이고, 사설 직업훈련학원의 비용적 문제로 청소년의 이용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수용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셋째, 소년교정보호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의 평균 수용인원은 지난 2001년 3,127명이었으나 이후 매년 200~600명가량 감소세를 지속, 2006년 현재 1,6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연합뉴스, 2006년 6월 5일자). 또한 2005년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인·청소년을 통틀어 14만 6895명이며 2006년 4월 현재까지 5만 1018명의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서울신문, 2006년 5월 23일자). 2005년 기준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총 1,000여명에 이른다(법무부, <http://www.moj.go.kr/>, 2006년 10월 15일 인용).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2004년 수용인원은 5,925명(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이다. 즉 대략적인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의 수는 약 9,000 명 정도이다.

선행연구(박창남, 2001)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진학형, 취업형, 직업훈련형, 시설수용형, 방치형으로 나눈 것과 위의 추정결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연령 전인 15세에서 18세의 취업 인구(통계청, <http://www.nso.go.kr/>, 2006년 10월 15일 인용)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0만 명의 학교밖 청소년 중 인가·비인가 대안학교에 소속된 청소년의 수는 최대 5,000 여명,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최대 2,500여 명, 시설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최대 9,000 여명이다. 일부 취업¹⁸⁾한 인구와 사설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받는 인구,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약 80,000여 명은 아무런 국가적·제도적 지원 없이 스스로 혹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만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3.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학교밖 청소년들의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원과 여건을 효과적으로 적용·활용할 뿐 아니라 각 부처와 기관·단체 간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의 특성과 업무영역 등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단기간에 통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각 부처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청소년 지원업무 체계의 연계협력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18) 2006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사이의 취업인구는 2003년 272,000 여명, 2004년 258,000 여명, 2005년 243,000 여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노동백서, 2006). 노동백서 뿐 아니라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는 모두 5세 간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중 정규학교를 중단한 연령인 만 15세에서 만 17세 연령의 취업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예상컨대 위 취업인구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인 만 18세에서 만 19세 취업연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위 추산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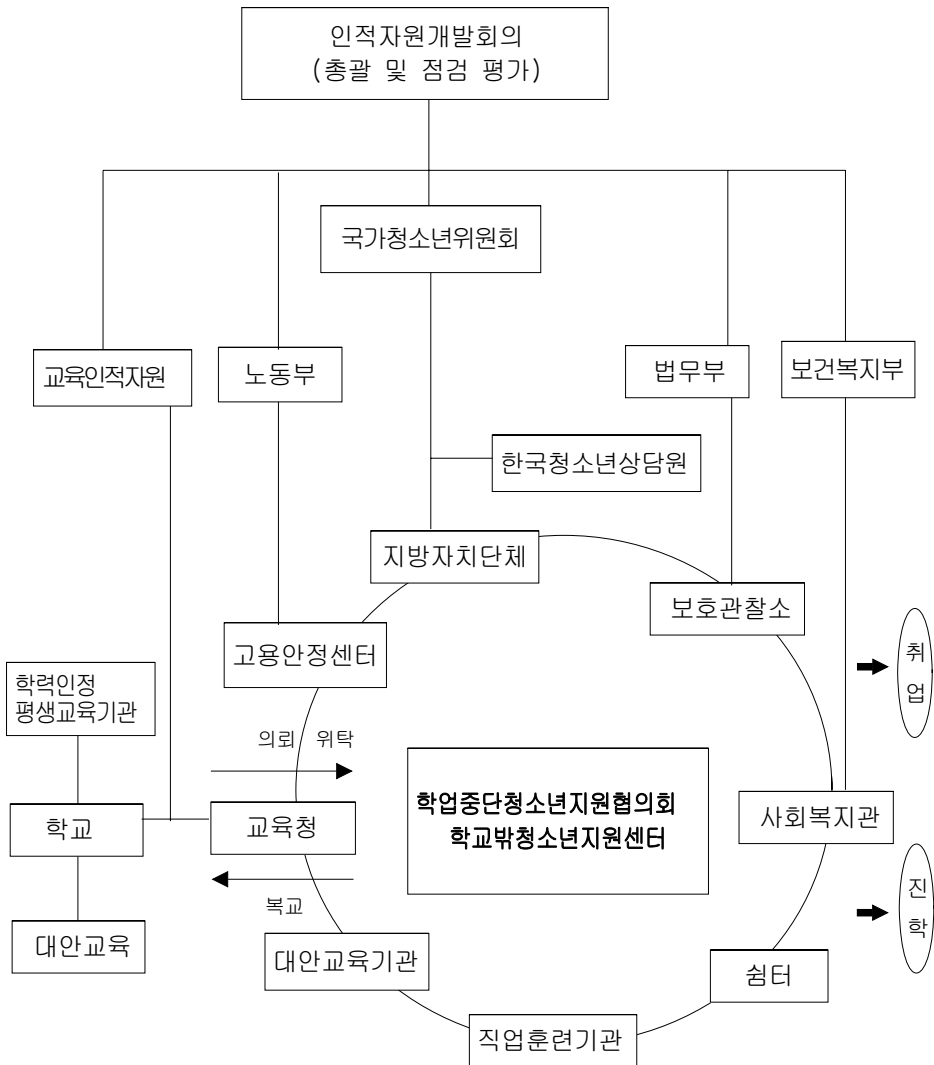
1) 국내

(1)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 44조 1항에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능에 ‘학업중단청소년관련사업에대한지도및지원’ 사업과 청소년기본법 제 49조 4항에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시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대책수립’ 내용이 포함됨으로서 이루어졌다(허철수,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중전 문화관광부)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예산확보·지원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밖 어려운 청소년들의 기초생활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교밖 청소년 정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로 대표되며 2006년에 들어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으로 그 기능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은 초·중·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증가와 이들의 사회적 부적응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대처할 주요 안건으로 채택된 것에서 기인한다(금명자·주영아·김태성·이자영·김상수·신현수, 2005). 2차년도에 걸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학교밖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그림 II-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해밀’운영 모형

시범운영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시범운영지역이 선정(광주, 경기, 제주)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www.hemilcenter.or.kr)가 개발 운영되었고 학교밖길찾기 가이드북, 포스터, 팸플릿 등이 제작, 배포되었다. 2005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 신규시범운영지역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로 확대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의 운영모형은 [그림 II-4]와 같다.

②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안에서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해밀을 통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2006년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통합 운영 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긴급구조·시설보호·치료·자활·학업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센터」가 설치·운영(5개소)되며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 종합적 복지서비스 기능 수행 기관으로 개편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은 2005년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긴급전화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상담전화수가 132개소 280회선, 일평균 통화 123건에서 17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시설 체계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시·단기보호(6개월 이내)에서 중·장기 보호(15개소)로 확대 개편하고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요약컨대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CYS-Net) 확대의 세 가지 주된 골자는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기능 외에 구조·시설보호·치료 및 재활·학업·자활 등 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복지 투자사업 추진으로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전략 마련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복지 인프라를 확대 및 활성화하는 것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이러한 정책방안은 잠재적 위기청소년과 가정·학교 등 보호망을 이탈한 위기청소년의 급증¹⁹⁾, 학

19)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나 연간 쉼터 이용 청소년은 3,90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5).

업중단 기간 경과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증가(1~6개월 5.5% → 6개월 이후 11.0%), 비행 청소년 교정과정 이후 적절한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학습·자활·취업 등 사회부적응이 심화(재범률 : ’97년 29.0% → ’03년 35.0%)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은 크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고위험군의 경우 40만 명 <학업중단(5만), 가출(10만), 비행(10만), 폭력(15만)>등, 중위험군의 경우 70만 명에 달하는 추산치와 관련되어 있다.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 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을 통한 복지지원서비스 효율성 제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청소년센터의 상담·위기 연계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기능을 통합수행(16개 시·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강화, 전화상담·구조·치료·자활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군·구 청소년센터의 청소년복합지원 중심 기관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121개)를 기존 청소년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센터수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상담·위기개입·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전화 1388 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24시간 원스톱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긴급상담, 안내, 쉼터 연계 등 서비스 범위 확대, 129 복지콜 전화 등 유관 전화망과의 연계운영)하고 1388 긴급구조지원단을 결성하고 지역협력체계를 강화(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센터 내 상시운영체제 구축, 병원, 약국, PC방 등과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한다.

셋째, 위기청소년 보호·복지시설 확충 및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성, 상황·요구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시설을 확충(일시쉼터 : 2005년 4개소 → 2006년 13개소, 단기쉼터 : 2005년 19개소 → 2006년 35개소, 중·장기쉼터 : 2005년 15개소 → 2006년 20개소)하고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넷째,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가출예방 캠페인, 가출청소년 건강(의료)·심리·학습·자활·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수행하는 학교밖 청소년관련 세부 사업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비정규학교 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4년 12월말 현재 158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²⁰⁾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989년에 처음 시작된 비공식적 교육기관 지원은 크게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과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94년도에 155개교에 각 150만원씩(청소년육성기금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총 261백만원을 지원하여 비정규학교의 시설비, 임차보증금, 월세, 교구설비 및 교과서, 문구류 구입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나 1995년도부터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임차료보다는 학생들의 교재 및 교구 구입과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도에는 158개교에 각 700만원씩 지원하되 규모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규학교에 대한 문예행사 지원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문예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서예, 체험활동 행사로 매년 5-11월중에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문화유적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 연수기회를 제공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20)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야간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 학교 등 이른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이다. 비정규학교는 초·중·고·대학 등 각급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정규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나.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및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은 198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매년 5월부터 11월에 걸쳐 1회씩 개최되고 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체험활동은 무직·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영, 카누 등 수상활동과 야영, 오리엔티어링, 등반 등 육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전국에 427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설한 단체 중 사회봉사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및 뜻있는 개인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관할 시·도에서는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1개소당 사용면적은 25평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운영요원은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종교인, 주부 등의 전임자원봉사자를 1개소당 최소한 1명, 일일자원봉사자를 1-2명 배치하여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1개소당 연간예산은 시설운영,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이며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을 분담·지원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라.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청소년쉼터’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1992년 개소한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처음이다. 2004년 현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 쉼터는 40 여개에 달하며 이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국비)의 지원만 받고 있는 곳은 1개소(서울 YMCA쉼터)이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곳은 22개소, 지방비만 지원받고 있는 곳은 7개소, 자부담 또는 예산구조가 파악되지 않은 곳은 10개소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쉼터는 총 18개소이며 이러한 쉼터는 행정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설치·운영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마. 드롭인 센터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긴급보호시설인 ‘드롭인 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했으며 모든 광역시에 드롭인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가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전철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행계획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ㄱ) 전국민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과 대상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ㄴ) 진취적·창의적 청소년 문화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학부모 단체

간의 관련 단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ㄷ) 사회적 취약 계층의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 실업자를 기능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

둘째, 2003년 7월에 수립된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ㄱ)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1997년 9월 학교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2001년 10월 31일 소규모 학교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을 개정 공포하였다. (ㄴ) 위탁교육기관을 운영·선정하여 위탁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 등 학사관리 지침외의 ‘위탁절차 및 위탁기관 선정 등’은 교육감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하고 필요시 지역단위 ‘학업중단 청소년지원협의회’(가칭)와 협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기 중퇴한 학생에 대해서 복학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을 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위탁 과정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있다(금명자·권혜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위학교

단위학교에서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활용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의 심층 실태파악 및 조기개입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전담하는 창구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학교부적응 및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회에 위탁·의뢰를 정례화 하여 중단 전후 과정에 전문적 상담기회를 부여하고 조기개입 및 지속적 보호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상담인력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을 학교밖청소년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허철수, 2004).

② 대안학교

대안학교에서는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기관에 전학 및 입학을 허용하거

나, 학력인정 대안교육 프로그램 위탁기관으로 의뢰, 중졸·고졸 검정고시 지원 및 수능준비 지원을 실시한다(허철수, 2004). 이는 정규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학교와는 구별되는 형태이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2005년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운영현황은 중학교 6개교(학생수 476명, 교원 62명), 고등학교 9개교(학생수 1,754명, 교원수 271명)이다.

③ 프로그램(Program) 형태

프로그램 형태는 정규 학교교육의 제한점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계절학교, 주말학교, 방과후 학교 등에서 실시(비인가)되고 있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2004년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관련기관에 단기대안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및 시행하였다.

④ 실험형 대안교육

정규 학교교육과는 다른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실험형 대안교육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비인가 상설학교라고도 한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경기도 안산의 들꽃 피는 학교, 서울의 도시속 작은 학교, 전북 변산의 공동체 학교,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3) 법무부

법무부는 2004년 6월 법무부 주요 정책 과제 및 자체 평가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선진 보호 행정기반 확충을 통한 보호행정의 선진화와민간 사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무·검찰 관계자회의 개최 및 일선 실태 조사 등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내실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주민, 유관기관·단체와 보호관찰 관련 협력사업 전개, 범죄예방위원 공개 모집과 전산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우수자원봉사자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등 민간 사회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및 활동역량 강화를 실시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범죄 유형별 지도 기법 개발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였다. 넷째,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청소년 범죄 대처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퇴원생의 사회 정착 및 비행 예방을 위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2004년 10월 ‘보호청소년 상담 조사제’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들의 누범률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출장 상담 조사는 18개 시도청소년상담 실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되고 3일에서 6일간 해당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적성 검사·피해자 체험,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법무부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서비스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기관들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수용·보호하여 비행을 단절·예방하며 환경조사·각종심리검사·신체검사·행동관찰을 통한 정신의학적 진단, 특별교육과정 개설·운영(정보통신, 체능, 예능교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기술교육을 통한 각종 자격증 획득 및 검정고시 기회제공, 위탁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의 실용교육과정 개설 운영과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독자적이고 정규적인 학업,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소년원(부산, 광주, 대전)을 정규학교로 전환하였다(허창수, 2004).

법무부의 학교밖 청소년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소에서는 체계적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사업, 집중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체계적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무직·비진학자(학업중단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의 교사를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생활지도 및 가정문제, 개인적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업훈련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대상자들의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집중보호관찰의 대상은 소년원을 가퇴원한 대상자, 일반보호관찰대상자중 학업중단자, 직업이 없거나 가족의 보호의지가 미약한 자,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가담 중이거나 가담했던 자, 유해화학물질이나 마약을 흡입한 자, 집중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대상자 관리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문적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원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주된 사업 내용은 법원 소년원으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는 것, 비행원인과 자질을 규명, 법원의 조사 심리자료를 제공하는 것,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 등에게 처우지침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문신제거기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분류심사과정은 1차 환경조사·상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정신의학진단이며 2차 2차 상담, 보호자 상담, 자료 확인, 행동관찰 후 분류심사회의 및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소년부에 통보한다. 분류심사방법은 환경조사(가정, 학교, 사회환경조사), 신체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각종조회 기록, 보호자 상담, 현지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 18조제3항에 의거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2000년 수용인원은 10,160명이었으나 해마다 감소하여 2004년에는 5,925명으로 줄었고, 일일평균수용인원도 699명에서 367명으로 감소하였다. 2004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109명이었는데 이중 일반분류심사는 3,678명이 특수분류심사는 1,431명이 받았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③ 소년원

소년원은 전국에 1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17개 소년보호 기관 중 대전소년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등 8개 기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근 소년원으로 통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공무원임용령 개정('07.1. 시행)으로 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을 통합하여 직렬간의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소년원·보호관찰소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조성하고 있다(법무부, <http://www.moj.go.kr>, 2006년 10월 15일 인용).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한 재범 예방을 위해 소년원 외부에 설치된 전국의 6개 자립생활관을 활용하여 소년원 출원전 보호소년들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취업·진로지도를 받게 하는 중간처우를 실시하여 사회적응을 촉진한다. 또한 소년원생 출원시 사후지도 장치가 미비한 퇴원처리는 줄이고 보호관찰이 의무화되어 있는 가퇴원을 확대하여 출원생의 사회적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행예방책을 강구한다. 또한 소년원 출원생의 효과적인 사후지도와 보호관찰 경력 있는 소년의 교육을 위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혁신·재편하고 있다.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망한 직종 위주로 재편하여 퇴원 후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소년원생의 재범예방을 위해 대구·춘천·제주소년원을 인성교육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그 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여 비행성 개선 및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안산소년원을 대안교육센터로 전환하여 학교중도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부터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또한 소년보호기관에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소년범 대상의 수강명령집행에 활용함으로써 보호관찰소와

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을 개편하여 소년원생 등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기반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세대의 특성에 맞는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소년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토순례 대장정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전국 14개 소년원에서 모인 68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보호소년지도위원 등 총 280여명이 참가하는 『제2회 소년원학생 국토순례 대장정』 행사가 이루어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8박 9일 동안 함께 걷고 숙식을 하면서 안보현장 견학, 탭댄스 및 뮤지컬 공연관람, 촛불의식,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하루 평균 약 30km, 총 600리 장정을 통해 질서의식과 극기심을 배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학부모와 보호소년지도위원 등 외부참가자에게 소년원의 개방적 교육체제와 비행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야영훈련, 청소년수련캠프 등 개방적 체험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고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에 있다(법무부, <http://www.moj.go.kr>, 2006년 10월 15일 인용).

(4) 노동부

노동부의 학교밖 청소년 관련정책은 크게 고용정책, 능력개발정책, 고용평등정책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각각의 사항과 그 대표적인 예에 관한 내용이다.

① 고용정책

고용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부는 취업알선 및 직업소개사업, 자활지원사업, 청소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취업알선 및 직업소개사업의 목적은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며 대상은 근로능력 및 자활욕구,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타 자활프로그램 참가보다 집중적인 구직활동 지원으로 노동시장에의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내용은 취업대상자 특성

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희망 직종에의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기타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자활지원사업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의 고취와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자동차 운전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대상은 지자체에서 의뢰되는 취업대상자 전원이며 지자체 자활근로 장기간 참여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이다. 내용은 직업적응훈련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후 적응훈련과정 투입(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담당)하고 기관에 수강신청(취업대상자)한 후 훈련비 및 식대, 교통비를 지원한다.

셋째, 청년실업대책은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비진학청소년, 신규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인업체 개척 사업을 실시(2,800 여명)하고 있다. 이 대책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② 능력개발정책: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

노동부의 학교밖 청소년 능력개발정책은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허철수, 2004).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지원의 목적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도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참여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등 15세-65세 미만인 자이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매년 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취업 및 창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으로 노동부가 인·지정한 훈련과정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촉진훈련수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훈련수강이 가능하다. 인력양성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생산직 관련 직종의 인력양성·공급으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이며 정부위탁훈련 및 훈련수당을 월 20만원씩 40여 기관 36개 직종훈련

에 (2004년 현재)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의 인력 양성훈련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공단 내 직업전문학교가 2004년 현재 전국에 21곳이며 정부위탁훈련기관은 전국 40곳(2003년 기준) 총 6,885명이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이들 기관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기회 제공, 기능사양성과정 참여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처우 및 인권침해에 적절한 대응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보호, 노동법률 또는 고충상담서비스 제공, 학교밖청소년 개인 특성에 따른 직업알선, 아르바이트와 취업 기회 적극적 제공, 진로지도와 교육서비스 등 학교밖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조건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 싶어요’ 라는 이름의 연소자를 위한 근로기준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허철수, 2004).

③ 고용평등정책: 연소자 근로보호

고용평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연소근로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 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인 자는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근로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다수고용업소 907곳 중 431곳(47.5%)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12.5%만이 근로계약을 서면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연소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소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법규는 1946년 미군정시의 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 법규는 이듬해인 1947년에 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과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에는 근로기

준법을 제정, 제 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62조). 근로기준법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5세미만인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단,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유해, 위험하지 않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ILO 협약 제 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2000. 1.28부터는 취업최저연령이 13세로 제한되었다. 둘째, 사용금지(제63조)와 관련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셋째,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64조).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연소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넷째, 근로계약(제65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임금청구(제66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근로시간(제67조). 15세 이상 18세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주당 근로시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일곱째,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제68조). 18세미만 근로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

만,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여덟째, 갯내 근로금지(제 70조). 18세미만 근로자는 갯내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갯내의 근로환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진폐의 우려 등 보건상 유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a).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학교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중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지방화 시대에 적합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복지수준 향상기반을 마련하였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ㄱ) 복지대상자 조사·선정, 상담,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ㄴ) 자활근로,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ㄷ)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이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6)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서비스는 가정위탁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로 대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사업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4년 2월 9일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되었으며 2004년 6월부터 3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이 실시되었다.

2005년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방 센터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담당,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상담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 등 수행하며 사도를 통해 시·군·구의 신청을 받되, 전국으로의 파급효과, 지역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권역을 나누어 선정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 형성·유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내용 자문, 수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며 종사(예정)인력 교육훈련(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실시, 상·하반기중 각 1회 이상 워크숍 개최 등),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건강가정 정보 DB화(프로그램·사업기관수행인력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전국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등을 실시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1개소,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6개소(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 인천 부평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가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06년 10월 15일 인용).

(7) 경찰청

경찰청의 학교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소년경찰 직무 규칙²¹⁾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학교밖 청소년과

21) 경찰청 학교밖 청소년 관련 정책 직무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소년경찰활동은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둘째,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선도단체와 협조하여 ‘1가정 1청소년 결연운동’ 등 지역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추진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소년범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원상담봉사자 제도 시범 운영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촉하여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서울 송파경찰서, 수원 남부경찰서(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수원시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등에서 상담원을 활용하여 자원상담봉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다이버전(diversion)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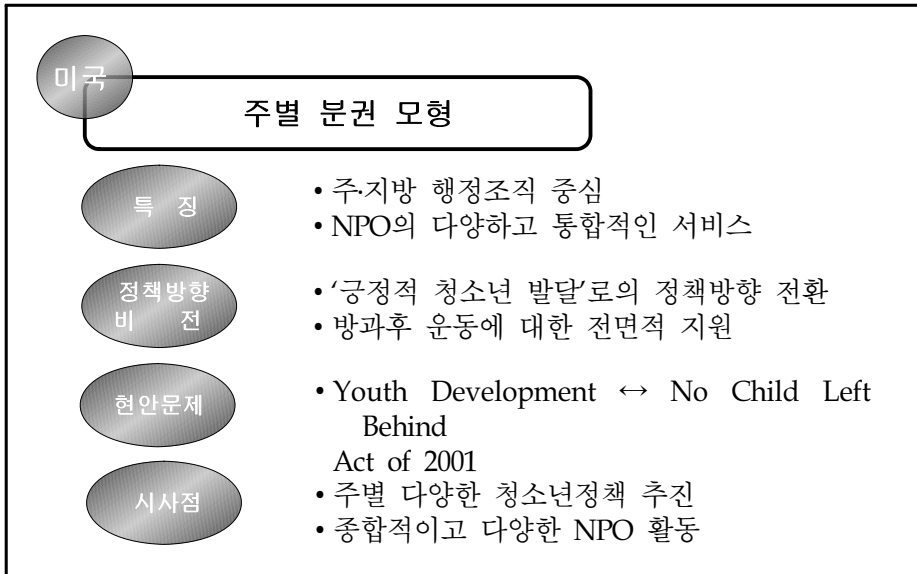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단체의 선도활동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대신 선도프로그램 수행을 조건으로 훈방하는 다이버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판사, 검사와 청소년 전문가가 소년범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선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국외

(1) 미국

미국의 청소년 정책 체계는 다음 [그림 II-5]와 같이 요약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b).

있다. 셋째, 소년경찰 직무규칙과 관련하여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소년경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 소년법원, 검찰청, 각 급 학교,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그 직원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27조(상담선도시의 유의사항)는 상담내용이 소년경찰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 소관기관 또는 단체에 연결, 또는 주선하여 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b). 제 3차 청소년 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미발행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림 II-5] 미국의 청소년 정책 체계

미국 청소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 청소년 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관점이다. 즉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청소년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만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는 없으며 다양한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긍정적 청소년 개발은 미국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연방정부 행정기구는 건강 및 인간 서비스부(D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hhs.gov/>, 2006년 10월 15일 인용).

미국 건강 및 인간 서비스부가 제시한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주요요소는 크게 (ㄱ)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제공, (ㄴ) 청소년과 그들을 돌보는 타인과의 관계 촉진, (ㄷ) 청소년들이 흥미를 추구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제공, (ㄹ) 학교공부, 개인지도, 스포츠, 예술, 직업교육, 서비스 학습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청소년들의 지식과 기술 습득 및 개발지원 (口)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파트너나 지도자로서의 참여, (ㄷ)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제공, (ㄹ) 건강한 생활유형 및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ㅇ) 위급하거나 어려울 경우 사회적 안전망 제공 등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혜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에서 재인용).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계획되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된 정책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국의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유스빌드(Youthbuild)

유스빌드(Youthbuild)는 국가적 비영리조직인 유스빌드(Youthbuild, USA)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된 예산은 미국 주택도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로부터 받는다(Youthbuild U.S.A, <http://www.youthbuild.org>, 2006년 10월 15일 인용).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00여개 이상의 유스빌드 지역 프로그램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5억 달러의 공적 기금을 조성해왔으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지역사회발달을 통한 빈곤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유스빌드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저소득 가정출신 의미취업청소년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의 집을 짓는데 참여하게 해서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 알맞은 역할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유스빌드 프로그램에서 6-12개월을 지내게 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대안학교에 다닌다. 유스빌드의 서비스²²⁾는 크게

22) 첫째, 주택건설의 경우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집을 건설하거나 재건하게 된다. 둘째, 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장, GED, 직업학교나 대학을 준비하게 된다. 커리큘럼은 학업적인 것과 인생에서의 기술을 통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의 규모는 소규모로 학생 개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의사결정과

주택건설, 교육, 직업교육 리더십 교육, 상담, 졸업생 지원으로 나뉜다.

2004년 현재 7,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유스빌드에 참여했으며 1994년 이래로 47,000명이 유스빌드 학생에 의해 13,000채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지어졌다. 유스빌드 참가자 1인에 대한 평균비용은 월급을 포함하여 1년에 \$ 20,000이며 이는 잡콕(Job Corp), 군대, 소년원 등에서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넘어 리더십훈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청소년들의 긍정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Youthbuild U.S.A, <http://www.youthbuild.org>, 2006, 2006년 10월 15일 인용).

② 잡콕(Job Corps)

잡콕(Job Corps)은 매년 60,00여명의 혜택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본교육, 직업훈련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적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110개의 잡콕 센터(Job Corps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30개의 시민보호센터(Civilian Conservation Centers; CCCs)는 노동부와 의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80개는 잡콕의 지부로 계약된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잡콕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6개월 동안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USD Department of Labor, 2006, <http://www.dol.gov/dol/topic/training/jobcorps.htm>, 2006년 10월 15일 인용). 프로그램 등록자의 80%가 고등학교 중퇴자이며 70%가 소수민족이다. 전체의 25%(남자의 1/3)는 잡콕에 등록하기 전 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시간조절 기술뿐만 아니라 건전한 작업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은 직업 계획을 세우고 직업면접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우수한 건설가로부터 훈련을 받게 된다. 넷째, 리더십 교육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관계된 이슈들에 대해 배우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선출된 정책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을 함께 관리해 나간다 다섯째, 상담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상담과 의뢰시스템이나 양육시설, 교통, 약물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제공된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담자들에게 배정된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졸업생들이 진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재산을 모으고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자원과 지원이 제공된다(Youthbuild U.S.A, <http://www.youthbuild.org>, 2006년 10월 15일 인용).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ㄱ) 신청자가 아이가 있는 경우는 자녀양육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ㄴ)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iii) 신청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심각한 질병이나 행동상이 문제가 없어야 하며 (iv) 상담자가 건강상 질병이나 행동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전문 자문가가 신청자의 이력을 살펴보고 입학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잡콕의 서비스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Outreach & Admission) 찾아가는 서비스와 입학, 2단계(Center Operations) 학문적 교육, 직업훈련, 거주시설, 건강보험, 기타상담, 사회기술 훈련, 건강,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 3단계 직업소개, 취업이 그것이다.

잡콕의 특징은 첫째, 대규모의 거주시설을 보유하고 학생들 중 88%가 교육을 받을 때 센터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 둘째 전국이 프로그램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것, 셋째,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헌신적인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것 넷째, 많은 센터들이 오랫동안 같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지식이 상당부분 축적되었다는 것(지속성),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특정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등이다.

잡콕 센터 운영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데 원칙을 두고 있다. 교육은 1:1로 이루어지며 각 개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수준에서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나뉘는 속도에 맞춰 발전해나가고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프로그램을 떠난다. 잡콕의 센터 운영내용은 크게 직업훈련, 학문교육, 주거공간과 건강보험 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직업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직업기술훈련(Vocational Skills Training: VST)과 실무경험 프로그램(Work Experience Program: WEPs)을 통해 실제 작업현장을 경험한다. 직업기술훈련(VST)은 잡콕센터와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을 위해 목공, 페인트 칠 등 특별한 직업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

며 실무경험프로그램(WEPS)은 6주 동안 실제 작업경험을 얻기 위해 무보수로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훈련 가능한 기술 분야는 사무직, 건강관련 직업, 목수, 벽돌공, 건축, 음식분야, 기계공, 용접, 페인팅, 전기기술 등이다.

둘째, 학문교육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종합적 교육수준 발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처음 입학하는 사람들 중 40% 정도만이 GED 준비 과정에 입학가능한 수준이다. 잡콥 교육전산 시스템(Computer Managed Instruction System; CMI System)은 읽기, 수학, 쓰기, 생각하기, 기술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셋째, 주거공간과 건강보험 서비스는 잡콥의 큰 특징으로서 주거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주거지원서비스, 상담, 사회기술발달, 학생발달평가, 집단내 관계, 오락, 학생회와 리더십, 행동 다루기가 그것이다. 주거시설에 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자가 주거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 교통, 수입지원 문제 등을 도와준다(US Department of Labor, 2006, <http://www.dol.gov/dol/topic/training/jobcorps.htm>, 2006년 10월 15일 인용).

(2) 독일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KJHG)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방 법률은 아동청소년 복지와 지원에 관한 거시적 주요 과제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정부 차원의 지방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e브리핑, http://youth.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to_sec_2&id=79d1cdbd32b29fbfe64d43e1, 2006년 10월 15일 인용).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관련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은 [그림 II-6]에 나타나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서비스 체계는 크게 자발적 아동·청소년서비스 체계와 법령에 근거한 아동·청소년서비스 체계로 나뉘며 이런 영역은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 복잡한 아동·청소년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Internationaler Jugendaustausch-und Besucherdiens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www.ijab.de/>, 2006년 10월 15일 인용).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은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지원대책에 바탕을 두어 수립되며 현재 수행중인 아동·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로 한다. 연방정부 아동·청소년 계획의 지원목적은 정책교육, 문화교육, 청소년지원, 사회교육,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제공, 일하는 청소년, 일하는 장애청소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지원, 아동을 위한 지원, 아동과 청소년 보호, 청소년 조직업무, 학생조직업무, 자원봉사 센터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새로운 방법개발, 국제청소년업무, 사회사업과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위한 국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통합,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등이다(Internationaler Jugendaustausch-und Besucherdiens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6 <http://www.ijab.de/>).

연방정부 아동·청소년 계획의 지원형태는 크게 직접적 절차에 의한 지원, 중앙기관을 통한 지원, 연방정부차원의 지원으로 나뉘며 직접적 절차의 경우 제도상의 지원 수혜자에 대해 여성·청소년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앙기관을 통한 지원의 경우 자원봉사사무소의 조직을 통한 신청서 수합에 의해 연방정부차원의 지원의 경우 연방주의 청소년 최상기관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진다(Internationaler Jugendaustausch-und Besucherdiens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www.ijab.de/>, 2006년 10월 15일 인용).

독일의 15개 주정부 중 아동청소년 정책이 가장 앞선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바이에른 주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내각부 부처 내에 청소년 관련 부서를 두고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노동사회가족여성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und Frauen) 아래 가족청소년국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Bayerische Staatsministerien für Unterricht und Kultu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2000).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지원 대책 재정적 지원 현재 수행중인 아동·청소년 서비스 업무의 연방주와 지역 기관의 의무집행액(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성·청소년부 지침서 1993.12. 20.)

지원 목적	지원 형태
정책 교육 문화 교육 청소년 지원 사회 교육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 제공 일하는 소녀들 일하는 장애청소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지원 아동을 위한 지원 아동과 청소년 보호 청소년 조직 업무, 학생 조직 업무 자원봉사 센터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 서비스 제공 고급 훈련을 위한 중앙 조직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새로운 방법 국제 청소년 업무 사회사업과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 는 전문 인력을 위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 다른 지원 대책(척도) 이주 청소년들의 통합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건축물, 구 입, 설비 및 정비.	직접적 절차 제도상의 지원 수혜자에 대하여 여성·청소년부에 직접 신청서 제출. 중앙 기관 절차 자원봉사 사무소의 조직 통해서 신청서 수합. 연방주 절차 연방주의 청소년 최상 기관에 의해 신청.

* 출처 : IJAB, 1994. <http://www.ijab.de/>

[그림 II-7]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

바이에른주 가족청소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에른주 가족청소년국은 종교단체, 복지기관, 학교, 사업장, 대중 매체 등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아동 청소년 서비스는 주정부 내 부처 간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현실화된다. 독일 청소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예로 들면 주정부는 아동·청소년국뿐 아니라 문화국, 사회국, 그리고 독립적인 청소년청인 유겐트암트(jugendamt)와 상호 협력, 그 역량을 극대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주정부의 지원 하에 학교와 유겐트hilfe가 협력을 이루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이러한 학교와 청소년 지원기관의 협력을 1994년부터 교육제도와 수업제도에 대한 법(BayEUG)과 1991년부터 사회보장 법령집 8권(SGB VIII)에 규정하였으며 바이에른 주 교육제도와 수업제도법 31조 1항에 따라 공립학교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국과 청소년 지원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청소년 지원기관들은 사회보장 법령집 8권 81호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함께 청소년과 청소년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학교와 학교 행정당국과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서로 상호적 협조체제에 관한 법령은 더 많은 학교와 청소년 지원기관들의 관련 법규에 구체화 되어있다. 바이에른 주 문화교육부, 학문과 예술부, 노동과 사회질서, 가족, 여성과 보건부는 1996년 8월 13일에 학교와 청소년 지원기관들의 협력체계의 법제화를 함께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제화 발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선 교사들,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자들은 기본법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발전·심화시켜나가고 있다(Bayerische Staatsministerien für Unterricht und Kultu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2000).

독일의 지역사회, 학교, 정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렉스(Flex)

독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브라이자흐 지역의 “플렉스(Flex)통신학교-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이 있다. 플렉스는 1998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하우프트 슐레²³⁾(Hauptschule)졸업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층적인 통신 학습과 현장에서의 관련자들과의 밀접한 협동 작업으로 하우프트슐레 졸업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지원을 실시하며 학습과정 내에서 직업 오리엔테이션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의 활동범위는 예비 직업교육, 직업 오리엔테이션, 직업과 교육이 병행되는 지원, 학교 졸업장 취득, 교육·직업교육·일에 대한 상담이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일반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일반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대상연령은 14-19세이며 2005년 현재 90명의 독일/외국인 청소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졸업장이 없고 정규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청소년 중 어린 엄마, 청소년 복지국 지도·보살핌 하에 거주하는 자, 교육지원을 받는 자, 가족 내 갈등이 있는 자, 정신적/신체적 피해자, 마약경험이 있는 자 등이 주된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통신학습체제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학습을 청소년의 삶의 세계 속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플렉스는 청소년 지원기관들과의 협조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며 학습장소를 학교에서 청소년의 삶의 세계로 옮긴 것이다. 비용체계에 따라 청소년 복지국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청소년 지원기관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통신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과 개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 후 학생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보내진 학습 자료를 통해 통신 수업을 받는다. 필요하다면교사와 청소년과의 전화통화로도 학습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 재료를 가지고 학업을 할 때 도움을 주거나 학습과정에서 청소년을

23) 독일의 학제 중 한 부분으로 초등학교 4년 졸업 후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으로 나뉘어 진학하는데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는 5-9학년까지이다.

도와주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해 대화 상대자가 되는 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05).

② 석세스(SUCCESS)

석세스(SUCCESS)의 책임기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빌링엔-슈베닝엔의 교육 연구부(BMBF)이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수행되었으며 학교, 직업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청소년 기관들의 심층적인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인성적으로나 학습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우프트슐레 학생의 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부적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활동내용은 직업 오리엔테이션, 학교 졸업장 취득, 직업현장 실습 연계, 인생계획/인생구상에 대한 지원, 위기상황 예방, 위기상황 개입 등이며 일반 정규학교 졸업(Hauptschule 졸업)을 목표로 한다. 남자의 경우 12세에서 16세, 여자의 경우 14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수용인원은 80명이다. 독일인은 물론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며 주로 하우프트슐레 5, 7, 8, 9학년, 졸업이 어려운 학생, 학습 장애자,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학생,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사회적 교육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학생, 사회적 소외계층, 범죄에 노출된 학생, 가족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학생이거나 과잉행동, 이민자, 독일 이주자 등이다.

빌링엔-슈베닝엔 교육연구부의 “학교-경제/직장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습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학습 동기가 떨어진 학생을 지원하여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를 졸업하게 하고 직업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실습반과 심층적인 실무와의 연계로 수업편제와 내용상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확인하여 학습 기회에 관련하여 불평등한 조건에 놓인 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이 프로젝트는 빌링엔-슈베닝엔 교육청에서 2000년/2001년 학기부터 진행되고 있다. 슈바르트발트-바 지역에 있는 하우프트슐레 8곳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8학년과 9학년들이 주된 대상이다. 수업은 실습반 형태의 변화된 수업형태로

이루어진다. 실습반 한 반에 학생 수는 12-16명 정도이다. 수업은 청소년 문제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가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돌보아준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은 물론 부모와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한다.

대부분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많으며 특히 이민자, 독일 이주자, 외국인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의 나이는 12세에서 16세이며, 인성적,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실습반에 들어가려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 추천과 함께 학교 성적이 일정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은 원칙적으로는 2년 동안 실습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 실습반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능력을 갖도록 하고 인성 강화훈련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 수업 이외에 직업현장에서 1주일 실습을 하거나 사회적 단체, 기관, 교회단체에 통합되어 실질적인 경험을 한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05).

③ 호이헬호프(Hauptschule)의 협조를 통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호이헬호프(Hauptschule)의 협조를 통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바이에른 주의 뉘르츠부르크-호이헬호트 지역의 대표적 학교밖 청소년 예방 관련 프로그램이다. 학습동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재부여하고 학습동기가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며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독일 이주민 자녀들 및 이민자 자녀들이 잘 융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은 10세에서 17세의 남·여 청소년이며 독일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된다.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거나 독일 이주자, 이민자,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국의 보호를 받는 학생,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대우를 받은 학생들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점은 이민 온 학생들의 통합에 있다.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종일반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여 학습 지원을 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호이헬호프(Hauptschule)에서도 레알슐레(Realschule)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반을 설치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취미생활, 체험생활, 자연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서 지원해 준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성 있는 교칙 때문이다. 교사 진끼리의 끊임없는 정보교환은 학생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도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eutsches Jugendinstitut, 2005).

④ 피카씨오(P.I.K.A.S.S.I.O.)

피카씨오(P.I.K.A.S.S.I.O.)는 바이에른 주의 뮌헨 지역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이다. 199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학교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졸업과 동시에 일반 학교 졸업(Hauptschule 졸업)장과 기계조작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이 주어지며 대상은 8세에서 18세의 남/여 청소년이다. 참가가능인원은 27명이며 그중 15명은 학교와 직업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12명은 순수 학교 프로젝트 참여자이다. 독일인/외국인 모두 참가대상으로 하며 정규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학생이 주된 타깃이 된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복지국의 보호를 받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양육기관에 거주하는 자, 정신·신체장애인, 마약 경험자 등이다.

피카씨오(P.I.K.A.S.S.I.O.)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규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노동을 통해 안정시키고 하우스 슐레(Hauptschule)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의 목표는 정규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안으로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변화하게 해준다. 청소년들은 노동실습, 개별화된 수업과 사회 심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학교를 거부하고 청소년 복지국의 보살핌을 받고 학교 이외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피카씨오(P.I.K.A.S.S.I.O)프로젝트는 직업과 학교 프로젝트이다. 모든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두 프로젝트 중 하나 또는 두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2년까지 일주

일에 최고 15시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 보살핌을 받는지도 개인마다 다르게 구성된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05).

⑤ 무브(MOVE) - 학교 거부자를 위한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

무브는 베를린 미테, 바이센제 지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하우프 술레(Hauptschule) 졸업을 목표로 학교를 심하게 거부하는 학생들의 외부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하며 직업 오리엔테이션, 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다. 졸업과 동시에 일반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며 14-17세 남·여 청소년을 주된 프로젝트 대상으로 한다. 가능한 참가 인원은 28명이며 2005년 현재 실제 참가인원은 24명이다. 독일에서 출생한 독일인/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졸업이 어려운 학생, 학습 장애자, 학교를 싫어하는 학생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집중력이 약한 학생,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결손 가족, 높은 폭력성, 사회성이 약한 청소년, 마약 경험 청소년 등이다.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점점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등교 거부에 있었다. 특히 이렇게 학교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거나 소년사법 기관 혹은 관련지원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그룹의 학생들은 대체로 거리를 전전하는 소위 ‘거리 인생’의 특성과 함께 학교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학교 거부 형태를 나타내는 이 그룹에서 하우프술레 졸업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졸업의 목표는 사회적 안정을 위한 것이며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하우프 술레 졸업을 하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외부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별적 조절이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이다. 수업, 전문적 실습 프로젝트와 취미생활 프로그램이 서로 잘 연계되어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일찍이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심리사회적 문제, 가정상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소년사법기관 혹은 관련지원기관과 관련이 있는 상습적인 학교 등교 거부 학생

들이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에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청소년이 스스로 학교를 졸업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된다. 지금까지 외부시험을 신청했던 모든 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프로젝트는 두 번째 지역에 확장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참가 가능인원은 14명에서 28명으로 증가하였다(Deutsches Jugendinstitu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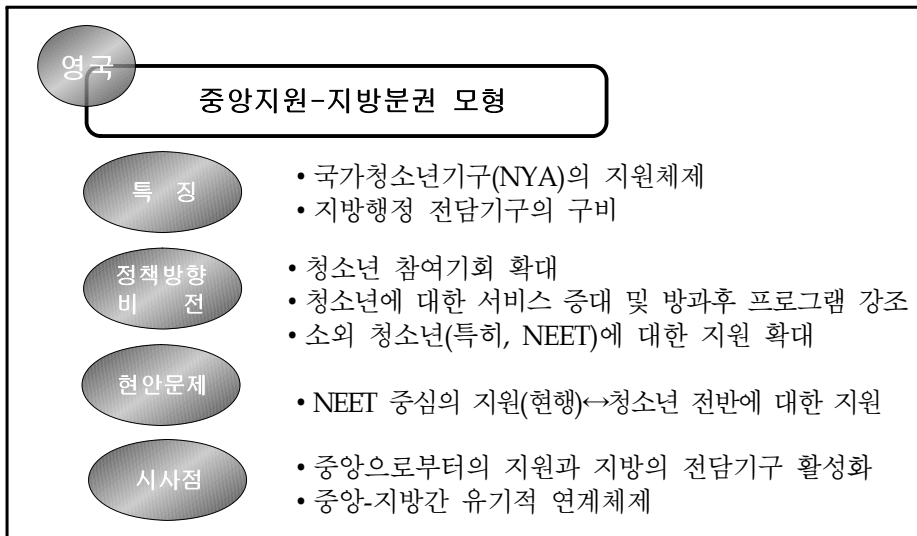
(3) 영국

1980년대 지속된 경기악화와 영국내 민족 간 정체성 갈등의 증폭으로 영국은 경제적, 사회적 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및 진로포기, 자살, 우울, 10대 임신 등 다양한 사회부적응문제가 야기되었다.

학교밖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실업도 27%까지 급증하였으며(Dolton, Makepeace, Hutton, & Audas, 1999) 1994년 이후 교육도 받지 않으면서 일하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소년(NEET)이 16세-18세 연령대 인구의 9%(약 173,000명)를 차지한다(Connexions, <http://www.connexions.gov.uk>, 2006년 10월 15일 인용).

영국의 청소년 서비스는 19세기 말에 시작하였으며 인도주의적인 의무감에서 청소년 클럽을 구성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영국의 청소년 서비스 구조는 지역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 보통 청소년서비스는 지방정부기관과 자원봉사 단체나 독립적인 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된다. 지방정부는 교육 담당부서 내에 청소년 봉사단체, 청소년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서비스 파트너십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럽과 프로젝트, 보조금, 파견 직원 및 그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적인 제도와 서비스는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내의 지사, 정부지원단체인 국가청소년기구

(National Youth Council), 많은 전국자원봉사 청소년단체(National Voluntary Youth Organizations: NVYSs)의 지원을 받는다(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 영국의 청소년정책 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II-8]과 같다.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2005 청소년정책자료.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림 II-8] 영국의 청소년 정책 체계

① 커넥션즈(Connexions) 서비스

커넥션즈 서비스는 10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를 고양시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대학, 교육서비스기관, 또는 그 외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onnexions, <http://www.connexions.gov.uk>).

커넥션즈 서비스의 5대목적은 (ㄱ) 모든 청소년, 특히 위기 청소년과 보호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개인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과 실질적인 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 (ㄴ) 교육의 기회

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ㄷ)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움과 고용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ㄹ)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ㄴ) 커넥션즈 사업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늘리고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

커넥션즈의 주된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의무교육이 16세까지여서 그 이후가 되면 성년으로 준비해야 할 교육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커넥션즈 서비스는 이러한 16세 이후의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13세에서 19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애 공헌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커넥션즈 서비스는 6개 정부부처와 이들 부처의 각 기관 단체,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고용업체, 직업서비스 제공단체 등과 함께 일을 하며 전국에 47개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두고 지부역할을 담당케 한다. 파트너십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획과 기금조달을 담당하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 부모,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감으로서 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즉각적이고 긴급적인 문제를 직접 접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인력에게 의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수준²⁴⁾을 평가하고 각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파트너십의 개별지도자(Personal Advise)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여러 전문인력(청소년 복지담당교사, 특수교육담당교사, 학년주임, 양호교사 등)의 도움을 얻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된 정보는 전산화되어 기록되어진다.

24) 커넥션즈 사업의 위기상황 청소년 분류 영역은 첫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니며 출석률이 저조하며 학업을 이미 중단한 집단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집중관리그룹(Intensive Group) 둘째, 학업성적이 낮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학업과 진로상담을 주로 받는 지지그룹(Supported Group), 셋째, 큰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소수 그룹(Minimum Group) 등으로 나뉜다(Connexions, <http://www.connexions.gov.uk>, 2006년 10월 15일 인용).

커넥션즈의 사업중 커넥션즈 다이렉트(Connexions Direct)는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을 위한 전화, 인터넷 채팅, 이메일, 문자 정보 등을 통한 서비스이다. 훈련을 받은 개별지도자(PA: Personal Adviser)가 일주일에 7일,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로, 교육, 일, 건강, 인간관계, 가족문제, 주거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평균적으로 40,000 명의 청소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6,000명 정도는 전화,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있다.

② 기회카드(Opportunity Card)와 기회자금(Opportunity Fund)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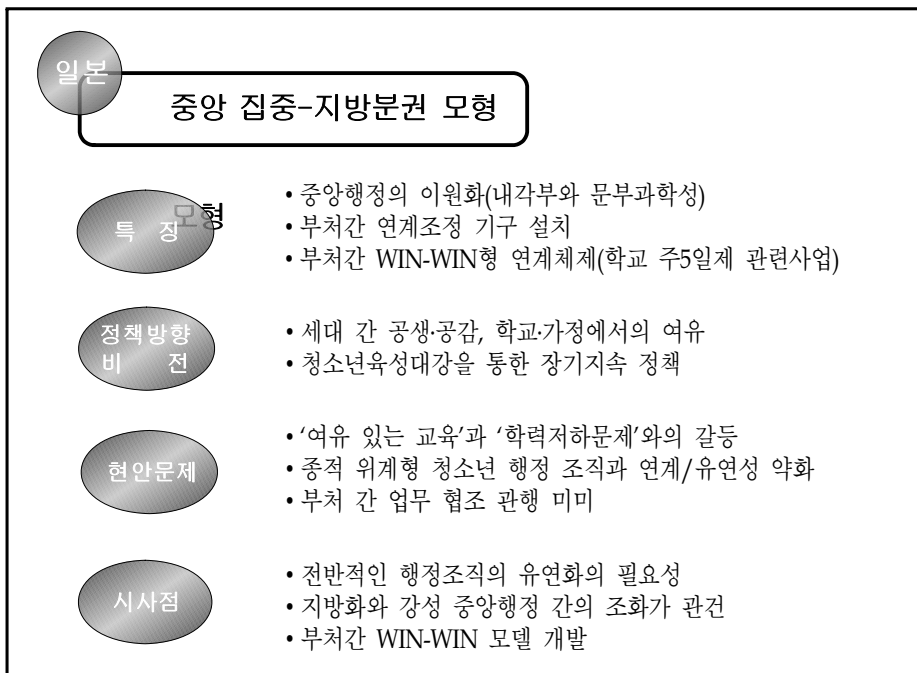
영국 교육기술부는 매년 청소년문제(Youth Matter)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발전 정책을 제안한다. 이중 대표적인 제도가 기회카드(Opportunity Card)제도이다. 기회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및 다른 생산적인 활동, 일반 시장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 카드에는 카드 주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기회카드의 충전은 청소년들에게 장려하는 행동에 대한 포상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공헌을 하고 출석 또는 학교와 대학에서의 학업성과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키고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을 때 포상의 의미로 기회카드를 충전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제도는 기회자금(Opportunity Fund)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할 때 지역당국은 기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기회자금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 내에서 협의회를 형성하거나 청소년 카페를 만들거나 스포츠 대회 등 청소년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당국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역기회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금을 배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황순길 · 여인중 · 남재량 · 장미경 · 허묘연 · 권해수 · 박정민 · 손재환 · 홍지영, 2005).

(4) 일본

일본의 등교거부(부등교) 아동에 대한 보고는 1950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 등교거부 문제는 ‘학교공포증’ 등으로 불리며 정신질환의 치료 대상이 되었고 특정 아동과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등교거부가 계속 증가해 왔고 1992년 당시 문부성은 등교거부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명칭도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부등교’로 사용하였다(무타 다.케오, 2005; 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에서 재인용). 일본의 부등교 청소년에 대해 연구한 무타 다.케오(2005; 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에서 재인용)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이유는 생활리듬이 깨지거나, 불안에 지배되는 생활, 스트레스의 문제와 자율신경이 깨지거나, 인간관계 기술부족, 자해와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대략적인 일본의 청소년 정책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정부차원의 부등교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래에 나와 있다.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2005 청소년정책자료.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림 II-9] 일본의 청소년 정책 체계

① 문부과학성의 부등교 아동 대응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 교실)의 정비, 스쿨 서포트 네트워크 정비사업(SSN: School Support Network), 부등교 대응을 하는 NPO등 활용에 관한 실천연구사업, 출석에 대한 조치, 중학교 졸업인정시험에 대한 수험자격의 확대,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의 개선에 대한 조치, 부등교 아동학생에 대한 대책(학교설치에 관계된 교육과정 탄력화, IT 등의 활용에 의한 학습기회 확대), IT를 활용한 부등교 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국립교육정책연구소 학생지도 연구센터의 사업, 부등교에 대한 안내서 작성 등을 통해 부등교 아동학생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쿨 카운슬러 활용보조 사업과 아이와 부모를 위한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교육상담 체계의 충실화 작업을 하고 있다. 교원의 배치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첫째, 학생지도 담당교원과 관련된 정원수에 대한 조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30학급 이상 학교, 2개교에 1개교 비율로 학생지도 담당교원을 한 명씩 배치한다. 중학교에는 18-29명 학급이 있는 학교에 한명, 30학급 이상 학교, 2개교에 개교 비율로 복수 배치한다. 둘째, 아동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교원을 배치한다. 초·중학교에서 학습 진도가 현저하게 늦은 아동학생이 재적하는 학교나 따돌림, 부등교, 폭력행위, 수업방해 등 아동학생의 문제행동 등이 현저하게 보이는 학교에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을 한다. 세밀한 지도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동학생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도, 학생지도, 진로지도가 행해지는 경우에 교원 정원수를 추가 배치한다. 셋째, 양호교원을 배치한다. 3학급 이상의 학교에 한명씩 배치하며 아동 851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학생 801명 이상의 중학교에는 양호교원을 복수로 배치한다(쿠라미 쇼이치, 2005; 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혜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에서 재인용).

② 후생노동성의 청년 자립학원

후생노동성에서는 2005년부터 은둔형 외톨이·니트(NEET)·부등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자립학원’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청년 자립학원’이란 니트에 대한 대책으로서 상당기간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합숙형식으로 집단생활을 하며 생활훈련, 노동체험을 통해 사회인, 직업인에게 필요한 기본적 능력의 획득, 근로관의 숙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과 의욕을 몸에 배게 함으로서 취업 등에 연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 자립학원은 전국에서 지정된 20개의 단체에서 3개월간 합숙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직업체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자는 것이며 입학조건은 학원에 따라 다소 틀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35세까지의 미혼남녀가 대상이다. 가벼운 작업을 통해 기초적인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자격취득 강습과 자원봉사 등을 실시한다. 비용은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로 다양하며 저소득자의 경우 부담이 경감된다.

청년 자립학원 실무자는 지원 대상 후보자를 파악 학원으로 유도하며 대상 후보자와의 면접, 서약서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생활규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훈련을 실시하며 노동체험, 특별 프로그램, 자격 취득 강좌, 보호자의 의식 개혁 등을 위한 스터디 그룹 등을 실시한다. 학원 실무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학원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분간 일하는 의욕 상태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보호자와 진로 등에 대해 상담, 지원한다. 청년자립학원 실시 주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재)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각종 장려금을 지급한다(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

Ⅲ. 결과 및 분석

1. 대안학교 청소년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4. 거리 청소년

III.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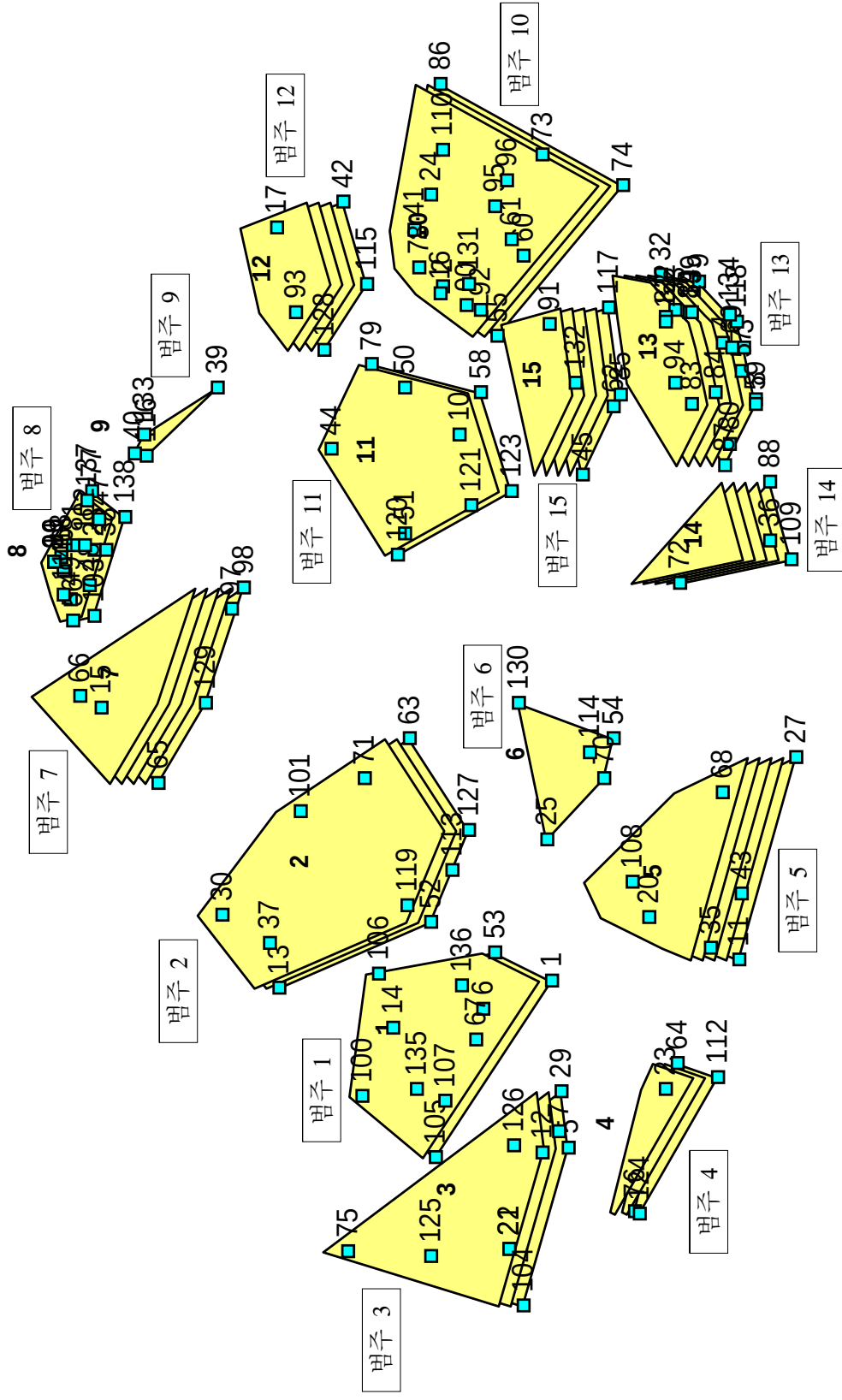
1. 대안학교 청소년

1) 대안학교 청소년 개념도 작성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이 개념도는 모두 1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포함된 문장은 <표 III-1>에 제시하였다. 개념도에서 점들의 상대적인 거리는 그 문장들이 청소년내담자들에 의해 얼마나 빈번히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즉, 가까이 있는 범주들은 거리가 먼 범주들보다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Paulson et al, 1999; Trochim, 1989b; 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아울러 범주의 두께는 해당 범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평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개념도의 그림 상으로는 1~5층의 두께로 표현되며 두꺼울수록 중요한 범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층이 절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중요도만을 표시해준다. 위 표는 각 범주 및 문장별 평균 평정치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대안학교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한 개념도는 총 1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친구와 교사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2.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3.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 ‘4.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한다.’, ‘5. 자퇴한 것이 후회되지만, 복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6. 소속 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7. 나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 기준의 일방적인 잣대만 들이댄다.’, ‘8. 나에 대한 부모

님의 잔소리, 불신, 무시, 실망, 분노가 늘어난다.’, ‘9. 식구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되어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10. 반항적이 되고, 비행경험이 늘어났다.’, ‘11. 자퇴생이라고 차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12. 매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15.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의기소침해진다.’ 중요도 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중시한 범주는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M=3.62).’였으며 가장 경시한 범주는 ‘6. 소속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M=2.84).’였다. 범주의 평균 평정치는 3.27이었다.



[그림 Ⅲ-1]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대안학교 청소년의 개념도

<표 III-1> 대안학교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그룹	문장	평정치 (평균)
1	범주 1. 학교친구와 교사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3.02
	1. 학교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쪽팔린다.	2.43
	6. 길 가다가 학교선생님을 만나면 괜히 겁이 난다.	2.36
	14.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차갑게 대한다.	1.79
	53. 학교 쉬는 시간에 몰래 담배 피우던 스타일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3.36
	67. 졸업앨범이 없다.	3.93
	100. 친구들과 놀려면 수업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3.57
	105. 친구들이 소풍가거나 수학여행 간 날은 정말 심심하다.	3.29
	106.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왜 왔으며 구박하신다.	2.50
	107. 같이 놀던 친구가 자퇴했을 때 조금 미안했다.	2.86
	135. 학교에 놀러 가면 애들 물들인다고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다.	3.00
	136. 학생증이 없어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식당, 미장원, 안경점 등).	4.14
2	범주 2.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3.12
	13.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꼴통이라고 한다.	3.29
	30. 학교 안 다닌다고 친구 부모가 나하고 놀지 못하게 한다.	2.06
	37.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문제아 나쁜 아이들이라고 싸잡아 버린다.	4.36
	52. 친구들이 내 앞에서 농담 삼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3.21
	63. 일 할 때 친구들이 노는 것 보면 덩달아 놀고 싶다.	4.36
	71. 친구들이 자기 부모에게 내가 학교 다닌다고 하면 거짓말 한다.	2.86
	101.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4.29
	113. 학교 다니는 이성친구와 자주 싸운다.	2.86
	119. 친구들이 주고받는 최신 유행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2.36
	127. 자존심이 상해서 동네 소꿉친구들조차 잘 만나지 않는다.	1.86
3	범주 3.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	3.28
	5.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던 학교 운동장이 그립다.	3.57
	7. 교복 입은 아이가 부럽다.	4.57
	12. 다른 친구는 학교 다니는데 나만 힘들게 일하는 거 같아 억울하다.	2.71
	21. 나이가 어려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	3.36
	22. 돈을 만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3.57
	29. 복학해서 후배들과 함께 다닐 것이 걱정된다.	2.36
	75. 아르바이트하는 데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나부터 의심을 받는다.	3.57
	104. 아르바이트하면 친구들을 제대로 못 만난다.	3.71
4	125. 아르바이트 한때 남자들이 여자에게 치근댄다.	3.00
	126. 교복입고 가다가 학교 선생님께 들켜서 무안했다.	2.36
	범주 4.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한다.	3.17
	23.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2.57

	64.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이 적다.	2.43
	76. 방학 때는 재학생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	3.71
	112.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성인 오락실 등).	4.00
	124. 아르바이트할 때 나이 어리다고 힘든 일은 나에게 다 시킨다.	3.14
	범주 5. 자퇴한 것이 후회지만 복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3.51
5	11.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3.19
	20. 복학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된다.	3.71
	27. 자퇴한 것을 후회한다.	4.07
	35. 복학하려고 해도 잘 다니지 못할 거 같아 걱정스럽다.	3.36
	43. 아르바이트 한다는 핑계로 돈 씹씀이 해피진다.	3.57
	68. 자식들에게 들려줄 중, 고등학교 추억이 없다.	4.07
	108. 주변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나도 복학할 마음이 줄어든다.	2.64
	범주 6. 소속 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2.84
6	25. 나이가 어려서 직업 전문학교도 못 들어간다.	2.43
	54.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	2.93
	70.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진다.	3.36
	114. 스승의 날이 되어도 찾아볼 선생님이 없다.	3.07
	130. 학교를 가지 않으니 학원까지 그만두게 된다.	2.43
	범주 7. 나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 기준의 일방적인 잣대만 들이댄다.	3.55
7	15. 부모님이 학교 안 다닐 거면 돈이나 벌어오라고 한다.	3.29
	65. 친구에게 사고가 나면 친구엄마들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항의한다.	3.07
	66.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다.	4.43
	97. 어른들은 내가 왜 학교를 그만 두었는지 관심이 없다.	3.36
	98.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	4.14
	129. 친구를 만나면 집에서는 무조건 나쁜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한다.	3.00
	범주 8. 나에 대한 부모님의 잔소리, 불신, 무시, 실망, 분노가 늘어난다.	3.09
8	18. 부모님이 짜려보신다.	2.50
	19.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하다.	2.50
	26. 부모님이 나를 창피해 하신다.	3.00
	28.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	2.86
	31. 다른 형제, 자매들과 자꾸 비교한다.	3.93
	38. 부모님께 제대로 자식취급 못 받는다.	2.69
	46. 친척들이 아직도 학교 안 다니냐고 잔소리 하신다.	3.36
	47. 학교 안다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나며 용돈을 주지 않는다.	2.71
	48. 친척들이 나를 무시한다.	3.29
	49. 부모님이 내가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 할 때가 있다.	2.86
	56. 검정고시 합격하면 갈수록 부모의 기대가 높아진다.	3.21
	77. 부모님의 실망이 너무 크다.	3.93
	81. 부모님은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3.24
	99.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	3.14
	102. 집에 있으면 부모님 분풀이 대상이 된다.	

	103. 부모님은 돈벌어오면 잘해주시지만 놀고 있으면 집안일 다 시킨다.	3.14
	111. 자퇴 후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일이 많아졌다.	3.29
	137. 집에서 필요한 것을 안 사준다.	3.29
	138. 부모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 하고 싶은 공부나 기술을 배울 수 없다.	2.71
		3.00
	범주 9. 식구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되어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2.95
9	39.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거의 집 밖에 나가 있다.	3.64
	40. 집안일(허드렛일, 청소, 심부름)을 마구 시킨다.	2.43
	116. 친척 모임에 잘 가지 않는다.	3.29
	133. 형제들과 많이 싸우게 된다.	2.43
	범주 10. 반항적이 되고, 비행 경험이 늘어났다.	3.28
10	2. 낮 시간에 PC방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훑어본다.	2.36
	16. 쪽팔려서 안돌아 다닌다.	2.86
	24. 학교 안 다니는 아이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게 된다.	3.57
	41. 아는 사람 만날까봐 버스를 잘 타지 않는다.	2.64
	55.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2.50
	60. 술이나 게임중독에 빠진다.	3.64
	61.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상한다.	3.57
	73. 낮과 밤이 바뀐다.	4.64
	74. 오후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노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4.43
	78. 보호관찰 중이라 또 사고 치게 될까봐 걱정된다.	2.71
	86. 제대로 챙겨먹지 않는다.	3.71
	90.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찰려보는 거 같고 비웃는 거 같다.	3.21
	92.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깐 더 반항적이 된다.	4.24
	95. 성 경험이 많아 졌다.	2.71
	96. 임신을 하거나 시킨 적이 있다.	2.36
	110.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을 뜨면 비참하다.	2.64
	131. 외모가 학생답지 않다고 지적을 많이 당한다.	4.00
	범주 11. 자퇴생이라고 차별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3.13
11	10. 어른들이 물어보면 학교 다니지 않는 것을 숨긴다.	3.00
	44. 검정고시 붙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3.24
	50. 경찰서 조서 쓸 때 학교 다니지 않는다고 막 대한다.	3.29
	51. 이성친구가 무식하다고 무시한다.	2.24
	58. 학교 안 다니는 선배들에게 많이 시달린다.	2.86
	79. 그냥 노는 아이랑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를 차별한다.	4.07
	120. 같이 사고 쳐도 나 때문에 친구 망쳐놓았다고 나만 야단맞는다.	2.74
	121. 청소년증을 보이면 학교 그만둔 애로 낙인찍혀 버린다.	3.21
	123. 검정고시 볼 거라면 사회에서 인정이나 해주냐며 무시한다.	3.43
12	범주 12. 매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3.39

	17.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고 TV보고 누워 잔다.	3.64
	42. 기사랑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반요금 낸다.	3.29
	93.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기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야단친다.	3.64
	115.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열 받는다.	3.00
	128. 대안학교 다닌다고 하면 나쁜 짓해서 가는 걸로 안다.	3.36
	범주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	3.57
13	3. 미래가 막막하다.	4.36
	4.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4.36
	8.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4.07
	9. 사는 게 부끄럽다.	2.93
	32. 죽고 싶다.	2.93
	33. 희망이 없다.	2.50
	34. 인생이 재미가 없다.	3.21
	57.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3.57
	59.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	2.93
	69.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4.36
	80. 혼자서 진로를 생각해야 한다.	3.36
	82. 작심삼일이다.	3.93
	83. 놀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니까 실력이 금방 늘지 않는다.	3.71
	84. 대학을 목표로 하니까 검정고시를 잘 쳐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4.07
	87.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는 관심을 받고 싶다.	3.43
	89. 모든 게 짜증스럽다.	3.74
	94.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3.50
	118. 점점 소외감을 느낀다.	3.50
	122. 생일날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	3.36
	134.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4.00
	139. 뭘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3.74
	범주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3.62
14	36.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뭘 해서 먹고살지 걱정스럽다.	3.36
	72.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도 못 만들고 등본도 땔 수 없다.	3.50
	88. 외롭다.	3.74
	109. 친구들보다 늦었다는 마음에 조급해진다.	3.86
	범주 15.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이 생기지만, 한편으론 의기소침해진다.	3.50
15	45. 돈 때문에 나쁜 짓을(예, 가게털이, 보상금 받기 등) 하게 된다.	2.64
	62. 검정고시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인간대우를 못 받는다.	3.43
	85. 술, 담배 팔 때는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면서 버스비는 다 받으려고 한다.	4.64
	91.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딸리는 거 같다.	3.71
	117. 내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 가는 거 같다.	3.00
	132. 뭘 배우려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된다.	3.50

2) 대안학교 청소년 개념도 해석

대안학교 청소년의 개념도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념도의 유일한 해석 근거는 범주간 근접성이 유사성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이 근거에 따라 특정 경험과 관련한 피험자들의 잠재적인 인지 틀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뒤 좀 더 세부적인 각 범주의 위치와 근접성, 중요도 등을 근거로 피험자 집단의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알아 낼 수 있었다.

대안학교 내담자의 개념도는 3개 내지 5개의 범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사방형 구조를 보여준다. 7, 8, 9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1분면과 1, 2, 3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2분면, 4, 5, 6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3분면과 10, 11, 12, 13, 14, 15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4분면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1분면에는 ‘7. 나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특히 부모님) 기준의 일방적인 잣대만 들이댄다.’, ‘8. 나에 대한 부모의 잔소리, 불신, 무시, 실망, 분노가 커진다.’, ‘9. 식구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되어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등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에 일방적으로 짜 맞추려는 태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자퇴 이후 가족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거나, 무시당하고, 화풀이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집을 나가기도 하는 데,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것(부모↔자식)보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거나(부모→자식), 일방향적인 소통(부모→자식)을 더 힘든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7범주의 M=3.55, 8범주의 M=3.09, 9범주의 M=2.95).

2분면에는 ‘1. 학교친구와 교사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2.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이 따갑다.’, ‘3.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 등 자퇴 이후 학교 친구, 교사, 사회, 아르바이트 관련 인물들로부터 당하는 왜곡된 사회적 편견과 따라

운 시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의 주요 인물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당할수록 교복입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증폭된 것으로 보여 진다.

3분면에는 ‘4.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한다.’, ‘6.소속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자퇴한 것이 후회가 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등 학교를 그만 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학교 추억들이 단절된 것뿐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자퇴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이미 학교밖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해 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면에서도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 때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3분면에 오면 자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복학까지 고려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진척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육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면 학교생활을 그리워하거나 자퇴를 후회하거나 복학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조사에서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자퇴 직후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높다. 그러나 막상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차별을 당하면서 어린 연령과 낮은 학력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하는 자신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4분면에는 ‘10. 반항적이 되고 비행 경험이 늘어났다.’, ‘11. 자퇴생이라고 차별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12. 매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15.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도 생기지만, 한편으론 의기소침해진다.’ 등 행동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를 그만 둔 당시에는 검정고시를

보겠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지만 차츰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편견, 차별 등을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황폐해져서 은둔 생활에 빠져들거나, 혹은 이전보다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비행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청소년들이 반항적이 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범주와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범주가 동일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자퇴생으로서 당당한 사회인이 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밀려올 때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비행이라는 행동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전체 구도적인 측면에서 4개 영역을 살펴보면, 1분면을 시작으로 4분면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비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활동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학교를 그만 둔 직후에는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전 학교 친구들을 만나려고 ‘학교 주변’을 기웃거리는데 학교 친구들과 교사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받게 되고, 대낮에 슈퍼를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거리’를 배회하게 되면 학교를 가지 않고 낮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선들이 불편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그곳에서조차 차별과 착취를 당한 뒤에는 다시 ‘집안’에 은둔하게 되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

다음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주요 인물’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퇴 직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및 친척들’과 가장 많이 부딪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학교 친구도 보고 싶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코자 학교 주변을 배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학교친구와 교사’들로부터 무시와 냉대이며, 거리를 배회할 때마다 사회의 ‘어른’이라는 인물로부터 사회적인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이후 시간을 때우고 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아르바이트 주인과 동료’들로부터 불신과 무시를 당하면서 외부 인물과

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자신의 내면’ 에게로 돌아간다. 자신을 들여다보
자 매사가 귀찮고 짜증나며, 미래에 대한 걱정·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낮은
자존감, 무안감, 소외감, 무력감 등 부정적인 내면의 정서와 직면하게 된다.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개념도 전 범주에 걸쳐 평균 3.27의 평
정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4분면에 해당되는 ‘행동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
면의 문제’ 영역을 타 영역들보다 더 힘들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기간의 흐름에 따라 공
간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간에 질적인 차이를 정
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자퇴 직후에는 주로 집안에 머무르면서 가
족들과 심한 갈등을 겪지만 차츰 사회로 행동반경을 옮겨서 이곳저곳을 배
회하지만 가는 곳(예를 들어 학교 주변, 길거리, 아르바이트 현장)마다 자퇴
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가운 무시를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르바
이트 현장에서 착취와 차별을 당하면서 자퇴한 것을 후회하고, 자퇴생은 결
코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자
신’ 에게로 은둔하게 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최종 단계인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의 대면 과정을 가장 힘들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
다. 각 범주별 해당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범주별 문항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의 범주별 문항 및 평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주 1: 학교친구와 교사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범주 1의 전체 평정치는 3.02 점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1. 학교 다니는 친
구를 만나면 쪽팔린다.’, ‘6. 길 가다가 학교선생님을 만나면 괜히 겁이 난다.’,
‘14.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차갑게 대한다.’, ‘53. 학교 쉬는 시간에 몰래 담배
피우던 스타일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67. 졸업앨범이 없다.’, ‘100. 친구들과

놀려면 수업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105. 친구들이 소풍가거나 수학여행 간 날은 정말 심심하다.’, ‘106.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왜 왔냐며 구박하신다.’, ‘107. 같이 놀던 친구가 자퇴했을 때 조금 미안했다.’, ‘135. 학교에 놀러 가면 애들 물들인다고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다.’, ‘136. 학생증이 없어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식당, 미장원, 안경점 등).’ 등이 포함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136. 학생증이 없어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식당, 미장원, 안경점 등)(M=4.14).’였으며 다음으로는 ‘67. 졸업앨범이 없다(M=3.93).’, ‘100. 친구들과 놀려면 수업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M=3.57).’, ‘53. 학교 쉬는 시간에 몰래 담배 피우던 스틸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M=3.36).’, ‘105. 친구들이 소풍가거나 수학여행 간 날은 정말 심심하다(M=3.29).’, ‘135. 학교에 놀러 가면 애들 물들인다고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다(M=3.00).’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범주 2: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범주 2의 전체 평정치는 3.12 점으로 자퇴생을 꼴통, 문제아, 나쁜 아이로 싸잡아 버리고 친구부모들조차 놀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을 주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13.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꼴통이라고 한다.’ ‘30. 학교 안 다닌다고 친구 부모가 나하고 놀지 못하게 한다.’, ‘37.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문제아 나쁜 아이들이라고 싸잡아 버린다.’, ‘52. 친구들이 내 앞에서 농담 삼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63. 일 할 때 친구들이 노는 것 보면 덩달아 놀고 싶다.’, ‘71. 친구들이 자기 부모에게 내가 학교 다닌다고 하면 거짓말 한다.’, ‘101.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113. 학교 다니는 이성친구와 자주 싸운다.’, ‘119. 친구들이 주고받는 최신 유행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127. 자존심이 상해서 동네 소꿉친구들조차 잘 만나지 않는다.’ 등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7.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문제아 나쁜 아이들이라고 싸잡아 버린다(M=4.36).’, ‘63. 일 할 때 친구들이 노는 것 보면 덩달아 놀고 싶다(M=4.36).’였으며 다음으로 ‘101. 학교 안 다닌

다고 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M=4.29).’, ‘13.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꼴통이라고 한다(M=3.29).’, ‘52. 친구들이 내 앞에서 농담 삼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M=3.21).’ 순이었다.

③ 범주 3: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

범주 3의 전체 평정치는 3.28점으로 아르바이트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주위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교복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으로는 ‘5.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던 학교 운동장이 그림다.’, ‘7. 교복 입은 아이가 부럽다.’, ‘12. 다른 친구는 학교 다니는데 나만 힘들게 일하는 거 같아 억울하다.’, ‘21. 나이가 어려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 ‘22. 돈을 만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29. 복학해서 후배들과 함께 다닐 것이 걱정된다.’, ‘75. 아르바이트하는 데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나부터 의심을 받는다.’, ‘104. 아르바이트하면 친구들을 제대로 못 만난다.’, ‘125. 아르바이트 할 때 남자들이 여자에게 치근댄다.’, ‘126. 교복 입고 가다가 학교 선생님께 들켜서 무안했다.’ 등 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 교복 입은 아이가 부럽다(M=4.57).’였으며 다음으로 ‘104. 아르바이트하면 친구들을 제대로 못 만난다(M=3.71).’, ‘5.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던 학교 운동장이 그림다(M=3.57).’, ‘22. 돈을 만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M=3.57).’, ‘75. 아르바이트하는 데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나부터 의심을 받는다(M=3.57).’, ‘21. 나이가 어려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M=3.36).’, ‘125. 아르바이트 할 때 남자들이 여자에게 치근댄다(M=3.00).’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12. 다른 친구는 학교 다니는데 나만 힘들게 일하는 거 같아 억울하다(M=2.71).’, ‘29. 복학해서 후배들과 함께 다닐 것이 걱정된다(M=2.36).’, ‘126. 교복입고 가다가 학교 선생님께 들켜서 무안했다(M=2.36).’는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④ 범주 4: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한다.

범주 4의 전체 평정치는 3.17점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임금도 적고, 단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진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세부내용으로는 ‘23.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64.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이 적다.’, ‘76. 방학 때는 재학생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 ‘112.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M=성인 오락실 등).’, ‘124. 아르바이트할 때 나이 어리다고 힘든 일은 나에게 다 시킨다.’가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112.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성인 오락실 등)(M=4.00).’였으며 다음으로 ‘76. 방학 때는 재학생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M=3.71).’, ‘124. 아르바이트할 때 나이 어리다고 힘든 일은 나에게 다 시킨다(M=3.14).’순이었다. ‘23.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M=2.57).’, ‘64.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이 적다(M=2.43).’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범주 5: 자퇴한 것이 후회되지만 복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범주 5의 전체 평정치는 3.14점으로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학교기념일을 챙길 수 없게 되면서 자퇴한 것이 후회가 되고, 복학하려 하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11.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20. 복학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된다.’, ‘27. 자퇴한 것을 후회한다.’, ‘35. 복학하려고 해도 잘 다니지 못할 거 같아 걱정스럽다.’, ‘43. 아르바이트 한다는 핑계로 돈 씹씀이가 해피진다.’, ‘68. 자식들에게 들려줄 중·고등학교 추억이 없다.’, ‘108. 주변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나도 복학할 마음이 줄어든다.’ 등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27. 자퇴한 것을 후회한다(M=4.07).’, ‘68. 자식들에게 들려줄 중, 고등학교 추억이 없다(M=4.07).’였으며 다음으로 ‘20. 복학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된다(M=3.71).’, ‘43. 아르바이트 한다는 핑계로 돈 씹씀이 해피진다(M=3.57).’, ‘35. 복학하려고

해도 잘 다니지 못할 거 같아 걱정스럽다(M=3.36).’, ‘11.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M=3.19).’ 순이었다. ‘108. 주변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나도 복학할 마음이 줄어든다(M=2.64).’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범주 6: 소속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범주 6의 전체 평정치는 2.84점으로 학교, 학원 등 소속된 곳이 없다보니 이전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세부내용으로는 ‘25. 나이가 어려서 직업 전문학교도 못 들어간다.’, ‘54.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 ‘70.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진다.’, ‘114. 스승의 날이 되어도 찾아뵙 선생님이 없다.’, ‘130. 학교를 가지 않으니 학원까지 그만두게 된다.’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0.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진다(M=3.36).’이며 다음으로 ‘114. 스승의 날이 되어도 찾아뵙 선생님이 없다(M=3.07).’순이었다. 상대적으로 ‘54.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M=2.93).’, ‘25. 나이가 어려서 직업 전문학교도 못 들어간다(M=2.43).’, ‘130. 학교를 가지 않으니 학원까지 그만두게 된다(M=2.43).’는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⑦ 범주 7: 나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 기준의 일방적인 잣대만 들이댄다.

범주 7의 전체 평정치는 3.55점으로 자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친구는 무조건 나쁜 친구,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돈이나 벌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기준만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5. 부모님이 학교 안 다닐 거면 돈이나 벌어야 한다고 한다.’, ‘65. 친구에게 사고가 나면 친구엄마들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항의한다.’, ‘66.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다.’, ‘97. 어른들은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관심이 없다.’, ‘98.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 ‘129. 친구를 만나면 집에서는 무조건 나쁜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한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66.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다(M=4.43).’로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98. 어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M=4.14).’, ‘97. 어른들은 내가 왜 학교를 그만 두었는지 관심이 없다(M=3.36).’, ‘15. 부모님이 학교 안 다닐 거면 돈이나 벌어오라고 한다(M=3.29).’, ‘65. 친구에게 사고가 나면 친구엄마들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항의한다(M=3.07).’, ‘129. 친구를 만나면 집에서는 무조건 나쁜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한다(M=3.00).’ 순이었다.

⑧ 범주 8: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잔소리, 불신, 무시, 실망, 분노가 늘어난다.

범주 8의 평정치는 3.09점이며 부모님께서 나를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고, 잔소리가 심하고, 용돈도 주지 않고, 뭘 하든지 믿지 않고, 화풀이를 자주 하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18. 부모님이 췌려보신다.’, ‘19.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하다.’, ‘26. 부모님이 나를 창피해 하신다.’, ‘28.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 ‘31. 다른 형제, 자매들과 자꾸 비교한다.’, ‘38. 부모님께 제대로 자식취급 못 받는다.’, ‘46. 친척들이 아직도 학교 안 다니냐고 잔소리 하신다.’, ‘47. 학교 안다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며 용돈을 주지 않는다.’, ‘48. 친척들이 나를 무시한다.’, ‘49. 부모님이 내가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 할 때가 있다.’, ‘56. 검정고시 합격하면 할수록 부모의 기대가 높아진다.’, ‘77. 부모님의 실망이 너무 크다.’, ‘81. 부모님은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99.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 ‘102. 집에 있으면 부모님 분풀이 대상이 된다.’, ‘103. 부모님은 돈벌어오면 잘해주시지만 놀고 있으면 집안일 다 시킨다.’, ‘111. 자퇴 후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일이 많아졌다.’, ‘137. 집에서 필요한 것을 안 사준다.’, ‘138. 부모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 하고 싶은 공부나 기술을 배울 수 없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7. 부모님의 실망이 너무 크다(M=3.93).’는 것과 ‘31. 다른 형제, 자매들과 자꾸 비교한다(M=3.93).’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46. 친척들이 아직도 학교 안 다니냐고 잔소리 하신다

(M=3.36).’, ‘48. 친척들이 나를 무시한다(M=3.29).’, ‘103. 부모님은 돈벌어 오면 잘해주시지만 놀고 있으면 집안일 다 시킨다(M=3.29).’, ‘111. 자퇴 후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일이 많아졌다(M=3.29).’, ‘81. 부모님은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걱정한다(M=3.24).’, ‘56. 검정고시 합격하면 갈수록 부모의 기대가 높아진다(M=3.21).’, ‘99.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M=3.14).’, ‘102. 집에 있으면 부모님 분풀이 대상이 된다(M=3.14).’, ‘26. 부모님이 나를 창피해 하신다(M=3.00).’, ‘138. 부모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 하고 싶은 공부나 기술을 배울 수 없다(M=3.0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8.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M=2.86).’, ‘49. 부모님이 내가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 할 때가 있다(M=2.86).’, ‘38. 부모님께 제대로 자식 취급 못 받는다(M=2.69).’, ‘47. 학교 안다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며 용돈을 주지 않는다(M=2.71).’, ‘137. 집에서 필요한 것을 안 사준다(M=2.71).’, ‘18. 부모님이 짜려보신다(M=2.50).’, ‘19.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하다(M=2.50).’ 등 문항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범주 9: 식구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되어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범주 9의 평정치는 2.95 점으로 형제들과 자주 싸우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집을 나가거나 가능한 친척 모임에 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주된 것으로 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39.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거의 집 밖에 나가 있다.’, ‘40. 집안일(허드렛일, 청소, 심부름)을 마구 시킨다.’, ‘116. 친척 모임에 잘 가지 않는다.’, ‘133. 형제들과 많이 싸우게 된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9.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거의 집 밖에 나가 있다(M=3.64).’, ‘116. 친척 모임에 잘 가지 않는다(M=3.29).’ 등이며 상대적으로 ‘40. 집안일(허드렛일, 청소, 심부름)을 마구 시킨다(M=2.43).’, ‘133. 형제들과 많이 싸우게 된다(M=2.43).’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범주 10: 반항적이 되고 비행 경험이 늘어났다.

범주 10의 평정치는 3.28점으로 술, 담배, 게임중독에 빠지고, 성경험이 많아졌으며, 밤 늦게까지 자퇴생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2. 낮 시간에 PC방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훑어본다.’, ‘16. 쪽팔려서 안 돌아 다닌다.’, ‘24. 학교 안 다니는 아이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게 된다.’, ‘41. 아는 사람 만날까봐 버스를 잘 타지 않는다.’, ‘55.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60. 술이나 게임중독에 빠진다.’, ‘61.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상한다.’, ‘73. 낮과 밤이 바뀐다.’, ‘74. 오후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노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78. 보호관찰 중이라 또 사고 치게 될까봐 걱정된다.’, ‘86. 제대로 챙겨먹지 않는다.’, ‘90.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쬼여보는 거 같고 비웃는 거 같다.’, ‘92.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더 반항적이 된다.’, ‘95. 성 경험이 많아 졌다.’, ‘96. 임신을 하거나 시킨 적이 있다.’, ‘110.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을 뜨면 비참하다.’, ‘131. 외모가 학생답지 않다고 지적을 많이 당한다.’ 등이 있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3. 낮과 밤이 바뀐다(M=4.64).’였으며 다음으로 ‘74. 오후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노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M=4.43).’, ‘92.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더 반항적이 된다(M=4.24).’, ‘131. 외모가 학생답지 않다고 지적을 많이 당한다(M=4.00).’, ‘86. 제대로 챙겨먹지 않는다(M=3.71).’, ‘60. 술이나 게임중독에 빠진다(M=3.64).’, ‘24. 학교 안 다니는 아이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게 된다(M=3.57).’, ‘61.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상한다(M=3.57).’, ‘90.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쬼여보는 거 같고 비웃는 거 같다(M=3.21).’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16. 쪽팔려서 안 돌아 다닌다(M=2.86).’, ‘78. 보호관찰 중이라 또 사고 치게 될까봐 걱정된다(M=2.71).’, ‘95. 성 경험이 많아 졌다(M=2.71).’, ‘41. 아는 사람 만날까봐 버스를 잘 타지 않는다(M=2.64).’, ‘110.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을 뜨면 비참하다(M=2.64).’, ‘2. 낮 시간에 PC방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훑어본다(M=2.36).’, ‘55.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M=2.50).’, ‘96. 임신을 하거나 시킨 적이 있다(M=2.36).’의 중

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범주 11: 자퇴생이라고 차별 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범주 11의 평정치는 3.13 점이며 자퇴생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낙인찍고, 무시하고, 노력해서 검정고시 붙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0. 어른들이 물어보면 학교 다니지 않는 것을 숨긴다.’, ‘44. 검정고시 붙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50. 경찰서 조서 쓸 때 학교 다니지 않는다고 막 대한다.’, ‘51. 이성친구가 무식하다고 무시한다.’, ‘58. 학교 안 다니는 선배들에게 많이 시달린다.’, ‘79. 그냥 노는 아이랑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를 차별한다.’, ‘120. 같이 사고 쳐도 나 때문에 친구 망쳐놓았다고 나만 야단맞는다.’, ‘121. 청소년증을 보이면 학교 그만둔 애로 낙인찍혀 버린다.’, ‘123. 검정고시 볼 거라면 사회에서 인정이나 해주냐며 무시한다.’ 등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9. 그냥 노는 아이랑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를 차별한다(M=4.07).’였으며 다음으로 ‘123. 검정고시 볼 거라면 사회에서 인정이나 해주냐며 무시한다(M=3.43).’, ‘50. 경찰서 조서 쓸 때 학교 다니지 않는다고 막 대한다(M=3.29).’, ‘44. 검정고시 붙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M=3.24).’, ‘121. 청소년증을 보이면 학교 그만둔 애로 낙인찍혀 버린다(M=3.21).’, ‘10. 어른들이 물어보면 학교 다니지 않는 것을 숨긴다(M=3.00).’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58. 학교 안 다니는 선배들에게 많이 시달린다(M=2.86).’, ‘120. 같이 사고 쳐도 나 때문에 친구 망쳐놓았다고 나만 야단맞는다(M=2.74).’, ‘51. 이성친구가 무식하다고 무시한다(M=2.24).’ 문항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⑫ 범주 12: 매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범주 12의 평정치는 3.39점으로 매사가 귀찮고, 자퇴생이라고 나이 어리다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서 짜증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분항으로는 ‘17.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고 TV보고 누워 잔다.’, ‘42. 기사랑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반요금 낸다.’, ‘93.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기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야단친다.’, ‘115.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열 받는다.’, ‘128. 대안학교 다닌다고 하면 나쁜 짓 해서 가는 걸로 안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17.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고 TV보고 누워 잔다(M=3.64).’와 ‘93.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기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야단친다(M=3.64).’였으며 다음으로 ‘128. 대안학교 다닌다고 하면 나쁜 짓해서 가는 걸로 안다(M=3.36).’, ‘42. 기사랑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반요금 낸다(M=3.29).’, ‘115.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열 받는다(M=3.00).’순이었다.

⑬ 범주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

범주 13에 대한 평정치는 3.57 점이며 미래가 불안하고, 사는 게 재미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외롭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분항으로는 ‘3. 미래가 막막하다.’, ‘4.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8.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9. 사는 게 부끄럽다.’, ‘32. 죽고 싶다.’, ‘33. 희망이 없다.’, ‘34. 인생이 재미가 없다.’, ‘57.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59.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 ‘69.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80. 혼자서 진로를 생각해야 한다.’, ‘82. 작심 삼일이다.’, ‘83. 놀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니까 실력이 금방 늘지 않는다.’, ‘84. 대학을 목표로 하니까 검정고시를 잘 쳐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87.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는 관심을 받고 싶다.’, ‘89. 모든 게 짜증스럽다.’, ‘94.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118. 점점 소외감을 느낀다.’, ‘122. 생일날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 ‘134.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139.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등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 미래가 막막하다(M=4.36).’와 ‘4.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M=4.36).’, ‘69.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M=4.36).’이며 다음으로 ‘8.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M=4.07).’, ‘84. 대학을 목표로 하니까 검정고시를 잘 쳐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M=4.07).’, ‘134.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M=4.00).’, ‘82. 작심 삼일이다(M=3.93).’, ‘89. 모든 게 짜증스럽다(M=3.74).’, ‘139.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M=3.74).’, ‘83. 놀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니까 실력이 금방 늘지 않는다(M=3.71).’, ‘57.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M=3.57).’, ‘94.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다(M=3.50).’, ‘118. 점점 소외감을 느낀다(M=3.50).’, ‘87.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는 관심을 받고 싶다(M=3.43).’, ‘80. 혼자서 진로를 생각해야 한다(M=3.36).’, ‘122. 생일날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M=3.36).’, ‘34. 인생이 재미가 없다(M=3.2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9. 사는 게 부끄럽다(M=2.93), ’32. 죽고 싶다(M=2.93)’, ‘59.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M=2.93)’, ‘33. 희망이 없다(M=2.50)’ 문항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⑭ 범주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범주 14의 평정치는 3.62 점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럽고, 매사가 늦다는 마음에 초조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36.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뭘 해서 먹고살지 걱정스럽다.’, ‘72.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도 못 만들고 등본도 땔 수 없다.’, ‘88. 외롭다.’, ‘109. 친구들보다 늦었다는 마음에 조급해진다.’ 등이 있었다.

문항별로 중요도를 살펴보면 ‘109. 친구들보다 늦었다는 마음에 조급해진다(M=3.8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88. 외롭다(M=3.74).’, ‘72.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도 못 만들고 등본도 땔 수 없다(M=3.50).’, ‘36.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뭘 해서 먹고살지 걱정스럽다(M=3.36).’ 순이었다.

⑮ 범주 15: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의기소침 해진다.

범주 15의 평정치는 3.50 점으로 인간대접 못 받고, 부당한 대우에 억울하지만,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45. 돈 때문에 나쁜 짓을(예, 가게털이, 보상금 받기 등) 하게 된다.’, ‘62. 검정고시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인간대우를 못 받는다.’, ‘85. 술, 담배 팔 때는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면서 버스비는 다 받으려고 한다.’, ‘91.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 같다.’, ‘117. 내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거 같다.’, ‘132. 뭘 배우려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된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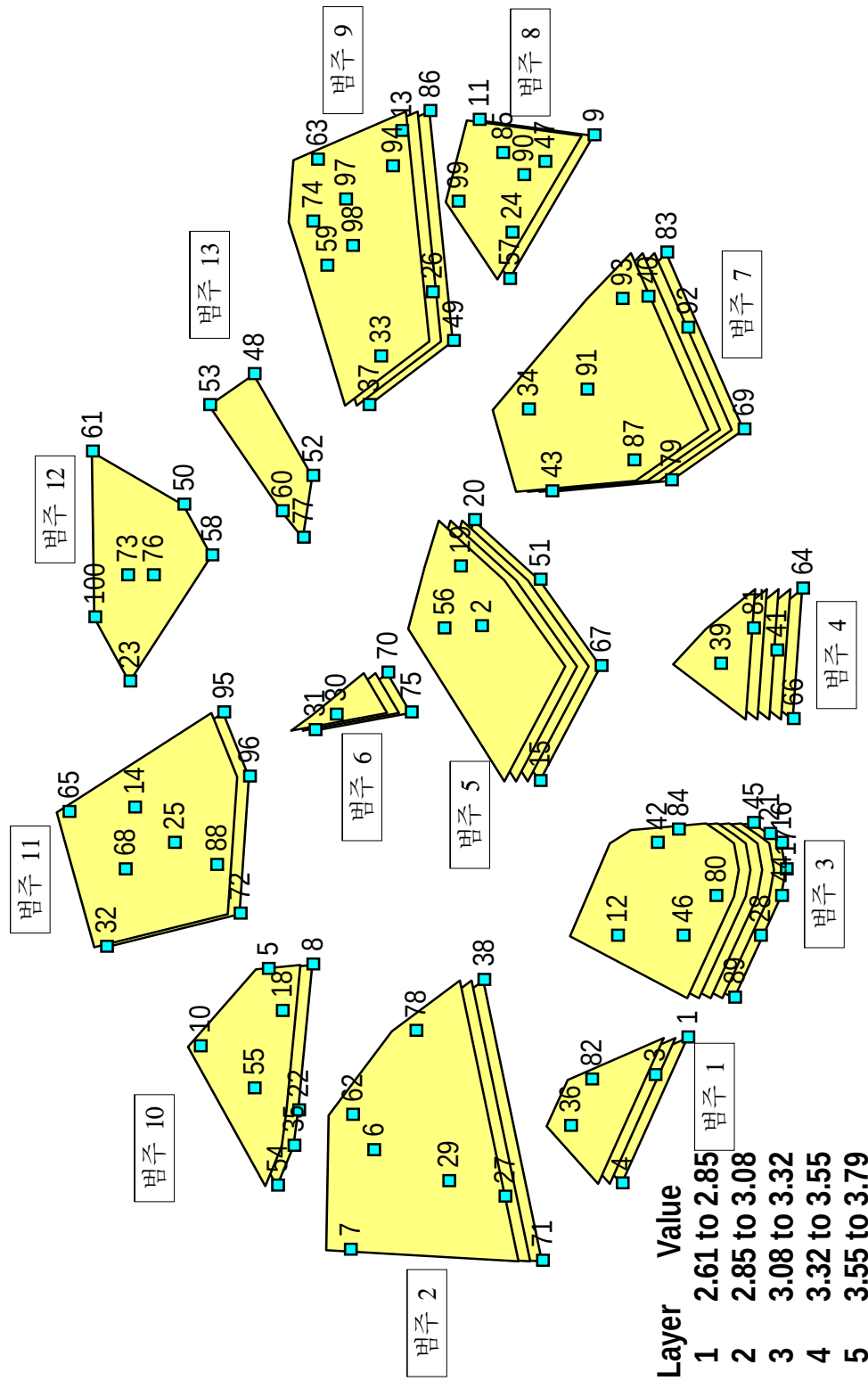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85. 술, 담배 팔 때는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면서 버스비는 다 받으려고 한다(M=4.64).’였으며 다음으로 ‘91.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 같다(M=3.71).’, ‘132. 뭘 배우려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된다(M=3.50).’, ‘62. 검정고시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인간대우를 못 받는다(M=3.43).’, ‘117. 내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거 같다(M=3.00).’ 순이었다. ‘45. 돈 때문에 나쁜 짓을(예, 가게털이, 보상금 받기 등) 하게 된다(M=2.64).’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1)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작성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이 개념도는 모두 13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포함된 문장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한 개념도는 총 13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의 명칭은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이었다. 중요도 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중시한 범주는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M=3.79).'였으며 다음으로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M=3.61).',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M=3.40).',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M=3.32).',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M=3.19).' 순이었다. 가장 경시한 범주는 '13.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M=2.61).',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M=2.81).'이었다. 평균 평정치는 3.17이었다.



[그림 III-2]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표 III-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그룹	문 장	평정치 (평균)
1	범주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3.14
	1.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내 적성과 희망에 맞지 않는다.	1.94
	3.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	3.83
	4. 학력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된다.	2.94
	36. 자퇴한 것 때문에 회사 면접 볼 때 불리하다.	3.33
	82.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학력을 따진다.	3.67
2	범주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3.23
	6. 친구들도 내가 자퇴한 것을 나쁘게 본다.	2.17
	7.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3
	27. 중퇴했다고 하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3.50
	29. 돈은 성인과 똑같이 내고 배우는데 월급은 어리다고 적게 준다.	3.89
	38.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	4.00
	62. 어린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	3.72
	71. 학력 쓰라고 하면 주눅 든다.	3.11
3	범주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3.61
	12.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	2.72
	16.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	3.17
	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	3.78
	21.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4.22
	28. 기술을 배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3.89
	4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	4.00
	44.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1년)이 짧다.	3.11
	45.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	3.67
	46.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 봐 눈치 지원 한다.	3.22
	80.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다.	4.22
	84.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도 중요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중국집 등).	3.50
4	범주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3.79
	39.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89
	41.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	3.56
	64.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렵다.	4.17
	66. 기술,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4.61
	81. 아르바이트 월급이 밀리거나 떼인 적이 있다.	2.71

5	범주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3.32
	2.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61
	15.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	3.67
	19. 빼놓아져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무관심).	3.78
	20.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3.44
	51.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힘들다.	3.44
	56. 친구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것이 부럽다.	2.89
	67.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3.44
6	범주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3.22
	30. 버스기사 아저씨와 실랑이 하는 게 귀찮아 어른 요금 낸다.	4.06
	31. 학교 갈 시간에 버스 타면 ‘청소년입니다.’ 소리 나서 창피하다.	2.22
	70.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다.	2.94
	75.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3.67
7	범주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3.40
	34.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3.33
	40. 내가 하고 싶은 일(예: 댄스, 메이크업, 농사 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	4.00
	43.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3.83
	69. 돈을 벌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28
	79. 학교를 그만둔 나와 같은 아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3.17
	83. 할인 혜택 이외에는 청소년증을 쓸 곳이 별로 없다.	4.11
	87.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을 피하려다 엄청 고생했다.	2.06
	91.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내보낸다.	3.33
	92. 상담소나 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	3.67
	93. 상담소나 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	3.17
8	범주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3.01
	9.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2.56
	11.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3.17
	24.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피시방, 노래방, 술집 뿐).	3.39
	47. 미래가 불투명하다.	3.06
	57. 예전에 알던 친구와 할 이야기(공감대)가 없다.	3.44
	85.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맸다.	3.11
	90. 가출해도 갈 곳이 없다.	2.56
	99.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2.78

	범주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3.19
9	13. 이것마저 그만두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다.	3.78
	26. 어디에서 진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3.67
	33.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50
	37.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4.11
	49. 밖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다.	3.56
	59.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기 어렵다.	3.39
	63. 반향심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안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있다.	3.39
	74.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2.50
	86. 나쁜 짓(예: 아리랑 치기 등)하는 형, 누나와 어울리게 되었다.	2.67
	94. 너무 오래 집에만 있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2.50
	97.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3.00
	98. 사람들의 편견으로 생긴 정신적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	3.22
	범주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2.97
10	5.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2.56
	8.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다.	2.17
	10. 친구의 부모님이 자퇴했다고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	2.11
	18. 여자가 학교를 그만두면 더 안 좋게 본다.	3.94
	22. 계속 정규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이 기술 배우라고 한다.	2.22
	35. 학교 그만둔 이유는 알고도 하지 않고, 사고 쳐서 그만두었으려니 한다.	4.11
	54.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한다.	4.39
	55. 학교에 놀러갔는데 선생님과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했다.	2.22
	범주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2.87
11	14. 가족이나 친척들이 구박한다.	2.17
	25. 어른들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손가락질 한다.	3.89
	32.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학교 그만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2.94
	65.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시 정규학교 가라고 하신다.	2.33
	68.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2.44
	72. 자퇴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3.94
	95. 사회복지사마저도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2.78
	96. 사회에서 자꾸 불량학생으로 몰다.보니 자신감이 없어진다.	2.94
	88. 문제(예: 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다.	2.44
	범주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2.81
12	23. 부모님이 학교 안다니니 돈이라도 벌라고 한다.	2.83
	50.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준다.	2.50
	58. 어른들의 태도(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받아줄게. 너희들 지켜줄게)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4.00

13	61. 부모님과 자주 다룬다.	2.72
	73. 부모님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	2.39
	76. 부모님이 내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83
	100.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꾸 싸우신다.	2.39
	범주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2.61
	48. 집에 있기 눈치 보인다.	2.78
	52.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규학교에서 내보낸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2.28
	53.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2.50
	60.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	3.17
	77. 선생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33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개념도 해석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개념도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급했듯이 개념도의 유일한 해석 근거는 범주간 근접성이 유사성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이 근거에 따라 특정 경험과 관련한 피험자들의 잠재적인 인지 틀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뒤 좀 더 세부적인 각 범주의 위치와 근접성, 중요도 등을 근거로 피험자 집단의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알아 낼 수 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내담자의 개념도는 원형의 둘레를 중심으로 범주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골고루 자리 잡고 있으며 원의 중앙에 2 개의 범주가 위치하고 하고 있다. 중앙의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범주는 원의 중앙에 위치하여 원둘레의 나머지 범주들과 비교적 유사한 거리들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범주의 힘든 점들과 전반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구조의 구분을 살펴보기 위해 범주간의 축의 존재 혹은 상하 혹은 좌우로의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다.지 눈에 띄만한 축이나 간격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 범주별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준비형의 개념도가 크게 5개의 분면으로 구분되는 것을 할 수 있다. 즉 11, 12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1 분면, 12, 9, 8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2 분면, 7, 4, 3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3분

면, 2, 1, 10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4분면, 6, 5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5분면이 그것이다.

1분면에는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등 어른들과의 갈등이나 관계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범주별 평균값은 2.87, 2.81로 다른 범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2분면에는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11. 방향과 목표상실’ 등 개인적인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범주는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로 평균값이 3.19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순이었다.

3분면에는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등으로 직업 및 적성, 미래설계와 관련한 외부 환경적 지원체제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범주는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였으며 다음으로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순이었다. 세 영역의 평균값은 각각 2.79, 3.61, 3.40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이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분면에는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10. 사회적 편견’ 등이 속해 있어 학교밖 청소년들의 겪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반영해 주고 있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범주는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이며 다음으로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순이었다.

중간에 위치한 5분면에는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평균값

은 3.32, 3.22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5개 영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분면에서 4분면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즉, 1분면은 현재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먼 과거에 주로 경험한 일로 현재 직업훈련중인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무시와 차가운 시선, 이로 인한 갈등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M=2.81).',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M=2.87).'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통해 직업훈련중인 청소년의 경우 기숙사 생활로 인한 부모와의 거리적·분리와 직업훈련에 대한 부모와의 합의로 부모님과 갈등과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와서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이후로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전히 부모와의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는 계속됨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1분면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경험한 일로 그 시간의 경과와 상황적 변화로 인해 그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분면은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어려움으로 시간적으로 1분면과 연결되어 부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상으로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일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를 그 내용으로 하며 1분면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범주는 중요하게 인식하여 부모님,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에 대한 고통에 대한 원망이나 야속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그로 인한 마음 깊숙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향과 목표상실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본격적인 진로·미래 탐색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분면과 연결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직업전문학교에 입교하기 전에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기간을 경험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분면은 시간상으로 현재 직업훈련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첨예한 어려움을 의미하며 현재의 내용인 만큼 그 중요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내용으로는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를 포함하며 이 중 특히 경제적, 거리적,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의 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공의 한정성, 직업전문학교 훈련기간에 대한 아쉬움, 전공 선택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친구들과의 교류 기회, 필요한 정보도움, 청소년 생활시설과 관련한 어려움 등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3분면 내에서도 오른쪽으로부터 가장 시간적으로 먼 것으로 보여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로 어려움을 겪으며 진로와 미래를 선택하고 준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는 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진학하게 된 직업전문학교에서 현재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역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가 포함된다. 중요도면에서는 3 영역인 외부 환경적 지원체제 부족과 더불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영역의 경우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1영역의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4영역의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는 3영역의 진로·직업훈련과정에서의 외부·환경적 지원체계 부족과 더불어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직업전문학교 학교밖 청소년 범주별 문항

직업전문학교 학교밖 청소년의 범주별 문항 및 평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주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범주 1의 평정치는 3.14 점이며 진로, 미래계획에서의 학력의 장벽과 제약을 나타낸다. 세부내용으로는 ‘1.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내 적성과 희망에 맞지 않는다.’, ‘3.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 ‘4. 학력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된다.’, ‘36. 자퇴한 것 때문에 회사 면접 볼 때 불리하다.’, ‘82.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학력을 따진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3.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M=3.83).’였으며 다음으로 ‘82.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학력을 따진다(M=3.67).’, ‘36. 자퇴한 것 때문에 회사 면접 볼 때 불리하다(M=3.33).’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4. 학력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된다(M=2.94).’, ‘1.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내 적성과 희망에 맞지 않는다(M=1.94).’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② 범주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범주 2의 평정치는 3.23점이며 정규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한 진로·취업에 대한 제약과 불이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6. 친구들도 내가 자퇴한 것을 나쁘게 본다.’, ‘7.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7. 중퇴했다고 하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29. 돈은 성인과 똑같이 내고 배우는데 월급은 어리다고 적게 준다.’, ‘38.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 ‘62. 어린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 ‘71. 학력 쓰라고 하면 주눅 든다.’, ‘78. 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이질감).’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8.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M=4.00).’였으며 다음으로 ‘29. 돈은 성인과 똑같이 내고 배우는데 월급은 어리다고 적게 준다(M=3.89).’, ‘62. 어린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M=3.72).’, ‘27. 중퇴했다고 하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M=3.50).’, ‘71. 학력 쓰라고 하면 주눅 든다(M=3.11).’, ‘78. 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이질감)(M=3.1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6. 친구들도 내가 자퇴한 것을 나쁘게 본다(M=2.17).’, ‘7.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M=2.33).’는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범주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범주 3의 평정치는 3.61 점으로 취업·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분항으로는 ‘12.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 ‘16.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 ‘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 ‘21.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28. 기술을 배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4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 ‘44.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1년)이 짧다.’, ‘45.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 ‘46.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 봐 눈치 지원한다.’, ‘80.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다.’, ‘84.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도 중요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중국집 등).’, ‘89.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 등 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21.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M=4.22).’와 ‘80.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다(M=4.22).’였으며, 다음으로 ‘4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

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M=4.00).’, ‘28. 기술을 배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M=3.89).’, ‘89.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M=3.78).’, ‘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M=3.78).’, ‘45.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M=3.67).’, ‘84.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도 중요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다(중국집 등)(M=3.50).’, ‘46.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 봐 눈치 지원 한다(M=3.22).’, ‘16.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M=3.17).’, ‘44.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1년)이 짧다(M=3.11).’ 순이었다. ‘12. 수업시간이 너무 길다(M=2.72).’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④ 범주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범주 4의 평정치는 3.79 점으로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따르는 경제적, 지리적 자원의 부족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따르는 환경적인 제약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39.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1.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 ‘64.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렵다.’, ‘66. 기술,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81. 아르바이트 월급이 밀리거나 떼인 적이 있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66. 기술,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M=4.61).’였으며 다음으로 ‘64.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렵다(M=4.17).’, “39.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M=3.89).”, ‘41.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M=3.56).’ 순이었다. ‘81. 아르바이트 월급이 밀리거나 떼인 적이 있다(M=2.71).’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범주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범주 5의 평정치는 3.32점이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세부내용으로는 ‘2.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 ‘19. 빠뜨려져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무관심).’, ‘20.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51.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힘들다.’, ‘56. 친구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것이 부럽다.’, ‘67.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19. 빠뜨려져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무관심). (M=3.78).’였으며 다음으로 ‘15.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 (M=3.67).’, ‘20.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M=3.44).’, ‘51.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힘들다(M=3.44).’, ‘67.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M=3.44).’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56. 친구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것이 부럽다(M=2.89).’, ‘2.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M=2.61).’ 문항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⑥ 범주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범주 6의 평정치는 3.22 점이며 일상생활에서 학생이 아님으로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30. 버스기사 아저씨와 실랑이 하는 게 귀찮아 어른 요금 낸다.’, ‘31. 학교 갈 시간에 버스 타면 ‘청소년입니다.’ 소리 나서 창피하다.’, ‘70.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다.’, ‘75.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30. 버스기사 아저씨와 실랑이 하는 게 귀찮아 어른 요금 낸다(M=4.06).’였으며 다음으로 ‘75.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M=3.67).’였다. 상대적으로 ‘70.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더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다

(M=2.94).’, ‘31. 학교 갈 시간에 버스 타면 청소년입니다. 소리 나서 창피하다(M=2.22).’에 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였다.

⑦ 범주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범주 7의 평정치는 3.40점이며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정보적 체계의 미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34.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40. 내가 하고 싶은 일(예: 댄스, 메이크업, 농사 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 ‘43.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69. 돈을 벌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79. 학교를 그만둔 나와 같은 아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83. 할인 혜택 이외에는 청소년 증을 쓸 곳이 별로 없다.’, ‘87.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을 피하려다 엄청 고생했다.’, ‘91.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내보낸다.’, ‘92. 상담소나 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 ‘93. 상담소나 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83. 할인 혜택 이외에는 청소년증을 쓸 곳이 별로 없다(M=4.11).’였으며 다음으로 ‘40. 내가 하고 싶은 일(예: 댄스, 메이크업, 농사 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M=4.00).’, ‘43.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M=3.83).’, ‘92. 상담소나 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M=3.67).’, ‘34.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M=3.33).’, ‘91.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내보낸다(M=3.33).’, ‘69. 돈을 벌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M=3.28).’, ‘79. 학교를 그만둔 나와 같은 아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M=3.17).’, ‘93. 상담소나 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M=3.1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87.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

을 피하려다 엄청 고생했다(M=2.06).’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⑧ 범주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범주 8의 평정치는 3.01점이며 정신적인 방황과 삶의 목표상실, 막막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무력감과 불투명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문항으로는 ‘9.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11.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24.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피시방, 노래방, 술집 뿐).’, ‘47. 미래가 불투명하다.’, ‘57. 예전에 알던 친구와 할 이야기(공감대)가 없다.’, ‘85.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맸다.’, ‘90. 가출해도 갈 곳이 없다.’, ‘99.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57. 예전에 알던 친구와 할 이야기(공감대)가 없다(M=3.44).’였으며 다음으로 ‘24.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피시방, 노래방, 술집 뿐)(M=3.39).’, ‘11. 무엇을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M=3.17).’, ‘85.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맸다(M=3.11).’, ‘47. 미래가 불투명하다(M=3.06).’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99.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M=2.78).’, ‘90. 가출해도 갈 곳이 없다(M=2.56).’, ‘9.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M=2.56).’에 관한 문항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⑨ 범주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범주 9의 평정치는 3.19 점이며 사회와 주위사람들의 냉담한 반응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문항으로는 ‘13. 이것마저 그만두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다.’, ‘26. 어디에서 진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33.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37.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49. 밖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다.’, ‘59.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다.’, ‘63. 반항심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안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있다.’, ‘74.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86. 나쁜 짓(예: 아리랑 치기 등)하는 형, 누나와 어울리게 되었다.’, ‘94. 너무 오래 집에만 있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97.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98. 사람들의 편견으로 생긴 정신적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7. 청소년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M=4.11).’였으며 다음으로 ‘13. 이것마저 그만두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다(M=3.78).’, ‘26. 어디에서 진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M=3.67).’, ‘49. 밖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다(M=3.56).’, ‘59.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기 어렵다(M=3.39).’, ‘63. 반항심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안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있다(M=3.39).’, ‘98. 사람들의 편견으로 생긴 정신적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M=3.22).’, ‘97.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M=3.00).’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86. 나쁜 짓(예: 아리랑 치기 등)하는 형, 누나와 어울리게 되었다(M=2.67).’, ‘33.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M=2.50).’, ‘74.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M=2.50).’, ‘94. 너무 오래 집에만 있어 대인기 피증이 생겼다(M=2.50).’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범주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범주 10의 평정치는 2.97 점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들의 학교를 그만둔 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편견을 내포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5.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8.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다.’, ‘10. 친구의 부모님이 자퇴했다고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 ‘18. 여자가 학교를 그만두면 더 안 좋게 본다.’, ‘22. 계속 정규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이 기술 배우라고 한다.’, ‘35. 학교 그만둔 이유는 알고고도 하지 않고, 사고 쳐서 그만두었으려니 한다.’, ‘54.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한다.’, ‘55. 학교에 놀러갔는데 선생님과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했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54.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M=4.39).’였으며 다음으로 ‘35. 학교 그만둔 이유는 알고고도 하지 않고, 사고 쳐서 그만두었으려니 한다(M=4.11).’, ‘18. 여자가 학교를

그만두면 더 안 좋게 본다(M=3.94).’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5.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M=2.56).’, ‘22. 계속 정규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이 기술 배우라고 한다(M=2.22).’, ‘55. 학교에 놀러갔는데 선생님과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했다(M=2.22).’, ‘8. 직업전문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다(M=2.17).’, ‘10. 친구의 부모님이 자퇴했다고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M=2.11).’에 관한 문항은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범주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범주 11의 평정치는 2.87점이며 어른들의 냉담한 시선에 의한 자신감 상실과 의욕상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14. 가족이나 친척들이 구박한다.’, ‘25. 어른들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손가락질 한다.’, ‘32.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학교 그만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65.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시 정규학교 가라고 하신다.’, ‘68.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72. 자퇴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95. 사회복지사마저도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96. 사회에서 자꾸 불량학생으로 몰다보니 자신감이 없어진다.’, ‘88. 문제(예: 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2. 자퇴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M=3.94).’였으며 다음으로 ‘25. 어른들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손가락질 한다(M=3.89).’순이었다.

상대적으로 ‘32.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학교 그만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M=2.94).’, ‘96. 사회에서 자꾸 불량학생으로 몰다보니 자신감이 없어진다(M=2.94).’, ‘95. 사회복지사마저도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M=2.78).’, ‘68.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M=2.44).’, ‘88. 문제(예: 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다(M=2.44).’, ‘65.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시 정규학교 가라고 하신다(M=2.33).’, ‘14. 가족이나 친척들이 구박한다(M=2.17).’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⑫ 범주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범주 12의 평정치는 2.81 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23. 부모님이 학교 안 다니니 돈이라도 벌라고 한다.’, ‘50.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준다.’, ‘58. 어른들의 태도(얼마나 힘들니. 내가 다 받아줄게. 너희들 지켜줄게)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61.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73. 부모님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 ‘76. 부모님이 내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100.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꾸 싸우신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58. 어른들의 태도(얼마나 힘들니. 내가 다 받아줄게. 너희들 지켜줄게)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M=4.00).’였으며 이외의 문항인 ‘23. 부모님이 학교 안다니니 돈이라도 벌라고 한다(M=2.83).’, ‘76. 부모님이 내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M=2.83).’, ‘61.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M=2.72).’, ‘50.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준다(M=2.50).’, ‘73. 부모님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M=2.39).’, ‘100.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꾸 싸우신다(M=2.39).’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⑬ 범주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범주 13의 평정치는 2.61점이며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내포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48. 집에 있기 눈치 보인다.’, ‘52.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규학교에서 내보낸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53.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60.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 ‘77. 선생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은 ‘60.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M=3.17).’였으며 그 외의 ‘48. 집에 있기 눈치 보인다(M=2.78).’, ‘52.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규학교에서 내보낸 선생님이 원망스럽다(M=2.28).’, ‘53.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M=2.50).’, ‘77. 선생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M=2.33).’ 문항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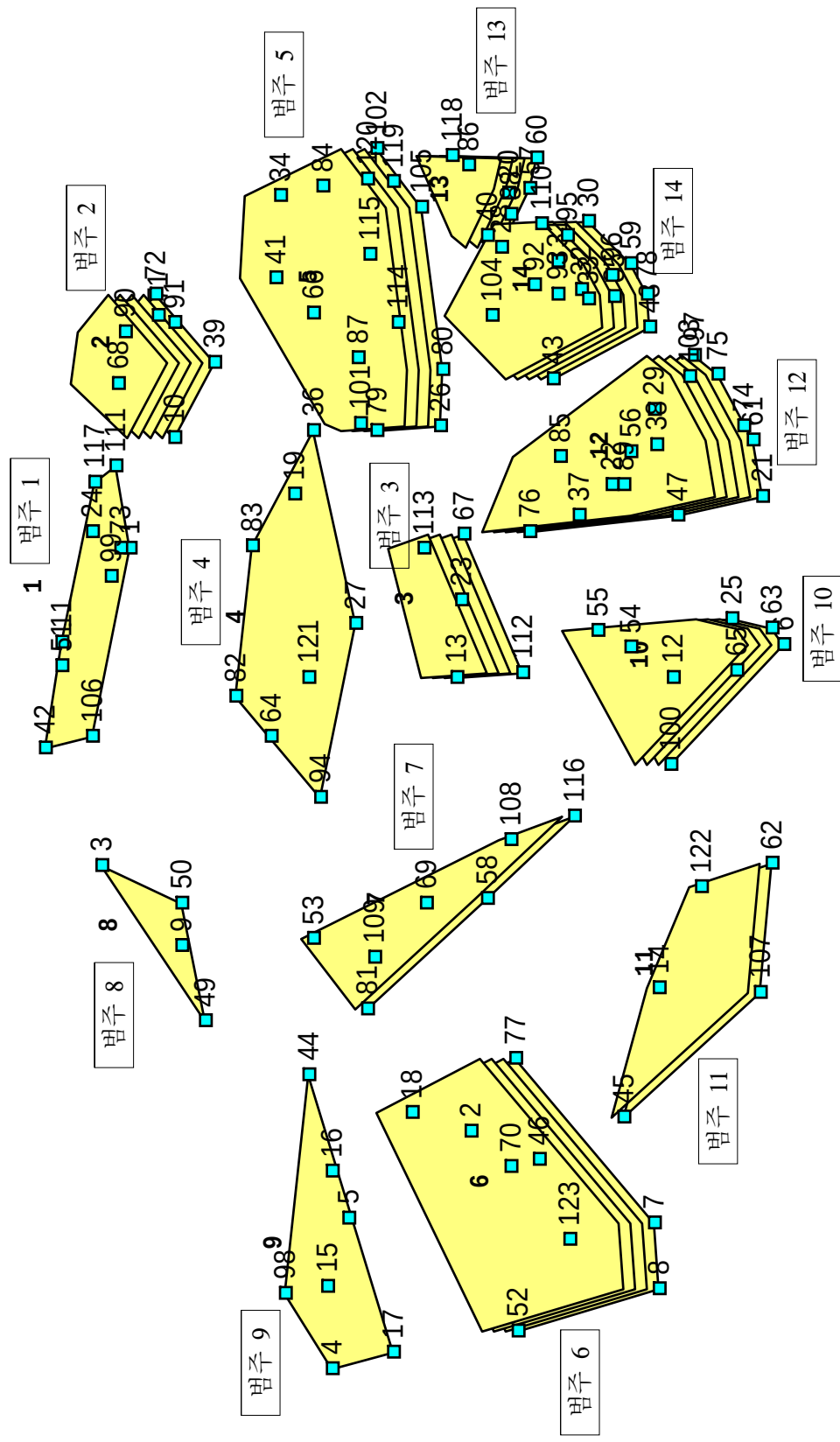
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개념도 작성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이 개념도는 모두 14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포함된 문장은 <표 III-3>에 제시하였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한 개념도는 총 14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념도는 ‘1. 부모님의 구박이 심하다.’, ‘2. 부모님께 죄송하다.’, ‘3.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다.’, ‘4.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5.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의 심한 정체감을 느낀다.’, ‘6. 아르바이트하다가 힘들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많아진다.’, ‘7.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 ‘8. 용돈이 궁핍하다.’, ‘9.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10. 친구관계가 소원해진다.’, ‘11. 자퇴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12.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13.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 ‘14. 학교 생활이 그립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 중요도 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중시한 범주는 ‘2. 부모님께 죄송하다(M=4.03).’, ‘14. 학교 생활이 그립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M=4.03).’였으며, 가장 경시한 범주는 ‘8. 용돈이 궁핍하다(M=3.07).’였고, 평균 평정치는 3.58이었다.



[그림 III-3]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

<표 III-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그룹	문장	평정치 (평균)
1	범주 1. 부모님의 구박이 심하다.	3.22
	1. 학교를 안다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3.00
	11. 엄마는 내가 학교 안다니는 걸 쪽팔려하신다.	3.27
	24.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뺄뚱어 나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을 욕한다.	3.82
	42. 사촌들이 상을 받으면 엄마랑 나랑 비교하면서 구박한다.	3.18
	51. 부모님은 나쁜 짓한다고 용돈을 안준다.	3.18
	73. 가족들이 나와 다른 형제들을 차별한다.	3.55
	99. 부모님은 학교가지 않으려면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신다.	3.45
	106. 집에서 눈치가 보인다.	3.91
	111. 부모님이 “밥이 넘어나? 잠이 오냐”라며 한심스럽게 쳐다본다.	2.62
	117. 외박해도 부모가 찾지 않는다.	2.18
2	범주 2. 부모님께 죄송하다.	4.03
	10. 친척들 만나기가 싫어진다.	2.91
	39. 사촌동생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몰라서 가르쳐 줄게 없다.	3.73
	68.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	3.55
	72. 주변 사람들이 학교 보내지 않는다고 부모님 욕할 때 속상하다.	4.45
	90. 부모님 친구 분들이 자식 자랑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면 죄송스럽다.	4.36
3	범주 3.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다.	3.67
	13.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귀찮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3.73
	23.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한다.	4.27
	67. 경찰서 가면 학교 안다니한다고 개취급당한다(함부로 말하거나 때린다.).	4.04
	112. 축제 때 학생이 아니라면서 못 들어오게 하였다.	3.00
	113. 학생 안경 할인 못 받는다.	3.27
4	범주 4.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3.25
	19.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도와주는 게 싫다.	3.09
	27. 청소년카드를 썼는데 “네 카드 맞느냐”고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본다.	2.73
	36. 집에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학교도 안다니면서 일도 안하느냐고 말한다.	3.36
	64. 학교 가지 않는다고 어른들이 세뱃돈도 주지 않으신다.	3.45
	82. 학생복장도 아니면서 학생 요금 낸다고 버스 기사가 소리 질렀다.	3.36
	83. 주민등본 땔 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신분증이 없어서 떼지 못했다.	3.36
	94. 낮밤이 바뀌니까 체력이 바닥난다.	3.73
	121. 너무 심심하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	2.91

	범주 5.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의 심한 정체감 혼란을 느낀다.	3.78
5	26. 어떨 때는 어른처럼 봐줘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론 학생 취급 안 해주니까 싫다.	3.73
	34. 부모님께 교복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4.27
	41. 친척들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면 짜증난다.	4.18
	66. 부모님 친구들이 “너도 졸업해야지”라고 하면 놀리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3.64
	79. 버스카드 만들 때 학생증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힘들었다.	3.55
	80. 학생증이 없어서 도서관을 갈 수 없었다.	3.18
	84. 원동기 면허 딸 때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다.	3.45
	87.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라며 한심스럽게 쳐다본다.	4.04
	101. 화장하고 나갔는데 버스 탈 때 “청소년입니다.”하면 쪽팔린다.	3.64
	102.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4.00
	105. 계속 사복을 입어야 하니까 옷이 없어 스트레스다.	3.91
	114. 술 담배 살 때 신분증 검사 안 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다.	3.73
6	115. 호프집 갔을 때 학생증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찡찡했다.	4.04
	119. 사복 입으니까 아이들끼리 옷이 비교된다.	3.73
	120. 나이는 학생인데 생활은 사회인처럼 하니까 혼란스럽다.	3.55
	범주 6. 아르바이트하다가 힘들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많아진다.	3.68
6	2. 폐인이 될까봐 걱정스럽다.	4.00
	7. 보호관찰 중이라 또 사고를 치게 될까봐 두렵다.	3.82
	8.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3.55
	18.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3.00
	46.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중퇴한 걸 알면 차별한다.	3.18
	52. 나쁜 쪽(절도, 오토바이 폭주, 폭력 등)으로 유혹이 많다.	4.27
	70. 아르바이트사장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일이 더 힘든데 잘 할 수 있겠느냐”며 편잔을 준다.	2.91
	77. 밤낮이 뒤바뀐다.	4.09
	123. 나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된다.	4.27
	범주 7.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	3.45
7	53. 외롭다.	3.55
	58. 놀 친구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3.04
	69. 아르바이트할 때 학교 안다니한다고 일을 더 많이 시킨다.	3.27
	81. 내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3.09
	108.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양아치 같다고 눈치 준다.	3.45
	109.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3.64
	116. 같이 놀다가 친구가 다음날 학교 가야 한다.면서 먼저 가버릴 때 외롭다.	4.04

8	범주 8. 용돈이 궁핍하다.	3.07
	3. 용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2.64
	9. 할인받는 게 귀찮아서 버스타거나 영화 볼 때 성인 요금 낸다.	3.00
	49.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TV보거나 누워서 뒹군다.	3.45
	50. 용돈이 없어서 거의 친구들에게 얻어먹는다.	3.18
9	범주 9.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3.22
	4. 끈기가 없어서 일하다. 금방 그만둔다.	3.04
	5.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돈다.	4.04
	15. 아르바이트 주인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	2.55
	16. 아르바이트 돈 떼이고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3.09
	17. 아르바이트하다가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때 그동안 일한 걸 받을 수 없다.	3.36 3.18
	44.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왜 학교 안다니냐고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하고 힘들었다.	3.18
	98.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10	범주 10. 친구관계가 소원해진다.	3.69
	6. 친구들과 놀려면 친구 수업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3.55
	12. 학교 안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다 친구가 없다.	3.27
	25. 학교를 다니지 않아 버릇도 없다고 생각한다.	3.18
	54.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내가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한다고 거짓말할 때 씁쓸하다.	4.09
	55. 내가 학교 안다닌다고 친구엄마들은 자식들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	4.27
	63. 학교 다닐 때보다 외박 횟수가 많아진다.	4.04
	65. 같이 사고 쳐도 학교 안다닌다고 나만 구속시킨다.	3.82
	100. 동생들에게 말뼉이 먹혀들지 않는다(예: 언니도 공부안하고 학교 가지 않잖아)	3.27
11	범주 11. 자퇴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3.30
	14. 자퇴당시 마음먹었던 검정고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3.55
	45. 편의점 이력서에 중퇴라고 적으면 찢린다.	3.27
	62. 학교 안다니는 애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한다.	3.73
	107. 친구들이 나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2.91
	122. 친구들이 날 따라 자퇴한다.	3.09
12	범주 12.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3.96
	21. “학교 벌써 끝났나?”하고 물었을 때 “학교 안다녀요”라고 말하면 나쁜 시선으로 본다.	4.27 4.18
	22. 학교 안다닌다고 무시한다.	3.55
	29. 이전 학교 선생님이 “요즘 뭐하니” 물어보면 그냥 거짓말한다.	3.45
	37. 사람들은 학교 안다니면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4.00
	38. 학교를 그만 두니까 아는 지식이 없다.	4.09

	47. 사람들은 사고치고 말썽피워 학교를 그만뒀다고 생각한다. 56. 경찰들은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못 된 거야”라며 함부로 말한다. 61. 친구들이 학교이야기(담임 선생님, 시험 등) 할 때 끼어들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한다. 74. 복학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다시 자퇴했다. 75. 복학했을 때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 76. 학교 안다니면 나가서 사고 친다고 보석 신청도 안받아준다. 85. 어른들한테 학교 안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괜히 무시당한다. 89. 친구들은 졸업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97. 아이들은 학원가는 데 나는 학원 다닐 일이 없다. 103.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이 부럽다.	4.27 3.55 4.00 4.27 4.09 4.00 4.45 3.18 4.00
	범주 13.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	3.74
13	20. 어른들이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서 쪽팔리고 부끄럽다. 28. 길을 가다가 그만 둔 학교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 미안하고 부끄럽다. 40. 학교 교문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데 눈치 보인다. 57. 길거리 설문조사를 할 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난감하다. 60. 고교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도 못 얻을까봐 걱정된다. 86. 아침에 수퍼 갔을 때 “학생 학교 안가”하면 할 말이 없다. 88.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드릴 선생님이 없어서 슬펐다. 118. 학교 안다닌다고 핸드폰 요금도 주지 않으신다.	3.73 3.64 3.82 3.73 4.55 3.55 3.64 3.27
	범주 14. 학교 생활이 그럽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	4.03
14	30. 친구들 졸업식 때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 짜증났다. 31. 학교를 괜히 그만 두었다는 생각이 든다. 32. 공부는 안하더라도 학교는 갔어야 했고 졸업장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33. 자퇴한 걸 후회 많이 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 43. 길에서 우연히 교복 입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했다. 48. TV화면에 교복 입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59.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원서 낸다고 하는데 나는 졸업도 못하고 한심스럽다. 78. 미팅 나갔을 때 어느 학교 다니느냐고 물으면 쑥스럽고 민망하다. 92. 학력을 쓸 때 쪽팔린다. 93. 교복 입은 아이들이 부럽다. 95. 학교생활이 그럽다. 96. 몰래하는 재미(화장실가서 담배피기, 학교 담 넘어가기)가 없으니 스풀이 없다. 104. 학교 아이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유행에 뒤쳐진다는 느낌이 든다. 110.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4.36 4.45 4.55 4.18 2.91 3.27 4.55 3.09 4.00 4.70 4.27 4.27 4.36 3.36

2)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 해석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개념도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념도의 유일한 해석 근거는 범주간 근접성이 유사성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이 근거에 따라 특정 경험과 관련한 피험자들의 잠재적인 인지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뒤 좀 더 세부적인 각 범주의 위치와 근접성, 중요도 등을 근거로 피험자 집단의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알아 낼 수 있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내담자의 개념도는 두 개의 원형의 둘레 속에 각 범주들이 골고루 자리 잡고 있다. 먼저 바깥 원을 살펴보면, 각 범주간에 차원의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1, 2, 6, 9, 6, 11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위쪽과 5, 10, 12, 13, 14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아래쪽이 존재하는 등 인지 구조가 크게 위아래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위쪽은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용돈이 궁핍하다.’,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아르바이트하다가 힘들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많아진다.’ 등 주로 자퇴 이후의 일상적인 생활을 행동적인 측면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래쪽은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경험했던 내면적인, 특히 정서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안쪽 원에 3개의 범주-‘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가 존재하는데, 바깥 원의 범주들과 비교적 유사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깥 원 범주들의 힘든 점들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바깥 원 범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학교밖청소년들은 개념도 전 범주에 걸쳐 평균 3.58의 평정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퇴 이후의 일상적인 생활의 행동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범주보다는 개인이 경험한 내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범주들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와 하위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는 2번 범주(‘부모님께 죄송하다.’)를 시작으로 11번 범주(‘자퇴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에 이르기까지 왼쪽으로 갈수록 자퇴 이후의 경과 기간과 비례하여 청소년의 일상적인 행동

의 달라지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학교를 그만 둔 직후에는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거나 주눅들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였으나(범주 2), 자퇴 이후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부모의 잔소리가 늘어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며 아이 존재를 쪽팔려하시고, 외박해도 찾지 않는 등 부모의 구박이 심해진다고(범주1). 부모로부터 용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짓말하거나, 친구에게 얻어먹게 되는데(범주8),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범주9).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을 떼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 두게 된다. 이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행의 유혹이 시작된다(범주6). 자퇴 직후에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에겐 또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고자 쉽게 빠져든다. 그러다보니 자퇴 당시 마음먹었던 검정고시 준비는 커녕 비행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소년보호시설로 수용되기까지 하였다. 즉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이 시간만 흘러간 것(범주11) 또한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다섯 범주 2번, 6번 범주가 중요도 수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각각 M=4.03, M=3.68), 자퇴 직후에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후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한 내면적인,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하위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것 또한 자퇴 이후의 경과 기간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가 갈수록 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정서적인 변화에 촉발제가 된 것은 친구관계였다(범주10).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친구를 기다려야 되고, 친구들이 자기 존재를 부모에게 속이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고, 차츰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진다(범주12). 그럴수록 학교생활이 그립고, 자퇴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범주 14). 단순히 후회스럽다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자퇴생으로서의 존재가 수치스러워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못한다(범주 13). 단순히 후회스럽

다., 수치스럽다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고, 상황에 따라 청소년으로 취급받거나 혹은 사회인(=성인)으로 취급당하면서 그 중간자로서 심한 정체감 혼란을 느낀다(범주 5).

한편, 3번, 4번, 10번 범주는 바깥 원의 범주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쪽으로 위치해 있다. 따라서 안쪽 범주들은 자퇴 이후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맞닥뜨리는 데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를 떠나 홀로 남게 되자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로운데’, 자퇴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다른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 행동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바깥원에 위치한 두 분류의 범주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경과 기간에 따라 그 내용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물론 먼저 위치한 범주들이 반드시 이후 범주들의 선행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데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안쪽원에 위치한 세 범주들은 시간적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학업 중단 이후 더 이상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행동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으며, 둘 중 정서적인 측면을 더 힘들게 지각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자퇴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어려움의 질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한 구박을 하는 부모 밑에서 궁핍한 용돈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궁궁하다가 결국 비행에 손에 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부모의 구박이 비행 행동을 유발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친구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인 편견이 심할수록 후회스러움, 수치스러움, 정체감 혼란에 이르는 등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범주별 문항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의 범주별 문항 및 평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주 1: 부모님의 구박이 심하다.

범주 1의 평정치는 3.22점이며 부모님의 잔소리가 늘어가고, 다른 형제들과 차별하며, 아이 존재를 부끄러워하시고, 외박해도 찾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으로는 ‘1. 학교를 안다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11. 엄마는 내가 학교 안다니는 걸 쪽팔려하신다.’, ‘24.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뺄뚱어 나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을 욕한다.’, ‘42. 사촌들이 상을 받으면 엄마랑 나랑 비교하면서 구박한다.’, ‘51. 부모님은 나쁜 짓한다고 용돈을 안준다.’, ‘73. 가족들이 나와 다른 형제들을 차별한다.’, ‘99. 부모님은 학교가지 않으려면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신다.’, ‘106. 집에서 눈치가 보인다.’, ‘111. 부모님이 “밥이 넘어가나? 잠이 오냐”라며 한심스럽게 쳐다본다.’, ‘117. 외박해도 부모가 찾지 않는다.’ 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106. 집에서 눈치가 보인다(M=3.91).’이며 다음으로 ‘24.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뺄뚱어 나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을 욕한다(M=3.82).’, ‘73. 가족들이 나와 다른 형제들을 차별한다. (M=3.55).’, ‘99. 부모님은 학교가지 않으려면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신다 (M=3.45).’, ‘11. 엄마는 내가 학교 안다니는 걸 쪽팔려하신다(M=3.27).’, ‘42. 사촌들이 상을 받으면 엄마랑 나랑 비교하면서 구박한다(M=3.18).’, ‘51. 부모님은 나쁜 짓한다고 용돈을 안준다(M=3.18).’, ‘1. 학교를 안다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M=3.0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111. 부모님이 “밥이 넘어가나? 잠이 오냐”라며 한심스럽게 쳐다본다(M=2.62).’, ‘117. 외박해도 부모가 찾지 않는다(M=2.18).’은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② 범주 2: 부모님께 죄송하다.

범주 2의 평정치는 4.03점이며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거나 주눅 들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으로는 ‘10. 친척들 만나기가 싫어진다.’, ‘39. 사촌동생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몰라서 가르쳐 줄게 없다.’, ‘68.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 ‘72. 주변 사람들이 학교 보내지 않는다고 부모님 욕할 때 속상하다.’, ‘90. 부모님 친구 분들이 자식 자랑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면 죄송스럽다.’, ‘91. 부모님 생신 때 선물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다.’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72. 주변 사람들이 학교 보내지 않는다고 부모님 욕할 때 속상하다(M=4.45).’였으며 다음으로 ‘90. 부모님 친구 분들이 자식 자랑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면 죄송스럽다(M=4.36).’, ‘91. 부모님 생신 때 선물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다.(M=4.18).’, ‘39. 사촌동생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몰라서 가르쳐 줄게 없다(M=3.73).’, ‘68.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M=3.55).’순이었다. ‘10. 친척들 만나기가 싫어진다(M=2.91).’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③ 범주 3: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다.

범주 3의 평정치는 3.67 점이며 배우게 없다고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개 취급’ 당하고, 축제 때 학교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3.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귀찮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23.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한다.’, ‘67. 경찰서 가면 학교 안다닌다고 개 취급당한다(함부로 말하거나 때린다.).’, ‘112. 축제 때 학생이 아니라면서 못 들어오게 하였다.’, ‘113. 학생 안경 할인 못 받는다.’ 등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23.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한다(M=4.27).’였으며 다음으로 ‘67. 경찰서 가면 학교 안다닌다고 개취급당한다(함부로 말

하거나 때린다.)(M=4.04).’, ‘13.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귀찮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M=3.73).’, ‘113. 학생 할인 못 받는다(M=3.27).’, ‘112. 축제 때 학생이 아니라면서 못 들어오게 하였다(M=3.00).’ 순이었다.

④ 범주 4: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범주 4의 평정치는 3.25점이며 신분증이 없어서 등본 등을 뗄 수 없고, 버스 탈 때도 요금 할인 적용받기가 여의치 않는 등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19.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도와주는 게 싫다.’, ‘27. 청소년카드를 썼는데 “네 카드 맞느냐”고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본다.’, ‘36. 집에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학교도 안다니면서 일도 안하느냐고 말한다.’, ‘64. 학교 가지 않는다고 어른들이 세뱃돈도 주지 않으신다.’, ‘82. 학생복장도 아니면서 학생 요금 낸다고 버스 기사가 소리 질렀다.’, ‘83. 주민등본 뗄 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신분증이 없어서 떼지 못했다.’, ‘94. 낮밤이 바뀌니까 체력이 바닥난다.’, ‘121. 너무 심심하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94. 낮밤이 바뀌니까 체력이 바닥난다(M=3.73)’였으며 다음으로 ‘64. 학교 가지 않는다고 어른들이 세뱃돈도 주지 않으신다(M=3.45).’, ‘82. 학생복장도 아니면서 학생 요금 낸다고 버스 기사가 소리 질렀다(M=3.36).’, ‘83. 주민등본 뗄 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신분증이 없어서 떼지 못했다(M=3.36).’, ‘36. 집에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학교도 안다니면서 일도 안하느냐고 말한다(M=3.36).’, ‘19.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도와주는 게 싫다(M=3.09).’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121. 너무 심심하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M=2.91).’, ‘27. 청소년카드를 썼는데 “네 카드 맞느냐”고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본다(M=2.73).’는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범주 5: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의 심한 정체감 혼란을 느낀다.

범주 5의 평정치는 3.78 점이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고, 상황에 따라 청소년으로 사회인(성인)으로 취급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을 세부내용으로 한다.

해당문항에는 ‘26. 어떨 때는 어른처럼 봐줘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론 학생 취급 안 해주니까 싫다.’, ‘34. 부모님께 교복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41. 친척들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면 짜증난다.’, ‘66. 부모님 친구들이 “너도 졸업해야지”라고 하면 놀리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79. 버스카드 만들 때 학생증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힘들었다.’, ‘80. 학생증이 없어서 도서관을 갈 수 없었다.’, ‘84. 원동기 면허 딸 때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다.’, ‘87.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라며 한심스럽게 쳐다본다.’, ‘101. 화장하고 나갔는데 버스 탈 때 “청소년입니다” 하면 쪽팔린다.’, ‘102.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105. 계속 사복을 입어야 하니까 옷이 없어 스트레스다.’, ‘114. 술 담배 살 때 신분증 검사 안 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다.’, ‘115. 호프집 갔을 때 학생증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찻찻했다.’, ‘119. 사복 입으니까 아이들끼리 옷이 비교된다.’, ‘120. 나이는 학생인데 생활은 사회인처럼 하니까 혼란스럽다.’가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4. 부모님께 교복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M=4.27).’였으며 다음으로 ‘41. 친척들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면 짜증난다(M=4.18).’, ‘87.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라며 한심스럽게 쳐다본다(M=4.04).’, ‘115. 호프집 갔을 때 학생증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찻찻했다(M=4.04).’, ‘102.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M=4.00).’, ‘105. 계속 사복을 입어야 하니까 옷이 없어 스트레스다(M=3.91).’, ‘26. 어떨 때는 어른처럼 봐줘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론 학생 취급 안 해주니까 싫다(M=3.73).’, ‘114. 술 담배 살 때 신분증 검사 안 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다(M=3.73).’, ‘119. 사복 입으니까 아이

들끼리 옷이 비교된다(M=3.73).’, ‘66. 부모님 친구들이 “너도 졸업해야지”라고 하면 놀리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M=3.64).’, ‘101. 화장하고 나갔는데 버스 탈 때 “청소년입니다.”하면 쪽팔린다(M=3.64).’, ‘120. 나이는 학생인데 생활은 사회인처럼 하니까 혼란스럽다(M=3.55).’, ‘79. 버스카드 만들 때 학생증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힘들었다(M=3.55).’, ‘84. 원동기 면허 딸 때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다(M=3.45).’, ‘80. 학생증이 없어서 도서관을 갈 수 없었다(M=3.18) 순이었다.

⑥ 범주 6: 아르바이트하다가 힘들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많아진다.

범주 6의 평정치는 3.68이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유혹이 생기고, 비행에 가담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세부 문항은 ‘2. 폐인이 될까봐 걱정스럽다.’, ‘7. 보호관찰 중이라 또 사고를 치게 될까봐 두렵다.’, ‘8.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8.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46.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중퇴한 걸 알면 차별한다.’, ‘52. 나쁜 쪽(절도, 오토바이 폭주, 폭력 등)으로 유혹이 많다.’, ‘70. 아르바이트사장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일이 더 힘든데 잘 할 수 있겠느냐”며 편잔을 준다.’, ‘77. 밤낮이 뒤바뀐다.’, ‘123. 나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된다.’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123. 나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된다(M=4.27).’였으며 다음으로 ‘52. 나쁜 쪽(절도, 오토바이 폭주, 폭력 등)으로 유혹이 많다(M=4.27).’, ‘77. 밤낮이 뒤바뀐다(M=4.09).’, ‘2. 폐인이 될까봐 걱정스럽다(M=4.00).’, ‘7. 보호관찰 중이라 또 사고를 치게 될까봐 두렵다(M=3.82).’, ‘8.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M=3.55).’, ‘46.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중퇴한 걸 알면 차별한다(M=3.18).’, ‘18.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M=3.00).’ 순이었다. ‘70. 아르바이트사장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일이 더 힘든데 잘 할 수 있겠느냐”며 편잔을 준다(M=2.91).’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범주 7: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

범주 7의 평정치는 3.45이며 혼자 남겨졌을 때나 주위의 눈치를 받을 때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부 문항으로는 ‘53. 외롭다.’, ‘58. 놀 친구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69. 아르바이트할 때 학교 안다닌다고 일을 더 많이 시킨다.’, ‘81. 내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108.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양아치 같다고 눈치 준다.’, ‘109.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116. 같이 놀다가 친구가 다음날 학교 가야 한다면 먼저 가버릴 때 외롭다.’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116. 같이 놀다가 친구가 다음날 학교 가야 한다면 먼저 가버릴 때 외롭다(M=4.04).’였으며 다음으로 ‘109.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M=3.64).’, ‘53. 외롭다(M=3.55).’, ‘108.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양아치 같다고 눈치 준다(M=3.45).’, ‘69. 아르바이트할 때 학교 안다닌다고 일을 더 많이 시킨다(M=3.27).’, ‘81. 내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M=3.09).’, ‘58. 놀 친구가 없으니까 심심하다(M=3.04).’ 순이었다.

⑧ 범주 8: 용돈이 궁핍하다.

범주 8의 평정치는 3.07 점이며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거짓말 하거나, 친구에게 얻어먹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3. 용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9. 할인받는 게 귀찮아서 버스타거나 영화 볼 때 성인 요금 낸다.’, ‘49.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TV보거나 누워서 뒹군다.’, ‘50. 용돈이 없어서 거의 친구들에게 얻어먹는다.’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49.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TV보거나 누워서 뒹군다(M=3.45).’였으며 다음으로 ‘50. 용돈이 없어서 거의 친구들에게 얻어먹는다(M=3.18).’, ‘9. 할인받는 게 귀찮아서 버스타거나 영화 볼 때 성인 요금 낸다(M=3.00).’ 순이었다. ‘3. 용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M=2.64).’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⑨ 범주 9: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범주 9의 평정치는 3.22 점으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4. 끈기가 없어서 일하다. 금방 그만둔다.’, ‘5.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돈다.’, ‘15. 아르바이트 주인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 ‘16. 아르바이트 돈 떼이고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17. 아르바이트하다가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때 그동안 일한 걸 받을 수 없다.’, ‘44.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왜 학교 안다니냐고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하고 힘들었다.’,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5.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돈다(M=4.04).’였으며 다음으로 ‘17. 아르바이트하다가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때 그동안 일한 걸 받을 수 없다(M=3.36).’, ‘44.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왜 학교 안다니냐고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하고 힘들었다(M=3.18).’, ‘98.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M=3.18).’, ‘16. 아르바이트 돈 떼이고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M=3.09).’, ‘4. 끈기가 없어서 일하다. 금방 그만둔다(M=3.04).’순이었다. ‘15. 아르바이트 주인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M=2.55).’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⑩ 범주 10: 친구관계가 소원해진다.

범주 10의 평정치는 3.69 점으로 학교 끝날 때까지 친구를 기다리는 게 힘들고, 친구부모를 속이는 게 씁쓸하고, 시간이 갈수록 친구도 없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문항으로는 ‘6. 친구들과 놀려면 친구 수업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12. 학교 안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다 친구가 없다.’, ‘25. 학교를 다니지 않아 버릇도 없다고 생각한다.’, ‘54.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내가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한다고 거짓말할 때 씁쓸하다.’, ‘55. 내가 학교 안 다

닌다고 친구엄마들은 자식들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 ‘63. 학교 다닐 때보다 외박 횟수가 많아진다.’, ‘65. 같이 사고 쳐도 학교 안다닌다고 나만 구속시킨다.’, ‘100. 동생들에게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다(예: 언니도 공부안하고 학교 가지 않잖아).’ 등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55. 내가 학교 안다닌다고 친구엄마들은 자식들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M=4.27).’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54.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내가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한다고 거짓말할 때 씹쓸하다(M=4.09).’, ‘63. 학교 다닐 때보다 외박 횟수가 많아진다(M=4.04).’, ‘65. 같이 사고 쳐도 학교 안다닌다고 나만 구속시킨다(M=3.82).’, ‘6. 친구들과 놀려면 친구 수업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M=3.55).’, ‘12. 학교 안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다 친구가 없다(M=3.27).’, ‘100. 동생들에게 말빨이 먹혀들지 않는다(예: 언니도 공부안하고 학교 가지 않잖아) (M=3.27).’, ‘25. 학교를 다니지 않아 버릇도 없다고 생각한다(M=3.18).’ 순이었다.

⑪ 범주 11: 자퇴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범주 11의 평정치는 3.30이었으며 자퇴 이후 검정고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나쁜 짓이나 하고, 친구마저 자퇴하게 만드는 등 제대로 잘한 게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으로는 ‘14. 자퇴당시 마음먹었던 검정고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45. 편의점 이력서에 중퇴라고 적으면 찢린다.’, ‘62. 학교 안다니는 애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한다.’, ‘107. 친구들이 나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122. 친구들이 날따라 자퇴한다.’가 포함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62. 학교 안다니는 애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 한다(M=3.73).’였으며 다음으로 ‘14. 자퇴당시 마음먹었던 검정고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M=3.55).’, ‘45. 편의점 이력서에 중퇴라고 적으면 찢린다(M=3.27).’, ‘122. 친구들이 날 따라 자퇴한다(M=3.09).’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107. 친구들이 나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M=2.91).’라는 문항은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⑫ 범주 12: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범주 12의 평정치는 3.96점으로 말썽을 피워서 자퇴했다고 생각하고, 망가진 인생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은 등 사회적인 편견, 무시, 부정적인 시선을 내포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21. “학교 벌써 끝났나?”하고 물었을 때 “학교 안다녀요”라고 말하면 나쁜 시선으로 본다.’, ‘22. 학교 안다닌다고 무시한다.’, ‘29. 이전 학교 선생님이 “요즘 뭐하니” 물어보면 그냥 거짓말한다.’, ‘37. 사람들은 학교 안다니면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38. 학교를 그만 두니까 아는 지식이 없다.’, ‘47. 사람들은 사고치고 말썽피워 학교를 그만뒀다고 생각한다.’, ‘56. 경찰들은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못된 거야”라며 함부로 말한다.’, ‘61. 친구들이 학교이야기(담임 선생님, 시험 등) 할 때 끼어들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한다.’, ‘74. 복학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다시 자퇴했다.’, ‘75. 복학했을 때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 ‘76. 학교 안다니면 나가서 사고 친다고 보석 신청도 안받아준다.’, ‘85. 어른들한테 학교 안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괜히 무시당한다.’, ‘89. 친구들은 졸업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97. 아이들은 학원가는 데 나는 학원 다닐 일이 없다.’, ‘103.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이 부럽다.’ 등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89. 친구들은 졸업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다(M=4.45).’였으며 다음으로 ‘21. “학교 벌써 끝났나?”하고 물었을 때 “학교 안다녀요”라고 말하면 나쁜 시선으로 본다(M=4.27).’, ‘56. 경찰들은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못된 거야”라며 함부로 말한다(M=4.27).’, ‘75. 복학했을 때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M=4.27).’, ‘22. 학교 안다닌다고 무시한다(M=4.18).’, ‘47. 사람들은 사고치고 말썽피워 학교를 그만뒀다고 생각한다(M=4.09).’, ‘76. 학교 안다니면 나가서 사고 친다고 보석 신청도 안받아준다(M=4.09).’, ‘85. 어른들한테 학교 안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괜히 무시당한다(M=4.00).’, ‘38. 학교를 그만 두니까 아는 지식이 없다(M=4.00).’, ‘103.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는 친

구들이 부럽다(M=4.00).’, ‘61. 친구들이 학교이야기(담임 선생님, 시험 등) 할 때 끼어들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한다(M=3.55).’, ‘29. 이전 학교 선생님이 “요즘 뭐하니” 물어보면 그냥 거짓말한다(M=3.55).’, ‘61. 친구들이 학교 이야기(담임 선생님, 시험 등) 할 때 끼어들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한다(M=3.55).’, ‘37. 사람들은 학교 안다니면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M=3.45).’, ‘97. 아이들은 학원가는 데 나는 학원 다닐 일이 없다(M=3.18).’ 순이었다.

⑬ 범주 13: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

범주 13의 평정치는 3.74 점이며 학교 다니지 않는 게 부끄럽고, 누굴 만나고 당당하지 못하고 친구나 스승 하나 없는 게 너무 서글픈 감정 등을 내포한다.

세부 문항으로 ‘20. 어른들이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서 쪽팔리고 부끄럽다.’, ‘28. 길을 가다가 그만 둔 학교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 미안하고 부끄럽다.’, ‘40. 학교 교문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데 눈치 보인다.’, ‘57. 길거리 설문조사를 할 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난감하다.’, ‘60. 고교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도 못 얻을까봐 걱정된다.’, ‘86. 아침에 수퍼 갔을 때 “학생 학교 안가?”하면 할 말이 없다.’, ‘88.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드릴 선생님이 없어서 슬펐다.’, ‘118. 학교 안다닌다고 핸드폰 요금도 주지 않으신다.’ 등 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60. 고교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도 못 얻을까봐 걱정된다(M=4.55).’였으며 다음으로 ‘40. 학교 교문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데 눈치 보인다(M=3.82).’, ‘20. 어른들이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서 쪽팔리고 부끄럽다(M=3.73).’, ‘57. 길거리 설문조사를 할 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난감하다. (M=3.73).’, ‘28. 길을 가다가 그만 둔 학교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 미안하고 부끄럽다(M=3.64).’, ‘88.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드릴 선생님이 없어서 슬펐다(M=3.64).’, ‘86. 아침에 수퍼 갔을 때 “학생 학교 안가?”하면 할 말이 없다(M=3.55).’, ‘118. 학교 안다닌다고 핸드폰 요금도 주지 않으신다(M=3.27).’ 순이었다.

⑭ 범주 14: 학교 생활이 그립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

범주 14의 평정치는 4.03 점이며 교복 입은 아이가 부럽고, 학교에서 몰래 하던 일이 그립고, 유행에서 뒤처지고, 특히 졸업하는 친구들 보니 자퇴한 게 후회스러운 등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자퇴에 대한 후회를 내포한다.

세부 문항으로는 ‘30. 친구들 졸업식 때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 짜증났다.’, ‘31. 학교를 괜히 그만 두었다는 생각이 든다.’, ‘32. 공부는 안하더라도 학교는 갔어야 했고 졸업장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33. 자퇴한 걸 후회 많이 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 ‘43. 길에서 우연히 교복 입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했다.’, ‘48. TV화면에 교복 입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59.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원서 낸다고 하는데 나는 졸업도 못하고 한심스럽다.’, ‘78. 미팅 나갔을 때 어느 학교 다니느냐고 물으면 쑥스럽고 민망하다.’, ‘92. 학력을 쓸 때 쪽팔린다.’, ‘93. 교복 입은 아이들이 부럽다.’, ‘95. 학교생활이 그립다.’, ‘96. 몰래하는 재미(화장실가서 담배피기, 학교 담 넘어가기)가 없으니 스릴이 없다.’, ‘104. 학교 아이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유행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 ‘110.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등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93. 교복 입은 아이들이 부럽다(M=4.70).’였으며 다음으로 ‘32. 공부는 안하더라도 학교는 갔어야 했고 졸업장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M=4.55).’, ‘59.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원서 낸다고 하는데 나는 졸업도 못하고 한심스럽다(M=4.55).’, ‘31. 학교를 괜히 그만 두었다는 생각이 든다(M=4.45).’, ‘30. 친구들 졸업식 때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 짜증났다(M=4.36).’, ‘104. 학교 아이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유행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M=4.36).’, ‘33. 자퇴한 걸 후회 많이 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M=4.18).’, ‘95. 학교생활이 그립다(M=4.27).’, ‘96. 몰래하는 재미(화장실가서 담배피기, 학교 담 넘어가기)가 없으니 스릴이 없다(M=4.27).’, ‘92. 학력을 쓸 때 쪽팔린다(M=4.00).’, ‘110.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M=3.36).’, ‘48.

TV화면에 교복 입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M=3.27).’, ‘78. 미팅 나갔을 때 어느 학교 다니느냐고 물으면 쑥스럽고 민망하다(M=3.09).’순이었다. ‘43. 길에서 우연히 교복 입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했다(M=2.91).’는 문항이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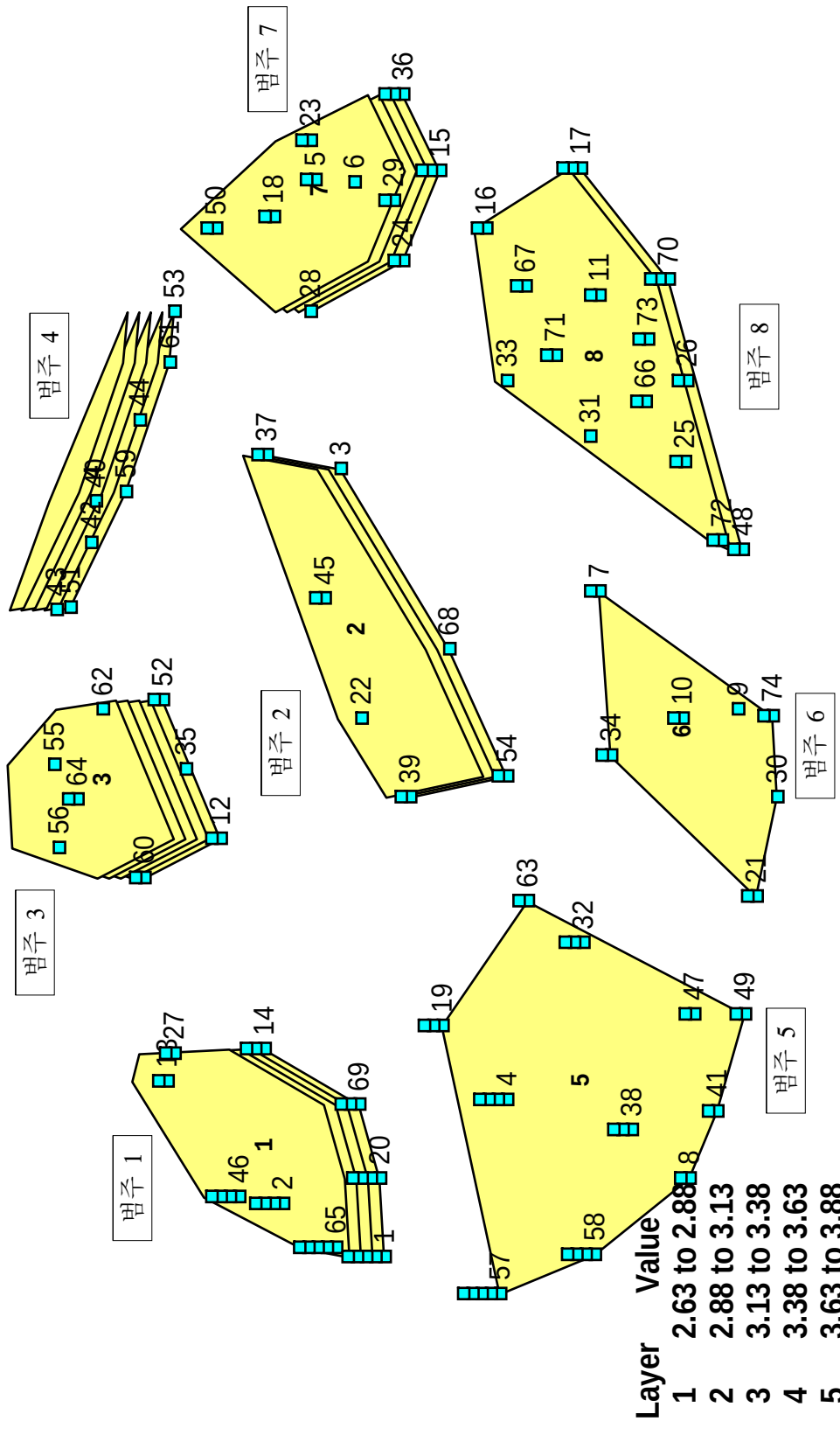
4. 거리 청소년

1) 거리 청소년 개념도 작성

거리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념도는 다음 [그림 III-4]과 같다. 이 개념도는 모두 8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포함된 문장은 <표 III-4>에 제시하였다.

거리 청소년의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한 개념도는 총 8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 ‘2. 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 ‘5.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다.’, ‘6. 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아 힘들다.’, ‘7.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걱정된다.’, ‘8. 또래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 중요도 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중시한 범주는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M=3.88).’ 였으며, 가장 경시한 범주는 ‘8. 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아 힘들다(M=2.63).’이었고, 평균 평정치는 3.27이었다.



[그림 III-4]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힘든 점에 대한 거리 청소년 개념도

<표 III-4> 거리 청소년 개념도의 범주와 포함문장

그룹	문장	평정치 (평균)
1	범주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	3.52
	1. 학교 다니기가 싫어진다.	2.38
	2. 계속 막 놀고 싶다.	3.38
	13.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다.	3.63
	14.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걱정이다.	4.00
	20. 그냥 귀찮다.	3.38
	27. 부모님께 미안하다.	4.75
	46. 집에 있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서 힘들다.	3.88
	65. 커서 학력 때문에 차별 당할까봐 걱정이다.	3.75
	69. 아침에 갈 곳이 없어 힘들다.	2.50
2	범주 2. 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3.18
	3. 막 나쁜 짓 하게 된다.	3.00
	22. 커서 안 좋은 사람이 될 거 같다.	3.50
	37. 사람들이 무시해서 싫다.	3.50
	39.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3.38
	45.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건디기 힘들다.	2.38
	54. 친구들이 줄어들어 힘들다.	2.63
	68. 말썽 많이 부리게 된다.	3.88
3	범주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3.72
	12. 엄마한테 미안하다.	4.75
	35. 사람들이 부모님 욕하는 게 싫다.	4.50
	52. 어른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과 다르게 본다.	3.88
	55. 집에서 대우하는 게 달라졌다.	2.88
	56. 용돈이 줄어들었다.	3.13
	60. 엄마가 뭐라 하면 화가 난다.	3.38
	62. 같은 잘못을 해도 학교 다니는 애들은 봐준다.	3.38
	64. 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하나라도 더 준다.	3.88
4	범주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	3.88
	40.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봐서 싫다.	3.88
	42. 부모님 잔소리가 심해졌다.	3.13
	43. '학교도 안 다니는 게 어찌고'하는 말이 싫다.	4.25
	44. 빈둥댄다고 할 때 싫다.	4.00
	51. 어른들이 안 좋게 보아서 짜증난다.	4.25
	53. 차별대우해서 기분 나쁘다.	4.13
	59. 엄마한테 욕먹어서 싫다.	3.13
	61. 경찰도 차별해서 벌을 더 주는 게 싫다.	4.25
5	범주 5.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다.	2.72
	4. 가출을 쉽게 하게 된다.	3.50
	8. 너무 많이 놀아서 힘들다.	2.50
	19. 그냥 마음이 힘들다.	3.38

	32. 하교시간에 애들이 나를 볼 때 싫다. 38. 시간개념이 없어서 불편하다. 41. 놀 사람이 없어서 짜증난다. 47. 아침만 되면 짜증이 난다. 49. 자꾸 말을 하고 싶다. 57. 수련회 같은 게 없어서 싫다. 58. 친구들과 놀러 가늘게 줄어서 힘들다. 63. 복학하겠다고 해도 믿지 않아서 힘들다.	2.38 3.00 2.13 3.13 2.88 2.13 2.25 2.63
	범주 6. 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아 힘들다.	2.63
6	7. 밤과 낮이 바뀌었다. 9. 등교하는 애들 보는 게 힘들다. 10. 교복 입은 애들 보는 게 힘들다. 21. 노는 게 지겹다. 30.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면 쪽팔린다. 34.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학교 안 다니니까 말할 수 없어 힘들다. 74.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3.50 2.88 2.63 2.13 2.13 2.00 3.13
	범주 7.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후회된다.	3.52
7	5. 돈이 금방 떨어진다. 6. 돈을 얻기 위해 나쁜 짓을 하게 된다. 15. 학교 못 다니는 게 아쉽다. 18.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럽다. 23. 졸업장이 없는 게 걱정이다. 24.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이다. 28. 사람들이 불량스럽게 봐서 싫다. 29. 사람들의 시선이 짜증난다. 36. 학교 안 다닌다고 불쌍하다고 할 때 열 받는다. 50. 학교 안 다닌다면 어른들이 나쁘게 본다.	3.75 2.88 3.63 2.63 3.25 3.38 3.88 3.00 4.50 4.25
	범주 8. 또래 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	2.99
8	11. 공공장소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마주 치는 게 싫다. 16.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서 힘들다. 17. 교복입고 싶다. 25. 아침에 나가면 애들이 없는 게 싫다. 26. 나만 갈 곳이 없어서 짜증난다. 31.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부끄럽다. 33.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기 짜증난다. 48. 짜증이 많아졌다. 66. 고졸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67.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 70. 심심하다. 71.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72.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생활하는 게 달라서 싫다. 73. 너무 빈둥빈둥 대서 싫다.	1.75 3.38 3.75 2.50 2.13 2.25 2.13 3.75 4.00 4.25 2.50 3.00 3.13 3.38

2) 거리 청소년 개념도 해석

앞에서도 밝혔듯 개념도의 유일한 해석 근거는 범주간 근접성이 유사성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이 근거에 따라 특정 경험과 관련한 피험자들의 잠재적인 인지틀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뒤 좀 더 세부적인 각 범주의 위치와 근접성, 중요도 등을 근거로 피험자 집단의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알아 낼 수 있었다. 거리 청소년의 개념도에 대한 세부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념도[그림 III-4]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번 범주(‘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외에는 모든 범주들이 큰 간격의 차이가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방사형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리 청소년들의 경우 특별한 유형 없이 다양한 고민들이 병렬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혹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주의 변화가 개념도상에 이 같은 원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거리 청소년의 경우 범주 간에 그런 시간상 규칙성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거리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과 관련한 고통이 심리내적으로 두드러지게 유형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주의 내용을 근거로 범주간 근접성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나마 범주간 거리와 내용이 근접한 범주 쌍 들이 몇 가지 발견된다. 이는 1, 3-4, 7-8, 5-6 의 하위군집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본 하위 군집의 내용과 그 분포를 근거로 거리 청소년들의 심리내적 어려움을 추측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3-4(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 군집은 나머지 세 가지 군집들과 구분되어 학업중단한 자신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따른 심적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세 가지 군집이 학업중단으로 인한 주관적이고 심리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면, 3-4 군집은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의 차별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느끼는 반응적인 고통이다. 특히 중요도에 있어서도 다른 세 군집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 시각과 대우에 가장 민감하고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거리 청소년들이 특별한 소속 없이 거리나 가정

에서 기성세대의 비난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일견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7번(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후회된다.)과 8번(또래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범주는 다소 근접하여 따로 고려해볼만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본 군집은 학업중단에 대한 주관적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군집들과 차이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 후회 중에서도 단순히 학생인 주변 또래와의 차이 보다는 향후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으로 인한 후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결과를 개념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후회의 내용이 외부의 부정적 시각(3-4)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거리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기성세대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여 고통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져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번(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 갈등이다) 범주는 그 내용이나 범주간 거리에 있어 다소는 독립적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거리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소속 없이 즐기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욕구와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구간의 갈등이 다른 고통들과 구분되어 버리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환경이나 주관적 특성 등이 관련되어 있겠지만, 특별한 소속이나 준비 없이 자유분방하게 학업중단 시기를 보내는 이들 거리 청소년의 특성상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는 욕구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남다른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 그만큼 이와 상치되는 욕구와의 갈등 두드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이만큼 ‘놀고’ 싶은 욕구가 남다른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고픈 욕구를 갖게 되어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단 후 여러 경험과 고민을 한 이후의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짐작해 볼 때 거리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런 상치된 욕구와의 갈등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추측된다.

앞의 세 가지 군집이 그 중요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 비해 5-6 군집(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다/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

아 힘들다)은 그 중요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고 범주의 넓이도 다소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상 두 범주 모두 학업중단 후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반응성 고통임을 감안할 때, 거리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후 생활이 변화나 그간의 학교생활로 인해 쉽게 느끼는 반응성 고통은 주로 그간 규칙적 등하교의 습관 및 시간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범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두 가지 반응성 고통은 개인별로 그 종류도 상황 따라 다양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 청소년들은 이런 피상적이고 생활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응적인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리 중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가운데 2번 범주는 본 개념도에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어떤 군집에도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본 범주가 다른 범주들의 관련성을 매개하는 공통 요인임을 짐작하게 하는 바, 결국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3-4),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7-8), 상처된 욕구간의 심각한 갈등(1), 중단 후 생활변화에 따른 즉각적 고통(5-6) 등은 자기 자신의 현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언행이 불량해지고 자신 또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험은 그 중요도가 가장 높지는 않으나(M=3.18), 이들 거리 청소년들이 핵심적으로 보고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부각되는데 있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환경여건상 비행이나 부정적 언행의 과정에 쉽게 접하게 됨을 짐작할 때, 이런 결과는 거리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거리 청소년 범주별 문항

거리의 청소년 범주별 문항 및 평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주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

범주 1의 평정치는 3.52점이며 놀고 싶은 마음과 학교를 가야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으로는 ‘1. 학교 다니기가 싫어진다.’, ‘2. 계속 막 놓고 싶다.’, ‘13.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다.’, ‘14.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걱정이다.’, ‘20. 그냥 괴롭다.’, ‘27. 부모님께 미안하다.’, ‘46. 집에 있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서 힘들다.’, ‘65. 커서 학력 때문에 차별 당할까봐 걱정이다.’, ‘69. 아침에 갈 곳이 없어 힘들다.’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27. 부모님께 미안하다(M=4.75).’였으며 다음으로 ‘14.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걱정이다(M=4.00).’, ‘46. 집에 있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서 힘들다(M=3.88).’, ‘65. 커서 학력 때문에 차별 당할까봐 걱정이다(M=3.75).’, ‘13.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다(M=3.63).’, ‘20. 그냥 괴롭다(M=3.38).’, ‘2. 계속 막 놓고 싶다(M=3.38).’순이었다.

상대적으로 ‘69. 아침에 갈 곳이 없어 힘들다(M=2.50).’, ‘1. 학교 다니기가 싫어진다(M=2.38).’는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범주 2: 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범주 2의 평정치는 3.18점이며 스스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3. 막 나쁜 짓 하게 된다.’, ‘22. 커서 안 좋은 사람이 될 거 같다.’, ‘37. 사람들이 무시해서 싫다.’, ‘39.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45.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견디기 힘들다.’, ‘54. 친구들이 줄어들어 힘들다.’, ‘68. 말썽 많이 부리게 된다.’ 등이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으로는 ‘68. 말썽 많이 부리게 된다(M=3.88).’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22. 커서 안 좋은 사람이 될 거 같다(M=3.50).’, ‘37. 사람들이 무시해서 싫다(M=3.50).’, ‘39.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M=3.38).’, ‘3. 막 나쁜 짓 하게 된다(M=3.00).’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45.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견디기 힘들다(M=2.38).’, ‘54. 친구들이 줄어들어 힘들다(M=2.63).’에 대해서는 덜 힘들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범주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범주 3의 평정치는 3.72점이며 학업중단후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12. 엄마한테 미안하다.', '35. 사람들이 부모님 욕하는 게 싫다.', '52. 어른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과 다르게 본다.', '55. 집에서 대우 하는 게 달라졌다.', '56. 용돈이 줄어들었다.', '60. 엄마가 뭐라 하면 화가 난다.', '62. 같은 잘못을 해도 학교 다니는 애들은 봐준다.', '64. 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하나라도 더 준다.'가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으로는 '12. 엄마한테 미안하다(M=4.75).'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35. 사람들이 부모님 욕하는 게 싫다(M=4.50).', '52. 어른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과 다르게 본다(M=3.88).', '64. 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하나라도 더 준다(M=3.88).', '60. 엄마가 뭐라 하면 화가 난다(M=3.38).', '62. 같은 잘못을 해도 학교 다니는 애들은 봐준다(M=3.38).', '56. 용돈이 줄어들었다(M=3.13).'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55. 집에서 대우 하는 게 달라졌다(M=2.88).'는 것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④ 범주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

범주 4의 평정치는 3.88점이며 학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40.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봐서 싫다.', '42. 부모님 잔소리가 심해졌다.', '43. 학교도 안 다니는 게 어찌고 하는 말이 싫다.', '44. 빈둥댄다고 할 때 싫다.', '51. 어른들이 안 좋게 보아서 짜증난다.', '53. 차별대우해서 기분 나쁘다.', '59. 엄마한테 욕먹어서 싫다.', '61. 경찰도 차별해서 벌을 더 주는 게 싫다.' 등이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으로는 '43. '학교도 안 다니는 게 어찌고'하는 말이 싫다(M=4.25).'와 '61. 경찰도 차별해서 벌을 더 주는 게 싫다(M=4.25).', '51. 어른들이 안 좋게 보아서 짜증난다(M=4.25).'였으며 다음으

로 ‘53. 차별대우해서 기분 나쁘다(M=4.13).’, ‘44. 빈둥댄다고 할 때 싫다(M=4.00).’, ‘40.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봐서 싫다(M=3.88).’, ‘42. 부모님 잔소리가 심해졌다(M=3.13).’, ‘59. 엄마한테 욕먹어서 싫다(M=3.13).’ 순이었다.

⑤ 범주 5: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다.

범주 5의 평정치는 2.72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세부내용으로는 ‘4. 가출을 쉽게 하게 된다.’, ‘8. 너무 많이 놀아서 힘들다.’, ‘19. 그냥 마음이 힘들다.’, ‘32. 하교시간에 애들이 나를 볼 때 싫다.’, ‘38. 시간개념이 없어서 불편하다.’, ‘41. 놀 사람이 없어서 짜증난다.’, ‘47. 아침만 되면 짜증이 난다.’, ‘49. 자꾸 말을 하고 싶다.’, ‘57. 수련회 같은 게 없어서 싫다.’, ‘58.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줄어서 힘들다.’, ‘63. 복학하겠다고 해도 믿지 않아서 힘들다.’ 등이 있었다.

대부분 낮은 중요도를 부여했으나 상대적으로 ‘4. 가출을 쉽게 하게 된다(M=3.50).’, ‘19. 그냥 마음이 힘들다(M=3.38).’, ‘47. 아침만 되면 짜증이 난다(M=3.13).’, ‘38. 시간개념이 없어서 불편하다(M=3.00).’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49. 자꾸 말을 하고 싶다(M=2.88).’, ‘63. 복학하겠다고 해도 믿지 않아서 힘들다(M=2.63).’, ‘8. 너무 많이 놀아서 힘들다(M=2.50).’, ‘32. 하교시간에 애들이 나를 볼 때 싫다(M=2.38).’, ‘58.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줄어서 힘들다(M=2.25).’, ‘41. 놀 사람이 없어서 짜증난다(M=2.13).’, ‘57. 수련회 같은 게 없어서 싫다(M=2.13).’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⑥ 범주 6: 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아 힘들다.

범주 6의 평정치는 2.63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세부문항으로는 ‘7. 밤과 낮이 바뀌었다.’, ‘9. 등교하는 애들 보는 게 힘들다.’, ‘10. 교복 입은 애들 보는 게 힘들다.’, ‘21. 노는 게 지겹다.’, ‘30.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면 쪽팔린다.’, ‘34.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학교 안 다니니까 말할 수 없어 힘들다.’, ‘74.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등이 있다.

중요도 면에서는 ‘7. 밤과 낮이 바뀌었다(M=3.50).’, ‘74.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M=3.13).’는 중간보다 약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9. 등교하는 애들 보는 게 힘들다(M=2.88).’, ‘10. 교복 입은 애들 보는 게 힘들다(M=2.63).’, ‘21. 노는 게 지겹다(M=2.13).’, ‘30.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면 쪽팔린다(M=2.13).’, ‘34.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학교 안 다니니까 말할 수 없어 힘들다(M=2.00).’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⑦ 범주 7: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후회된다.

범주 7의 평정치는 3.52점으로 학교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후회를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5. 돈이 금방 떨어진다.’, ‘6. 돈을 얻기 위해 나쁜 짓을 하게 된다.’, ‘15. 학교 못 다니는 게 아쉽다.’, ‘18.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럽다.’, ‘23. 졸업장이 없는 게 걱정이다.’, ‘24.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이다.’, ‘28. 사람들이 불량스럽게 봐서 싫다.’, ‘29. 사람들의 시선이 짜증난다.’, ‘36. 학교 안 다닌다고 불쌍하다고 할 때 열 받는다.’, ‘50. 학교 안 다닌다면 어른들이 나쁘게 본다.’등이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36. 학교 안 다닌다고 불쌍하다고 할 때 열 받는다(M=4.50).’였으며 다음으로 ‘50. 학교 안 다닌다면 어른들이 나쁘게 본다(M=4.25).’, ‘28. 사람들이 불량스럽게 봐서 싫다(M=3.88).’, ‘5. 돈이 금방 떨어진다(M=3.75).’, ‘15. 학교 못 다니는 게 아쉽다(M=3.63).’, ‘24.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이다(M=3.38).’, ‘23. 졸업장이 없는 게 걱정이다(M=3.25).’, ‘29. 사람들의 시선이 짜증난다(M=3.00).’순이었다.

상대적으로 ‘6. 돈을 얻기 위해 나쁜 짓을 하게 된다(M=2.88).’, ‘18.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럽다(M=2.63).’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⑧ 범주 8: 또래 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

범주8의 평정치는 2.99점으로 또래 학생들과의 비교로 인한 어려움을 내용으로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은 ‘67.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M=4.25).’였으며 다음으로 ‘66. 고졸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M=4.00).’, ‘16.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서 힘들다(M=3.38).’, ‘73. 너무 빈둥빈둥 대서 싫다(M=3.38).’, ‘17. 교복입고 싶다(M=3.75).’, ‘48. 짜증이 많아졌다.(M=3.75).’, ‘72.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생활하는 게 달라서 싫다(M=3.13).’, ‘71.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M=3.00).’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25. 아침에 나가면 애들이 없는 게 싫다(M=2.50).’, ‘70. 심심하다(M=2.50).’, ‘31.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부끄럽다(M=2.25).’, ‘26. 나만 갈 곳이 없어서 짜증난다(M=2.13).’, ‘33.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기 짜증난다(M=2.13).’, ‘11. 공공장소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마주 치는 게 싫다(M=1.75).’ 문항에 대해서는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비교
2.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
3.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영역별
어려움

IV. 결론 및 제언

이 부분에서는 위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힘든 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조사대상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1>부터 <표 IV-V>와 같다.

1.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비교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대안학교는 남자 56.5%, 여자 43.5%이며, 직업전문학교는 남자 95.2%, 여자 4.8%, 소년선도보호시설은 남자 44.4%, 여자 55.6%. 거리청소년은 남자 60.0%, 여자 40.0%로 대안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 청소년의 경우 성비가 대략 1:1에 가까운 반면, 직업전문학교의 경우는 남자가 95%를 넘어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1>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성별

(단위: 명(%))

구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
성별	남	13(56.5)	20(95.2)	8(44.4)	6(60.0)
	여	10(43.5)	1(4.8)	10(55.6)	4(40.0)
	계	23(100.0)	21(100.0)	18(100.0)	10(100.0)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의 학교를 그만둔 시기를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경우 중 2 때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1(21.8%), 중 1(13.0%), 고2(13.0%) 순이었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고1때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2(19.0%), 고3(19.0%) 순이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중2때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3(22.2%), 고1(16.1%) 순이었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중2때와 고1때 그만두는 비율이 각각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1때(20.0%)순이었다. 대안학교, 소년 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이후에 학교를 그만둔 반면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때(4.8%)나 초등학교 졸업후(4.8%)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있어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가장 빨리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안학교 청소년의 60.8%, 소년선도보호시설의 88.9%, 거리청소년의 경우 60.0%가 중학교 졸업이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반면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8.6%만이 중학교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늦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의 학교중단이 중학교 때 주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2>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학교를 그만둔 시기

(단위: 명(%))

구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
학교를 그만둔 시기	초등학교 때	0(.0)	1(4.8)	0(.0)	0(.0)
	초등학교 졸업후	0(.0)	1(4.8)	0(.0)	0(.0)
	중1	3(13.0)	0(.0)	5(27.8)	2(20.0)
	중2	8(34.8)	0(.0)	7(38.9)	4(40.0)
	중3	3(13.0)	2(9.5)	4(22.2)	0(.0)
	중학교 졸업후	0(.0)	2(9.5)	0(.0)	0(.0)
	고1	5(21.8)	7(33.4)	2(16.1)	4(40.0)
	고2	3(13.0)	4(19.0)	0(.0)	0(.0)
	고3	1(4.4)	4(19.0)	0(.0)	0(.0)
	계	23(100.)	21(100.0)	18(100.0)	10(100.0)

인터뷰 대상자들의 학교를 그만둔 기간을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경우 1년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이상-2년미만(26.2%), 3년이상-4년미만(21.7%) 순이었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

만이 각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이상-3년미만(14.5%) 순이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의 경우 3년이상-4년미만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이상-3년미만(22.2%), 4년이상-5년미만(22.2%)순이었다. 거리청소년의 경우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이 각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이상-3년미만(20.0%)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기간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경우 1.9년,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7년, 소년선도보호시설의 경우 2.7%, 거리청소년 1.3년으로 거리청소년이 가장 짧았으며 직업전문학교와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이 가장 길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처음 학교밖 청소년이 된 후 자유로운 생활(거리청소년)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후 고민과 방황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잘못된 경우) 비행청소년이 된다고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학교밖 청소년으로의 생활을 처음 경험한 거리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를 찾아 대안학교 청소년이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IV-3>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학교를 그만둔 기간

(단위: 명(%))

구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8(34.8)	6(28.6)	1(5.6)	4(40.0)
	1년 이상-2년 미만	6(26.2)	6(28.6)	3(16.7)	4(40.0)
	2년 이상-3년 미만	1(4.3)	3(14.3)	4(22.2)	2(20.0)
	3년 이상-4년 미만	5(21.7)	2(9.5)	5(27.7)	0(0)
	4년 이상-5년 미만	1(4.3)	0(0)	4(22.2)	0(0)
	5년 이상-6년 미만	0(0)	0(0)	1(5.6)	0(0)
	6년 이상-7년 미만	2(8.7)	2(9.5)	0(0)	0(0)
	7년 이상	0(0)	2(9.5)	0(0)	0(0)
	계	23(100.0)	21(100.0)	18(100.0)	10(100.0)
	평균	1.9년	2.7년	2.7년	1.3년

<표 IV-4>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나이

(단위: 명(%))

구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
나이	14세	2(8.7)	0(.0)	0(.0)	2(20.0)
	15세	4(17.4)	0(.0)	2(11.1)	3(30.0)
	16세	1(4.3)	3(14.3)	6(33.3)	4(40.0)
	17세	7(30.5)	4(19.0)	7(38.9)	1(10.0)
	18세	4(17.4)	8(38.2)	3(16.7)	0(.0)
	19세	5(21.7)	4(19.0)	0(.0)	0(.0)
	20세	0(.0)	0(.0)	0(.0)	0(.0)
	21세	0(.0)	2(9.5)	0(.0)	0(.0)
	계	23(100.0)	21(100.0)	18(100.0)	10(100.)
	평균	16.96 세	18.00세	16.61세	15.4세

인터뷰 참가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대안학교는 17세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전문학교는 18세(38.2%), 소년선도보호시설 17세(38.9%), 거리청소년 16세(40.0%)가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대안학교 16.96세, 직업전문학교 18.00세, 소년선도보호시설 16.61세, 거리청소년 15.4세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거리청소년 연령이 가장 낮았다.

인터뷰 청소년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21.7%), 서울특별시(17.4%)였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경기도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33.3%), 인천광역시(9.5%), 대전광역시(9.5%) 순이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의 경우 경기도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16.7%) 순이었다. 거리청소년은 100.0% 서울 청소년이었다.

<표 IV-5> 학교밖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거주지역

(단위: 명(%))

구분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거리청소년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17.4)	7(33.3)	2(11.1)	10(100.0)
	부산광역시	5(21.7)	0(0)	0(0)	0(0)
	대구광역시	0(0)	0(0)	0(0)	0(0)
	인천광역시	1(4.4)	2(9.5)	3(16.7)	0(0)
	광주광역시	10(43.5)	1(4.8)	0(0)	0(0)
	대전광역시	0(0)	2(9.5)	0(0)	0(0)
	울산광역시	0(0)	0(4.8)	0(0)	0(0)
	경기도	3(13.0)	9(42.9)	11(61.1)	0(0)
	경상남·북도	0(0)	0(0)	2(11.1)	0(0)
	전라남·북도	0(0)	0(0)	0(0)	0(0)
	충청남·북도	0(0)	0(0)	0(0)	0(0)
	강원도	0(0)	0(0)	0(0)	0(0)
	제주도	0(0)	0(0)	0(0)	0(0)
	계	23(100.0)	21(100.0)	18(100.0)	10(100.0)

2.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교정보호시설, 거리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범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IV-6>과 같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학교종단후 힘든 점을 살펴보았다.

<표 IV-6> 학교밖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범주

유형	범주	범 주 명	평정치 (평균)
대안 학교 청소년	1	학교친구와 교사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3.02
	2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3.12
	3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	3.28
	4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한다.	3.17
	5	자퇴한 것이 후회지만 복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3.51
	6	소속 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2.84
	7	나에게 무관심하고, 어른들 기준의 일방적인 잣대만 들이댄다.	3.55
	8	나에 대한 부모님의 잔소리, 불신, 무시, 실망, 분노가 늘어난다.	3.09
	9	식구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되어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2.95
	10	반항적이 되고, 비행 경향이 늘어났다.	3.28
	11	자퇴생이라고 차별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3.13
	12	매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3.39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	3.57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3.62
	15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이 생기지만, 한편으론 의기소침해진다.	3.50
직업 전문 학교 청소년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3.14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3.23
	3	직업훈련체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3.61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	3.79
	5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3.32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3.22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3.40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3.01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3.19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2.97
	11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	2.87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2.81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2.61
소년 선도보 호시설	1	부모님의 구박이 심하다.	3.22
	2	부모님께 죄송하다.	4.03
	3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다.	3.67
	4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3.25
	5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의 심한 정체감 혼란을 느낀다.	3.78
	6	아르바이트하다가 힘들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많아진다.	3.68
	7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	3.45
	8	용돈이 궁핍하다.	3.07
	9	아르바이트하는 게 너무 힘들다.	3.22

거리 청소년	10	친구관계가 소원해진다.	3.69
	11	자퇴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3.30
	12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3.96
	13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	3.74
	14	학교 생활이 그림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	4.03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	3.52
	2	내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3.18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3.72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	3.88
	5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다.	2.72
	6	학교를 안 다니니 시간이 많이 남아 힘들다.	2.63
	7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클 것 같아 후회된다.	3.52
	8	또래 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	2.99

첫째, 학교밖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대안학교 청소년 ‘범주2.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이 따갑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범주 10.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범주 12.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서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거리청소년 ‘범주 13.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는 모두 학교밖 청소년이 가족과 친척,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부정적 시선을 내용으로 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사고를 친 문제아나 나쁜 아이들이라고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경험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편견을 경험하는 대상은 청소년 자신의 부모, 친구의 부모, 정규학교를 다니는 또래 친구, 이성 친구, 버스 운전기사, 이전에 다니던 학교 선생님, 이전에 다니던 학교 경비 아저씨, 친구들이 학교에 간 평일 오전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 경찰, 복학했을 때 정규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더 심하게 적용된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를 ‘힘든 점의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본 연구자의 연구문제도 자신들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복학 후 재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학교밖 청소년으로 되돌아 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복학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 중에는 비행을 저질러 소년교정보호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도 있었는데 이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이나 대우를 받는다고 토로하였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중단으로 인한 선생님, 친구로부터의 관계단절을 힘든 점으로 꼽고 있다. 대안학교 청소년 '범주1. 학교친구와 교사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범주 6. 소속 기관이 없다보니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범주. 5. 인간관계가 단절 된다.', 소년선도보호시설 '범주 10. 친구관계가 소원해진다.', 거리청소년 '범주 8. 또래 학생들과 달라진 내 상황이 싫다.'가 관련된 범주이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비록 현재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에 속해 있더라도 이전에 이웃, 혹은 학교에서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중단 후에 이전의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으며 스승의 날이 되어도 찾아뵐 선생님이 없는 데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고민을 들어주거나 빼뚫어 질 때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학교 다니는 친구와의 생활시간의 차이로 차차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 했다. 친구의 부모님도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자신의 자녀가 학교밖 청소년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학교에 놀러가도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이들을 달갑게 대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규학교 중단이라는 제 1의 단절 이후에 정규학교로부터 제2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비록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등의 새로운 학교에 소속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더라도 여전히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이 이들의 적응과 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편견과 차가운 시선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분리와 맞물린 물리적·거리적 분리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러한 소외는 곧 정서적·도구적 사회적 지지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일부 계속 유지시킴과 동시에 정규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이 정규학교 중단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가와 지역사회 조력자들은 다양한 대체 지지망을 확보하고 계발해 나가는 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셋째, 생활영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중단으로 인한 부모님, 가족, 친척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청소년의 ‘범주 8. 나에 대한 부모님의 잔소리, 불신, 무시, 실망, 분노가 늘어난다.’, ‘범주 9. 식구들과 자꾸 갈등을 빚게 되어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범주 12.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 ‘범주 13.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 소년선도 보호시설 청소년 ‘범주1. 부모님의 구박이 심하다.’, ‘범주 2. 부모님께 죄송하다.’, 거리 청소년 ‘범주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별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는 이에 해당된다. 청소년들은 정규학교를 그만둔 뒤 가족과의 갈등이나 미안함 등으로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실망스러워 하시거나 분풀이를 하시곤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학교중단으로 인해 부모님이 싸우시는 일이 많아졌다고 지각하였으며 형제들과 자주 비교를 당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으며 숨기지 않는 경우에는 친척들로부터 ‘왜 학교를 그만두었냐’는 잔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자연 친척들과 어울리는 친척모임에도 잘 가지 않게 되고 친척과의 관계도 소원해 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또래와 더불어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지지망이 가족과 친척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가족과 친척과의 분리는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의 박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들을 사회적 지지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척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은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청소년의 ‘범주12. 매사가 귀찮고 짜증난다.’, ‘범주 14.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범주 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범주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범주 9.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소년선도보호시설 ‘범주 5.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의 심한 정체감 혼란을 느낀다.’, ‘범주 7.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 ‘범주 11. 자퇴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거리 청소년 ‘범주 1. 놀고 싶지만 학교도 가야할 것 같아서 갈등이다.’ 등이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외로움, 친구들과 다르다는 스트레스, 자신에 대한 실망감, 친구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잘되어야겠다는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홀가분해 하는 동시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이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였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이러한 상대적 소외감, 외로움은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었던 시기에 자신이 수립한 계획도 잘 수행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어른들의 냉랭한 반응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정말 끝이다.’란 절박감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는 학교밖 청소년이 생활하는데 중요한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러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다양한 만

کم 이와 관련한 대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생 아닌 청소년’으로서 학생들이 받는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밖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청소년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대안학교 학생증, 직업전문학교 학생증, 청소년증이 아직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학생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사용할 경우 사람들이 ‘학교 안 다니는 애’라고 인식하는 것이 두려워 청소년증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생증 등 다른 증명도구가 없을 경우에만 청소년증을 발급·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청소년증 사용=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대안학교 청소년 ‘문항 136. 학생증이 없어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식당, 미장원, 안경점 등)(M=4.14).’, ‘문항 72.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도 못 만들고 등본도 땔 수 없다(M3.50).’, ‘문항 42. 기사랑 실랑이하기 귀찮아서 일반요금 낸다.’(M=3.29).’, ‘문항 85. 술, 담배 팔 때는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면서 버스비는 다 받으려고 한다(M=4.64).’와 직업전문학교 ‘문항 30. 버스기사 아저씨와 실랑이 하는게 귀찮아 어른 요금 낸다(M=4.06).’, ‘소년선도보호 청소년 ‘문항 113. 학생 안경 할인 못 받는다(M=3.27).’, ‘문항 82. 학생복장도 아니면서 학생 요금 땀다고 버스 기사가 소리 질렀다(M=3.36).’, ‘문항 83. 주민등본 땔 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신분증이 없어서 떼지 못했다.’, ‘문항 79. 버스카드 만들 때 학생증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힘들었다(M=3.55).’, ‘문항 80. 학생증이 없어서 도서관을 갈 수 없었다(M=3.18).’, ‘문항 84. 원동기 면허 딸 때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다(M=3.45).’, ‘문항 102.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M=4.00).’ 등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다.

여섯째, 학교밖 청소년들은 방향성의 상실로 인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위에서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도 일부 나타나지만 이 어려움이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지원, 홍보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로움, 소외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의 상실로 인한 막막함과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보여 지는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안학교 청소년 ‘범주 13.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범주 8.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거리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숙고과정이 없는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에 비해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숙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래가 막막하다(M=4.36).’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M=4.36).’, 혹은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M=4.07).’, ‘앞으로 뭐 해먹고 사나’ 하는 생각(M=4.36), ‘검정고시를 잘 쳐야 한다(M=4.07).’ 는 생각 등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도 ‘무엇을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M=3.17).’ 등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단, 상술한대로 이러한 어려움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대학진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청소년기의 진로와 방향성에 대한 물이해는 대학 진학 후 시작된 뒤늦은 고민으로 다양한 편입, 전과 등의 진로수정을 초래하고 이러한 진로수정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시기의 대안학교·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진로, 자신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 하겠다. 단, 이러한 방향성의 상실과 막막함, 불안감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안학교, 직업훈련학교 차원은 물

론 지역사회차원에서의 다양한 진로·생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밖 청소년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정서적(실패,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수용, 긍정적 피드백,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자조조력, 사회적 서비스 활용 조력), 도구적(욕구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의 교환) 사회 지지의 부족이다. 확실적이기는 하나 학교체계 안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는 학교 청소년에 비해 모든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일단 무장 해제된 학교밖 청소년은 이전에 받던 모든 사회적 지지에서 소외되고 있다. 학습과 관련한 생활지도는 물론, 상담, 훈육, 급식, 진로지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제도에서 지원되던 모든 지원은 학교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단절된다. 이전까지 갖가지 규율과 규칙으로 학생을 붙들려 노력하던 정규학교도 학교를 나간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부터 학교밖 청소년은-가족과 친척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몇몇 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학교 밖을 나온 청소년에게는 학교를 대체할 적절한 지지원을 제공해주기는 커녕 가족갈등, 무관심, 편견, 학교밖 청소년=문제청소년이라는 낙인 등으로 있던 지원마저 중단시키게 만들고 있다. 대안학교 청소년 '문항 80. 혼자서 진로를 생각해야 한다(M=3.36).', '87.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는 관심을 받고 싶다(M=3.43).',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문항 39.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 64.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렵다(M=4.17).', '문항 19. 뺏겨져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무관심)(M=3.78)', '문항 67.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M=3.44).', '문항 34.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M=3.33).',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M=3.8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문항 18.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M=3.00).', '문항 88.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드릴 선생님이 없어서 슬펐다(M=3.64).'¹⁾는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가족,

(정규)학교, 대안·직업전문학교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지지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학교밖 청소년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특이한 점은 학교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교사와의 갈등이 그다지 힘든 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 특히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개선되고 가족의 지원이 정규학교 때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비정규학교는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소년선도보호시설과 거리 청소년의 경우 교사와의 어려움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 이와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소년선도보호시설과 거리 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는 교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다양한 상담교사나 지역사회 지지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영역별로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별 특징적 어려움을 살펴 보겠다.

3.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영역별 어려움

1) 대안학교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며 지역사회나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등 제도적 관리하게 놓여 있어 생활상의 제약을 받는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아직 상대적으로 학교밖 생활에 커다란 어려움을 의식하

지 않고 있는 거리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안학교 청소년의 힘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나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에 비해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은 크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 관련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는 ‘범주 3.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에 후자의 예는 ‘범주 4.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한다.’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살펴보면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한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신체적으로 힘들고 보수가 적은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곤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문제 청소년’이라는 어른들의 편견으로 인해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우선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예전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들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비교함으로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또래 친구와 학교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일 관련 어려움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2.57점,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이 적다.’는 응답이 2.43점인 것으로 보아 청소년 고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무하던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방학 때는 재학생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M=3.71).’고 말하여 아르바이트 구직, 특히 방학기간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낮은 아르바이트 급여로 인해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성인 오락실 등)(M=4.00).’고 응답하여 다양한 청소년 관

런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과 더불어 유해한 아르바이트로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자퇴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복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범주 5. 자퇴한 것이 후회되고, 복학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M=3.51).’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현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정도가 높았으며(M=4.07) 자식들에게 들려줄 중·고등학교 추억이 없다는 것(M=4.07)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든 것(M=3.19)도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복학하고 싶은 생각 한편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되고(M=3.71), 복학하려고 해도 잘 다니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러워(M=3.36)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학교밖 생활을 통해 어려움과 사회제한계를 경험할 경우, 혹은 정규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게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복교의 문호를 열어놓아야 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로의 복교를 원할시 대안학교 차원에서 적응적으로 복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퇴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교 후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이 복교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와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및 복교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단, 한번 중퇴한 청소년이 복교 후 교우와 교사의 선입견과 편견, 소외문제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다시 중퇴하는 일이 없도록 복교 청소년에 대한 교사, 학교장은 물론 사회적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복교준비에서 복교후 적응에 이르는 과정 동안 대안학교와 학교가 공동으로 복교전/후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갑자기 정규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규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정규학교를 벗어난 후에도 대안학교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여부와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따라 2차적 차별을 경험한다. ‘문항 79. 그냥 노는

아이랑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를 차별한다(M=4.07).’, ‘문항 62. 검정고시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인간대우를 못 받는다(M=3.43).’는 문항은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검정고시를 합격했다고 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검정고시 붙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며(M=3.24) 검정고시 볼 거라면 사회에서 인정이나 해주냐며 무시하기(M=3.43) 일쑤인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학교밖 청소년이 단지 정규학교를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학력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혹은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추천으로 직업훈련과정에 들어왔다는 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학사관리로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여유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연령이 다른 생활영역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방황과 목표상실, 가족 간의 갈등 시기를 지나 학교밖 청소년으로서의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어른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다(M=2.87).’,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M=2.81).’, ‘부모님, 선생님 등이 원망스럽다(M=2.61).’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 중 많은 수는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온 후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으며 주말에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서로 챙겨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생활영역의 청소년처럼 가족간의 갈등, 사회적 편견, 어른들의 무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신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와 미래와 관련한 도움의 부족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직업전문학교가 힘들어하는 영역에 대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직업훈련이 끝나는 대로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학력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1. 학력으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M=2.14).’와 ‘범주 2.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M=3.23).’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잘 반영한다.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산업체 근무 경험을 하고 이미 산업체에 취업한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력이 걸림돌이 된다(M=3.83).’는 사실을 직접·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 취업을 위해 회사 면접을 볼 때에도 자퇴한 사실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M=3.33) 심지어 아르바이트 하는 데에도 학력을 따진다(M=3.67)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M=4.00)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이른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M=3.72)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다. 대안 학교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공부대신 ‘취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를 실시한 직업전문학교들은 대부분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의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시간의 기술훈련을 통해 정규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직업전문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직업훈련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몇몇 직업훈련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범주 3. 직업훈련체계와 관련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항목을 통해 현재 직업전문학교 체제상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직업전문학교 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첫째로 ‘문항 16. 직업전문학교 전공이 한정되어 있다(M=3.17).’는 점을 지적한다. 기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설비와 실습장비가 필요한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전공을 개설할 경우 이에 따른 설비구입 비용 증가와 관련교

사의 추가 채용 문제 등이 발생한다. 현재 전국 21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 직업전문학교는 기계와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19개 분야에 51개 직종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고 입학기준이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지역 직업전문학교에만 있는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의 경우 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IT, 예술, 항공, 관광 등 비교적 다양한 전공을 갖추고 있는 사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서울에 위치한 1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세에서 60세까지의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청소년의 비율은 극소수(대부분 3명내외~1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21.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M=4.22).’는 것이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수시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입학기간을 놓치면 긴 경우 1년까지 입학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입학연령이 취업이 가능한 연령에 한정하고 있어 연령이 미달하는 경우 입학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사설 학원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사설 학원의 엄청난 교육비용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학교밖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중단후 부모로부터 용돈지원조차 줄어들었다고 하는 상황이라 정규학교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사설 학원비를 충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의 전공과 입학시기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운영 직업전문학교의 입학가능 인원을 확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성인과 함께 교육을 받을 경우 청소년기의 독특한 발달적 특성을 간과하고 자칫 이들이 주된 교육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청소년 전용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 한계점은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은 성별로 인한 추가적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 여자들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전공을 찾기 어렵다(M=3.78).’와 ‘28. 기술을 배워도 여자

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M=3.89).’는 응답은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이 처한 이중고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인터뷰를 실시한 청소년 중 단 1명만이 여자 청소년이었다. 기계, 항공, 자동차 정비 등을 주로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여자 청소년이 원하는 직종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기계, 항공, 자동차 정비 등 기존의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희망하여 직업전문학교에 진학·졸업한 여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성상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취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성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관련 전공 계발이 시급하다. 네 번째 한계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검정고시를 주로 하는 대안학교 청소년과 달리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정규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2006년 3월 10일자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졸업학력인정시험이 폐지되었고, 출석 수업 일수 24일 이상을 채우고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위 독일의 예에서 살펴본 플렉스(Flex) 통신학교-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서비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이 공부보다는 졸업장 따는 것에 치중한다(M=4.00).’는데 비교적 높게 동의하고있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학교가 싫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난 청소년과 달리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우 여전히 학문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며, 기회가 되면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한 이후에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바램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졸업이 목표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에게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를 급격하게 재구성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청소년

들에게 다양한 보충·심화 학습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지역사회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계하여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한계점은 직업전문학교 수용가능인원에 관한 사항이다. 인터뷰 대상 청소년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면접에 떨어지면 들어올 수 없다(M=3.67).'고, '직업전문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떨어질까봐 눈치지원한다(M=3.22)'고 하여 직업전문학교가 원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 또한 국가재정상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많은 실업자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 국비 지원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높지는 않지만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1년)이 짧다(M=3.11).'는 문항을 통해 일부 청소년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교육기간이 길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실질적인 재정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직업전문학교 수용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있어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직업전문학교 인원 증대, 사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청소년 직업훈련시 국가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직업훈련을 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주 4.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렵다(M=3.79).'는 점을 매우 중요한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M=3.89),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혼자 힘으로 찾기 어려웠다(M=4.17)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학교나 직업전문학교가 있어도 기숙사가 없고 집이 멀면 다닐 수 없다(M=3.56)고 하여 거리상의 근접성, 기숙사 시설의 중요성을 시사 하였다. 기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M=4.61)고 한 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밖 청소년이 무기력하고 목표의식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뒤엎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위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의 노력에 반해 사회적,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기존에 있는 다양한 학교밖 청소년 서비스들은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밖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며 기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곳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가단위의 학교밖 청소년이 정작 청소년 자신에게는 얼마나 생소한 것인지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신규 개발·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학교밖 청소년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범주 7.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40. 내가 하고 싶은 일(예: 댄스, 메이크업, 농사 등)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M=4.00)'와 '91.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내보낸다(M=3.33).', '92. 상담소나 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M=3.67).', '93. 상담소나 교육관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M=3.17).'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3) 소년 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소년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비행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다른 생활영역 청소년에 비해 특히 '범주 1. 부모님의 구박이 심하다(M=3.22).'고 하였으며 '범주 2. 부모님에 대해 죄송한 마음(M=4.03)'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빼뺏어 나가는 거라고 다

른 사람들이 부모님을 욕하거나(M=3.82),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M=3.91), 주변 사람들이 학교 보내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욕해서(M=4.45), 부모님 친구분들이 자식 자랑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볼 때(M=4.36), 부모님 생신 때 선물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때(M=4.18)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지만 특히 소년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더 집중적인 부모·자녀 교육 및 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행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소년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거리 청소년에 비해 비행과 관련된 경찰과의 관계,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비행과 관련한 유혹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다(M=3.68). 이들은 나쁜 쪽(절도, 오토바이 폭주, 폭력 등)으로 유혹이 많아지고(M=4.27) 나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된다(M=4.27)고 하면서 보호관찰 중에 또 사고를 치거나(M=3.82) 보호관찰에 무조건 따르는 것(M=3.55)에 대해 힘든 점을 토로하고 있었다. 불규칙한 생활로 밤낮이 바뀐다는 지적도(M=4.09)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교 안다니는 애들과 어울려 나쁜 짓한다고(M=3.73)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범주 6’에 아르바이트와 비행에 관한 사항을 함께 범주화하는 것으로 보아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나쁜 쪽으로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 문제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선도보호시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도·보호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회의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비행을 저지른다고 욕박지르기 전에 지역사회에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적당한 장소가 없음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또한 밤낮이 바뀌거나 하루종일 시간이 남아돌아(M=4.04) 비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대

안학교·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비행을 저지르고 경찰서 등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차별과 비인격적·비인권적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67. 경찰서 가면 학교 안 다닌다고 개취급당한다(함부로 말하거나 때린다(M=4.04)).' 그리고 '문항 56. 경찰들은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못된 거이라며 함부로 말한다(M=4.27).', '65. 같이 사고쳐도 학교 안 다닌다고 나만 구속시킨다(M=3.82).', '76. 학교 안다니면 나가서 사고친다고 보석 신청도 안 받아준다(M=4.09).'는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이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 차별과 가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때로는 비인권적인 처우까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는지 추가적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 침해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처방안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일정한 소속이 있는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비해 정기적인 생활교육프로그램, 관련된 도움의 지원이 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집에 있으며 할 일이 없어 TV보거나 누워서 뭉굴기 일쑤이며(M=3.45) 하루종일 시간이 남아돈다(M=4.04)고 응답하고 있었다. 끈기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있으며(M=3.04) 학교 다닐 때 보다 외박 횟수가 많아져(M=4.04)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외박이 잦아지는 경우 숙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비행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자퇴 당시 마음 먹었던 검정고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M=3.55)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지 모른다. 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선도보호시설의 경우 다른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유혹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시간을 규율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하게 된다.

넷째,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복학후 재 중도탈락 문제를 경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학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다른 생활영역 청소년에 비해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복학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다시 자퇴했다(M=4.00)거나 복학했을 때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M=4.27)는 문항에 상당히 높은 값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복학후 재중단 경험이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였다. 대안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경우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복교의지가 확인되었지만 복교생에 대한 학교, 교사, 교우들의 편견이 해소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복교후 적응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재 중도탈락은 또다시 적응에 실패했다는 심리적 부담과 함께 심각한 적응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이 힘들게 돌아간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행,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과정을 경험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후회하고 학교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14. 학교 생활이 그림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내용은 이러한 사실은 잘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비교, 소년선도보호시설에서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난 이들은 중국에는 ‘학교를 괜히 그만두었다는 생각(M=4.45).’과 함께 ‘공부는 안하더라도 학교는 갔어야 했고 졸업장은 있어야 했다는 생각(M=4.55)’을 하게 된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자퇴한 걸 후회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하며(M=4.18) 학교생활을 그리워하고(M=4.27) 있다.

4) 거리 청소년

거리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범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에 비해 커다란

어려움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주 3. 학업중단 후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대우가 달라졌다(M=3.77).’와 ‘범주 4. 나를 나쁘게 보아서 화가 많이 난다(M=3.88).’를 제외하고는 거리 청소년에 문제에 대한 지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중단 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을 거쳐 고민과 방황의 기간후 적응 혹은 비행후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거리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인 학교 중단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에 속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거리 청소년의 학교중단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거리 청소년의 문제 인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 유형의 문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가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은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에 대해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아무 준비나 지원 없이 학교 밖으로 청소년을 내모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상의 문제로 청소년이 그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학교밖 청소년기를 독특한 발달 단계 중 하나로 간주할 경우 거리 청소년기는 비교적 초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학교밖 청소년이 복교를 선택할지,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대안학교로의 진로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은 비록 조금만 조치일지라도 추후 학교밖 생활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거리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리 청소년의 경우 대안학교 청소년이나 직업전문학교 일차적 집단인 가족과 학교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일반적인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사회적 지지로부터의 고립과 이로 인한 박탈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보

기보다는 아예 이들과의 교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이들은 자신의 목표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학교에서 학교밖 청소년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나 사전지식 없이 즉흥적으로 학교중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중단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추후 거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이에 대한 미인식은 자칫하면 장기적인 무계획적 학교밖 생활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방황과 목표상실을 통한 적응기로 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일 수 있다. 단, 이러한 시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거리 청소년은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심화되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그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즐겨워하는 동시에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걱정하는(M=4.00)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M=4.75)과 학력 때문에 받게 될지 모르는 차별에 대해 걱정(M=3.75)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이 심화된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말썽을 많이 부리게 되며(M=3.88) 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는 사회적 분위기(M=3.88)와 경찰조차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을 차별하여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벌을 더 주는(M=4.25)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가출을 자주 하게 되며(M=3.50) 밤과 낮이 바뀌고(M=3.50)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M=4.25). 거리 청소년의 특성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가족적 어려움과 문제요소를 골고루 경험하고 있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이 이미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V. 정책제안

1. 학교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2. 학교밖 청소년 생활영역별 정책적 대응 방안

V. 정책제안

본 장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학교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과 생활영역별 어려움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전개: 학교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및 학교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학교밖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우리사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편견과 무관심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에 퍼져있는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라는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그들의 가족이 받는 차별과 다르지 않다. 즉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밖 청소년이 차별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 형제, 교사는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학교밖 청소년의 성공적 적응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소책자화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비정규학교, 사회복지관, 관공서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나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중단 중단 청소년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내는 정기적 소식지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해하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 성차별, 인종 차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정규학교를 중단하였지만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 선배의 예를 방송하는 것 또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에 주효할 것이다.

(2)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학력위주 문화가 기여한 바 크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학교 내적으로 학교문화 및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 그 중에서 자발적 학업 중단자는 ‘학습의 의지’를 지닌 채 정규학교 체제에서의 교육을 거부·포기·중지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 이들로부터 명백하게 외면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을 문제라고 하기 전에 우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인 학교를 스스로 떠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 제도 내의 다양한 특별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나 보건복지부와 연계·협력을 통해 이들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인력(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규학교 중단률이 외국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의 학교중단 상황을 간과해도 좋을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중단이 낮다는 것은 학교중단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선택을 한 청소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문제를 내포한다. 점점 더 다원화 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제도에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현행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조를 통한 혼란보다는 점진적인 수정·보완을 통한 발전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욕구와 다양한 개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부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 학교외 교육·활동 강화

학교 외적인 면으로는 학교외 교육 및 청소년 활동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지원체제는 주로 대안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예방체제 혹은 조기 개입체제라기보다는 사후 지원체제라 할 수 있다. 현재 학교교육만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학습의지 및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면 학교외 교육을 지원하거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이름으로 제한한 청소년 활동의 영역을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주축이 되어 학교 외 교육 및 청소년 활동 강화 시범학교 및 연계 기관(지역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지역 직업훈련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을 선정하고 이를 주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확보

(1) 학교밖 청소년 1:1 멘토링 서비스 제도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적하는 공통적 어려움 중 하나는 학교중단으로 인한 선생님, 친구로부터의 관계단절이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전의 또래친

구, 교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바람과 달리 물리적·시간적으로 생활영역이 분리되는 정규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이전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규학교에 비해 자유롭기는 하나 일정한 수업시간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이전의 정규학교 청소년을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이 비행을 저지르고 선도·보호중인 청소년은 이전 학교 친구나 그 친구의 부모가 접촉을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또래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는 더욱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리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 청소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점차 공통대화주제를 갖지 못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고려할 때 정규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대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멘토링 서비스를 원하는 학교밖 청소년부터 우선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청소년의 희망사항과 요구가 수렴되어야 하며 멘토의 경우 관련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교육기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스스로가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멘토의 경우 청소년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규학교에서의 교사와 상담자의 역할 강화

정규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에서의 교사나 상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를 중단했다고 해서 학교밖 청소년이 이전 정규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자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학교 중단으로 교사·상담자 지지를 빼앗기게 된 청소년의 경우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등 비정규학교를 통해 이전의 교사와 상담자가 하던 역할이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교사에 대

한 불만이나 힘든 점이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러한 교사와 상담자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비정규학교의 경우 교사와 상담자들이 적절한 지원 없이 대부분 희생정신과 사명감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과다로 인한 소진(burn-out)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정규학교뿐 아니라 비정규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가족·친족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중단후 일정기간내 가족응집성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생활영역별로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공통적으로 학교중단으로 인한 부모님, 가족, 친척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중단에 대해 가족들이 청소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도 부모와의 상의나 숙고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급작스런 학교밖 생활로 인한 가족, 형제, 친족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에 대해 불만과 아쉬움이 쌓여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이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임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가족, 친족간의 어려움이 학교밖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학교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족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족·친족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까운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야 한다. 학교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중단후 일정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가족응집성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의무화 한다면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가족 혹은 친족과 관계에서 안정을 찾고 좀 더 빨리 자신의 목표와 진로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봄으로서 학교밖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대처방안 모색: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강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밖 청소년은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학교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불안한 시선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역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모, 친척, 친구, 지역사회 어른들의 불안한 시선이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중단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은 거시적으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미시적으로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한 예는 위에서 살펴본 1:1 멘토링 서비스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학교중단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및 방향성 모색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다.

5)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다양한 혜택 지원 방안 모색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학생 아닌 청소년’으로서 학교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청소년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청소년 신분증명의 청소년증 단일화 추진

학교밖 청소년은 정규학교 학생들이 흔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규학교 학생증이 없어서 원동기 운전면허를 따거나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 학교의 신분증이 따로 나오고는 있으나 대부분 학생증이 아니

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수이며 청소년증이 있는 경우라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만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회적 인식과 그로 인한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 청소년증 사용을 꺼리는 현상을 보였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할 경우 이는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이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기간으로 비정규 학교(대안학교·직업전문학교) 학생증의 활용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낙인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증이 청소년의 신분증명서로 공통·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학생증 기능을 청소년증에 통합시켜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증만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문제와 청소년증 사용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증에 대한 혜택의 보장 및 확대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의 경우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되면 “청소년입니다.”라는 소리가 함께 나와 모든 사람이 사용한 청소년을 쳐다보게 된다. 또한 여느 학생 청소년과는 다른 차림새를 하고 청소년증을 사용할 경우 버스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청소년도 아닌데 왜 청소년증을 사용하냐는 호통을 듣기 일쑤이다. 이러한 일들을 몇 번 경험한 대부분의 학교밖 청소년은 성인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 청소년증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 범위는 몇몇 문화활동에 대한 할인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지역 사회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문화활동 보다는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밥 값, 관련분야 학원 수강료, 학습에 필요한 도서 및 부자재 구

입,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센터 이용 등에서 할인기회가 더욱 절실하다.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환경적 지원 강화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제도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사회적·환경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환경적 지원은 오히려 학교청소년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의 부족은 적극적으로 진로를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의욕을 꺾고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욕구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1) 학교밖 청소년 관련정보의 홍보강화

이전까지 갖가지 규칙과 규제로 청소년을 힘들게 한 학교는 학교를 나가는 청소년에게 아무런 규칙과 규제,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학교를 내보내 또다시 청소년을 힘들게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디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하고 방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황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칫 문제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부에서 수년간 추진해온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이 다니는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를 -교회나 성당, 주변 어른들이 추천해줘서 진학하게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오랜 기간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적응도가 높다고 보여지는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학교 중단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체계나 정

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내용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학교 중단시 체계적 정보제공의 의무화 추진

학교밖 청소년이나 그 부모들은 학업중단후 진로모색에서 많은 곤혹스러움을 겪게 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들에 대해 정확한 계획이나 정보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로부터 학교밖 생활에 대한 아무런 사전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켜 쫓기듯 학교를 나가게 되는 청소년이나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나 아무런 정보나 도움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부처간의 연계협력부족과 ‘학교 청소년=교육인적자원부, 학교밖 청소년=교육인적자원부 이외 부처’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잔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간단한 정보자료 배포만으로 가능할 것을 하지 않아 청소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 부분에서 학교중단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정보인수를 통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궁극적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교밖 청소년 개인에게 개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희망자에 한하는 보완적 방안을 모색하거나 어떤 방향이든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청소년위원회,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주축이 되어 공동으로 학교밖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 정보자료집을 구성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학교중단이 결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선 정규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포하도록 함으로서 예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빠짐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며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도 대단히 다양한 만큼 이 자료에는 대안학교에 어떤 종류가 어

디에 있는지, 직업적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인권 등에 침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복교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부의 양극화 속에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교육이 그 핵심고리로서 부각되는 현실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은 일견 그 구조의 전형적인 피해자들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한명에게 국가에서 투자하는 재정은 일 년에 500여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그러한 공적인 지원을 사실상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 가정의 경우 사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중요한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다. 학업중단 청소년가운데 가정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핵심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및 학교·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연계·협력하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교육청과 기존의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배려가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사는 소외 청소년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노동부 인가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 중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원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직업훈련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이 직업전문학교 이외에서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의 교육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청

소년위원회를 주축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7)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학교밖 청소년은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도구적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센터,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연계활동을 위해서 복지대상자 중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진로, 취업지원,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에서 보호가 힘든 학교밖청소년의 위탁을 의뢰하고 경제적 활동 및 교육, 심리상담, 기관연계 등 서비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국(청소년상담실)의 부모 교육, 가정 상담 등의 교육임무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2. 학교밖 청소년 생활영역별 정책적 대응방안

1) 대안학교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및 관련 피해 감소 전략 수립

학교밖 청소년의 건전 아르바이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가 주축이 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을 위한 거점 관리

가 필요하다. 전국의 중·고교 재학생의 1%인 3만 6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이들 중 22%가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시간제 근무 경험을 보유(노동부, 2003)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청소년이 시간제 근무를 해본 것으로 추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정보 부족, 학력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취업자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수시입학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이 한정되어 청소년의 수시입학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년 실업대책에서(만 15세-29세) 만 15세-19세 청소년에게는 교육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불성실) 및 기초 학력차로 인해 직업교육 기회는 더욱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진로상담부터 아르바이트, 취업교육·관리까지 네트워크를 통한 거점 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진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아르바이트, 취업정보 제공·관리 거점이 운영가능토록 해야 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시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 업소 지도점검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도 필요하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자활지원, 고용촉진훈련,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의 근로의욕 고취와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훈련이 시급하다. 또한 비진학 청소년이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입학기회의 불공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생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 관리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 근본적인 통합적 아르바이트 정보관리·연결·관리 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패스트푸드점, 대형할인매장

등)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업무 계약을 통해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신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전 정보 및 대처방법을 담은 자료를 배포·교육 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안학교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중 일부는 자퇴한 것을 후회하면서 복교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지체 없이 복교하고 복교 후 부정적 문제로 인해 2차 학업중단하지 않도록 특히 복교전 사전 준비프로그램과 복교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학교로의 복교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했을때 복교준비에서 복교후 적응에 이르는 과정 동안 대안학교와 학교가 공동으로 복교전/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갑자기 정규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규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서 적응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3) 대안학교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차별 금지

정규학교를 벗어난 이후에도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 여부와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따라 2차적 차별을 경험한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과정이라고 해도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부터 무시를 받기 일쑤이며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이중적 차별과 편견은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이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4)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학력위주의 취업문화 배제 및 능력위주의 취업문화 구축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직업훈련이 끝나는 대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진로와 관련한 많은 학력의 장벽을 경험한다. 직업전문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취업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력위주의 취업문화 배제 및 능력위주의 취업문화 구축과 함께 소수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취업 할당제, 노동부 직업전문학교 수료 청소년 고용시 정부가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직업훈련 시스템의 개선

현행 운영되고 있는 노동부 국비 지원 직업전문학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맞추어 직업전문학교에서 다양한 전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가 장비 설치와 인력 고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적 문제로 인해 추가 장비 설치와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조건을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이 가능토록 하여 원하는 청소년이 지역에 구애됨 없이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음에도 국비지원 직업전문학교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학교밖 청소년이 사설 직업훈련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자 할 때 수업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셋째,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추가적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계발이 필요하다.

넷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정규학교를 그만두었을 뿐 배움에 대한 열망은 정규학교 청소년 못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졸업만이 아닌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충·심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업전문학교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직업전문학교 인원의 증대, 사설 직업훈련에 대한 국비지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전문학교 설치 등을 통해 원하는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6)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로선택과 진로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부터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밖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계발·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

다 시급한 것은 기존의 학교밖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학교밖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다.

7)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비행으로의 전이 예방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관련한 유혹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비행은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도·보호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회의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비행한다고 압박지르기 전에 여가시간을 보낼 건전한 장소가 없음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또한 밤낮이 바뀌거나 하루종일 시간이 남아돌아 비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대안학교·직업전문학교 등으로의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8)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비인권적 처우 금지를 위한 방안 마련

비행을 저지르고 경찰서 등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일부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은 상대적인 차별과 비인격적·비인권적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 실태파악과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복교후 재 학교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및 교사 역할 강화

소년선도보호 청소년의 경우 복학후 재중단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교후 재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상

대적으로 더 큰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안학교 청소년과 거리 청소년의 경우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복교의지가 확인되었지만 복교생에 대한 학교, 교사, 교우들의 편견이 해소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복교후 적응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며 이로 인한 학교 재중단은 심각한 적응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대안학교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이 있는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경우 학교측에서 학생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희박할 수 있다. 따라서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복교를 원하는 청소년이 힘들게 돌아간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교사, 학교장 등이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10) 거리 청소년: 거리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 프로그램 강화

대부분의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중단후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을 거쳐 고민과 방황의 기간후 적응 혹은 비행후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비교적 학교중단 기간이 짧은 거리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인 힘든 수준이 낮아 일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일반청소년에 대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가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아직 그 어려움이 심화되지는 않았으나 거리 청소년들은 대안학교 청소년과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다.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이 이미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완충지대로서 쉼터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초기개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성국(2005a). 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성국(2005b). 간추린 교육통계 200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기홍(200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학생생활연구, 24(1), 117-136.
- 교육인적자원부(2005). 대안특성화학교 현황.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본용·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a). 2005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a). 제3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 미발행 간행물.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해수(2004). 지역 연계 체제를 활용한 학교밖 길찾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고대회, 4-23.
- 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람·김상수(2004).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 운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주영아·김태성·이자영·김상수·신현수(2005). 학교밖청소년 지원모형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7(1), 1-24.
- 김광운(200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활동방향.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29, 61-76.
- 김기태·류기형·최송식·최인욱·홍봉선·남미애(1996).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생활과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연구, 6, 165-198.
- 김동일(2004).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평가와 상담·지원 서비스의 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술세미나, 47-67.
- 김미정(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모델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장·김혜영(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3(1), 3-22.

- 김순규(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김영한(2000). 심리극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남(2001). Holland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03). 집단음악활동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2005). 욕구인식 일치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형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찬호(2004).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사회적 과제. 한국의 소수자, 전망과 실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창환 외(2003). 통계로 본 중등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주(2002). 학업중도탈락자녀의 심리와 가족관계 : 가족의 지지방안. 청소년복지연구, 4(1), 1-22.
- 김혜영(2002a).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2b).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노동부(2006). 2006 노동백서. 서울: 노동부.
- 노상우(200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략. 한독교육학연구, 9(2), 45-64.
- 명신희(2004).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기개념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자(2002). 중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복귀 소집단훈련프로그램의 효과 및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선화·신심중·이춘기(1998). 중고등학교 중퇴자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접근방안, 사회복지연구, 8(1), 185-207.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방안.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
- 박래영(2005). 광복 60년 학업중단의 원인·실태·정책의 변화양상과 향후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2), 5-21.
- 박영숙(1999). 학교환경이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2004).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어려움과 상담전략.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송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송정화(200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학회, 16(3), 121-145.
- 안현의(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6: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7-15,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현애(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계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경림(2000).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상(2004). 국가발전과 청소년대안교육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실

- 태 및 지원방안-대안교육 확대보완의 필요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18(2), 41-64.
- 이근창(2003). 학교중퇴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선(2003). 청소년 가출의 문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남상인·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은주(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성(2001). 부적응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와 비행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원(2002). 비행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실증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이소희(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4(1), 23-40.
- 장은정(2000). 가출경험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종희(2005).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퇴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 모델검증과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아동복지학, 9, 205-225.
- 정찬석(2005). 청소년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개념도 방법론을 통한 상담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병주·소수연·오충광·정민재·박성호(2004).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과 이해. 2004 청소년상담심포지움, 9-41.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용태·배영태(2003). 학교 중도탈락의 요인에 관한 고찰. 교육학논총, 24(1), 173-192.
-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연도별, 사유별 중도탈락자 구성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직업교육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회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개발부(200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 미간행 발간물.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대책 실행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토론회 자료.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a).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b). 학교밖청소년의 이해 및 개입방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5).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한준상(1997). 중퇴생의 진로 선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진로교육연구, 7, 115-134.
- 허철수(2004).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자원개발 및 적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술세미나, 71-82.
- 홍임숙(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 학교중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길·여인중·남재량·장미경·허묘연·권해수·박정민·손재환·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Bayeische Staatsministerien für Unterricht und Kultu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2000). *Zusammenarbeit*

- von Schule und Jugendhilfe. Munchen: Bayeische Statstministerien fur Unterricht und Kultus fur Arbeit und Sozialo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Munchen; Bayeische Statstministerien fur Unterricht und Kultus fur Arbeit und Sozialo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 Deutsches Jugendinstitut(2005) *Paxisorijekte im Handlungsfeld von Schulmudigkeit & Schulverwigerung*. Mu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
- Dolton, P., Makepeace, G., Hutton, S., and Audas, R.(1999). Making the grade: education, the labour market and young people, *Work and Opportunity 15*. York: York Publishing Services for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 Dorn, R. A., Bowen, G. L., and Blau, J. R.(2006). The impact of community diversity and consolidated inequality on dropping out of high school. *Family Relations*, 55, 105-118.
- Entwisle, D. R., Alexznder, K. L., Olson, L. S.(2004). Temporary as compared to permanent high school dropout. *Social Forces*, 82(3), 1181-1205.
- Giorgi, A.(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Osychological Research* (12-18). Philadelphia : Duquesne University Press.
- 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ICI](1994). *Policy Research Brief: Are We Pushing Students in Special Education to Drop Out of Schoo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Janosz, M., LePlac, M., Boulerice, B., and Tremblay, R. E.(1997). Disentangling the weight of school dropout predictors: A test on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6), 733-762.
- Lee, F. W. L., Ip, F. M. L.(2003). Young school dropouts: levels of influence of different systems. *Journal of Youth Studies*, 6(1), 89-110.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ling.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6, 317-324.
- Shsub, T. M.(1997). *Life Stories of High-Risk White Female Teens*: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with Adolescents Ten Years After Participation in a Dropou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Oregon State University Ph D.

Smyth, J., & Hattam, R.(2001). Voiced research as a sociology for understanding 'dropping out' of school.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2(3), 401-415.

Trochim, W.(1989a).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In W. Trochim(Ed), A Special Issue of Educ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Trochim, W.(1989b). *Concept Mapping: Soft Science or Hard Art?* In W. Trochim(Ed), A Special Issue of Educ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87-110.

Trochim, W.(1993).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Dallas: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국가청소년위원회 e 브리핑: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의 아동청소년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youth.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to_sec_2&id=79d1cdbd32b29fbfe64d43e1>.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정책자료’.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youth.go.kr/Library/Statistical_list.asp>.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youth.go.kr/Library/law_list_.asp>.

‘U.S Department of Labor: Job Corps’.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dol.gov/dol/topic/training/jobcorps.htm>>.

‘법무부’.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oj.go.kr/>>.

‘보호관찰대상 1200명 잠적’. 서울신문, 2006년 5월 23일자.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seoul.co.kr>>

‘소년원생 5년전의 절반으로 줄어’. 연합뉴스, 2006년 6월 5일자.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yonhapnews.co.kr>>.

‘여성가족부’.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ogef.go.kr/>>.

‘통계청’.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nso.go.kr/>>.

‘학업이탈 초·중·고생 지난해 5만5천명’. 연합뉴스, 2006년 9월 22일자.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yonhapnews.co.kr/>>.

‘학업이탈 초·중·고생 지난해 5만5천명 매년 감소 추세. 민병두 의원 국감 자료’. 전남일보, 2006년 9월 23일자.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jnilbo.com/>>.

‘학업중단청소년 정보공개 인권침해 소지’. 민중의 소리, 2006년 4월 11일자.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voiceofpeople.org/>>.

‘Connexions’.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connexions.gov.uk>>.

‘EPE-RC: The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Research Center’.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edweek.org/dc>>.

‘IJAB’.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jab.de/>>.

‘Internationaler Jugendaustausch-und Besucherdiens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6.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jab.d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hhs.gov/>>.

‘Youthbuild U.S.A’. 2006. [Online]. [2006. 10.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youthbuild.org>>.

부 록

1. 인터뷰 참가자 인적사항 조사표
2. 집단 인터뷰 녹취록

[부록 1] 인터뷰 참가자 인적사항 조사표

◆ 인터뷰 참가자 인적사항 ◆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표시 하거나 기입하여 주세요.

1. 이름을 적어주세요. ()

2. 성별은 무엇인가요? ____ 1) 남 ____ 2) 여

3. 나이를 적어주세요. (만 세)

4.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주소 : _____

전화 및 휴대폰 : _____

5. 거주지역은 어디인가요?

__ 1) 서울특별시 __ 2) 부산광역시 __ 3) 대구광역시 __ 4) 인천광역시

__ 5) 광주광역시 __ 6) 대전광역시 __ 7) 울산광역시 __ 8) 경기도

__ 9) 경상북도 __ 10) 경상남도 __ 11) 전라북도 __ 12) 전라남도

__ 13) 충청북도 __ 14) 충청남도 __ 15) 강원도 __ 16) 제주도

6.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언제인가요?

__ 1) 중1 __ 2) 중2 __ 3) 중3

__ 4) 고1 __ 5) 고2 __ 6) 고3 __ 7) 기타

7. 학교를 그만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____ 년 ____ 개월

[부록 2] 집단 인터뷰 녹취록

유형1. 대안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유형	대안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1
장소	비인가 대안학교(K학교)
소재지	서울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11:30-13: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면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힘든 점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든. 지금까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무엇을 했는지 대안학교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면 대안학교에서의 생활도 포함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상: 아무것이나 머리를 비운다고 생각하고 힘든 점을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친구들이 말한 것을 정리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리이러한 부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이거든.

청: 으흐흐. 하하.

청: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꼭 이런 건 아닌데 얼마 전에도 다른 대안학교 친구들도 와서 인터뷰 했는데요. 청소년증이 있고요 학생증이 있으면 차별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다르잖아요. 청소년증은 일반학생들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요. 그때 알았어요. 다. 같이 청소년증 받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청: 청소년증으로 하면은 학교 그만둔 애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청: 그래서 학생증을 다. 청소년증으로 바꿔버리자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

청: 솔직히 청소년증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청: 이제 나이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상: 그전에는?

청: 그때는 저번에 다니던 학교 학생증이 있었으니까 사용했어요.

청: 근데 영화 보러가도 두 명은 학생증이 있고 한명은 학생증이 없으면 학생증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인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학교학생증(대안학교) 내밀면 여기가 어디냐고 이런 학교도 있냐고 그러고요. 여기 다니는 친구하나는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싸웠어요. 우리학교 학생증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싸워서 울고, 학교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청: 난리가 났었어요.

청: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였고 대안학교 학생증으로는 못 만들고.

청: 그런 곳이 있어요.

청: 학교 다니기 전에 저는 중학교도 안다녔고 그랬으니까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때는 더 어려서 주민등록증도 없고. 학생카드(버스)를 받아야하는데 웬만하면 다.주는데 거기서는 학생증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증 없다고 그래서 여권 들고 다녔어요.

청: 여권에 나이가 나오니까.

청: 그래서 여권 들고 다녔어요.

상: 이와 관련해서 보완할 것 있는 사람?

청: 어. 하하.

상: 일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 학교 그만두고?

청: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은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학교를 나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상한데, 여러 곳을 하다.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잖아요.

상: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원치 않아도 이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는 거네? 돈을 많이 벌었어야 했던 거니?

청: 아니요. 그냥 적당이.

상: 아니.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니?

청: 네.

상: 대안학교는 학비는 어떻게 되니?

청: 따로 내요.싸요

청: 1년에 80만원이고. 후원금이 있어요.

청: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청: h센터는 비싸요. 하. 좀 좋은데?. 그런데 아니라 학교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상: h센터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미디어 쪽은 기자재나 소품비들이 많이 들잖아.

상: 좀 또 다른 것들은 없었니? 대안학교 다니기로 결정하고 학교 그만두고 그러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어?

청: 아 오후에 버스타서 버스카드 찍으면 청소년입니다.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청: 아 맞아 소리 나는 거.

청: 저희가 학교를 늦게 와요. 10시에 오는데요. 사복입고 버스카드 찍으면 청소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청: 청소년입니다. 그소리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청: 그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청: 인권침해.

청: 맞아. 하하.

청: 진짜 그래요 밤에도 솔직히 저희는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어려도, 하하. 그래도 그럴 땐 학생인거 아닌 그런 게 좋잖아요. 하하,,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갈 땐 할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하하

청: 하하

청: 그런데 할인받으려고 찍으면 무안한 거예요. 술도 먹었는데.

청: 하하하

상: 그런거 있잖아. 나이는 학생나이인데 밖에 나가면 학생 아닌 걸로 행동할 수 있잖아.

청: 그런게 어떻게 보면 편할 때도 있는데요. 진짜 좀 그런 게 친구들이 옛날 살던 곳 주위에 살거든요 저는 학교 갈 시간에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전 사복입고 있고 친구들은 교복입고 있고 좀 그래요. 친구들이 아는 척을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 그래요.

상: 그렇다는 게 어떤 건데?

청: 친구니까 보면 반갑지만 그러면서도 옆에 있기가 좀 그런거. 무안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날 학교 그만둔 애로 보겠지. 그렇게 밖에 안보이잖아요.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상: 학교 다닐 때 만나던 친구들하고는 계속 잘 지내?

청: 네.

상: 학교 그만두게 되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청: 저는 자주 못 보더라도 서로 친하니까.

상: 아.

상: 친구들 관계는 어땠니?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청: 계속 잘 지내다가. 이제 나이 먹고, 한해씩 지나면서 누구는 대학가고 그러면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연락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 그게 중학교시절 때 이후니까 지금은 거의 다. 사회인이 되는 시기이구나. 갑자기 길이 많이 달라지겠네 그러면.

청: 하하.

상: **는?.

청: 전 친구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구요. 필리핀 가서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한국사람 있어서 친했고, 필리핀에서 알던 사람들 지금 한국에 4명 정도?..그것도 안 만나요 연락도 잘 안해요.

상: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온 거니?

청: 아노 제가 제일먼저 들어왔고 제 뒤로 차례차례 다. 들어왔어요.

상: 여기서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거니? 여기 k학교.

청: 음.네.

상: 여기 사람들이 더 잘 맞나보다 그냥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청: 네. 전 초등학교때부터 한국학교가 그냥 싫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가기 싫어서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상: 가족이 다. 같이 이민간 게 아니고 혼자 가서 공부한거니?

청: 네. 언니가 먼저 가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언니랑 반년정도 살다가 언니는 한국 들어오고 혼자 자취하다. 하숙하다..

상: 오랫동안 혼자 있었구나. 요리 잘 하겠네.

청: 하하하

청: 꿇일 줄 아는 건 김치찌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65일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상: 계속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이쪽에 온 것은 아니잖아?

청: 네.

상: 몇 개월 정도?

청: 7개월 정도요.

상: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웠거나 불편했던 건 없었니?

청: 그중 하나가 여권 이에요. 학생증 없어서 여권 들고 다닌 거고요. 그리고 친구도 없고 할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반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심심했어요. 3,4개월 정도 집에 있으면서 성질이란 성질은 다.부렸어요. 집에 있는 오디오 다. 부서버리고 TV까지 부서버릴뻔 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요. 그래서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모부네 중국집 가게가 있었어요. 이모부가 너 안 되겠다고 일하라고 해서 거기서 일했어요. 일하고 여기 학교 찾고. 거기서 3달 정도 일했어요. 검정고시도 좀 알아보고.

상: 그럼 심심했다.던 3,4개월 동안 밖에 나갈 일도 많지 않았을 거고?

청: 네. 집에만 있었어요.

상: 즉 부모님과 부딪혔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인데?

청: 생일날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제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9월 달에 생일이 끼였었던데요. 필리핀에서 생일을 보내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표가 빨리 구해져서. 8일 날 들어왔는데 생일 18일인데 생일이 됐는데 할일이 없는 거예요.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방안에 들어가서 갇은 성질을 다.부렸어요. 엄마한테도 성질부리고. 그런 적 있어요.

상: 지금 대안학교 다니는 거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청: 엄마가 추천해 줬어요.

청: 제가 필리핀에서 듣긴 들었는데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났어요. 엄마도 일반학교 보낼 생각은 없으셨어요. 언니도 일반학교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상: 초등학교 때 필리핀 가는 거 결정한 거 엄마가 밀어주신거야?

청: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간 졸랐어요. 필리핀 보내달라고. 엄마가 결정하신게 졸업하고 가라. 아빠한테도 졸랐어요.

상: **이는 학교 그만두고 부모님하고 부딪힌 적은 없었니?

청: 네. 저는 엄마가 계속 일나가게시고 이모밖에 없었어요. 부딪히고 그런 거 없이 맨날 나가 놀았어요.

상: 그래도 부모님입장에서 일반학교를 다니는 것 하고 안다니고 집에 있는 것 하고는?

청: 돈을 안줘요
청: 하하하.
청: 학교를 안다니는데 뭐 쓸 일이 있냐고 돈을 안 줬어요 진짜 그래요 안줬어요.
청: 별어서 쓰라고 그래요. 정말 웬만하면 돈 안주고 이모한테 몰래 조금씩 받아서
나가 놀다가 그것도 떨어지면 못해요. 그러다. 안 되면 일해야죠.
상: 주로 어떤 일 해?
청: 전 진짜 일 많이 했어요. 주유소에서요 했었고, 옷가게, 액세서리 포장하고, 대
학로 옷찾사 표 파는 일도 했었고.
상: 진짜 다양하다.
청: 술집, 호프집에서도 일해본 적 있고.
상: 그럼 돈은 잘 줬? 일시키는 분들이?
청: 잘 주는데.처음엔 몰랐어요 좀 덜 받은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안 적고 그랬었어
요. 나중엔 일 많이 하다.보니까 매일 매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고 오
늘 얼마고 이런것 적어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것 보여주고 그것대로 주고. 받
고.
상: 처음엔 알게 모르게 좀 떼었다는 거네.
청: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거 보다 좀 적은 것 같고 한테 제가 적어 놓은 것도 없
고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적고 월급날 되기
전에 미리 보여주고 그랬어요.
상: 아르바이트 할 때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청: 전 없었어요.
상: 다.행이다.
청: 근데 주유소에서 일하면 그런 건 있었어요. 2층에 숙식 제공하는 오빠들이 자고
가라고 하고 밤에 술 먹이고 그런거 있어요.
상: 지금이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좀 어리고 여자고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해서 그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청: 학교도 안다닌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아르바이트구하기전에 학교 다닌다고 하
면 안써 주려고 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잘 빠져요. 학교안다니는 애들은 빠질
일도 없고. 그래서 잘 써줘요.
상: 학교를 안 다닌다는것 때문에 주인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건 없니?
청: 그러니까 자기 딸들은 공부하고 있고. 너는 이래가지고 되겠냐. 뭐.
청: 그러니까 나도 생각난다..하하.
청: 그냥 학생들이 교복입고 지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부
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학교 다니는 게 부러웠고요 지금은 교복 입는 게 부
러워요. 그런 적도 있어요. 여기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니까 전에 학교교복을 입
고 나왔는데 저번에 다니던 학교가 바로 집 앞이에요 저희 학교 쪽에 유치원으로
유아교육과에서 수업을 나온거예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데 저는 그 시
간에 내려가고 있고 아이들은 우루루 올라오고 있고. 너무 창피해서 숨었어요.
그걸 선생님이 보고 자기학생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전 창피해

서 빌라위에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자퇴했다고 했어요. 얼굴이나 보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왜 너 우리 학교 교복입고 있냐고. 그냥 입어보고 싶어서 입었다고.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 학교가 좀 좁은 학교라 그 소문이 돈 거예요 엄청 창피했어요.

상: 간만에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하필이면 그랬네.

청: **가 하는 말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자기 딸들은 이렇다. 뭐 그런 거. 16살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모부네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모부가 되게 좋은 분이세요. 이모부가 이것저것 가르쳐주시고 처음에 되게 잘해주셨어요. 거기서 일하는 서빙하는 아줌마가 2명이 있었어요. 맨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랑 동갑짜리 딸이 있거든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꺼냐고. 검정고시 볼 거라고 그러니까 너 누가 사회에서 인정이나 해주는지 아냐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 오면 공부 잘했어? 그러면서 애는 성적이 얼마라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 다. 듣도록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나 아줌마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일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모부가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이야기 안했어요. 같이 일하는데 아줌마들이 썩 깎았어요. 저 혼자 일했고요. 더 그런 건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서빙하는 사람들이 2층 계단 쪽에 주로 있거든요. 거기서 아줌마들이 시킬것은 저한테 다 시키고. 제일 어리니까. 나르고 치우고 하는 거 저 다 시켰어요. 그랬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데 들리는 말이 재는 왜 저렇게 농땡이를 치우냐고. 어쩔 저렇게 뻔질거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상: 일한만큼의 대우나 인정을 못 받았던 거네 그치?

청: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가 맨날 통통 부어있었고요. 음식이 무겁잖아요. 그거 들고 2층 오르락내리락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이도 없고. 빨리 학교를 알아봐야겠다.. 호호. 여기가 마침 2월 달부터 검정고시 때문에 빨리 개학을 하더라구요

일 그만두고 들어왔어요.

상: 얼마나 일한거야?

청: 3개월 정도요. 어리니까 알보는거 같아요.

상: 학교를 그만둔 거.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러이러해서 그만두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청: 네. 되게 안 좋게 봐요.

상: 어떻게 안 좋게 보는데?

청: 학교를 안다니는 자체로 그냥 시선도 제가 느끼기에는 따가운 시선들 있잖아요. 그런것 많이 느끼고. 일할 때도 제가 하나 잘못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 저한테 꾸짖는거 같고. 뭐 그런 거.

청: 어 맞아,,웅성웅성

청: 할 말이 많아.

청: 주유소에서든 그랬고..

청: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상: 한마디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구나

청: 네. 학교를 그만뒀다.거나 안다닌다는 그런 걸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왜 괜히 딸자식이 자기랑 같이 있으면,, 나랑 괜히 비교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

청: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청: 대놓고 제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기가죽어요

청: 저는 그럴 때 사촌오빠가 같이 이야기해주고 가족들이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상: 가족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그런 것 같아.

청: 거의 집안이 그런 분위기니까. 하하.

청: 일하다.보면 돈이 벌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떼뭉치 놓으면 되요. 기분 좋게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실수했나보다 하고. 아니면 그 타임에 일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거나 전타임시간에 마감을 안 해 놓고 갔으면 제타임이랑 전타임이랑 섞이면 돈이 언제빈지 몰라요. 그럼 저한테 넘어오죠. 학교안다니는 애들이 몇명 있잖아요. 주유소에는 많잖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자들한테 돈 빈다고 그러는 편이고요. 다른 곳에 가면 돈 가져간 거 아니냐.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청: 학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받고.

청: 돈 너가 가지고 간 거 아니냐고. 카메라도 있거든요. 보라고 해도 안보면서 꼭 그래요.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일을 하다가, 땀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전과가 있대요. 그 오빠만 오면 돈이 비어서 한명은 안에 있고 한명은 밖에 나가고, 둘 다 나가야 되면 열쇠로 잠궜 놓고, 그러니까 돈 안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상: 아. 오해가 풀리기 까지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잖아.

청: 열 받죠..

상: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데?

청: 그냥 뭐. 저 같은 경우 많이 안 힘들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요. 막.많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청: 소위 말하면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그 대열에 끼 수 있는 거지. 믿을 만 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아이네 이런 칭찬 받을려면 노력을 무지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청: 그러면요. 학교 다니는 애들도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이나 봐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하고.

상: 쌓인 것이 많았구나.

청: 하하

상: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할 이야기가 많겠다. 여기 있으면.

청: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으면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동갑이라 소꿉친구에

- 요. 그 친구 사촌 2명 여자애들까지 네 명이서 소꿉친구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필리핀갈 때 그 애들은 영국으로 갔어요. 각자알 아서 살다가 한국에서 가끔씩 만나고 그러다가 저는 집안사정이 안 좋아서 필리핀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애들은 영국에서 잘 했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번에. 너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그게 너무 힘든거예요 소꿉친구랑 비교를 당하는게.
- 청: 저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는데 학교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그만둔 걸 몰라요. 괜히 너희 시험 언제봐 그럴 때 저는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시험을 안 보는데 언제 언제 본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애들이 그런 거 이야기하면 슬쩍 빠져요. 그럴 때 있어요.
- 청: 교회 빠지면은. 저는 요즘 많이 빠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소꿉친구들이 들어 왔어요 한국에. 그 애들은 저를 막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애들을 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냐고 너는 시험도 없으면서 왜 안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애들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1 엄마한테도 못 말하겠고. 처음부터 영국이랑 필리핀. 완전 비교되고,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 상: 새로 사귀는 사람들이야 이런 상황을 알고 사귀는 거지만 교회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괜히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 학교를 안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이건 친구관계와 또 다른 문제네. 교회라든지. 친척들은 어때?
- 청: 친척들은 다. 아니까 . 이제는 일이야기. 예전에는 시험안보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런 이야기 해요.
- 상: 처음에 학교 그만 뒀을 때 부모님들이 친척들에게.
- 청: 말 안하세요. 처음엔 말 안하다가. 조금씩 저 때문에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그것들 막 이야기하고.
- 청: 그럼 나중에 제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혼나요.
- 청: 하하
- 청: 부모님들이 우리 딸 이렇게 됐소라고 이야기.
- 청: 아직도 몰라요.
- 청: 아빠 쪽은 모르고요 워낙 따로 사니까. 본지 오래 된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잠깐 보고 말았거든요. 엄마 쪽은요 왜 만하면 아는데도 말을 해줘도 여기가 어떤 학교인지, 학교를 왜 그만 둔건지. 그냥 놀다가 학교를 그만둔 건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음에 또 물어보고 또 모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거예요. 얼마나 이모때만 해도 무슨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안학교 비슷한 아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학교인데 진짜 막 나쁜 짓 해서 가는 학교 그런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해주면 아. 좋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몰라요.
- 청: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학

교를 그만두고 나서 그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대도 집에서는 나쁜 친구들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 너가 하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대우를 못 받는거구나. 친구를 만나도 노는 애들하고 또 만나는구나 하시고.

청: 우리 엄마는 많이 이해해요. 여기 다니고 난 다음에는 저번학교에 다닐 때는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서 가 본 적이 없고요 이모가 새벽 5,6시쯤 들어오시는데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데도 7시까지 기다리셨다가 저 깨워서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도 나가서 나 혼자 교복입고 뒷골목가서 담배피고 계속 앉아있다가 늦게 학교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맨날 전화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혼자 일어나서 오니까. 여기 다니는 거 좋아 하는게 보이잖아요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고 이해해요. 학교에서 이번에 동북아 공연가는 것도 아 좋겠다.. 그러시고.

상: 비용은 어떻게 하니?

청: 200만원 드는데 후원받고 해서 저희는 30만원내요.

상: 부럽네. 좋다..

청: 저희 집에서는 맨 처음 이 학교를 접할 때 다닐래? 말래? 제 선택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학교가본다고 갔다. 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저보고 제 소개도 하래요 그래서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런거예요. 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집에서는 친해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잘 다니니까 좀 풀어지셨나 봐요. 아빠도 학교를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1년도 다니다. 보니까, 아빠가 학교소식에 글을 써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써 주는거 보니까 아빠도 인정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대해서요.

상: 뿌듯했겠다.

청: 네

상: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시잖아. 아주 성실한 것으로 불안을 가시게 했나보다

청: 우리엄마는요. 고모랑 고모부가 집에 가끔 오시면 고모부가 너 뭐하냐고 어떤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셨어요. 대안학교 다니냐고 그러니까 거기가 뭐하는 학교냐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아치들 다니는 학교 아니냐고 고모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혼냈어요. 하하.

상: 엄마가 확실한 지지를 해주시네.

상: 엄마는 자랑하고 다녀요. 친척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요. 엄마가 액세서리업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에 나갔었는데 앞집 가게에 있으신 아주머니분이 저보러 학교 안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엄마가 애 탄 학교 다녀,, 일반학교 안 다녀 토요일 날 학교 안가 이렇게. 너무 신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청: 저는 교회 선생님이 있잖아요. 집에서 **는 뭐하냐고 그러면 대안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선생님도 되게 좋게 말하더라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한 것을 교회선생님이 봤나 봐요. tv에 나오더라고요. 대안학교에 그렇게 안 좋은 건 없고 자기도 거기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 맞아. 인터뷰.

상: 주변에 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

청: 좀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청: 엄마도 교회에서 그 소리 들으셨대요. ** tv나오더라.

상: 근데 일단 대안학교가 됐든 일반학교가 됐든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면 진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 소위 나이가 들면 밥벌이나 제대로 할러나, 좋은 신랑 만날 러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시지 않았니?

청: 주로 저희학교가 직업을 찾는 학교예요. 수업시간 같은 것 보면 직업체험 직업특강 있잖아요 자기 직업 찾기. 저는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게.

상: 여기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

청: 들어올 때 그때까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상: 진로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솔직히 그런 걱정하시잖아.

청: 학원 다녔어요,

청: 애가 커서 뭐가될까 그러셨죠.

청: 미용 학원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오면서 잠깐 쉬었는데 지금까지 안 갔어요.

상: 미용학원 가겠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 둔거 였니?

청: 아뇨. 학교 다닐 때도 미용학원 다녔어요. 학교에 너무 흥미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고 미용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학원 다녔는데. 학교를 안가니까 학원도 못가게 되고 학교친구들도 학원에 있으니까. 그런 막 연관된 것들..

상: 아. 학원조차 가기도 불편했다는 거니?

청: 좀. 불편 했다.기 보다는 가기싫다는 거.

상: 가기 싫다는 게 친구들과 부딪히는게 그래서?

청: 그냥 가기 싫었어요. 학교 가는 날은 에이 모르겠단. 그냥 학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학교 안가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다.. 학교안가고 친구들 저녁에 만나서 놀지 뭐 이러면서 학교안가고 준비하고 나와서 학원안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랬어요.

상: 근데 가끔 정말 학교 다니기 싫었던 학교를 그만뒀잖아. 그럼 좋았을 것 같은데?

청: 저는 좋았는데요 끝에 마무리가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청: 학교 한참 안 나오다가 제가 나간 날 엄마랑 같이 갔는데 그날 제가 자퇴하러 온지 모른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서 온 줄 알고 안 받아 준다. 느니 별소리 다.했어요. 그때 제가 자퇴원서 가져다.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를 설득시키고 왜 그러냐 그러시고. 저희 반에 그때 자퇴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무튼 끝날 때 쯤에도 자퇴원서 못쓰게 하고 이번에 지난 4월에 검정고시

볼 수 있었던 건데 자퇴원서 늦게 넣어줬고, 자퇴하고 나서는 좋았어요. 괜히 그때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한 것 보다는요.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퇴했다고 말하면 뭔가 되어보이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었어요.

상: 딱 그만두었을 때는. 응.

청: 네. 딱 그만 두었을 때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막 남자애들 학교 그만 둔다는 것 처럼 애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다가 일주일정도 지나면 막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맨날 그랬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요.

상: 일단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은 거잖아. 자퇴라는 것도 원하는 거니까.

청: 네

상: 근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네. 아주 좋았다. 라는 그 기분이.

청: 네 일주일도 안 갔어요. 집에서 노는 것도 재미없고, 맨날 친구들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자고 밤에 나가서 놀고 애들 학교 가면 들어와 자고 할 것 없으면 집에 있는데 집에있기도 좀 뭘했어요. 밥 먹기도 좀 미안하고 아르바이트는 구해야 하는데 어려서 안 써준다는 곳도 많고.

상: 그 어정쩡한 시기가 얼마나 되었던 거야? 아르바이트구하기 전에 집에서 약간 눈치가 보인 것.

청: 아. 자퇴하고 나서는 얼마 없어요 기간이. 그전에 학교 빠지면서 그냥. 엄마도 약간 술먹고 엄청 심한 주사가 있어서 집에 있으면 떨리고 무섭고. 엄마가 쉬는 날이 되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고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은 엄마가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집도 정말 많이 나갔어요. 어려서 놀다가 집을 나간적도 있는데 엄마의 그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 DVD 팔고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지방에 내려가서 친구랑 집을 구했어요. 일하면서 살고. 음. 근데 무슨 이야기할려고 그랬지?

청: 하하

상: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구하기까지 뭘 했는지?

청: 아. 그전에는 그랬어요. 자퇴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자퇴하고 나서는 별거 없었어요.

상: 그전이 더 썩구나.

청: 아.네.하하

상: 그런건없어?. 학교 그만두고 생활하면서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드는거?

청: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 어른들은 웬만하면 정말로 10명중에 한 7명? 이야기를 해 봤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봤자니까 뭐라고 생각하던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안학교 다녀요. 대안학교 다닌다고 학교자퇴하고 다닌다고 말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나마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엄마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요. 안다는 사람도 많고 괜찮더라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나마 많이 나아졌어요.

상: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지 그치?

청: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 대안학교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얼마 못 알아 들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알던 친구가 연락이 됐거든요.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일반학교 안다니한다고. 그랬더니, 아 대안학교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계속 이야기 했어요. 대안학교를 안다는 사람이 있다는게 너무 반가웠어요.

청: 필리핀 가서 힘든 것 없었어?

청: 가서 반년 놀았어요. 언니가 거기 있었는데 학교도 안보내줬어요. 언니가 철이 없었어요. 그때.

청: 언니가 몇 살인데?

청: 저랑 4살차이. 나요 언니가 그때 18살이었는데. 14살의 동생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니까. 집에서 그냥 있다가 저도 담배를 피는데. 언니가 담배를 옛날부터 피웠어요. 아 너무 필리핀에 있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간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었는데. 가서 일주일정도는 엄마 아시는 분 댁에 있었어요. 거기 오빠, 언니들도 있고 공부도 알려주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 지냈었어요. 이후 언니랑 자취를 하려고 집을 옮겼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도 많이 어둡고 진짜 넓었어요. 바퀴벌레 기어 다니고 거미도 있고. 만날 그거 잡으면서 살았거든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언니랑 사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촌오빠가 들어와서 같이 살았는데. 아 그전에 다른 거래처 분 댁에 살았었어요. 거기에 남자 아기들 3명이 살았었어요. 아주 꼬맹이. 그 애들이 필리핀에 사니까 너무 개방적이고 그래서 누나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친구예요 친구. 처음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도 원래 잘 안 만나봤고. 막내가 저랑 6살, 7살 정도 차이 나는데 어느 날 오더니 나한테 야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더러 재가 야 라고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요. 애한테 무슨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러더라구요. 제 방이 정말 작았어요. 창문하나 달려있고. 에어컨도 없고요.. 필리핀이 열대지방이잖아요. 정말 찜 죽겠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 넣어주고 아줌마가 그 좁은 제방에 들어와서 일기장을 훑쳐 본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서 못살겠다고.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학교 버스가 새벽 5시 반에 와요. 걸어가면 10분거리거든요. 8시까지 등교고. 근데 5시 반에 학교버스를 굳이 태워가지고 아침도 안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6시에 학교를 도착을 해서 줄러죽겠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점심은 메이드가 싸 주는거 먹고. 저녁때 집에 가면 저녁 먹으라고 절대 안 불러요. 그러다가 내려가면 애들은 밥다.먹고 치우고 있는 거예요.메이드는 모르겠다고 마담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새벽에 혼자 내려가서 밥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혼나고. 먹으라고 할 때 안 먹고 그러냐고. 언제 먹으라고 했냐고요. 사촌오빠랑 따로 살다가. 옆집이 그 아줌마네 집이었는데 사촌오빠는 거의 거기 가서 살고. 완전히 저 혼자 살았어요. 저 혼자 밥해먹고 살다가 하숙집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도 옮기고.

그제서야 제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시쯤 일어나고 되고, 학교도 더 가까워졌고요. 같이 사는 언니들도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그 언니들이 챙겨줬어요. 자매인데 작은언니가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여차여차 해서 1년 반 정도 그 학교를 다녔어요. 집안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엄마가 한국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여권사건 발생하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증이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작게 있거든요. 좀 있다. 보여 드릴게요. 싸이월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학생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가 아주 작게 있거든요 색깔도 이런 색이라 표가 잘안나고.

상: 진짜 작다. 좀 그러네.

청: 하하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찍힌 거예요 이게.

청: 아. 학생증이 서울네트워크 학교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서울 대안학교들이 똑같겠네.

청: 네. 여기 네트워크학교 k학교라고 써있어요.

청: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줘요.

청: 네트워크 학교가 뭐냐고. 뭐 이걸 주민등록번호도 안나와있고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있다고 싸이월드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스캔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월드 관계자한테 침부해서 메일 보내면서 협박했어요. 하하. 빨리 해달라고 학생증이 안 보이는게 어딴냐고. 하하하.

상: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 말고 다른 차원에서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은 없나?

청: 가족, 친구, 생활하는데. 대안학교에서는 힘든 점은 없는지. 여기에 만족하니까 힘든 걸 좀 덜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직업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좀 힘들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안학교라고 해도 학교 다닌다고 하면. 그래 학생. 그러면서. 그런게 있겠지.

상: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만족되기 이전에 아주 힘들었던 때가 멀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청: 네.

청: 작년 이맘때쯤 학교언니가 연극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단체에서 연극을 한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청소년 인권문제 두발자유 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구요. 재밌겠다. 그러면서 연극을 했어요. 저는 일반학교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하하.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연극만 하면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절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언니는. 경복궁 앞에 있는 공원 아시죠? 거기서 시위를 하고 연극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청: 어떻게 절박해 보였어?

청: 두발자유에 대해 너무 공감하는 그런거 었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짧았어서 가

발을 쓰고 머리가 잘리는 찢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각자 멘트를 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공감한다고 그럴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게 내가 연극으로만 그냥 참여할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그냥 좋았어요. 시위할 때 끝까지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아줌마들은 뭐라고 그러고. 고등학생들이 꼴깍 편다고..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할 할 것이지 왜 저러냐고.좀 뭐라 그랬어요.

다들 생각하는 게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지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성적으로 나와도 좋은 사람 많고, 좋은 성적으로 나와도 나쁜 사람들 많다고 전 어느 방송사에서 취재 나왔을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해를 해달라고 학교 안다닌다고 차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청: 작년에 초기 때 직업체험을 갔는데 어디였지? 권투. 맞아 복싱배우는곳.

상: 그것도 직업체험이야? 권투하는 것?

청: 네. 복싱선수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청: 아.

청: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관장님이 우리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자기도 딸이 있는데 어찌고 저찌고.하하

청: 혼냈다는 것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외모가 다르잖아요

청: 아 맞다..

청: 파마도 했고.옷도 사복을 입고 갔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고 간 거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계속 내내. 신경질 내는 투로 머리는 그제 뭐고, 귀걸이하고, 화장도하고. 그런 걸. 좀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쌤이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좋게 끝났는데. 처음엔 되게 그랬어요.

청: 처음엔 저희도 참 황당했어요.

상: 복장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받겠다.. 일반 생활하면서도. 성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청: 버스 돈낼 때, 영화.

청: 영화는요 학생증 내밀기도 전에 성인으로 끊어놔요.

상: 일단은 외모상으로 볼 때는 학생이 아닌 걸로 보이니까 할인혜택을 받는 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청: 네..

청: 요즘에 학생 밥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닭갈비집에서 청소년은 얼마. 천 원 싸게.친구랑 먹고 나가는데 6,500원 나왔는데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학생증 보여주고. 대안학교학생증이니가 작아서 안보이니가 주민등록번호보라고. 그래서 할인 받고. 내 친구들은 일반학교 다니는 애들인데도 학생증 안 가져와서 할인 못 받고. 요즘은 일반학교 학생들도 사복입고 나가면 학생취급 못 받았어요. 똑같아요.

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은 어떤 것 같니? 학교를 안다니니까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것 들. 학교 다니는 애들 만나는 거 말고.

청: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요.

상: 새로 사귄 사람들 중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새로 만날 기회가 많니?

청: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음. 그런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고서는 별로 없는데요. 여기 오면 저희도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런게 별로 없는 것이 학교가 바빠요. 바쁘다면 정말 바쁜 학교라서요. 저희 늦게 끝나요. 6시까지 수업도 있고. 동북아수업하면 늦게 끝나고 공연 잡히면 공연연습 때문에 밤 늦게까지하고.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청: 땡하면 집으로 가고. 거의 그래요.

청: 요즘엔 밖에 나가서 놀 힘이 없어요.

청: 하하하.

청: 옛날에는 막 놀았어요. 요즘에 외로움을 막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학교 맨날 늦게 끝나고 집에만 가고 학교친구들만 보고 그러니까 원래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좀 그랬는데. 옛그제도 원래 친구들 만났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오고 그랬어요.

상: 시간표상으로도 활동적인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

청: 시간표보시면 끝에 수업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와 몸짓 같은 것도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 거고요.하하.

청: 그리고 다. 멀리가요.

청: 동북아도 h센터로 가요.

청: 직업체험은 어디로 갈지 모르구요. 미디어 같은 경우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유창작은 이런 거 만들고. 끝에 시간엔 정말 힘들죠.

청: 하하하하

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청: 직업적으로요??

상: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청: 진짜 여기 다니면서. 일반 학교 애들은 대학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가고. 아직 아직도 직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과로 가잖아요.과 가서 정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당당하게 뭐 하고 싶다. 이야기는 못하겠는데요. 그냥 고민만 많이 되요.

상: 이 학교를 졸업한 거 잦아. 중간에 그만두었든. 어쨌든 나간입장인데. 어때? 직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미래와 관련해서.

청: 대안학교를 다녔을때는 그것이 제 꿈이라든지 앞 길이라든지 선명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런걸 못 찾는거예요.제 스스로 찾을 수도 있는데 잘 못찾겠는 거예요.

청: 이 안에 있을 때는 뭐든지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 네. 나가니까 그런게 안되요.

상: 음. 조금 선명했던 게 더 모호해 진거잖아.

청: 네.

상: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청: 음. 학교 다녔을때는 뭔가 선명하고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었는데. 나가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 다시 혼자 남은거가?

청: 네,, 그런.

상: 누구 안내자가. 학교라는 곳에서는 선생님도 함께 찾아주고.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에 학교를 그만 뒀을 때처럼 혼자 있는 거잖아. 혼자서 찾아서 하고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청: 네.

상: 하고 싶은 일은 뭐니?

청: 어렸을 때 부터 꿈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여기 들어와서는 공예가가 되고 싶었어요.

상: 막상 여기학교를 나가보니까 그 꿈을 계속 지켜 나간다는게 쉽지 않나?

청: 여기서 다니면서는 인턴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도. 인턴도 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직접 제가 찾아볼 수는 있겠죠. 집에다가 나 배우겠다. 돈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배워야겠다. 그러죠.

상: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힘들구나. 일단 돈을 벌어야 하는 거네. 그래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돈과 관련 된 것은 계속 문제가 된다. 그지?

상: 아. 시간이 많이 지났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청: 집을 많이 나오면요. 하하. 사회생활이 힘든걸 알아요.아. 하하.집 구해서 살고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집이 제일 좋다. 그런 생각. 제가 집을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그런생각 안 들었는데 그때 딱 그거 느끼고 일하면서. 그때 돈도 많이 받았어요. 8,90 만원 받고 일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집세,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하고 그러니까.

상: 혼자서 뭔가를 다. 해냈어야 되었구나. 참엔 참 그런 걸 원했었는데 그치?

청: 지금도 또 혼자 살고 싶고 그러긴 한테 나가면 다르겠죠.

청: 하하하

상: 아직 혼자 뭐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막막했던 거 아닐까?

청: 쉽게만 생각했어요. 집구하러 다니면서 빨리 집만 구하면 다. 되겠지.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상: 음. 그래.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모두들 고마워요.

구분	내용
유형	대안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2
장소	비인가 중등대안학교(J중학교)
소재지	광주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8일 14:00-15: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녹음에 대한 안내]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은 딱 한 가지. 학교를 그만둔 뒤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돼.

청: 친구들이요. 컴퓨터상에서나 전화상에서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개네들이 왜 학교 안 오냐. 그런 얘기할 때. 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PC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막 훑어보고.

상: 이상한 눈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청: 막. 왜 학교 안가냐. 경찰 아저씨들도 가끔씩 쳐다보고. 이러면서.

상: 어. 그래? 또?

청: 학교를 안다닌다는 게. 별로. 좀. 친구들 사이에 만나면. 학교를 안다닌다는 게 좀 쪽팔려요.

상: 니가 쪽팔리니? 아니면 남이?

청: 제가요. 또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도 하는 게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뭘 해야 하나.

상: 어. 그래. 또? 또 힘든 거 있는 사람?

청: 처음에는 학교 다니다가요. 처음에는 동부 중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애들하고 밖에 싸돌아다니다.보니까. 유급 직전까지 갔다가 애들 없는 데로. 다른 시골 중학교로 전학을 갔는데요. 거기 다니다가요. 또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학교를 또 안간 거예요.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빠가 자취를 하래요.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 [YMCA 검정고시 반으로 오게 된 경위 설명]

상: 힘든 점을 얘기해 볼까?

청: 힘든 점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상: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할까? 생각나면 이야기해 줘.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청: 학교를 그만뒀가지고요. 옛날 학교 친구들과 놀던 그 운동장이 좀 그리고요.

상: 갈 수 없다는 거야?

청: 네. 그리고요. 집을 이사해서 만날 애들도 없고요.

상: 어. 그래. 그 다음에?

청: 있잖아요. 집에서요. 아빠가 어떤 자리에 가셨다가 그만 둔 학교 선생님과 만났

는데요. 좀 그랬어요.

상: 좀 그랬다는 거 뭔데?

청: 좀 무서웠어요.

상: 왜 무서웠는데.

청: 사고 치고 나왔거든요.

상: 어.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은데?

청: 안 좋게요.

상: 어. 저 이번에 학교 그만두고 잘 지내나 보자. 이렇게?

청: 네. 상: 어. 그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다니다.보면. 또?

청: 지나가는데. 교복 있잖아요. 애들은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데. 나는 양아치 같고. 좀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상: 어.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부러웠어?

청: 네. 내 꼴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가끔 모르는 사람들 만났는데 학교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좀 그렇고. 아빠한테 주변 사람들이 어디 다니냐고 물어봐도 좀 거시기 하고.

상: 그래. 친척들이 몇 학년 되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 지 모르겠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니?

청: 쉬고 있어요.

상: 어. 그렇게 얘기하셔?

청: 몸이 아파서 쉬고 있어요. 찢렸어요. 뭐 이렇게.

상: 부모님들은 어때? 너희들이 학교 안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청: 뭐. 일이라도 해라.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뭐 이러기도 하고.

상: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 청: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상: 나이도 어리고 학벌도 없는 거잖아?

청: 얼굴만 괜찮으면 되요. 청소년들은 부모님 동의서 가져오라고 해요. 동의서만 있으면 되요.

상: 일하면서 쪽팔리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

청: 교복입고 들어오는 학생들. 그런 애들보면 나도 학교 다녀야 하는데 이러고 있는가 싶고.

상: 그럴 때 자신이 어떻게 생각 돼? 개 내들은 시켜서 먹고 있고. 나는 서빙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 그럴 때 보면 다시 복학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한 10시간 이상. PC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들 오면 너는 학교 안다니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상: 어. 그래. 또 힘든 점?

청: 사춘기 때. 고 1 때. 내가 왜 가출을 했을까.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왜 학교를 안다녔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상: 어. 그 때는 왜 안 갔던 것 같어?

청: 그러니까 바보죠. 그 때는 안돌아가는 머리 막 쥐어짜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지루하고, 선생님도 싫고, 친구 때문에도 그렇고, 친구가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까 싶고.

상: 어. 그래 또 힘든 점은?

청: 사고 치고 경찰서 갔는데요. 학교 안다닌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꼴통이구나. 그러더라구요. 학교 다니면 그래도 좀 봐주는데.

상: 학교 안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사고 쳤는데 더 억울하게 당했겠네. 또 그런 비슷한 경우 없어?

청: 친척들 모였을 때요. 막, 친척누나들한테는 학교 다니느라고 힘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학교 언제 복학 하냐고 막 차갑게 대하고, 학교 안다닌다고.

상: 친척들이 너를 차갑게 대한다고, 서러웠던 적 없니?

청: 심부름도 많이 시켜요. 일하라고 그러고.

상: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일을 더 많이 시키니?

청: 다. 이래요. 힘들어가지고 몸살 나서 있는데 학교도 안다니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상: 엄마가?

청: 네. 학교를 안다니니까요. 용돈을 안줘요.

상: 이것도 중요한 점인 것 같아.

청: 학교를 안다니도 돈은 들거든요. 근데 용돈을 안줘요. 학교도 안다니는 게 뭐 돈이 필요하냐고. 그러고, 사고 칠 까봐 안주고.

상: 그런 것도 있고, 학교를 안다니니까 미워서 안주는 것도 있는 거지. 아니면 학교 다니라고 학교 다닐 때까지 용돈을 안주거나.

청: 필요한 것도 안사주고.

상: 차비나 이런 정도만 주는 거지.

청: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도 하는데, 정작 필요한 거.

상: 필요한 게 뭔데?

청: 교복을 안 입으니까. 뭐 옷이나. 이런 거.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입고 다녀도 옷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그만 두고 난 뒤에 옷 좀 사줘. 그러면.

상: 바로 학교도 안다니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시고, 옷 사거나 이런 좀 사치하는 거는 안주시는 거다.. 그치?

청: 근데 저희 부모님은 혹시나 사고칠 까봐 갑자기 용돈을 올려서, 더 주시더 라고요. 사고칠 까봐 불안하니까.

상: 사고 친 적은 없어?

청: 많죠.

상: 사고 칠 일이 많아지잖아. 시간이 많아지니까.

청: 학교 안다닌다고 하면 애들이 막 같이 몰려서, 나오라고 하고.

상: 그럴 것 같아. 주로 만나는 애들도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니?

청: 네.

상: 어. 그러면 그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하겠다..

청: 저는 집에서 자요.

상: 잠이 많이 늘었어?

청: 네. 그리고 요즘에 학교 안다니는 애들을 거의 못 봐요. 옛날에는 막 사고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집에서.

상: 요즘에는 아예 안 나와? 옛날에는 나돌아 다니면서 사고 쳤잖아. 이젠 아예 안 나와?

청: 막.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는 학교 주변에 아예 돌아다니고.

상: 어. 그래? 집에서 뭐한데?

청: 쪽팔려서.

상: 어. 쪽팔려서 안 돌아다니한다고? 또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돼.

청: 뭐. 그냥 집에서 할 게 없어서. 맨날 잠만 자게 되고.

상: 그래. 맞아. 근데 그렇게 뒹굴거리게 가족들이 내버려 두냐?

청: 네. 관심을 안 가져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마주치면 췌려보고 가요. 아예 말도 안 걸고.

상: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구나.

청: 어찌나 사고 한번 치면 때리고. 그냥 이불 쪽 깔아놓고. 더우니까 선풍기 밑에 놓고. 텔레비전 보면서 새벽에 자고. 낮에 12시나 돼서 일어나서 컴퓨터 좀 하다가. 그러다. 아빠 오시면 집에 있으면 좀 치우라고 막 잔소리하시고.

상: 응.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서. 잠을 싹껏 자는 거는 아니다.. 그치?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학생증 보이고 할인 받는 거 그런 거는 어때? 시내버스 탈 때는 어때니?

청: 그냥 타요. 교통카드 그냥 학생 꺼 써요.

상: 버스를 딱 타면 학생입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않니? 청: 나와요. 상: 낮에 그런 말 나오면 기사 아저씨들이 쳐다보지 않니?

청: 얼굴이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살짝살짝 쳐다봐요.

상: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학생이라고 보이니까.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나보구나. 또 힘든 점 있어? 아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어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학교를 안다니는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 미래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딱. 장래희망을 딱 생각을 해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조건은 많지. 나는 하는 것도 없지. 공부도 안하지.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생각도 없고. 학교 짤려서 나와 가지고. 어떤 꿈이 있는데요. 그걸 할려면 대학을 가야하는데. 나는 지금 학교도 안다니고. 옛날에는 미래 생각안하고 그냥 살았는데요. 직업이나 대학을 생각해 보면. 좋은 데도 못갈 것 같고. 고등학교도 인문계 가면 적응도 못할 것 같고. 실업계 가도 학교도 안 나왔는데 싶고. 성적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막막한데. 너무 늦게 안 것 같기도 하고.

상: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가 어떻게. 평소에도 좀 생각이 되니?

청: 네. 상: 음. 그래. 또 힘든 거 뭐 없었니?

상: 막상 구하려고 다녀보니 어떻다고?

청: 막상 구하려고 하니깐 나이가 안 맞아서.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를 안다니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라고 나이가 안 된다고 안 받아주니까.

상: 어떤 일 하고 싶은데?

청: PC방 아르바이트. 돈 벌 수 있는 거 다..

상: 그게 뭐 뭐였는데? 찢린 게 어떤 거야?

청: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붙여있는데 너희는 나이 안 된다고.

상: 술 파는데? 서빙 하는 거였니?

청: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게임방 카운터. 책방.

상: 책방도 안 된다는 거니?

청: 저는 엄마 가게에서 일했어요.

상: 어. 그럼. 너희는 카운터는. 돈을 만지는 자리는 안 써주는 거니?

청: 안 써줘요.

상: 왜? 뽕땅 할까봐?

청: 요즘 PC방은 카드 찍어서 딱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모자라면 뽕 뜯는다고. 봉급에서 빼요.

상: 근데. 너희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 받은 적은 없니?

청: 저는 월급을 못 받을 뻔 했어요.

상: 왜?

청: 저는 몰래. 가출해서 했는데. 사장님이 가출한 애라고. 그거 알고. 집에 들어가라고.

상: 어. 니가 가출한 애니까 돈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신거야?

청: 네.

상: 또 어떤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었는데?

청: 당구장. 서빙.

상: 서빙은 음식 나르는 곳도 안 돼?

청: 아. 노래방 서빙이었거든요. 그래서.

상: 또 뭐가 힘들었던 것 같아? 소위 말하면 나쁜 짓하자고 유혹하는.

청: 맞아요. 시내일. [시내에서 자릿세 받는 일] 그거 하자고. 막 하고.

상: 그거 하면 돈도 주고 그럴 거 아냐?

청: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상: 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유혹도 많겠다.. 예를 좀 들어서.

청: 빼끼 같은 거.

상: 해 봤나?

청: 할라했는데 못했어요.

상: 어. 학교 안다니면 여자애들 만날 기회 많지 않아?

청: 주로 학교 안다니는 애들. 만나면 나쁜 짓하고.
 상: 주로 학교 안다니는 여자애들 많이 만났네.
 청: 학교 안다니면 안다니는 애들하고 어울리죠.
 상: 시간이 많으니까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냐?
 청: 뭐. 새벽까지 술 먹고. PC방 가고. 같이 놀고. PC방에 있으면요. 막 애들이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고. 저는요. 학교가 진짜 짜증이 나서.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래서. 장난이 아니고 진짜 다니기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서 그만 뒀는데요. 그래서 직업전문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15세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때 만 13세여서. 그러니까 엄마가 1년 동안은 돈 벌어. 그래서 1년 동안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러고는 직업전문학교 들어갔어요. 일을 했는데. 거기 PC방에 있을 때에는 직업전문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독하게 있었어요.
 상: 음. 너는 그냥 아예 돈이나 벌어라 그랬나보다. 엄마, 아빠.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냐?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청: 엄마는 괜찮았는데. 아빠는 저랑 말을 안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없었어요.
 상: 그래도 누구랑은 살았을 거 아냐?
 청: 아빠랑.
 상: 어. 그렇게 살다가. 같이 살던 부모님이 너희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고?
 청: 쪽팔려했어요. 진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될 놈이 아니다.. 그러고.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시고. 뭐. 인간이 아니다.. 니가 내 배에서 나온 게 맞냐고. 그러고.
 상: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니?
 청: 실망스럽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상: 그거는 희망적인 이야기잖아.
 청: 학교 선생님들이.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다.. 뭐 이런 얘기.
 상: 어. 선생님들이 그런 훌륭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학교 그만 두고 하는 일 없이 집에 빈둥빈둥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어?
 청: 재미없어요.
 상: 재미없어? 학교 다닐 때는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고 원해서 그만뒀을 거 아냐?
 청: 네. 맞아요.
 상: 근데 그게 언제쯤 되면 재미가 없어지냐?
 청: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거를 1년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재미있는데.
 상: 너는 재미있게 살았어?
 청: 네. 나름대로. 학교 그만두고 나니까 뭐. 돈도 안주고. 그러니까 뭘 먹을 것도 없고.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계속 잔소리하고. 먹다가 막 니가 사람이냐. 그러고. 그러면 밥 못 먹어요. 밥 먹을 때 뭐라 그러면 제일 싫어요. 진

짜. 돈이 아예 없을 때. 가만히 그냥 누워있는데. 밖에서는 뭐 막 먹고 그러면. 진짜 서럽고. 신경질 나고.

상: 어. 혹시 친구들한테 차별 당했던 적은 없었니?

청: 친구들 막.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중학생일 때. 찢리고 나서 다시 복학하려고 했을 때. 동생들하고 다녀야 하고. 애들이 만나서 막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상: 어. 친구들이 그러면 막 무시하고 그런 적은 없었네? 그냥 너희들이 친구들을 보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랬던 거네.

청: 네.

상: 어. 우리 한 5분만. 두 가지씩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자.

청: 저. 학교 안다닐 때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부모님이 막 재는 어느 학교 다니냐고 그랬는데. 학교 안다닌다고 하면. 막 부모님들이 갑자기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친구들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들이 저런 애하고 놀지 말라고 막 그러고. 학교 안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빠가 막 깨우는데. 그것도 싫고. 막 눈치 보이고 그래서 집을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집에 오면. 또 아빠한테 맞고. 집에 있을 때 저희 누나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랑 할머니가 누나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막 뭐라 그러고. 뭐. 누나 반만 해 봐봐. 그러고.

상: 이렇게 차별적인 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니?

청: 자살하고 싶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학교를 안다니니까. 차별도 많이 받고. 인생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다시 학교 다닐까 하다가도 다니기 싫고. 그래요.

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나보다.

청: 내가 죽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한번은 술 먹고. 애들한테 막 말리지 마라. 이러면서 나왔는데. 애들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때 한 아저씨가 막 자기도 중학교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냥 쇼를 한번 해 본 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학교에 복학하려고 해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어른들이 막 전에는 중학교 나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뭐 해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복학하려고 해도 다. 어린 애들이고. 선생님들도 막 꼴통이다. 그러고. 중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니까. 다니기는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너 같은 애들은 받아줄 수 없다. 그러고. 막. 우리 학교에서는 꼴통소리 듣는 애들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 정신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애들만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구분	내용
유형	대안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3
장소	J 청소년종합상담실
소재지	광주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8일 15:00-16:00
비고	-

상: 친구들에게 주는 질문은 딱 한가지예요.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힘든 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청: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주변에 시선.. 인정을 안 해줘요. 학교를 안다니는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한 쪽으로만 몰아세우는 거요.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다. 이런 애들이다.. 이러면서 치부해버리는 시선. 나는 안 그러던데요. 오히려 학교 안다니는 애들을 더 잘 써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안다녀야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쓴다고. 근데. 좀 그런. 좀 고급스러운 데서는 안 써준다고. 왜 만만해서는 써주지만.

상: 그게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는 게 문제지. 주로 좀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청: 학교를 딱 그만두면. 일단 부모님께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살았어요. 저도 집을 나갔었어요. 서울로 떠돌고. 저는 부천에 있었어요. 저는 시흥. [가출했을 때 이야기]

상: 부모님의 대우가 영. 인간 이하의 대우를.

청: 처음에는 막. 집안일 하라고 하다가. 집안일 꼭 시켜요. 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길을 가다가 애들을 만나면. 막 뭐라 그래요.

상: 선생님들이?

청: 애들 망친다고.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 검정고시 붙었다고 하면. 그러면 개나 소나 다.한다고 그래요. 학교도 안 나온 것들이. 뭐 했다. 하면 뭣도 못한 것들이 그렇게 해 봤자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둔 후에는 교복도 못 입어요. 교복 입고 싶어요. 교복 커플들도 부럽고. 그리고 학교 안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다니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술 먹고. 아침에는 자야 되고. 저녁에는 놀고 술 먹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놀면 안 그러는데. 나오니까. 애들이 계속 게임하자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어울리다. 보면. 계속 만나고. 어울리고. 또 술 먹고. 사고치고. 또. 혼자 있으면 못하는 것도 같이 모이면 간당이가 커져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 뭐 해 봤는데?

청: 가게도 털어보고. 차도 훔쳐 타보고.

상: 그래 안 보이는데.

청: 차 타다가 그냥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차 뒤에 있다가 일부러 다.친 척해서 보상금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게 되고 용돈도 안주니깐.. 내 집 건데도 훔치게 되요. 일단 엄마 지갑에 손 대고. 목걸이나 반지. 시계도.

엄마가 잠깐 어디 갔을 때. 아끼는 백. 이런 거. 이런 거에 손대게 되요. 전에는 막 깨워서 밥 먹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이러고는 밥도 안차려고 주고 가버려. 그리고 용돈을 안줘요. 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만원은 줬었는데 지금은 용돈을 안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돈을 얻나? 학원 핑계되고 거짓말해서 용돈 타요. 진짜 옷 한 벌 사고 나면 돈이 없어서. 못 써도 하루에 오천원은 쓰는데. 그래도 버스 타지는 못하고. 택시 타야 하니까. 누가 버스 타냐고. 쪽팔리게.

상: 왜 쪽팔리는데?

청: 버스는 아는 사람 만날까봐 못타고. 아는 사람 만나면 학교도 그만두고 싸돌아 다닌다는 소리 듣고..

상: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청: 또래 애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학생 요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 웃기는 거는. 술이나 담배 살 때는 어른이라고 하면서 버스 탈 때는 학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버스 할인 안 받고 다니니?

청: 네. 그래서 그냥 할인 안 받고 안타요.

상: 그래. 근데 정말 돈이 아쉬워서.

청: 돈을 못 받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고. 아르바이트 하면 씹씀이가 더 해 퍼져요.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니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더 화내고. 돈이 아쉬울 때가 많고. 그러다보니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때 사고 쳐서 치료비를 물어준 이야기, 오토바이 훔쳐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기 등]

구분	내용
유형	대안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4
장소	J 청소년종합상담실
소재지	광주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8일 16:00-17:00
집단 인터뷰 인원	2명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 금방 얘기한 것 말고도 학교를 그만 두고 힘든 점. 뭐가 서러웠는지. 힘들었는지.

청: 친척집을 가잖아요. 그럼 아직도 학교 안다니냐. 이런 소리해요. 언제 정신 차리냐. 그러면서. 이번에 머리를 좀 길러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좀 잘라라. 그러고. 내가 진짜 그런.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인사하고 오려고 했더니만 가자마자 참. 이제 가기가 싫어요. 친척들 만나면요. 이제는 용돈도 안줘요.

상: 용돈도 안줘?

청: 네. 용돈은 뭐. 용돈은 커녕 우리한테서 뜯어가요. 세상에. 우리 나이가 몇 갠데. 담배를 달라 그래요. 나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냐고.

상: 그러면 친척집 가면 인간 대접을 못 받겠다.

청: 네. 그래서 안가요. 이제.

상: 이제 대학을 가서 뻥질나게 나타나야지.

청: 친척 동생이 나한테 양아치라고. 그래요. 오빠는 왜 각을 잡고 그러냐고. 양아치 처럼. 그러면 쪽팔려요.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엄마가 그냥 학교 다닌다고. 그냥 몇 학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손님들 오면 나가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도 학교 쓰고 이러면 좀 봐주는데.

상: 그렇게 조서 쓸 때 학생이고 아니고 좀 차별대우 받는 게 있지? 학교도 안다니는 게. 이러면서.

청: 조서 쓸 때 진짜 차별 많이 받아요. 교복입고 가서. 학교 다닌다고 하면 뭐. 그냥. 그러냐. 다음에 조심해라. 훈방조치. 이러는데. 안다닌다고 하면 양아치. 싸가지 없는 새끼. 바로. 조서 쓸 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잃어버려서 간건데. 막 뭐라 그러면서. 양아치 새끼. 너 담배도 피냐. 네. 그러면 어린 놈이 안되겠네. 막 그러는데. 교복 입고 갔을 때는. 아저씨가 한번 잘 찾아볼게. 그러고. 그러자. 그러면서 엉덩이 토닥토닥하고.

상: 친구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니?

청: 남자친구가 너를 무시할 때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진짜 개 무시당해서. 전 여자친구가요. 무시하고 무식하다. 멍청하다. 니 머리엔 돌밖에 없냐. 전 여자친구가요. 학교가 인문계인데요. 전교1등이에요. 나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사귀는 동안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안다니면서 힘든 점이 많은데요. 좋은 점은 사회생활하면서.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진짜요. 자퇴한 사람 중에 심성이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 근데, 보면 은요. 우리는 뭔가를 좀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좀 침착하게 하는데, 근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좀 답답해요. 하나 또 생각났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 만나면, 내 앞에서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막 해요. 맞아 맞아. 웃겨. 진짜. 그런 애들 만나면, 진짜 학교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는데.

상: 그런 애들은 학교 그냥 잘 다니지?

청: 네. 그냥. 막 못 다니겠다고. 내 앞에서는 그러면서, 그냥 다 다녀요. 저요. 복학해서 다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안다니어도 뭘 할 수 있다는. 그 맛을 알면,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안다니면 좀 자유로운 게 있는데 학교 다니면 쉬는 시간에 열라 뛰어서 담배 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운동부였을 때는 대학교까지 다. 보장 받고, 진로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애들이 뭐할 거냐고 물어보면, 진로도 없지. 보장되는 것도 없지. 앞길이 좀 막막해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면, 어디서 일 한다. 그러면 좀 쪽팔리고, 어디 학교 다닌다고 하면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는 일하고, 여자친구 나 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그냥 좋게 봤는데, 지금은 여자친구 만난다고 하면, 어린 것이 벌써부터 여자를 알아가지고, 이러면서, 여자친구 집에서 볼 때도 진짜 안 좋게 봐요.

상: 아까 미래가 막막하다는 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청: 미래가요. 진짜 막막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학원을 다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말지. 여기나 되니까 잡아주지. 안 그랬으면 아마 다들 소년원에서,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모르고,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안다니는 청소년들. 그런 애들이 이런 데를 알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씩 잡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모르면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상: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은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청: 네. 그거예요. 근데 옆에서 안 잡아주면, 진짜, 아무 것도 못하죠. 또 좋은 건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자요. 그래, 구속받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나 그 때 일 안하고, 집에서 뒹굴 거리면서 담배피고 있을 때, 너는 어디 안가냐? 막 그러고 책이라도 좀 읽으라고 그러고, 엄마가 막 나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나가보면 밥 차려놓지도 않고, 나 보고 차려먹으라고 그러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늦게 들어오면 꼬박꼬박 전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찾아야요. 내가 종일 안 들어와도 연락이 안와요. 연락 안하는 건 좋아.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돈을 안 줘. 와도 그만이야. 그냥, 왔냐. 이려고. 또 있어요. 이렇게 놀다가 검정고시 준비하겠다고 하면 열라 좋아해. 그러다가 나중에 또 조금 방탕한 생활을 하면 막 잡으려고 해. 좀 가만두면 좋겠는데 뭐 하나 하겠다고 하면 막 챙기고, 나 시험 본다.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만 해 봐. 이러다가 한번 합격하니까 이제는 꼭 합격하라고 하고, 또 합격하면 금반지 해 준다. 그러고, 대학가면 또 뭐 해 준다. 그러고, 엄마가 대학가면 차 준다. 그랬

어요. 수능 꼭 보고, 내년에는 꼭 군대 가래요. 진짜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이야.

상: 또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청: 가출.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학교 다니면 학생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분증이 없고, 청소년증이 있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청소년증도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제일 짜증나는 거 하나 있어요. 선배들 만나잖아요. 가기 싫은데, 학교 안다니니까 시간 많은 거 아니까. 안 오면 막 때린다고 협박하면서 나오라고 해요. 나쁜 짓 시키는 선배들도 있고, 좋은 선배들도 있는데. PC방으로 막 나오라고 하고, 학교 안다니면 진짜 컴퓨터는 정말 많이 해요. 할 게 없어서 게임에 빠져요. 게임 중독. 좀 바르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맨날 술 먹고 게임만 하니까. 몸 상하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룰 수 없는 생각들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생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검정고시를 보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고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검정고시를 넘어서. 계속 대학교, 과는. 한 번에 계속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살아야하지. 결혼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에 계속 해요.

상: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게 되지. 그러면 그 색깔은 어떠니? 밝은 색이니? 어두운 색이니?

청: 당연히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인 애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로. 왜 나는 어둡다니까. 아직도 어둡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철이 안 든거지. 왜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막. 그런 쪽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어두워.

상: 상: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다고?

청: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요. 자기가 뭔가를 하나라도 해야지. 그러면 자신감 향상된다니까.

상: 뭐라도 하나 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청: 진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검정고시 준비를 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주위에서는 너는 합격할 수 있을까. 설마 그것도 못할까. 그런 말 때문에 진짜. 그런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것도 합격을 했는데..이것도 못할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막 커지는 거예요. 나는 운동할 때 입상 한번 하려고 디지게 한달 동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입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 봐도 되는 것도 없고. 아니. 좋게 봐 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하는 것 보다는 낫잖아. 맞아. 아니 그래도. 해 놓은 거긴 하지만. 사회 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나 그래가지고. 아니. 운동하고 검정고시 하고는 다른 거잖아. 이미 그게 너는 결과가 나왔어. 입상했어. 그러면 끝인 거고. 검정고시는 아니잖아. 취업을 해도. 검정고시를 하면 대우를 받잖아. 검정고시 안 하면 대우를 못 받아. 어디 나가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상: 그런 게 느껴지니? 검정고시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는게?

청: 일단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잖아요. 주위에서 일단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요.

상: 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청: 지식도 있어야 되고.

상: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니?

청: 학교 안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애들도 대부분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뻘뻘하게 일하고, 월급 나오는 날 되면, 또 나한테 붙어요. 일할 때 애들 노는 거 보면 같이 놀고 싶고.

상: 일하는 곳에서 차별대우 받고 그런 거는 없었어?

청: 돈을 못 받아요. 거의, 17살 때 처음, 18살 때 처음 일을 했는데, 주유소에서 했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하고, 처음에 그 때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돈 받을 때 되니까,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하고.

상: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일을 하고서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았다는 거야? 청: 네. 그렇게도 받아요. 왜 그러냐면, PC방 같은 곳엘 가도 1시간당 3000원?

상: 그래. 그 정도.

청: 그 정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2600원, 2300원. 그렇게.

상: 어. 똑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치?

청: 그런 게 있어요. 니가 아니라도 이 일을 할 사람은 많다.. 그리고 저희가 짜증나는 건.

상: 혹시 돈이 없어지거나 해서 오해받은 적은 없어?

청: 그런 거는 없죠.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사장님 목걸이가 없어져다. 그래서. 괜히 일하는 애들 다. 맞고, 그리고 절대로 월급을 안올려줘요. 힘들게 일하고 일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제가 한 100만원 받으면, 다른 형들은 140. 뭐 그렇게 받고, 그대놓고요. 좀 개기잖아요. 그러면 한 대 칠려고 하고요. 내 성격대로 같이 칠라고 하면, 또 쳐 맞아가지고, 사장님한테 혼나고.

상: 이제 한 마디씩만 더 하고 끝낼까?

청: 학교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고등학교라는 게 중학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상: 고등학교 생활을 전혀 안 해본거지?

청: 네. 그래서요. 그런 게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 진짜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동창회를 가면 쪽팔려요. 자퇴했다는 것을 애들이 물어볼 때마다. 아. 진짜. 의외로 진짜 좋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그만 두잖아요. 그러면 학교 그만 두고 싶은 애들이 우리한테 연락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리고요. 괜히 엄마들이. 만약에 애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집을 나갔다.거나 그러면은, 다 나한테 전화를 해요. 괜히 죄 없는 우리 엄마만. 계속 괴롭히고. 맞아요. 그런 적 엄청 많아요. 괜히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어해요.

상: 그래. 고등학교 추억이 없다는 것도 참. 좀 그렇다.. 그치?

청: 네. 졸업앨범도 없고. 나중에 우리 애가 자라서 아빠 앨범은 그러면. 나는 앨범도 없어. 그래야 되고.

구분	내용
유형	대안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5
장소	S 대안학교
소재지	경기도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6일 16:00-17: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 녹음이 너무 중요한 관계로 똑 같은 걸 두 개 할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 그 뭐냐면, 너희가 한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그 시간은 팔월 말이나 구월 초에 한번 더 가지게 될 거야.

상: 선생님한테 어디까지를 얘기를 들었니? 오늘 뭐.. 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왔니?

청: 그냥 인터뷰한다고..

상: 내용은 뭔지..

청: 검정고시.. 그거.

상: 검정고시와 관련해서?

청: 그거 아니었어요?.

상: 그건 아니였고, 선생님께 부탁 드렸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물어 보는 게 주로 그거잖아 언제 학교를 그만두었느냐. 그만 두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인제 이런 걸 물어 본건데.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데로 얘기하는 거야.. 뭐 검정고시를 어떻게 준비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 던지듯이 얘길 하면 되고.. 인터뷰 시간은 지금부터. 어. 예정은 한 시간인데 뭐 빨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얘기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거고. 어 또 너무 힘들면 중간에 한 20분하다. 좀 쉬었다 다시 20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주제는 이거였고, 문제가 하나 밖에 없어.. 이 문제 하나 밖에 없어. 어..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꺼야. 음. 그럼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다. 그지? 선생님이 얘기해 준건 아니다. 그지?

상: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 세 명이 선발된 거니? 뭐. 인물 순으로 선발된거니?

청: 웃으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상: 어.. 청: 아니예요. 인물 순이에요.

상: 어. 잘생겨 갔고 선생님이 뽑아 준 건가? .

청: (소리내 웃음)

상: 선생님이 ..멋있다. 이걸 보여줄려고 했던 건가? 음.. 동건이는 왜 선발 됐다고

생각하니? 청: 모르겠는데요.

상: 응..응 왜 몸이 안좋니? 지금은 너희들이 하는 거는 이 말한 내용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세 사람이 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청: 예~에

상: 몸이 피곤하면 왜 쉬었다. 할까?

청: 아니요..

상: 근데 왜 눈은 감고 있냐?

청: 감고 있으면 안 되요?

상: 감고 있는 건 아닌데..

청: 피곤해서 그래요

상: 피곤해? 집중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청: 예..

상: 다. 같이 열심히 했다... 쉬었다.. 또 열심히 했다. 하고 많이 피곤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 안할 의사도 너희에게 있는 거니까. 괜찮겠니?. 하까 그냥..

청: 작은 목소리로. 예..

상: 진행하면 되겠니?..

상: 자. 질문은 딱 하나야.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너희 세 사람이 가장 많은 얘기를 해 줄 꺼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아마도 세 사람만 뽑았을 꺼야. 중간에 복학했다.면.. 왜 복학을 할려고 했던 거고.. 힘들었으니까 복학을 할려고 했던거 싫어. 그지? 복학해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시 나와서는 또 어떻게 어렵고.. 이런 걸 얘기하면 될 꺼 같애..

자 시작해 보자. 어 자 생각나는 데로..

청: 아. 이거..예요

상: 어.. 학교를 그만 둔 뒤에 힘든 점은....

청: 아무래도 진로죠.. 진로

상 ; 음. . 진로?

아이: 예.. 내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뭐해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상: 음. 그럴 것 같다. 그지? 청: 예.

상: 그럴 것 같다. 그지? 뭘 해먹고 사나? 음.

청: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상: 음.

청: 다음에 또 친구들끼리의 어떤 친밀함이 점점 더 없어지죠. 원래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상: 음.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얘기하는 거니?

청: 예. 같은 학교. 같은 친구들..

상: 아.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진다는..

청: 예.. 점점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죠.음.

청: 만나는. 자주 만나는 애들은 계속 만나는 데요

상: 음.

청: 간간이 이렇게 마주칠 때 마다 인사하는 애들.. 그런 것도 있고.음. 음. .좋아 어. 참 얘기 잘 했다..

상: 또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

청: 전 없는데..

상: 힘든 점이 없어?

청: 예.

상: 음.. 음 불편한 점은 없었니?

청: 딴 사람들 시선..

상: 어. 그래 그런거 얘기하면 되는거지..어.

청: 그거 빼고 없는데..

상: 불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시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니?

청: 일단 학교를 안다니면 다. 문제아로 보잖아요.

상: 어..

청: 그리고 다. 쏘 빼딱해 보인다고 그렇게 보고.

상: 음.

청: 친구 부모님들 만날때는 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어디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 하게 되고.

상: 음.

청: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상: 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꺼번에 다. 얘기를 했네..그 친구 부모님들한테는 어딘가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거니?

청: 예.. 친구는 학교를 다니니까. 일단 안 좋게 보이잖아요.

상: 음. 으~~음. 좋아 그 다음 동건이는...

청: 없는데요..

상: 인제 없는데요. 해버리게 되면 이게. 난 다음에 곤란해 지지? 어. 꼭 힘들었다. 이걸 아니지만, 불편하거나 인제 학교를 안다니 이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내용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음..근데.. 여기 온 것은 너희가 자발적인 건 아니고 거의 강제적으로 끌려온거니?...

청: 그런 건 아니예요..그런건 아니.. 가자고 그러니까 왔죠

상: 어..

청: 저희가. 강제적으로 끌고가도 싫으면 안가요.

상: 음

청: 싫으면 도망가지../ 싫으면 도망가요/ 머하려 따라와요.

상: 그래. 그래서 혹시 안오고 싶었는데 억지로 온 건 아니.. 동건이는 그런거니?

청: 아뇨.

상: 근데 여기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힘든 점이 없었다고 해버리면 그건 면접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 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대표 집단인거야. 학교를 안 다니는.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의 대표해서 너희가 뭔가를 얘기해 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소위 말하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어떤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거거든.. 근데 이제 없다고 해버리면 인제 더 이상 .. 그러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뭐. 특별히 해 줄 일은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거잖아.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혹시 그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얘기해 줘도 괜찮아..

상: 음..다시 한 번 해보자..

청: 틀리죠. 확실히. 음. 학교를 다닐 때는 공동체잖아요.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

청: 근데 거기서도 조금 멀어지구요.

청: 그리고 또 뭐. 경찰서 같은데 가도 뭐. 그런데 가거나 그럴 때도 학교 다니고 안다니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상: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어.

청: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통장 만든다.. 그런거 만든다. 치면, 생일 안 지나거나 민증 나올 나이가 안 지났으면, 자기 신분을 보증할게 없잖아요.

청: 만약에 학교를 다녔으면. 학생증을 발급 받으니까 학생증을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불편하고..

청: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다. 그래야 되나? 상: 음..음

청: 그러니까 가족들. 이렇게 있어도 만약에. 동생은 학교를 대게 잘 다니고 공부만 하는데 나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면은 . 부모 마음에 솔직히 아래 동생이 더 이쁘겠죠?. 지금 우리들이 봐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랫 동생이 더 예뻐 보이니까..그런 것도 좀 있는데..

상: 음. 형제간 뭐 차별하고. 그런 부분들?..

청: 예~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시간낭비..

상: 잠깐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자..

청: 아니. 근데 애들이 말을 안 해..

상: 그니까 말을 같이 하자..

청: 아까 얘기 했는데..

상: 그까 아니 뭐. 같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해도 괜찮고. 아님 비슷한 얘기가 좀 다른 내용도 괜찮고.

청: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랑 똑 같은 멘트가 그대로 나와요.

상: 아.그래. 어. 한번 얘기해 보자. 동건이도 한번 얘기해보자.

청:.....

상: 이름이. 음.. 이동건.

청: 예..

상: 어. .한번 해보자. 어떤 점이 좀 힘든지.

청:

상: 음?... .. 안하고 싶은거니?

청: 아니요.

상: 그러면?..

청: 힘든 점이 없었는데요

상: 힘든 점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금방 얘기하는 것도 힘든 점이 아닌거니? 너한테는..

청: 애 네가 다. 얘기 했잖아요. .진로가...입 안의 소리로 잘 안 들림

상: 어?..

청: 애 네가 다. 얘기했는데 제가 또 왜 얘기해요.

상: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다.야. 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청: 아노. 또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상: 그럼 다른 얘기 해보자, 이런 얘기 말고도. 그까 너희가 학교를 그만둔 지 꽤 오래 된거잖아. 그지? 개인마다 경험들이 다 다.를꺼고 금방 대호가 많은 얘길 했는데 그런 내용. 아니면 혹시 다른 내용으로도 뭐가 있는 건지. 음. 다른 건 없니?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 의견이 중요한 거거든.. 나도 똑같아요. 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야.왜 그제.대호 혼자만 얘기하면 대호 혼자만의 생각 일 꺼라 생각하는데. 나도 비슷한 얘기 있어요.같이 얘기해 주면 그제. 인제 너희들도 또 아.그래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걸 알 수 있는거잖아.특히 동건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니?

청: 그냥.뭐 뭐.가족들이 뭐.그냥 뭐 학교 안다니다고 무시하는..거.

상: 어. .그래. 그런거 그런거 중요한거야.

청: 그런..

상: 어떻게 무시를 하시는데..

청: 그니까.뭐 크게 놓고 보면은 뭐 친척들이랑 다. 놓고 보면은 그니까 저희 집이 큰 집인데. 그니까 제가 장남인데. 학교 안다니고 그런다고 . 가족들. 가족들이 다. 뭐라 그러고..

상: 음. 뭐라하신다는 건. 야단치신다는 거니?

청: 예..

상: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 친척들도 다...

청: 예.

상: 그럼 친척들은 니가 학교 안다니는 거를 어떻게 아시게 되었던 건데..

청: 그냥. 어머니 통해서 알게 됐을 겐요..

상: 어. 그럼 그것도 궁금하다.. 학교를 그만 두자 말자 바로 부모님들이 친척들한테 애는 학교 안다니한다고 얘기 했던 건지..

청: 아뇨. 그건 아니죠.

상: 그럼 처음에는.

청: 처음에는 얘기 안했죠. 얘기 안하고 있다가 . 친척들이 저희 집에 오고 나니깐 알게 됐죠.

상: 음. 학교 갈 시간인데도 니가 집에 있는 걸 보고 인제 궁금해 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네.

청: 네.

상: 어. 부모님들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있잖아. 좀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니?

청: 약간 웃으며. 모르겠어요.

상: 학교 안다닌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라고 생각하시는지..

청: 안 좋게 보겠죠.

상: 음.. 그러면 혹시 부모님하고 학교를 안다닌 이후로 무슨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없니?...

청: 예. 뭐하고 살꺼야.

상: 어.

청: 저는 뭐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상: 어. 어

청: 그것도 학교 안다니면은 힘들다.. 학교 다니고 하는 애들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 갖고 놀고 있는데 .. 니가 학교도 안다니고 뭘 믿고 그렇게 할꺼야..

상: 어~~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다른건 뭐 잘 할 수 있겠냐.뭐 이런 의미인 거니?.

청: 그까 학교 다니고. 다.. 그까 정식으로 다. 공부한 애들도 못해서 다. 놀고 있는데 니가 학교도 안다니고 너 혼자 해 갖고. 누가 제대로 봐주고.. 잘 할 수나 있겠냐.뭘.

상: 음. 그게 뭐 너 복학 할 때도 영향을 주었던 거니?

청: 그거요?. 저..

상: 어. 그때 복학 할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복학 할려고 했던 이유는 뭐니?

청: 복학 한 건데.

상: 복학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청: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거죠.

상: 음. 그러니까 복학 할려고 했을 때 니가 걱정했던 마음이 있었을꺼 아니야.

청: 예..그냥 학교 다니고 .. 남들처럼. 일 년은 뒤쳐져도 그냥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라고 했는데. 학교 복학하고 보니까 밑

에 또 동생들이고 . 복학생이라 그래도 또 딴 사람들이 시선도 좀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하루 안 나가고.. 하루 안 나가고, 학교 안 다닐 때 막 하고 싶은 데로 하고 하다가 또 학교 다닐 때니까 밤에 못 놀고, .그러다가 밤에 놀고, 다음날에 학교 못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짜증나서 가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또 안다니고, 그러는 거죠.

상: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안다니고 어떤 점이 좀 힘든 점이 있는지.. 음. 아 대호도 아까 못다.한 얘기 다. 해보자.

청: 다. 했는데. 애들이..

상: 어. .다.. 했어. .돌아가면서 생각. 이건 있잖아. 한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 짜 내야 되는 거거든. 청: 이거 하렘잖아.

상: 어. 뭐.

청: 애 생각과 비슷합니다.

상: 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얘기 했던 거 말고 친구들이 얘기 했던 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떻게 있는지. 음. 지금 한 시간 동안 어떻게해서든지 계속해서 한 백개 정도의 내용을 생각해 내야되는거야 지금.. 어. 또 어떤 게 있을까?

청:

청: 없는거 같은데.

청: 사람이 바뀌어요. .

상: 어 그니까 그건 어떤 말이니?

청: 학교를 다닐 때와 안다닐 때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상: 음..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청: 학교를 다닌다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를 가야되고, 학교를 갔다.오면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일찍 자야지. 다음날 학교 가니까. 그 버릇이 들여지잖아요. 내가 이 학교를 한번 그만두고 일년을 쉬고 복학을 다시 했어요.

청: 그리고 다시 학교를 다니면. 학교 못 다녀요.제대로.

상: 왜..? 아 두 명 동시에 얘기 했으나 한 명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음. 학교를 안다니면 인제 시간이 계속 남잖아요.

청: 그까. .낮에 솔직히 친구들도 없잖아.. 그럼 자기 할 일을 뭐 있겠어요. 할 일도 없으니까 맨날 TV보고 누웠다가 자고.

청: 그러면 결국엔 밤에 인나면, 또 밤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또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랑 놀다.보면은 또. 그냥. 밤부터 새벽까지 쪽 넘어가버리고 아침에 자버리면. 또 밤에 나가고. 그렇게 인제 버릇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인제 학교 복학하면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죠.

상: 음. 음. 그까 좀 습관 자체가 바뀌는 거다. 그지? 완전히 낮, 밤이 바뀌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되겠네..?

청: 네~에

상: 아~~ 성격도 좀 달라지니?

청: 네. 성격도 달라져요.

상: 어떻게..? 성격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그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청: 그까. 학교를 다니면은 일단, 통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청: 그까 좀... 선해요.. 마음이 그니까 좀 그런게 있는데. 인제 학교를 안다니면은 밤에 몰려 다니고 .. 일단 경찰을 봐도 밤에는 뭐 나쁜 짓을 안했어도.. 일단 집에 들어가게 한다..는 . 놀고 싶은데 억지로 들어가게 하니까 통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갔고. 그런게 짜증나서 일단은 경찰을 봐도. 나쁜 짓을 안했어도 일단 피해요. .

청: 그러다가 어딜 가고 싶다. 그러다가 ..뭐 과자를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은 친구들끼리 오백원가지고 가갔고. 애들 여럿이 들어 가갔고. 과자 한두개 몰래 그냥 가져오고 .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슬슬 변하는 거죠. 이제 .

청: 그런 식으로 작은 일 하다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청: 그러면서 애들이 통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 .. 그러면서 또 변해지고. 또 밤이면 또 애들이 불량하니까. 솔직히.

상: 그치. 혼자 있을 땐 못하던 일을 모이면 하게 되지. 그지?

청: 예~

청: 그러면서 이젠 애들 성격도 변해가는 거고..

청: 그리고 애들 친구들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청: 학교에 대해서 틀을 지키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을 지키게 되거든요?..

상: 음..

청: 근데 만약에 학교를 벗어났으니까. 동네에 놀 사람도 없고, 친해질 애들은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 제일 잘 맞잖아요.

청: 그렇게 치자면, 그니까 그렇게 보다보면 이제. 자기가 망상을 해요. ‘나는 자유다.’.

상: 어..어

청: 지금은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걱정이 없죠, 자기 집 엄마 아빠가 돈 주겠다.. 뭐가 걱정이예요.

청: 근데. .그게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그게요. 친구 차이가 있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학교 틀에 맞춰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놀 때는 진짜 학교를 한번도 안 빠졌어요.

청: 근데 조금 인제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런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우리 땡땡이 한번 칠까.부터 시작해서 인제 점점 땡땡이에서 결석으로 늘어나고, 결국에는 학교까지 그만 두게 되는 거죠.

상: 음. 음.

청: 그런게 관련이 있는것 같아요.

상: 그러니까 참. 처음 하나 시작하는 게 무서운 거다. 그지? 그리고 나면 참 사람이 무덤덤해지고.. 간이 커지고 막 그런 상황이네..

상: 어. 근데 어떻게 너희는 학교를 안다니게 되면, 용돈 문제는 어떻게 되니?

청: 부모님이 처음에는 일단 주시죠. 그래도. 학교 안 다니면은 일단 애들이 대부분은 안다닌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안 다니는게 아니고. 집을 나가니까.. 집을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또 찾잖아요. 일단, 학교를 안 나가서 혼내고는 싶어도 애들이 또 집나갈것 같으니까 일단 몇 일 잘해주게 되요.

청: 그러면서 학교도 안 나가게 되고 .. 집에서 놀다가 일단은 좀 받아쓰다가 이젠 부모님들도 이제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놀면서. 공부도 안하고 할 게 없이 그냥 빈둥빈둥 대니까 백수랑 똑 같잖아요. 일안하고. 그니까 용돈도 안주게 되고. 좀 안 좋게. 이젠 부모님들도 이젠 좀 안 좋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식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쓸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 쓸 돈이 없다는 건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주신다는 의미이니?

청: 이제 쥐봤자. ..또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 음. 돈이 있으면 안들어온다.. 음 음.

청: 예. 그러니까 그래도 또 우리는 학교를 안다니니까 돈은 더 필요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청: 그래 갔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단 낮에 하는 거 면은 그냥 딱 애들 할 때 공부할 때 우리는 일하고 애들 만나면 놀면 되는데. 또 새벽에 하는 거니까 일이. 새벽에 하면서 또 애들도 잠깐씩 만나고 그러면서 또. 똑같은데요 그냥.. 학교 안다는 애들이랑 만나는 건.

상: 음...

청: 그러고 또 돈 벌면 또 안 들어가고 . 몇 일. 음주가무와 ..

상: 음주가무와. 아..아.

청: 온갖 쇼핑.. 많이 나가죠.

상: 근데.. 그런 데에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서 실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다. 충당이 되니?

청: 그것도 부족하죠..

상: 어 어. 그 다음 그 다음 단계가 뭐니? . 일단 부모님한테 얻는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청: 그 다음 단계는 없죠.

상: 그러면 안 노는거야..

청: 놀기야 놀죠 / 놀기야 노는데. 상: 음..

청: 그까. 그래도 놀 돈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솔직히 돈. 돈 십 원도 없이 나가서 뭘 하고 놀아요..

상: 어. 그러니까 돈이잖아.

청: 밖에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도 없는 거고.. / 일단 뭐 아르바이트를 한 두 달 했다가. 그 돈을 쓰다가 또. 돈 다. 쓰면 또 아르바이트 잡아서.. 또 아르바이트 하고.

상: 음. 음.

청: 근데 쫓 정신 차려 가는 애들은 돈 벌어서 검정고시 학원 다니더라고요.

상: 어..그래? 니 친구들 중 그런 애가 있니?

청: 예 보민이형. 보민이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은 생계를 그 형이 책임져요. 그 형은 그러면서도 검정고시 자기가 돈 내서 다녀..

상: 음..

청: 자기가 번 돈으로.

상: 음. 그러니까 집안 생활비 벌고. 또 자기 공부하고. 청: 예. 야~~ 음..

청: 그게 제대로 정신 차린거죠.

상: 근데 아까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뭐 해봤는데.. ? 청: 예?

상: 대호는. 동건이는 아르바이트 안해봤니?. 청: 많이 해봤는데요.

상: 어떤 거 해봤니?

청: 그냥. PC방 아르바이트나. 주유소나. 상: 어.

청: 뭐 그런 거 패스트 푸드점이나 .. 카페 같은데나 이런데..

상: 음. 그런 거 하면 얼마를 받는데.. 청: 다. 틀려요..

상: 시급해도 사 천원 넘지는 않을꺼 아냐.

청: 요즘에는 좀 그래도 시급이 좀. 점점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안올라가고 이천오 백원? 다. 그렇게 주니까 예전에는..

상: 근데 그거 한 달 풀로 해도 얼마를 받는거냐?

청: 한 달 풀로 해도 별로 못 받아요.

상: 한 오륙십만원 받니?

청: 육십. 예. 그리고.

상: 육십?

청: 애들이 계속 꾸준히 나가는데 아니고 갔다. 안갔다., 갔다. 안갔다. 그러니까 돈 받는 건 더 적죠.

상: 야 그럼 한달 고생해서 벌은 돈이 오십만원이라 치자 근데 그거 갖고 또 몇 일 놀면 돈은 다. 써지지 않냐?

청: 몇 일 가면 다.행이죠./ 몇 일 가면 다.행이죠..

상: 거의 하루 이틀에 다. 바닥나.. ?

청: 음주가무에 다.. 삼 사십 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

상: 그래? 몇 명이 어울리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

청: 월급날은 또 다. 모으죠..

상: 애들이. 다. 냄새를 맡고 나타나나보다.

청: 그게 아니라. 허.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 있어요. 생일 같은 날에도 ..보편은 어쩔 수 없이 모여요. 상: 아..

청: 작은 소리로. 아이 : 저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화장실 갔다.와도 돼요?

상: 음 그래 갔다. 와.

청: 저도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상: 어.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어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니?

청: 힘든 점은..

상: 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니?

청: 아르바이트 사항에도 애로가 많죠. 상: 음.

청: 일단, 아르바이트하는데서 무시를 당하죠.

상: 어. 그런 얘기를 좀 해봐.

청: 아르바이트는 무시 별로 안당해도 일단 뭐 사고 같은 거 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야.. 일단 저희죠. 학교를 안다니고, 일단 타.. 문제를 좀 쳤을 것 같으니까.아~ 학교 안 다닌다. 그러면 다. 문제아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보죠..

상: 음..그건 되게 기분 나쁜 일 중의 하나다.. 그지?

청: 예. 진짜. 기분..드. 드러운.

상: 진짜 더러운거지.

청: 예.. ,,

청: 제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 뒀는데. .저는 퇴학 당했어요..

상: 학교에서?

청: 예.예. 선생님을 때려갔고요. 퇴학 당했어요.

상: 왜.. 그것도 때린 것도. 기분 나쁜. 기분 드러웠던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거야..

청: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 아... 니가 아닌데. 니가 째렸다는 거구나.

청: 예. 예. 상: 아~아..

청: 그래갔고요. 선생님이 계속 몰아 붙이더라고요 일단은 학교는 다녀야겠고. 제가 요 11월달에 자퇴했어요..

상: 그거 너무 아깝잖아.11월이면. 그지?

청: 예. 이학년 올라가기 한 달 남겨두고 그랬어요.근데 계속 선생님이 그거 잤다. 트집잡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로. 트집. 그걸로 인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까 그걸로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저는 인제 참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데이지가 .. 딱 만땅이 딱 차는 순간 . 터트렸죠.

상: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때렸는데..

청: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일단, 나 인제 도저히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다.. 일단 자퇴서 내든지. 어떻게 하자. 엄마가 왜 그러냐고..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그러고 끊고.하하. 쳐 버렸어요.

상: 아.. 썩게 쳤나보다.

청: 아니요. 배 갔다. 쳐버렸어요. 그. 앉아 있는데.

청: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 다른 선생님도 막 말리더라고요.

청: 그러고선 다음날 마루타 뛰요.

상: 니가 걱정하고 덤빈 거였구나.

청: 예.

상: 음.음..그래 좋아. 아르바이트에서도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 나면 괜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식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있다. .

청: 예.

상: 어. 혹시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런적은 없니?

청: 돈 안줄라 그래도 저희는 다 받죠..저희는 머리가 있죠.

청: 안 주면 신고하죠.

청: 아르바이트 한건 줘야죠.

청: 만약에 계약상에 삼 개월 이상 안 할시에는 뭐 월급.을 뭐 안준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받아야죠.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받아야죠.

상: 음..음. .그니까 돈이 떼이거나 그런 적은 없었네..

청: 네.

상: 근데 보통 주급 주거나, 이런 데는 주급 줄 때까지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 그 전에 일한거는 다. 꺾인 경우가 많지 않니?

청: 그까. 저희는 그런 걸 하잖아요. 일단 할 때 등본 같은 걸 띄어 오라고 한단 말 이에요. 일단 일하는 애들은 진짜 자기애들 같이 용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집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 이에요. 그래갔고 방학 같을 때는 학생 애들이 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 그니까 저희가 할 때는 집 나갔을 때, 아니면 돈이 진짜 필요할 때, 그래서 집 나갔을 때는 저희가 그런 걸 안 쓰죠. 그래갔고, 등본을 띄어 갖고 오라고 하는데 땔 것도 없고, 하니까 내일 가져 올게요. 내일 가져 올게요. 그러면은 몇 일 지나면은 안 물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갔고 일을 하다가 그만 둘 것 같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거나 안나가거나 그래갔고 다음 날 가갔고 돈 달라고 하면은 몇 일날 나오라고 해요 ..

상: 어..

청: 그래 갔고, 주고..

상: 아. 요즘에는 그렇게 떼 먹고 이런 경우는 많진 않구나.

청: 그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더 대세라 떼먹는다고 하면은 신고한다고 그러면 바로 주고.또 신고도 해도 되니까. 솔직히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 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 개들이 공부는 더 잘 할지는 몰라도 저희가 사회쪽으로는 그래도 더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떼어요.

상: 음. 그럼 아까 방학 때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하고. 이럼 아르바이트 구하는 자리도 이렇게 방학 중하고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다르지. 일자리 구하기가 좀..

청: 힘들죠.

상: 다르니? 방학 때는?

청: 예 어~많이 하지 방학 때는..

청: 예, 방학때. 애들이. .방학때 딱 걸리니까요. 방학 되기 한 달 전 쯤에. 그래갔고 미리미리 하고 ..

청: 그래요. 아르바이트 시즌에는 그래요

상: 음. 아르바이트시즌에는 그까 궁지에..그까 좀 뭐가 쉽지 않구나 그지?

청: 예.. 아~ 그렇구나.

청: 저는 돈 받는데. 엄마한테.

상: 어?

청: 저는 돈 받아요

상: 엄마한테 받아?

청: 용돈을 엄마가 줘요. 꾸준히. 그까 저도 맨 처음에는 엄마가 돈 안줬어요.. 엄마는 일단 이유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엄마 학교 왔는데.. 바로 그냥 퇴학 처분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길 했더니..엄마가 좀 실망이 컸나보더라고요... 한... 한 달정도 말 한마디도 안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그리고선 아빠, 엄마도 점점 더. 또 친해지는거예요.

상: 으~~음..

청: 그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내가 확실히 뭔가를 할려고 하면 그때는 그 다. 보태주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주더라고요.

상: 음.. 뭘 한다고 할때 뭘.. 뭘 한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받는거니?

청: .. 이런거죠. 엄마 나 검정고시 학원 보내주세요.

청: 나 뭐 컴퓨터 학원 보내주세요.이런거죠.

상: 으~음. 근데 너희가 보호관찰소에 있는거 보고. 보호관찰.. 있게 ..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게 학교를 그만 둔 이 후에 있었던 일인거니?

청: 맞다.. 저희는 학교 그만둔지.. 그만두고 사고쳐서.. 상: 어..어.

청: 그냥 학교 다닐 때 쭉~욱 사고 치다가 요번에 한번 더 ..웃음..

상: 으~음. 더 사고를 쳤어?

청: 예..그래서 요번에 또 22일 날 법원 가요

상: 어..어 그럼. 학교를 그만 둔 뒤에 이렇게 사고를 쳐 갖고, 이게.. 그게 결정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거니? 청: 예~에

상: 아.. 아. 근데..뭘.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해도 돼. 근데 혹시 그게 학교를 그만 두고, 시간이 많이 남고.. 혹시 뭐 돈을 좀 벌고.. 이런거와 관련이 있는거니?

청: 아뇨..

상: 그런 뭘. 집단구타니?

청: 아뇨. 그냥 순간..

청: 동시에. 호기심 같은 거죠.. 욕구 충족, 욕구.. 순간. 대리만족?

청: 그까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게 욕심.호기심? 아..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해보고 ..다시 갔다. 농자.. 이런식으로.

청: 그런 식이 있고 또. 아저 새끼 열 받아. ~ 미치겠네..이런식으로./ 아~ 제가 내 욕했네./ 아! 저 새끼가 내 욕했네.. 재 만나서 한 대 때렸어..또 신고하네../ 한 대 때려야겠네./ 그러고 또 걸리면 또 맞아.또 신고했네./ 저도 이번에..

상: 음. 그니까 그런게 있잖아..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래도 시간이 많잖아. 청: 네.

상: 시간이 많기 때문에 .. 그냥 호기심이 청: 그건 아니예요. 생긴다.든지.

청: 그건 아니예요.

상: 그런건 아니라는 거니?

청: 아. .시간은 많아요.근데 .시간은 많은데 절대 학교에 관련된 사고치는 일이 없어요.. 상: 학교..

청: 아. 학교를 그만두고 시간이 많으니까.

상: 그까 혹시나 고런 쪽에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뭔가 내꼐 갖고 싶거나 이런 욕심들이 혹시 더 많은거..

청: 그건 학교 안다녀/ 학교 안다녀도 똑같아요

상: 어 그니까.

청: 아니.학교 다녀도. 호기심은 다. 똑같잖아요. 애들은.

청: 그러니까. 다. 생각하는게 학교 다니거나 안다니거나 비슷비슷하니까 학교 다녀도 사고 치고. 안 다녀도 사고치고.. 그러는거예요.

상: 근데 사고치는 횟수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냐라는 거지. 시간이 많다.라는 건.. 그리고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 보면, 너희 말 처럼 아무래도 모이면 뭐. 무서움 별로 없어지잖아.

청: 그래도 빠질 놈들은 빠져요.

상: 근데 그게 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거잖아.

청: 아뇨.의지가 없어도요 자기가 감지를 해요. 이진 이진 아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빠져요.

상: 어.근데.?

청: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사고 더 많이 쳤어요.

청: 학교 그만 두고 저는 딱 한번 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고치면 안되는 줄 알면서 친거예요..너무 화가나서.

청: 근데. 전에는 그냥 막 쳤어요.아. 애들이랑 몰려 다니면서. 아 저거 오토바이 한번 훔쳐서 타보자.

청: 탔는데. 다. 안걸리니까. 다음에 또 훔쳐 타보자. 그럼 또 훔쳐 타고..계속 안걸리다가 그러다가 걸린 것도 있고, 애들 때리다. 걸린 것도 있고.

상: 음..음.오토바이 관련된게 참 많더라야. 여자애든 남자애든 간에.

청: 예. 솔직히 학교 다니는 애들이 문제가. 더 문제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상: 음. 그럼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는 거니?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는?

청: 그쵸. 타격이 크니까. 아. . .솔직히 누가 자기가 소년원에 가고 싶어 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상: 어..

청: 학교를 다니면 일단 소년원에는 그래도, 가긴 가도 웬만큼 빠준단 말이에요.

청: 그래도.. 제가 그래도 판사가 이 학교 다니니까. 학교 그래도 좋은데 다니면은 / 그게.취약이야./ 일할꺼 아닌데. 일할꺼 아닌데. .또 학교 안다니고 사고를 더 있게.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작은 거 쳤어도. 이 새끼 또 사고 쳤네?. 음. 이런식 이쵸.

상: 아~ 그니까 너희 스스로가 고걸 아니까 좀 조심 한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

청: 예.

청: 근데.. 솔직히요. 판사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과 안다니는 애들을 차별을 하더라구요..

상: 그래. 그런거. 많지..

청: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그래요.

청: 작은 소리로.. 대한민국은 다. 그래..

청: 저도 저번에 재판 가서도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 사고 쳤네. 이래요. 집행유예 지금 해.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아시죠. 상:음..

청: 감별소라고 그래가지고.. 상: 음.

청: 걸로 보내는데요...내일 이거든요.. 상: 음.

청: 너 지금 뭐해?. 검정고시 준비요.. 글면 나중에 다시 와서 재판 받아.

청: 예.. 그게 모범 답안 이예요. 음.

청: 별 받을 것 알고 때렸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하네요. 뭐하고 살았네요. 지금 검정고시 학원 다닌다. 그랬더니. 시험은 언제 보냐고 물어보면서.. 요번 8월 3일날 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검정고시 시험 점수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한대요. 자기가..

상: 어..어.

청: 그러니까 그 판사님 멋있더라고요.

상: 그럼, 학교를 안다녀도 그냥 맹탕 노는 애와 그래도 검정고시 학원이라도 다니고 준비하는 애랑은 또 그것도 차이가 나는거니?

청: 예.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 자기가 하겠다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걸 다니겠죠.

상: 으~음.

청: 근데. 요번에 시험 망쳐서요.웃음. 분류심사원 갈 것 같어요.

청: 학교를 똑같이 안다녀도 재는 유학 갔다. 와서 안다니고, 애는 사고쳐서 안다니고, 보는 눈이 틀려지잖아요. 그래도

상: 음.. 음.음. . 그럼 똑 같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달라진다. 이거네.?

청: 그렇죠

청: 근데. 제가 요번에 시험 8과목 보잖아요. 근데 딱 세과목 붙었어요.

청: 국어, 수학, 영어. 웃음

상: 다.. 어려운 것만 다. 붙었네.

청: 웃으면서.. 그러게요.. 상: 어.

청: 그것만 딱 붙었는데. 엄마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같이 법원 갔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꺼라고.그런식으로 얘기 했는데. .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판사님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저는 항상 이래요. 평균이 있었어요.. 경찰.. 경찰, 형사, 판사, 검사 다. 재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바뀌었죠.

상: 음..근데 왜 분류심사원 가면. 꼭 소년원 간다고 생각을 하는거니. 너희 들은..?

청: 예..

상: 어~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청: 네. 그렇죠.

상: 으~음 엇그제도 분류심사원도 갔다. 왔었는데. 그 때는 여자애들 만나고 왔었거든.

청: 이빠요?

상: 이쁘다.. 뭐.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지?

청: 이쁜 애들은 그런데 안갈꺼야.어?

청: 저는 근데. 죄명이 장난이 아니예요.

상: 너무 많니?

청: 상해 및 .. 상해 및 흉기..그리고 살인미수요

상: 살인미수면. 그건 엄청난거다. 그지?

청: 쇠파이프로 뒤지게 꽤 버렸어요.

상: 허.. 누구를?

청: 그....

상: 재수 없는 인간을?

청: 예. 그 놈들을요.

상 : 웃음

청: 진짜 힘들었어요.

상: 살인미수라고 한다면그건 죄명이 큰 거다. 그지? 다른 뭐..그냥.

청: 아. 근데요.약간 흥분해 하며.

상: 폭력..하고 좀 다른 거잖아.

청: 죽을 정도까진 안 때렸거든요.. 그까. 뭐 막.. 그럴로. 막. 쟁게 때린 것도 아니예요.. 근데 형사들이 지멋대로 그렇게 넣어 놔더라고요..

상: 뭐. 때리는 자리에 같이 있어도 ..뭐 폭력 범으로 잡혀 가는 거라메.

청: 예.

상: 어~.

청: 솔직히 형사들은 진짜. 형사들은 아직도 싫어요.. 조서를 쓸려면. 솔직하게 쓰던가요. 야.솔직히 너네 조서 다. 써봤지. 니네 솔직히 다. 강제로 막 몇 대 패고 막 그러지 않냐?

청: 나. 안그랬는데.

청: 너한테 잘하디?

청: 난.. 존나 잘하는데.

청: 나는 막 책으로 졸라 때리드라. 머리통...

상: 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말 할 때까지..그냥. 말하도록 만드는 거니?

청: 저. 옛날에 한번요..폭력 때문에 갔거든요.근데 개가 먼저 때렸어요. 개가 먼저 때렸다고 그랬는데.거짓말 치지 말래요. 근데. 진짜 개가 먼저 때렸다고. 그랬더니.저..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잠도 못자게 하고요. 일어나

지도 못하게 하고. 의자에 앉아서 혼자 이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상: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데.

청: 예?

상: 그래서..

청: 열 받아 갔고.. 엄마한테 전화 했죠. 오라고. 나 지금 인정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엄마가 와 갔고. 왜 애한테 막 그러냐고. 나 여기 있어야겠다고. 아무튼 형사도 인제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더니. 제가 인제 말한데로 딱 써주고. 법원 갔더니. 무죄 판결 1호. 땅! 땅! 땅!

상: 으~음.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구나.. 또 어떻게 있었니? 또. 그런 것도 중요한 애긴 것 같고.. 또 학교를 그만 둔 뒤에 힘든 점은.

청: 아~~.....

상: **도 좀 얘기해 보자 .. 어?

청: 선생님. 작은소리로.

상: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까? 10분 쉬어갔고. 저 시계로 40분 되면 다시 시작하자.

청: 예~~

청: PC 정비사 할려고요

상: PC 정비사?

청: 예. 컴퓨터 고치고. 그리고 컴퓨터 튜닝 배우고 있거든요. 컴퓨터 꾸미는거.

상: 아. 컴퓨터를 꾸미기도 하니?

청: 컴퓨터요. 이게 막. 그 컴퓨터 꾸미는게 있어요. 안에 막.

상: 조립하고 이런 걸 튜닝이라고 얘기하니?

청: 아뇨. 조립은 정비에 들어가고. 튜닝이라는거는요. 그 밖에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를 내가 짜내는 거죠.

상: 아. 요즘 그런 것도 하니? 나 지금 처음. 처음 듣는다. 아. 어. .어.

청: 튜닝. 튜닝 계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한국에?. 진짜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잘해요.

상: 음. 그럼 자기가 뭐 만든다는 거야?

청: 네. 케이스를..

상: 아! 그래서 좀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꾸민다는거네. 본체나 모니터 이런 걸.

청: 컴퓨터 .. 그런데다. 그림그린다고 보면 되는거예요. 그림도 그리고요. 자기가 본체 막 모양을 바꿔요 . 그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 대박 작품이 세 개 있어요.

상: 음

청: 거북선 컴퓨터..

상: 아 그렇게 있지?

청: 그. .거북선 모양. 나무로 된게 있어요. 근데요. 그 거북선 눈 누르면 전원 들어오고..

상: 아. 그거 앞으로 괜찮은 장사다. 그지?

청: 네. .그거 아무래도 제가 딱 생각하기에 그거 잘 배워 놓으면 나중에 좀 먹힐 것 같거든요.

상: 왜냐면 사람들이 다. 누구나 똑같은 그런 거는 다. 싫어하는 거잖아.

청: 요즘에는 개성적인 게 좋죠.

상: 어. 어. 옷도 그렇고. 요즘에는 액세서리까지 갔으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도. 핸드폰도 동일한 제품이 아니고. 그것도 어찌 보면 그치?..기본 기자제 사갔고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청: 근데. 학교 안 다니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자기 진로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상: 으~음.

청: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상: 사회 말하면, 뭐 부모님들이 남이 가는 똑같은 길 안 간다고 걱정하긴 하지만 너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길에 대한 하나의. .. 그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청: 어떻게 보면 따른 애들이 이렇게 갈거를. .직직해서 갈거를.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수도 있는건데.따른 애들보다 지름길로도 갈수 있는거예요.

상: 그렇지!.하나의 새로운 샛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거지. 남들이 알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청: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상: 음.

청: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한길이에요. 무조건. 일단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도전할 기간이 있죠. 도전 할 기간은 많죠. 도전. 그까. 도전을 많이 해봐야 알죠 자기가.

상: 으~ 음. 음.

청: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까 계속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거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한 삼십개는 해본 것 같거든요?

상: 아~, 그럼 다양한 걸 해본거니?

청: 패스트푸드점도 해봤고.. 편의점도 해봤고. 피시방도 해봤고. 힘. 노가다.도 해봤고.

상: 그건 니가 걱정하고 해보는거야. .좀 여러.. 좀.뭐 니에게 뭐가 좀 맞는가 이런거 알아볼려고?

청: 아니요. 딱 일단 . 한번 느껴 보라 그랬어요. 엄마와 아빠가 그러드라구요. 너 커서 노가다만 노가다.나 할래? 이런식으로 얘기 해갔고.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나. 진짜 한번 느껴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노가다.도 해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간판가게에서 간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디자인도 해보고 막..별거 별거 다. 해봤거든요.근데 어렸을때부터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 .그까 맨 처음에는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게임을 이렇게 계속하게 놔두잖아요. 저

회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아예 상관을 안했어요. 밤을 새든 말든 .

상: 음.. 으~음. 니가 엄만 정말.. 어?

청: 저희 엄마가 되게 풀어주는 게 좀 있어요. 좀 근데. 하다.보면 인제 실증이 나요. .진짜 자기가 미친 듯이 하면 실증이 나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가 이 게임을 되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그럼 인제 컴퓨터를 한 번 열어보게 되는 거고?. 컴퓨터 몇 번 고장도 내먹고.인제 자기가 한번 고쳐 볼려고 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인제 자기가 하나하나 습득을 해 나가는 거죠.

상: 음..

청: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립은 혼자 다. 하거든요.

상: 근데..아까 학교. 니가 제일 먼저 꺼냈던 것도 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그런 어떤 새로운 남이 가지 않았던 . 새로운 지름길을 발견하는 거는 있지만. 어때. .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그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 주고 길을 가르켜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진로를 찾는데 어떤 애로 사항은 없었니?

청: 저는 강하게 크고 싶었는데.

상: 어?

청: 아니.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거는 다... 그까 다. 그렇게 조언해주고..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런 거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갔고. 지가 먹고 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내가 해갔고 내가 그게 대박 나면은 딴 사람보다 더 내 실력으로 인정 받고, 딴 사람들이 내 실력을 따라 할수도 있는거고 내 능력을..

상: 음. 근데 그렇게 할려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입수하느냐. 정보를 어떤 식으로 찾느냐 문제고. 너에게 정말 그런 능력과 적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청: 그거는..

상: 꿈만 같고 되는게 아니잖아. 이 두 개는 어떻게 해결 할...

청: 그거는 자기 생각에 맡겨요. 자기가 만약에 그걸 진짜로 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뒤져서든 뭐 그거에 뭐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든.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가르켜 달라고 하든. 그렇게 하겠죠..

상: 그니까 그런 길잡이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나라는 거지.

청: 길잡이는 저희가 하는 거죠

청: 자기가 하는거죠.

상: 스스로가? 어.

청: 그까. 학교를 그만 두면 좋은 점은. 자립심이 좀 늘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걸 느껴요.

상: 으~ 음. 그래 그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다. 혹시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힘든 점은 없었니?

청: 힘든 점이요?

상: 어.. 어

청: 시간 타임이 안맞죠.

청: 멘토 선생님 한테 전화 왔는데. 전화 한 통화만 받을게요..나가서 받자

상: 음. 음.

청: 따른 애들보다는 음.. 서울에 사는.. 서울 강남 애들..뭐 학원 여러 개씩 다니고. 그것처럼 저희는 일단 놀아도 놀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검정고시도 하고. 좀 시간이 좀 빠 켜죠.

상: 으~음. 놀아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어.내용 따라가는거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청: 음. 제가 좀..그래도. 애랑 저랑 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만나서 같이 사고치고 그런류거든요. 저희는 뭐 중학교는 많이 다.녔으니까. 할 만 한데. 고등학교는 아직 안다녀왔고. 할라고 지금은 저희가 시험을 사월 달에 보거든요.. 애랑 저랑은. 애랑은 봤고. 애랑. 그니까 아직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했으니까. 아직 모르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뭐. 불편한 점은 다른 애들보다 빠췌다는 거요.

상: 빠췌? 아. 그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청: 아 그니까 힘들다.구요.

상: 어. 짧은 기간 내에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청: 하기가

상: 일을 해야 하니까.. 일년 안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낸다..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 쉽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어떤 유형을 나오나. 궁금해서 한 번 봐 본거거든요. 근데 과목 합격제라는게 있잖아요..

상: 그렇지.어.

청: 그거 덕에 일단은 세 개는 제일 어려운 거는 일단 빠졌드라고요.

상: 음.

청: 제가 원래 기초가 좀 없어요.

상: 그래. 그런데 어떻게 국, 영, 수 이렇게 어려운 과목만 다.. 이렇게 붙었냐?

청: 국어는 한글을 알면 되는 거드라고요.

상: 음.근데 그것도 점수가 좋았니? ..

청: 예? 국어가 68점인가 그러고.

상: 그럼 다음에 시험 쳐 갔고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다음에 칠 수 있는거니. 친 아이들..

청: 다시 칠 수는 있는데요. 대신에 자기가 받은 그 과목..합격을요 포기를 해야되요.과목합격 포기를 하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보는건데.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안나오면 큰 일 나는 거죠.

상: 근데 아까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점수가 좋으면 수능.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검정고시 점수가 좋으면.

청: 예.

상: 그래서 욕심이 생기나 싶어서.

청: 예. 그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상: 더 점수 받으려고. 어. 어

청: 공부 하는거죠.

상: 어~

청: 일단, 검정고시 그냥 합격만 할 꺼면은.애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을 안 간다고 했잖아요. 지가 기술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그냥 졸업장만 딸려고 하는거고, 또 애하고 저는 대학을 갈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목표만큼 힘들게 해야죠.

상: 으~음. 대학을 갈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청: 저는 한 평균 구십 맞아 갔고.

상: 어 그럼 엄청 높은 점수다. 그지?

청: 아니. 검정고시가 그래도 학교 다니는 거 보단 힘들어도 일단, 쉬운 점이 있으니까, 또 학교 다니면은 공부해야 되지. 삼년 동안 해야 될 것 그냥 우리는 뭐 많이 봐야. 시험을 한 달에. 아닌 일 년에 두 번씩 있으니까. 솔직히 네 번해서 구십 점 다. 못 맞는 건 아니잖아요.

상: 음.

청: 이년 하면은 그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일년을 뽕썰게 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갔고 대학 갈라고.

상: 음. 너도 보니까 뭔가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청:

상: 그 다음 또 다른 얘기를 한 번 해보자. 지금 혹시 얘기 안했던 거랑 관련해서. .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얘기 했었고. 그지? 아르바이트 하는거 얘기 했었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거 얘기 했었고. 그 다음 진로와 관련된 얘기 했고.. 혹시 또 다른 영역은 없을까?

청: 학교 그만 두고요?

상: 음.

청: 음.....친구?

상: 친구. 어.

청: 이거 주위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상: 어.. 어어어

청: 그까 학교를 다니면은 애랑도 알고. 학교를 다니면은 일단 한 반에 40명씩 있고, 한 학년에 몇 백명이 있잖아요.

상: 음

청: 몇 백명이 있어도 일단 인사정도는 할 거 아니예요. 일단 안 친해도 그런애들이 동창이 되는거고. 어떻게.나중에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학교를 안다니니까 애랑 만나고, 애랑 만나고, 딱 만나는 게 기준이 있단 말이

예요. 저희는.

상: 음.

청: 아무리 아르바이트 하고, 뭘 하고 댄 사람을 만나도 학교만큼은 안 될 꺼예요.

상: 음 그렇지.범위가 좁아지는 건 있지.

청: 예

상: 새로운 아이들 사귄 기회가 있지?

청: 있긴 있어도 학교 만큼은 없죠

상: 어~

청: 근데요. 다.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드라고요

상: 그러니까 학교를 안다니는 애들을 더 만날꺼 아니야.

청: 다니는 애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였던 애들. 그런 애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지요.

상: 음

청: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개네들이 친구 한 두명씩 데리고 오다. 보면 개네들이랑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좀 나중에 크면.. 마주치면 인사야 하겠쥌. 그렇지만 ..친한 친구만 하겠어요? 그건 아니쥌. 그까.

상: 근데 . 어찌보면 지금 상태는 너희들이 그래도 누군가의 멘토의 지원을 받으면서 누군가. 너의 주변에서 많이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편이잖아?

청: 예

상: 근데 지금 이전에 있잖아. 소히말하면 바닥을 칠 때라고 하나? 사람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땐, 주로 뭐 했던. 어떤 상황, 어떤 상태였니?

청: 최악의 상황?

상: 어.. 어.학교를 그만두고..

청: 술, 담배.웃으면서 경찰서.. 웃음

상: 어.. 어

청: 그거야. 술, 담배, 경찰서... 집에 안들어 가고 TV에 나오쥌. 막 애들 막 몰려갔고, 놀이터에서 집 안들어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지나가는 아저씨들 한테 돈 달라 그래서 그걸로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상: 그게 다. 너희들이니?

청: 그런 거는 한번 썩 다. 해봤다. 이거쥌./그게 수두룩해요.

상: 그럼 또 집에 안 들어 갈 일이 많고, 쉽게 가출 할 그런..가출이라기 보다 외박 인거지.?

청: 저는 가출이쥌.

상: 아예 작정하고 나온 거야?

청: 부모님. 부모님이 엄하시니까 오늘 안 들어 가면은 일단 어떻게 찜질방을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놀다가 밤새서 놀면은 낮에 잘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낮에 자고, 또 그리고 인나면은 하루가 지났어요. 어. 이거 뭐라 그러지? . 아빠한테 친구네 집에서 잠들었다. 그럴까? 아. 어저께 찜질방 갔는데 ..그러면

서 또 전화를 피하게 되고.. 연락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어가면 맞어 죽는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안들아가는 거죠.

상: 으~음. 그러다가 인제 길어지네.

청: 예.

상: 으~음 경우에 따라서. . 그러다. 보면. 뭐가 또. 집에 나와 있으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냐.

청: 집에 나와 있으면서 하는 일..

상: 음.

청: 놀고, 먹고, 그때는 자유잖아요. 완전히 구속할 사람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거 하는 거죠. 일 하러 갔다가. 돈도 생기면은 그때부터 진짜 자유죠.

상: 음. 그까 어찌보면, 돈만 있었으면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청: 그렇죠. 집 나가 있을때 돈만 있으면은.

상: 음.

청: 다. 편하죠.

상: 혹시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들어 있지 않니?

청: 할인이요?

상: 어.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잖아.

청: 제가 아까 얘기 할라 그랬는데. .누가 얘기 했는데.

상: 어.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는 안했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니?

청: 학생증..그간 할인..고속버스, 그거를 탈라고 해도 아직 어려서, 생일이 안지나서. 민..민.

상: 민증이 안나오는 거지.

청: 예. 민증이 없고. 학교 안다니니까 그 학생증도 없고, 청소년증은 애들이 웬만하면 안 만든단 말이에요. 가꼬 . .그런. 제가 겪었어요. 제가 인천을 가야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갈라고 하는데 학생은 더 싸더라고요. 그래갔고. 더싼거 차라리 끊는게 낫죠.

상: 그치

청: 어차피 학생이고 나이도. 근데 학생증이 없다고. 안된다는거예요. 그걸. 그래갔고 그냥 갔다가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옛날 학생증을 찾았어요. 예전 학교 다닐때. 그걸을 보여주고 어떻게 학생인데 나이는.. 나이는 학생인데 학교를 안다닌다. 가꼬 고등학생게 없다. 그러니까 학교.. 지금 학교를 안 다니면 학생인 아나라. 어른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 으. 음 .. 그래서 할인혜택을 못 받았던거네. 결과적으로는.

청: 저가 그래서 청소년증을 만들었다니까요.

상: 영화 이런데도 청소년증 보이면 할인 되는거니?

청: 예. 영화 같은건 되는데..

청: 저도 그래갔고. 청소년증 만들어서 보여준다니까요

상: 그까 모든게 다. 통과가 되는거니? 아니면, 버스나
청: 다.. 해주더라고요 할인은..
상: 어..
청: 웬만하면 해줘요.
상: 근데 좀 그것도 좀 눈치 보이거나 . 어떤 심.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건 없나보
다.
청: 마음이 불편했던거요?
상: 음
청: ...
상: 그러니까 아이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건 뭐냐면. 그 버스 탈 때 있잖아 ‘청소년
입니다.’ 뭐 이렇게 찍히는 소리나는거 있잖아. 어. 그게 많이. 그까 별건 대 낮
에 그 찍~ 하고 찍히면 ‘청소년입니다.’ 이게 나오니? 너희들 그거 안쓰니?
청: 저희. 저희도 한번 그래갔고. 그냥 현금 내버려요.
상: 아~아 ..
청: 현금 내버리고 학생이라 얘기 안해요.
상: 그니까 그게 남자 여자 차이점이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대부분 그냥 돈 내
고 만다. 그러드라고 현금을..
청: 남자애들은 카드 같은거 잘 안쓰잖아요.
상: 어 . 그러니까 카드 안쓰고 그냥 현금 천원짜리 내고. 잔돈 그. 성인용. 그까 할
증 못 받는거지. 그지?
청: 예
상: 어. 그냥 고대로 받고 만다.. 돈 생기면 택시 탄다. 뭐 . 주로 남자애들은 그런
얘기였던 거.. 여자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통카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청: 근데요. 대한민국이 드럽게 치사한게.
상: 음.
청: 막. 담배 술 같은거는. 다. 검사하잖아요. 막. 그까. 학생 아니야. .학생 아니야.
어려보이는데. 다. 하는데. 뭐 전철, 버스 그런거는 지들 맘대로 다. 성인으로 처
버려요.
상: 음..
청: 카드를 안내고 그냥 천원 짜리를 내도. 어른요금 받고.. 전철비 내도 전철 그냥
주고. 학생이예요. 얘기해야지 주고.. 그게 맘에 안들죠.
상: 으~음..
청: 제일 좋은 방법은.. 오백원 짜리와 백원짜리를 항상 가지고 땡기는 거야. 오백원
짜리 백원짜리 육백원 딱 내고 들어가면. 아~ 재 학생이네. 그러죠.
상: 으~음. 우쭐보면, 버스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청소년을 가려 갖고 그들에게 할
인 혜택을 줘야 되는건데 그지?
청: 예.
상: 자기들 돈 벌 생각만 하니까.그

청: 그거는.

상: 아. 그거는 니 말이 참 맞다..

청: 벌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담배 술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팔면은 TV에도 나오고, 거기 뒤에도 항상 써 있고. 그까 지들은 돈 안낸다고 다. 해서 버스기사 아저씨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해 놓고, 지들은 . 아~ 치사해 . 아~ 그거 존나 싫어. 진짜.

상: 아. 얘기 들어보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거다. 그지

청: 예

상: 음. 맞아

청: 이득 볼 건 다. 이득 보고..

상: 우찌보면, 술, 담배 팔지 않을려는 것도 신고 들어갈까봐.

청: 예. 그런..

상: 그런 측면이 많지. 너희들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청: 예.

상: 음. 그럼 좋아 한 두 가지씩만 얘기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또 어떻게 있을까? 각자 한 두가지 씩만 생각해보자

청: 불편한 점이요?

상: 어. 어 불편한 점.

청:

청: 건강?

상: 건강? 어어.

청: 일단 학교 안다니면은..학교 다니게 되면은 담배를 웬만하면 다. 피는데..일단 그렇게 많이는 안하죠. 학교에서 못 피게 하고. 집에 있으면 못 피고 애들끼리 놀 때 피고. 집에 있을때 잠깐 몰래 몰래 피고, 근데 또 할게 없으면은 맨날 다 나가있고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나가서 피시방에 있으니까 담배 더 피우고, 하고 싶은거 하고 또 밤낮이 바뀌니까 피곤하고..그러면서 몸도 안좋아지고

상: 으~음. 그러니까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된다. 그지?

청: 예

상: 아. 먹는 것도 제대로 안먹게 되지?

청: 예

상: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먹을 일이 많지?

청: 아. 배고프면 컵라면 사먹고. 그래도 학교 다니면은 밥, 학교에서 밥주지. 아침 안먹어도 밥주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배고프지 그러고 또 자지. 그러고 또 인나고.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또 우리는 학교 안다니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배고프면은 놀다가 또. 나가서 배고프면 컵라면, 삼각김밥 사먹고..그러다. 또 자고. 그러면서 식스..식스.

상: 식습관..

청: 식습관도 바뀌고..그리고 막 규칙적인 생활이 좀. 다. 잘 안되고.

상: 어. 잘 안되는..으~음. 그래서 건강이 많이..해치고. 음. 일단 좋아. 자 오도 두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

청: 네?

상: 음. 두가지. 마지막. 이제 막판이다. 오분 남았거든. 이제 YJ는 하나 했으니까. 누가. 나이가 다. 동갑이니?

청: 예

상: 아~ 그럼 친하겠다. 너희들.

청: 예 다. 친군데

상: 원래 같은 학교 출신들이니?

청: 아니요.

상: 여기 와서 만난거야?

청: 아니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상: 아. 뭐

청: 둘이 같은 학교 출신이고, 저는 다른 학교..

상: 아. .놀다가 알게 된 애들이야? 보호관찰 들어오기 전부터.?

청: 예

상: 어.

청: 중학교 1학년 때지?. 2학년 때/아 2학년때.

상: 너희도 너희 동네에서는 웬만하면 다. 알겠다..

청: 예. 성남에서.

상: 성남에서 아이들을..

청: 성남 애들을 의외로 많이 알죠

상: 어. 자 두 개만 대호 두 가지지만, **는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되겠다.

청: 음.....너무 자유스러워서 힘들죠..

상: 웃음

청: 그게 사실이에요.

상: 어..

청: 자유스러우면 좋을 것 같죠?

상: 어

청: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너무 자유스러워서 인제. 생각을.. 막 관심받고 싶어졌어요

상: 관심 받고 싶어.

청: 생각이 바뀌죠. 그런거죠 이제 ‘아.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해야 되겠다. ’ 그까 사람이 자기가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다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건 다. 해야되고. 왜냐면. 시간이 남아 도니까. 시간도 남겠단..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 가끔 외로움을 느끼죠.

상: 음.

청: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 나한테 관심 있으면 나를 이렇게 놔둘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까 좀 외로움..외로움을 많이 타죠. / 관심 받고 싶어지고.

상:음. 관심받고 싶고 우찌보면, 그지. 누군가 이렇게 야단치더라고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워 지나보다.

청: 예 가끔 막, 뭐 잘못을 했어도 .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믄은 예전에는 진짜 만약에 재가 애를 때렸어요. 애를 때렸는데 부모님들이 왜 때리느냐 그러면서 저를 혼낼때 그럴때는 아니 내가. 애가 맞을 짓을 해 갖고 때렸는데 왜 나한테 막 뭐라 그러지? 그래서 막 신경 좀 안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학교 안다닐때 애를 또 또 때렸어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끝내니까 .. 이거는 왜 그랬는지도 안 물어보고. 아 관심이 없으니까. 아 . 이 자식인데 관심을 안 가져주고.. 관심 받고 싶어져요 그러면.../ 관심 받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라. 우리 아버지는 널 사랑해 줄꺼다..

상: 사랑이란게 뭐니? 그때 말하는.

청: 관심 가져주는거.

청: 말로 표현 할 수 없죠..뭔가. 그런거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함.

상:음.. 좋은 의미니?

청: 예. 그런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엄마랑 되게 친하고, 아빠랑 별로 안친해요. 근데 아빠가 옛날에 허리를 좀 크게 다.치셨었어요. 그래갔고 병원에 딱 입원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앓을 줄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아빠랑 안친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가슴이 막..

상: 아들이 뭔가 좀 다른 값다.. 그지?

청: 뽕 뚫린..

상: 아버지에 대한 그런 느낌 들어.

청: 예 그렇죠. 걱정되요. 아무 말 없이 병원가서 잘 있는가 보고 오고 막 그러죠.

상: 어. 그랬어..어..

청: 웃음. 그게 자식이죠. 솔직히 ..

청: 웃으면서. .그게 자식이죠?. 그게 부모죠...그게 부모죠예요.

청: 뭐 소리야..그게 자식이죠가 나와야지./ 그게 자식이죠가 나왔잖아. 거. TV에서 보면은. 그게 다. 부모 마음이다...웃으면서 이러는거. 뭐가 틀려.

상: 그래. 너희들한테. 그게 자식.. 그니까 쉽게 말해서 당연한 도리죠 그 말인거잖아.

청: 네.

상: 참 간만에 들어보는 소리다. 음.. 그래 좋다. 하나씩만 더 얘기해보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 스트레스.

상: 어떤거?

청: 그냥. 다..다.

상: 다. 짜증이 나는..

청: 압박감.

상: 압박감?..음

청: 예. 미래에 대한 압박감 / 현재에 대한.. / 여자 친구에 대한 압박감. 여자친구랑 좀 오래 사귀었어요. 그래왔고. 진짜 막 결혼하자. 결혼하자 그러는데..막 그런거를 얘기할때마다.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나중에 애를 뭘해. 먹..아. 뭘해 먹여 살리지? 막 신경이 쓰이고. 놀다가도. 제가 ‘아 나 이러고 있으면은 안되는데. 이러다. 백수 되는데. 그런생각. 그리고 여자친구랑 가끔 장난을 쳐요.

상: 음.

청: 내가 얘기 볼게 니가 일해. 그러면서..제가 얘기 본다고..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또 곰곰이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주로 자기 전에 뭘 생각해요. 그러다. 잠들거든요. TV보다가 잠들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건 생각해 보면은 괜히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학교를 다닐결. 다닐결. 그래서 후회를 해도 어차피 늦었고. 인제 늦었어도 제가 딴 길로 가갔고, 처음에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가 다른 애들은 직직해서 빨리 갈걸 넌 돌아간다. 그렇게 그거를 막 곰곰이 생각을 해도. 다른 애들이 그렇게 갈 걸. 난 지름길로 가면 되는거 아닌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애들보다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땀에 스트레스 쌓이고,

상: 음.. 놀면서도 늘..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지?

청: 예. 저희가 피시방에 자주 있는데.

상: 음.

청: 피시방에 있어도,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문제를 하나 더 풀었어도. 만약에 시험을 봤어도 점수가 안좋잖아요. 막 후회가 되는거죠. 이제. 막 그 시간에 영어 문제를 하나 더 풀었어도 일점은 더 맞어갔고..점수가 좀 더 높아갔고. 대학을 더 높은데로 갔을 수 있을텐데. 막 그렇게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짜증은 더 나고.. 그래서 막 쌓이는거야. 계속.

상: 그래도 그건 참 긍정적 의미의 스트레스잖아. 자기를 다.독. 다. 잡는다고 하나?

청: 그런데 그게 안되죠. 마음과 행동이 틀리죠..

상: 아.. 마음은 그러나..

청: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안되죠.

상: 음.

청: 그리고 친척들과의 만남, 부담스럽고.. 친척들이 막 저희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집안 장남이거든요.

청: 어? 너도 장남이나?

청: 어. 어.

상: 다. 장남이네. 어떻게..애도 아까.

청: 너네 큰 집이야?

청: 어. 우리 집도 큰 집이야.

상: 큰집에 장남은 좀.. 약간 친척들이 기대하는게 있잖아.그지.

청: 나도 장손이고. 너도 장손이야? / 제가 엄청 이쁨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쁨을 받아요. 학교를 그만 둔 상태에서도. 진짜 고모들, 이모들, 삼촌들, 전부 다. 완전. 제가 막 왕처럼 대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도. 친가에서는 완전. 완전 왕이었고..

상: 니 완전 장손은 왕이지. 그래.

청: 그랬는데. 지금도 막 잘해 주거든요? 근데..차라리 이렇게 뭐라고 툭툭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상: 음.

청: 그까 다.독다.독 해주고..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친척들은 툭툭 내뱉고, 뒤에서 엄마, 아빠가 다.독여 주는 게 그게 훨씬 좋은 게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죠.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대면..뭐 친척들과의 대화..

청: 우리 친척은 때리는데..

상: 웃음. 학교 안다니한다고..

청: 웃으면서. 예. 친척들이 너무. 학교도 안다니고, 아무것도 안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이상한 눈빛으로..

상: 무슨 눈으로 쳐다 보시냐? ..그 눈빛이 뭐냐. 그래.

청: 기분 나쁘죠.

상: 아.

청: 다. 어떻게 쳐다봐도 저를 보면, 비웃는거 같고, 그냥 쳐다보면은 쩌려 보는 것 같고. 기분 다 나쁘죠..

상: 아..

청: 아. 부모님이랑 그까. 저희 집안에 제가 장남이고 사촌들이 제 또래는 다. 학생이란 말이예요. 그까 이런저런 애길 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끼리. 그래갖고 얘기를 해줘요. 저희한테. 다른 애는 어떻게 해갔고, 몇 점 맞고, 어디 대학 가고 그랬다고.

상: 으.음. 맞아.

청: 근데 아빠는 창피해서 아무소리를 못했다고. / 맞아요. 저거 맞는 말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때마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돼. 공부를 해야 돼.

청: 진짜. 존나 열받아요. 거짓말 안치고. 미쳐 버릴 것 같애.

상: 어.어 뭐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비교 할려고.한건 아니겠지만. 그지.

청: 비교해요 / 비교 당하는 거죠. 괜히 / 솔직히 나는 다른 사람은 다.그래도 엄마, 아빠는 다.독여 준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음.. 괜찮아 니 검정고시 시험 잘 봐서 재네보다 먼저 가면 되는거야. 뭐 이런식으로..

상: 어. 어. 그 백수가 거기서 유래된거니? 하얀 손에서.

청: 예

상: 어. 어. 진짜 일백 백에 손 수 자니?

청: 그까요. 흰 백

상: 흰 백에 손 수자니?

청: 웬지 알아요. 그가 일하는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지저분해지거나 손이 막 나빠지잖아요 /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TV 누르고, 밥 먹고 / TV 누르고 밥 먹고 손에 뭐가 와요. 그니까 손이 하얗죠.

상: 공부하면 이런데라도 군살이 배겨야 되는데 그지?

청: 예.

상: 아. 그 백수 개념이니? 선생님이 몰랐다.. 어. 하얀손. 하얀손

청: 그런. .애기하면 이런 생각하죠. 와 진짜 나는 이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청: 빨리 커야 될텐데./ . 빨리 커서 혼자 살아 버리든지 해야 될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상: 음. 그래도 검정고시 너는 더 많이 매달리게 되겠다. 그지? 너무 마지막 하나의 기쁨 수도 있는거잖아.

청: 마지막은 아니에요../ 인제 시작이에요.'

상: 그러니까 표현이 그랬는데.. 인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입문과 관련해서는 그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는 있는거지.

청: 지금은 매달리는 거는. 일단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제. 중간쯤 되는데. 그거를 다른 애들이랑 중간쯤 따라가는 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방향을 했으니까. 저는 방황한게. 먼저.좀, 지금 안 다닌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봐요. 다른 애들이 나중에 방황할 꺼를 우린 먼저 방황을 해서 먼저 철들어서.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점에선 봐도. 우리가 낫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상: 음. 근데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게 언제부터니?

청: 언제부터요?

상: 어

청: 원래 이려고 살았는데.

상: 아.. 근데 그 하나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외부의 시선과 그런 걸 버텨낼 수..

청: 자신감 있어야 될 해 먹고 살죠.

상: 그렇지..어어

청: 주눅 들고 못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청: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 학교 안 다니닌? 그래서 '네' 짤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청: 난 친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 못해.

청: 친구 엄마한테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래..

상: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구나

청: 네.. 너 학교 뭐하니? 안노는데요../. 짤렸는데요.

상: 경찰서 가면. 무직 적는다.매.

청: 네?

상: 직업란에다. 학생일 아니고.무직 적는다고 그러는데. 학교 안다니는 아이들은.

청: 네. .저 그렇게 적는데./ 난, 학생이라 적는데./ 난 백수 이렇게. 청소년. 난 학생이라고 절대 안 적어요./ 난 학생이라고 적었는데./ 일단 우리 나이는 학생 신분이거든.

상: 음. 혹시 검정고시가 사월 팔월에 있잖아. 고거와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없니?

청: 없어요. 학교 안다니니까. 시간은 남으니까. 불편한 점은 없는데. 단지 학교를 안다녀서 조금 수준이 딸릴뿐..

상: 음.

청: 조금이 아니지. 많이 딸리죠.웃음

상: 근데 사월하고 칠월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 갔고.그지?

청: 예. 옛날에는 검정고시 막 빼껴도 안말 안했었요

상: 아. 그것도 .. 아. 감독이 별로 없었니?

청: 예.. 아뇨 감독이 있어도 감독이 그냥 빼끼라고 놔둬 버리거든요.

상: 요즘 그게 수시하고 더 연결돼서 더 세진거야?

청: 아뇨. 옛날에 수능논란 아시죠?. 핸드폰 문자로. 그 후로 그것까지 압박감이 ..

상: 그리고 올해가 7차 교육과정인가. 바뀐 그 교육과정으로.시험 친 거지.

청: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예

상: 그래서 7월 8월은 어렵다는 거지? 제일 검정고시가 어려웠다고 하던데. 이번 팔월이..

청: 국, 영, 수, 딱 세 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월은 많은 애.. 거기다. 붙었었는데. 거의 많은 애들이. 팔월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드라. 판데 가보니까.

청: 근데요.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삼엄해요.어떻게 했냐면요. 문제지 다. 딱 나눠주요. 그리고 다. 팬 들지 말고, 손 머리 올 리가 그러고.. 딱 이러고 있으면. 종 딱치면 인젠 푸세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 거기서 하는 말에 고개 45도 이상 30도 이상인가 돌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진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지켜봐요 . 근데 저럴 때만 피해서 또 어떤 아줌마가 영어 좀 도와달라 그래 갔고. 영어 답 써갔고 냈죠. /

청: 아니. 근데 그런거 받아 하면 안되..

청: 아냐. 뭐라 한다니까.

상: 그럼 둘 다. 같이 찢리는 거 아니니?

청: 그러데요. 아 진짜.이런 쪼그만데 있잖아요. 쪼그만한 종이에다. 답을 주루루루,, 주르르르. 동글동글 동글.

상: 그럼 그 종이는 어디서 나니?

청: 종이는 그 앞에서 난뉘 주잖아요. 그래서 막 답쓰라고 답안지 쪼그만한것.. 나눠주요. 답 쓰는 칸 . 거기다가 ..쪼금씩, 쪼금씩 써다. 가는거죠

청: 돌돌돌 말아갔고. .아줌마한테. 어..험. 이랬더니 딱 쳐다.보드라구요. 그래서 딱. 이걸로요 딱 던지니까. 딱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고 보더라고요. 이러고..보

더라고요.
 상: 야. 밥한끼 사주더냐.
 청: 예?
 상: 밥 한끼 사주더냐.
 청: 아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끝나요. 다. 가요.
 상: 다. 가고 없어.?
 청: 예.
 상: 너 속이 안좋은 겠다.. 애는 지금.
 청: 너 속 안좋아? / 음
 상: 너 뭐 밤에..
 청: 그래도 영어는 잘 봤는데.
 상: 음.
 청: 영어는 두 개 틀렸어요..
 상: 그래 중요한 얘기 참 많이 했다.. 오늘 혹시 더 생각하는데 못다.한 얘기..
 청: 아니. 없어요. 인제 끝.
 상: 인제. 끝.. 인제. 다.
 청: 예. 씹세스
 상: 인제 다.. 다. 했니.?
 청: 예.
 상: 그래. 좋아.

유형2.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구분	내용
유형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1
장소	직업전문학교(K직업전문학교)
소재지	경기도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7월 20일 목요일 3시-5시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질문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힘든 점 혹시 생각하기 힘들면 우선 친구들 관계부터 이야기해볼까? 지금친구도 상관없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상관없고, 부모님과도 상관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과.그냥 되는대로 털어놓으시면 되요.이것을 유식한말로 뭐라고 하나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대요 주로 윗분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날 때 주로 들들북을 때 생각나는 거 다. 이야기해보는 하는 것인데 이 연구방법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야기 하면 되요.

상: 그만 두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보면서 그때 힘들었던 것 막 막한 것도 있었고 그런 느낌이라든지 단순하게 생각한거라든지. 오히려 질문이 너무커서 어렵지? 그래서 아무대답이나 해도 되요.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한명이 터트려주면(이야기해주면) 동의한다.든가. **부터할까?

청: 그냥뇨.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학교 오면 되면서 취업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원래 이게 아니었고. 사람마다 하고 싶은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적성에 안 맞듯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하는 게 없고 하고 싶어도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게 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금방포기하게 되는것 같아요

상: 어떤 걸 못하는데 건데?.

청: 학교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력서를 내든 취직을 하든 학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거고 그러니까 하고싶은 데 그런 것 때문에 겁나고 그래서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던 것도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다시하고 싶은것은 되게 커요. 아직하고 싶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면서 강하게 만든다고 하나?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상: 멋지다.

청: 저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요 중학교 때까지 제일 좋은.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지역이거든요 서울처럼 뽕뽕이가 아니니까 아이들끼리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갔어요. 저는 좀 힘들게 갔거든요. 저희부터가 내신등급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도 있었어요. 마음을 잡고 공부하려고 자퇴를 했는데 인제 내가 자퇴했다는 생

각 때문에 나가면 낮 시간에 학생이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볼 것이고 주위친구들도 자퇴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나쁜 시선으로 보고.. 어디 가서 들어보면 자퇴를 하면 무조건 평균적으로 학교에 적응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도 적응을 못한다. 그런 편견이 많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상: **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넷 찾아서 알기 전까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청: 친한 친구가 먼저 들어왔고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알았거든요. 전 나중에 들어왔고. 학교를 안다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여기 학교안다니는 애들도 들어와 기술을 배워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기술배우라고 그래서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어요.

상: 전공 같은 것은 어떻게?

청: 그나마 여기 있는 과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것. 여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컴퓨터 응용과랑 전자카드, 전자과 있는데 전자과가 들어오기 쉽다고 해서요.

상: 다음엔 누구?

청: 시켜요.

청: 저는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1년 동안 쉬었는데 쉬다가 인터넷으로 알게되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볼 때도 학교를 그만 뒀다는거에 대해 편애(편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 원래 학교 그만 둔 사람들이 오라고 만든 것 아닌가?

청: 왜냐면 여기는 어른들이 많고 제일 여기서 어리고 그래서 좀.

청: 그래서 좀 그런 점도 힘들고.

상: 여기 자체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그러시는구나. 일년 동안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청: 앞으로 뭘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청: 중학교때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요 친구들 엄마가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시면 자퇴했다고 그러면 색안경을 끼시고 뭐 이런 애하고 노냐고 그러셔서 친구 집에 가기가 꺼려져요.

상: 그럼 친구들은 지금 만나?

청: 밖에서 만나요.

상: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 친구들은 집안사정 때문에 관둔걸 아니까요 이해해주고 그러는데, 친구 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청: 옛날부터요. 행동은 안하면서 배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한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의 공부는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여기서 실습하려고 왔어요.

상: 학교 그만 두자마자 곧장 온 거니?

청: 아니요. 여기는 7개월 정도 지나고 알았거든요.

상: 인터넷 찾아서?

청: 네.

청: 인터넷이 좋긴 좋구나 나도 여기를 안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

사실 청소년들에게 너무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것 같아.

상: 그럼 7개월 동안 힘든 점 이었다.든가 느낌은?

청: 할일이 없으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곳 없이 백수로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구요 그래서 검정고시학원을 갔어요. 그다음엔 수능학원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싫어서 여기 왔어요.

상: 일하는게 더 좋은가보다

청: 네

상: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나의 우상은 앙드레김이었어. 앙드레김은 사실 중학교 중퇴거든.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이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앙드레김은 중학교만 나와서도 옷도 잘만드는데 나는 왜 이 힘든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았거든 비슷한 고민했던거 같아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그만 두고 그냥 공부했지.

상: 옛날 힘든것 이야기해도 되고 지금 힘든 것 이야기해도 되고.

청: 제가 학교를 컴퓨터쪽이 적성에 맞아서 컴퓨터쪽 하는 학교를 갔었는데요 학교에서 혜택은 많은 반면에 어려웠어요. 집은 시골인데 학교가 떨어져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부서활동하면 집에 한 밤12시 도착해서 씻고 새벽2시, 3시에 자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자고 그러면서 한달 정도 지나니까 원래 질병이 있었는데 생활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죠. 여기 학교도 2학기 때는 밤12시까지 수업하거든요..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은 간판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무이긴 하지만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 다들 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난 지금 안다니고 있으니까 의무감을 저버렸다는 것에서.. 몸이 안 좋았던 싸웠던 어쨌든 간에 학교를 안다니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학업이나 그런 것에 편견이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자퇴를 했다고 하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편견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그래서 주변의 친인척 가족까지도 좀 약간 엄청 좀 그러니까 우울했구요. 일단은 자퇴를 하고 나서 의무감을 저버렸다는 마음과 좀 그런 심난한 마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편견 때문에 생기는 자퇴자들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 그리고 학생 나이 때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전에 학교 몇 년 지난 애들이나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이나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2,3학년 되면 학업 때문에 바빠지니까 말걸기도 뭐하고 난 자퇴했으니까 자주 쉽게 만나기도 힘들고, 친구들이 다. 이해해주고 하지만 자퇴를 한건 한거니까 신경쓰지 않고 만나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요. 학교생활 하다.보면 학년이 넘어갈수록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는데 자퇴를 하니까 이래저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사회적으로 편견이라든가 자기가 자퇴를 했다는 이유로 활기치게 여러 가지로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점점 혼자있게 되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몇 년씩 있으니까 친구들과도 잘만나지 못하고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 상: 여기 과정이 1년이니? 일년 끝나면 취업을 할 수 있니?
- 청: 네. 조기취업이라고 해서 일 취업나갈 수 있는게 있어요. 일자리가 들어오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보내주죠.
- 청: 학교안다니는 저희 경우는 여기서는 일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경우를 마치지 않아도 조기취업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 상: 도립이나 시립이나 시설이 좋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것 같던데,, 선생님들도 많으신거 같고 지원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 청: 네. 시설이 좀 좋고요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 상: 시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야기 들으니까 다. 이해가 간다..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와서도 적응하고 하는것보니까 쉽지는 않았을텐데 잘 해내고 있는 것같아.
- 상: 내생각이지만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참 어른스러운것 같아 말도 잘하고. 면접준비법 등도 가르쳐주나?
- 청: 하하하
- 상: 힘든점 생각안나면 이런점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것도 이야기해줘도 될것 같아.
- 이런점에서 힘들었는데 이런것들이 이렇게 바뀌면 좋을것같다.. 생각하는것은?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해서 이런이런점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걸 쓸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고 정책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점들이 힘들고 이렇게 고쳐졌으면 청소년들이 더 잘할수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것들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말한것들이 도움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것들이 우리가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것이지
- 청: 저는요 이런 시설이요 거의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것이 전체로 따져도 여자가 15명밖에 없거든요. 요즘 학교를 안다니는 여자애들이 대개 많잖아요. 여자애들이 이런 학교를 다닐수 있는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된 직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것도 아니고요.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나왔는데 뚜렷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시설처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상: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직업학교 같은 곳?
- 청: 네.
- 상: 미용이나 디자인 같은것?
- 청: 네.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없어요.
- 음성에 이런학교가 있어요. 실내디자인 이런거. 거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부족해요. 거의 남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은거 같아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또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게요. 일단 학교그만두면 편견이 심하잖아요. 자기가 좀 어긋난 짓을 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그런시선을 더 받잖아요. 낮에 돌아다녀도 막 그런 시선을 받고. 특히 남자는 이해할 수 있다는게 있는데 여자는 그런게 별로 없는것 같아요.
- 상: 우리나라는 좀 여자한테 더 엄격하지.

청: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힘든것 같아요.

청: 그리고 자퇴를 하면요. 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관리해 주잖아요. 학교에 체계가 있어서 나온사람도 있지만 학교교육 때문에 나온게 아닌 사람도 많다고요. 공부는 계속하고 싶은데 그런것도 있고 내신 때문에 자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학교는 학생을 관리를 해주지만 자퇴를 하면 손을 떠나니까, 학교에서는 엇나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퇴생들은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자퇴생들을 좀 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상: 자퇴를 하더라도 그냥 노는 학생들 그리 많지 않을것 같고 대안학교나 직업전문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곳에서는 공부만 가르치고 생활지도는 등은 안하나보네?

청: 그렇긴 하지만 그런곳은 학교보다 돈을 더 내야하는것도 있고요.

청: 집안 경제사정 때문에 그만둔 경우도 있는데 그런걸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좋은것 같아요.

상: 여기 한달에 용돈도 좀 준다고 하던데.

청: 여기서는 한달에 기계과는 2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요,, 과마다 좀 틀려요.

상: 왜 다르지?

청: 좀 더 위험해서 그런것 같아요.

상: 또 돌아갈까?

청: 하하하

상: 자퇴할 때 자퇴서를 내잖아? 혼자 낸거야? 아니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때 힘들지는 않았어?

청: 저는 아버지가 입학포기서를 내버리셨어요.

상: 아버지가 먼저? 공부하고 싶었겠네?

청: 네.

상: 사람이 가는길이 많은데 정해진길로만 가는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 것같아.

청: 네. 청소년이 낮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상: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일할수 있지 않아?

청: 미성년자라서 거의 안써줘요

청: 할수 있어도 성인들 백수들이 많아서요 안써줘요

청: 배달도 하는데 그건 솔직히 면허도 있어야 하고 면허 없으면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나쁜것밖에 할게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이 다 나쁜길로 간다고 욕만하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할수있는게 별로 없잖아요

청: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청: 제대로 하고 싶은일이 있어도 적성에 안맞아서 나올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저는 원래 중학교3학년때 학교를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는 정말 나와야 될 것같아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중학교는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복학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1입학 했는데 고등학교는 각각 다른곳으로 가잖아요. 입학했는데 다.

들 나보다 어리고 그런것 때문에도 적성에 안맞고, 친구들도 없어서 외롭고 후배랑 같이 다닌다고 재미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것 같고 시간만 낭비하는것 같아서 혼자 어떻게 되든간에 검정고시를 보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처음에 그만 둘 때는 엄마 반대가 많이 하시고 많이 말리셨는데 그냥 제 의지가 강해서 그만뒀어요. 특히 나쁜일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막 욕을 먹잖아요,, 주위사람들이 안좋게 보고 재는 어떤 어떤 애다. 이라고. 그러나 솔직히 그런건다. 필요없었어요 우리한테 해주는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줄 아는것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는것 밖에 없으면서.솔직히 관심도 안갔어요. 어떻게 해줄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요. 너네는 그렇게 말하고 해도 나는 내가 하고싶은거 할꺼다. 그랬어요. 많이 빼뚫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또 이걸 나를 위한 일인데 내가 이러면 안될꺼 같고 정신차리자고 생각하고 뭐라도 해야할것 같아서, 솔직히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아서 내가 빼뚫어진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인해 제가 더 발전하고 그런점도 있었던것 같긴해요. 다른 여자애들중에는 하는 일 없이 노는애들이 많거든요 그런애들보면 안쓰러워요. 그리고 특별한 도움주는 것도 없으면서 막말하고 그런것.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놀려고만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목적이 생겨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이룰려고 하는건데 일자리가 너무 없고 또 너무 소외당하는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면 혼자 사회에 나가게 되는것이고 남들보다 사회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남들의 그런시선들 때문에 성숙해 지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했는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성인이라 언니 주민등록증으로 했어요.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어느단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서 자기가 개척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상: 고민을 정말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그런것 같아.

상: 난 단순하게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인줄 알았어. 어려 보이고 그래서.

청: 주유소에서는 잘 안써줘요

상: 주유소에서 쓰긴하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돈을 잘 안준다.던데?

청: 돈을 밀려서 주고요. 또 청소년중에 나쁜애들도 있긴한데 이러한 몇 명의 애들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요.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끈기 없잖아요 적응을 못한거니까. 일하는것에 있어서 끈기가 없다고들 그렇게만 하잖아요 겉보기에. 넌 대개 뻔질거리게 생겼고 뭐 그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잘할수 있다고 그런애들도 많은데 그쪽에서는 겉모습만보고. 겉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써주고 나쁘게 보고 그런게 많은것 같아요.

상: 우리나라가 취업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쓰고 그런것이 좀 있는것 같아

청: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서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처럼 성인으로 진짜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것은 우리가 못한다고요,,

상: 그럼 취업은 어디로 하는거야?

청: 취업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위탁생까지는 취업이 가능한데.

- 청: 저희는 전자과인데 남자는 할수있는게 많은데 A/S기사나. 여자가 전자과 나와서 할수있는것은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생산직 막말로 공순이, 아르바이트. 눈으로 단순 노동하는거 회사들어가봤자 그런거 밖에 없어요. 전자가 나와서 할 수 있는게 그런것밖에 없는것 같아요.
- 청: 어른들이 저희가 학교를 자퇴했지 때문에 학생으로 안보고 다. 어른, 일반사람, 성인으로 보세요. 일반사람들로 보고 그런 사람으로 보면서도 저희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른들이랑 같은 것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뭔가 배우려면 같은 돈을 내야하고. 왜 일하는 것은 제어를 하면서 배우거나 그럴 때는 같은 돈내고 해야 하는지. 지원도 안해주는건데
- 청: 저희를 더 감싸줘야 하는거 같아요. 월급줄땜 조금주고. 그냥 사소한 걸로 따지자면요. 저희는 그냥 학생으로 안보잖아요. 다른 대우 같은건 다. 똑같이 하면서. 다른 힘든거나 그런건 다. 똑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거에 대해서는 자체가 심하고 도움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게 많잖아요. 그런게 심한 것 같아요.
- 청: 예를 들어 버스를 탈 때도 어른요금 그냥 알아서 내요. 저는 그냥 어른요금을 내고 말아요.
- 상: 동사무소에서 청소년증 발급해주고 그런 것 있던데?
- 청: 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게 정말 싫어요. 왜냐면요 학생이 학생이라고 하는것 맞는데, 저는 어른이 아니니까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것도 맞는데 학생은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말하기가 모호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안다니는걸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버스기사 아저씨랑 말다.툼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요금 내고 마는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겉모습이 일단 그런 판단이 심하기 때문에 저까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맞추는 거죠
- 청: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크게 공부하는데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는데 자퇴를 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모님이 해주긴 해주셔도 학교때보다 돈이 많이 들죠. 생각해보면 서울 같은경우는 뽕뽕이인데 경기도는 다. 비평준화이다. 보니까 그게 내신등급제로 따지면 내신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그렇다고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꼴통학교로 가면 내신은 잘 딸 수 있을지 몰라도 분위기에 휩싸여서 거기서 공부를 잘 못하죠 스스로 강하게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힘들죠. 비평준화지역인게 너무 안좋은것 같아요.
- 상: 그러면 다.들 버스타갈 때 성인요금내고 타?
- 청: 저는 중학교때 샀던 교통카드 계속써요.
- 상: ‘학생입니다.’. 그러잖아??
- 청: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가는 시간에 타면 아저씨들이 한번씩 쳐다보고 막 그래요. 낮시간 같은 경우 학교를 다. 갈 시간인데 학생이 그걸 찍었다는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 청: 그게 너무 싫어요.

청: ‘학생입니다.’에서 바뀌어서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학교갈 시간에 ‘청소년입니다.’ 이런 소리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청소년입니다.’ 라는 소리가 저도 그렇지만 제가 버스에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이 버스카드 찍었을 때 ‘청소년입니다.’ 라고 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같은 그런거니까 한번 쳐다보고 말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학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저한테 맞는 정말 공부는 취미가 없는것같으니가 공부해서 대학가서 너가 하고 싶은것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제 적성을 더 빨리 찾고 싶고 하고 싶은데 너무 뚜렷하고 공부는 정말 시간낭비다. 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나쁘게 생각 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거는 처음부터 학교 그만둘 때 시선이나 그런건 다.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때는 가족들 모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칠순잔치 그런거 갈 때 . 그런건 낮에 12시나 그쯤하는데 그런곳에 못가요. 학교를 안다니는걸 친척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엄마아빠 다. 가실 때 그때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못뵈는 것이 서운해요 엄마한테. 말을 안해주니까..

청: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자신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로 상담도되고 어떻게 할지 지표도 잡고. 자퇴생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퇴생을 관리해주는 학교는 없잖아요 상담도 못하죠. 그러면 친구를 만나면 친구는 제 입장을 말한다고 해도 쉽게 이해를 못하죠 그것도 약간 힘든것같아요 자기만 혼자라는것이. 저같은 경우는 자퇴생모임 사이트가입을 했었어요.

상: 나는 학교알아보기 전에 친구들을 그런곳에서 만나면 좋지않을까했었어.

청: 인터넷에 자퇴생 모임 이렇게 치면 나와요.

상: 혹시 해밀센터라고 알아? 모르지?

청: 아뇨.(고개저음)

상: 혹시 청소년위원회는 알지?

청: 아뇨(고개저음)

상: 들어본거같긴해요

상: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잘몰라.

청: 쉽터 그런거요?

상: 응 그런것도 포함되고// 문화관광부랑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이라고 청소년들만을 상담해주는 곳을 운영을 하거든.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상담원이 함께 해밀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경기광주부산제주 다섯곳에 센터가 있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상담하는곳이거든. 일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안학교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독학하는경우의 아이들, 부모님이 자퇴시켜서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서 받는 아이들(홈스쿨링)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인터넷으로 쳐보면 나오거든. 한번 들어가봐. 전화나 인터넷통해서 상담해주더라고. 또 거기에서 하는 캠프나 프로그램등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곳에 상담을 하는 친구들은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캠프에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야기도 해주고 하더라고.

-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게 문제인거 같아.
- 상: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들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센터가 있어.
- 청: 잘 몰랐어요.
- 상: 그랬구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봐. 아무이야기나 해도돼. 그냥 머릿속에 있는걸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 청: 역시 학교그만두고 힘든점은 그중에서 가장 공감이 될지안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힘든것은 편견 인거 같아요.
- 상: 사회? 가족? 어떤것?
- 청: 다.요.진짜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어느곳에서도 빠질수 없는거예요 어딜가 던지 빠지질 않아요.
- 청: 아무래도 사람들 인식같은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작스럽지만 제가 옆에있는 사람한테 욕을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욕을 알아듣고 기분나빠하고 욕을 했다는것, 욕이라는것은 기분나쁜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것처럼 자퇴라는 것도 인식 같은것이 박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하게 사정이나 경황같은것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 청: 들을려고도 하지 않아요.
- 상: 어렵게 살아서 자퇴를 한다.거나, 저처럼 몸이 안좋아서 그만든 경우도 있고. 다른 상황 등으로 자퇴를 하게되면. 사람들이 자세한 경황은 듣지 못하고 그냥 자퇴를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재가 사고를 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거아닌가.
- 청: 거의가 다. 그렇지요
- 청: 다. 그런식으로 밖에 인식을 할수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이해를 해주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전체에 빼곡히 박혀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었어도 집에만 있을 순 없으니까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편견 때문에 오히려 더 안좋게 되는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 청: 부정적인 인식.
- 청: 나름 제 입장에서는 자퇴를 하면 학교를 그만둔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 면접볼 때 같은경우에는 자퇴이유를 세세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 청: 그냥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여부만 알죠
- 청: 제 생각에는 학교를 자퇴를 한다는 걸 자퇴라는 말을 없애고요 다른 과정에서 어느정도 수료를 하면 졸업을 했다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을것같아요.
- 청: 어느정도 과정을 거치면요.,
- 청: 학교라는 곳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학교처럼 다른 과정을.기술이라 그런것처럼. 기술학교도 많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여러방향으로 나갈수 있게끔 많은곳을 만들어주었으면.자신의 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그러한 과정을 졸업으로 인정해주면 좋을것아요. 자퇴로 하지 말고.
- 청: 하는사람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게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공부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게 좀 심하잖아요. 이런 기술이나 그런것도 공부다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그런거에

저희도 박혀있다.보니까 그게 아니면 안될꺼 같고 꼭 이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쉽게 자기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거예요 그런게 정말 힘든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학교공부에만 너무 그런것 같아요 꼭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는 그걸 하나로 놔두고 자기들(성인들)위주로 하는것 같아요. 틀 하나를 만들어놓고 청소년을 생각한다. 하는것 같으면서도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게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것이 큰것 같아요.

상: 편하게 다. 몰아놓고 그냥 다. 관리하게 편하게?

청: 네.복잡한거 싫으니까

청: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것같아요.

상: 요즘에 어른들도 그런이야기 하는데, 독일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4학년때 공부를 할지 기술을 배울지 결정하게 한데.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공부를 고3까지 시키잖아. 요즘에 어른들도 우리도 그런쪽으로 나가야하지않나 그런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 독일같은경우 기술장인들이 부와명예와 사회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청: 근데 솔직히 기술배운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건 맞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일단 대학을 나와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랑 그냥 배우는 사람이랑 솔직히 제가 기술을 배우는 욕구가 더 크고 하고 싶은게 더 크고 더 잘해도 일단 학교를 나온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학교나온사람보다 더 잘할수 있고 하고 싶은것이 더 큰데 왜 학교 나온사람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지 그런거 심해요. 미용고등학교도 안좋은 점이 갈수 있는 사람은 갈수 있는데 집이 엄청 멀거나, 경쟁률이 세거나, 가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미용고등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재료비나 그런것이 많이드니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해도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곳을 갈려고 하지라고 말하지 상황을 물어보지는 안거든요. 너무 신경도 안써주면서 겉으로는 신경써주는척 그런거 같아요.

상: 그렇구나.**는 할말이 은근히 많을꺼 같아

청: 저는 농촌에 가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귀농카페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호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농사지를 생각도 해봤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곳하고 연결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농촌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면연결을 잘 시켜줬으면 해요.

상: 다양한 분야를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지?

청: 여러가지를 하고 싶은데 생소한 일들이 많잖아요 일반인들이 하지않고 생각하지 못한것도 많고. 청소년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생각의 폭이 넓다고 해야하나 그래서 그중에 자기적성을 찾아 나서는데 이것저것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게 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일을 하고싶은사람도 있잖아요. 농촌에서 일하고 싶다는것 처럼요. 그렇다고 무작정 농촌을 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을 시켜주는가 여주농고 이런곳도 각각 상황이 있으니까 경쟁률도 매우 심해요 농고가 거의 없고 그래서요.

상: 여기처럼 기숙학교면 그나마 나을텐데 그것도 아니고,고등학교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청: 고등학교들어가서는 못바꾸고 자퇴해야죠.

청: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해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농고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일이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것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것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청: 여러 가지 방면으로요.

청: 일하고 싶다.. 그리고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내가 인력없는곳에가서 하고 싶다는거예요.

상: 근데 가면 다들 사실 힘들어서 다시 나오잖아. 농촌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고 있긴한데 농사일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정직한 일이긴해.

상: 주위에서는 그런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 같니?

청: 부모님이 봤을 때 길이 없으니까 . 있긴있는데요 못갔어요.

상: 인문계고등학교들어갔다가 농고로 가고싶을경우에 자퇴하고 다시 농고 시험 볼수 있니?

청: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학교다니던 중에 옮길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 자퇴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거야?

청: 네. 중3때 다. 결정이 되는거죠

청: 제가 해봤는데요.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다시 가고싶은 학교에 들어가는것도 안되요

청: 솔직히 어린나이에 뭘 알고 결정하겠어요. 엄마가 인문계 써라 그러니까 썼지만 뒤늦게 후회되는게 우리인데.

청: 그렇다고 그만큼 경험을 주지도 않고 결정하라는 거죠.

청: 부모님 잘못도 많은것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는거고요. 엄마는 저 잘되라고 하신거지만 일단은 적성에 너무 안맞고 이건아닌데 다른길로 갈수가 없는거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일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은 바탕이 되어야 하는것 같으니까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거고요. 검정고시 본다고 해서 대학갈 생각은 없어요.

상: 고등학교졸업하고 대학바로 가지 않다.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일 하고 늦게서든 넘어서도 대학가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엔 늦게 대학가서 하고싶은것 배우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아.

청: 저는 하고싶일쪽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해요. 이쪽일에서는 학력이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저한테 적성에도 잘 맞고 편견도 없는것같아서 잘 고른것 같아요.

상: 어떤일인지 물어봐도 되니?

청: 스타일리스트 쪽이에요. 메이크업,헤어 코디 3개가 합쳐진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청: 학교안다닌다고 만만하게 미용이라고 미용학원다니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것 보다는 진짜 하고 싶어서 다니는 애들이 많지않다고 들었어요. 학교안다니니까 뭐라도 해야할꺼같으니까 미용쪽을 하는경우가 많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것

이니까 검정고시는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상: 다른 친구들은?

청: 전 8월 3일날 검정고시 봐요.

상: 또 다른 친구들 할말은 없니?

청: 저는 자퇴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따로 돈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처럼 1년과정 이렇게 하면 끈기가 없는 아이들은 못하니까요 자기가 와서 하고 어디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음에 또 와서 다른것더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 혹시 공부방 같은곳도 알아봤니?

청: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바로 가세요 그곳은 한달에 2번가는대요 공부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라서요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래요.

상: 그것도 좋은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더 할말없니? 혹시 이런 이야기들 어디 다른 사람들이랑 해본적 있니? 상담이라든가.

청: 그런적은 없고요. 쉽게 접할수 있는게 아니라서 내가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서 가입을 하고 선생님이랑 통화를 한다.기보다는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일일이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집에 부모님 다. 계신데 상담한다고 전화하고 있기도 뭐하고요. 이런학교에서도요 1년이라는 기간동안 배우는데 좀 짧은것 같아요. 아는게 들은거에 반도 모르는거 같아요. 지금하는게 예전부터하던것이 아니고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그만큼 어렵고 색다른게 많거든요. 이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꼭 1년이 아니라도 내가 적성이 맞으니까 더 배워서 이길로 나갈수 있도록 많이 배우도록 기간이 더 길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 이곳은 1년동안은 다. 무료니?

청: 네 돈을 받아요 한달에 수당을요.

상: 이곳에 어떻게 들어오니?

청: 지원해서 면접보고 들어와요. 저도 처음엔 용접과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전기과 다시 지원해서 들어왔어요. 여기들어오는것도 쉬운데 아닌거같아요.

상: 그렇구나.

벌써 1시간이 지났네. 한시간동안 이야기하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께요.고마워요.

구분	내용
유형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2
장소	직업전문학교(D직업전문학교)
소재지	서울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0:30-12: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주제가 하나거든. 주제는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힘든점이야.

너희들이 어떤점이 힘들다. 이런건 좀 바뀌어야겠다.. 그런거 이야기해주면 되거든. 너희가 처한 상황에서 뭐든지 좋아. 학교에 관한것도 좋고, 가족과 관련된것, 친구와 관련된것, 아니면 그냥 생활하면서, 주말에 자유시간가지면서 힘든것도 좋고 그냥 다. 이야기해봐. 정규학교 그만두고 여기 학교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청: 저는요 아버지가 여기 공사하는데 건물짓는데 공사장 아저씨를 아시는데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대부분 찾아서 온 사람 보다는요 주위에 소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내자식 잘되기를 바라시고. 애들은 별로 신경안쓰죠. 내가 어디가면 가는거고.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잘되라고 이리저리 뛰다가 알게되시는거고. 그래서 오게되죠.

상: 아. 부모님이 가라고. 거기 좋다.더라해서 오게되는구나.

청: 참 근데 부모님의 이상한 점이 그거예요. 주위분들말은 잘 들으시면서 제 말은 안들으시죠.어쩔수 없이 오는거예요.

상: 그럼 자의로 온게 아니야 그럼??

청: 자의로 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꺼 같으세요?

청: 전 사기로 왔어요.

상: 사기?

청: 저는 중학교 중퇴를 했는데. 여기오면 중학교 졸업장 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졸업장이야기도 없어요. 여기 오면 바로 취직해야 한다고 그러고.

상: 아. 그럼 검정고시 준비 같이안해??

청: 하긴하죠. 근데 여기는 공부쪽보다는 기술쪽 가르쳐주는거라고해서 왔는데 실습은 4시간만하고.

청: 나중에 가다.보면 오후내내 하는거 있어. 실습으로 시험볼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오후내내내 하죠.그때가 제일 짝세죠.

상: 여기와서는 다른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거 같은데. 운동같은건 해?

청: 바로 뒤에 초등학교에서 해요.

청: CA시간에 나가요.

청: 그나마 그때 나가니까 좋아요. CA시간에 노래방도가고 피시방도 가고.선생님들 하고요.

상: 그러면 여기 오기전에는 힘들었던건 없어?

청: 솔직히 일을 해봤자 저희 나이엔 주유소나 짬뽕배달이나. 그런건만 하니까 솔직히 힘들잖아요. 몇 달안하고 그만두고. 그 돈으로 마음대로 쓰고. 여기와서 선생님 말씀듣고 직장에 대해 이야기듣고 그러니까 낫더라구요.

청: 끈기가 없어죠.

청: 개념이 없다가 개념이 생긴거예요.

상: 아.그렇구나.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한거야??

청: 네

상: 아.

청: 여기서 자기만에는 철이들어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거 같아요.

청: 여기서는 아침밥은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

청: 원래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아침밥이고 뭐고 없이 배고플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청: 아침밥이 저녁밥이고.여기서는 그러질 못하니까.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준다는 그런생각이 들긴들어요.

상: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오기전에는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그만둔거야 아니면 아. 이진 아니다. 학교 그만둬야겠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만둔거야?

청: 저는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아버지가 그랬어요. 공부도 안하는 놈이 고등학교 가도 할게 없다고. 솔직히 학교다니고 싶잖아요. 친구들도 다 다니는데 나만 학교안다니고 보기에다 그럴꺼 같고.(정규)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여기 억지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와서 생각해보니까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상: 그럼 검정고시 같은거 준비하고 그래?

청: 아뇨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녀요.

상: 아.

상: 그리고 또 학교 그만두는 과정에서 힘들었던점 이야기좀 해줘봐. 사실 여기학교에서 지금 묶여있긴 하지만 . 옛날에 사실 고민거리가 더 많았던 시절도 있잖아. 그때 힘들었던 점을 생각해봐~

청: 그때 잠생각했죠.

상: 그러면 부모님과과의 관계나 그런거에서

청: 중학교 다닐때는 생각이 없었어요.

청: 아침에 학교가기 싫었어요.

상: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긴하지 아침에 학교가는거는.

청: 근데 학교를 그만뒀다는거 자체가 이미지가 안좋잖아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더 빼뿔어져요. 근데 그런거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상: 근데 요즘 대안학교같은 곳들 좀 멋진곳들 많이 나오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청: 거긴 저희보다는 3살 4살 많은 형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더 빼뿔어져나올 뿐이예요.거기는 형들한테 맞고 그러니까.

상: 때려??

청: 네. 차라리 여기오는게 훨씬 나아요.

청: 애들 세상을 몰라요.

상: 진짜?

청: 진짜 몰라요. 너희들 맘 다이해한다. 그러는데요 알긴 개뿔이 알아요.

청: 엄청 좋은줄 아는데요. 가보면요, 진짜 뻥세요. 군대보다 뻥세요. 힐끗보면 찌려 본다고 그러고.

청: 거긴 가기싫어서 안가는 것 뿐만아니라요.

상: 그럼 거기서 때리는거야?

청: 네.

청: 아침에 가서 얼굴보이고 땡땡이 까다가 끝나는 시간에 얼굴 한번 보이면 출석 체크 해줘요 선생님들이.

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건 없어요. 같이 사니까. 서열 같은것도 없고. 때리는 것도 없고. 여기 1년 동안 같이 살 거 잘 지내죠.

상: 여기 기간이 1년이야?

청: 네.

상: 더 있고 싶어도 못있는거야?

청: 네. 근데 그게 있다가 바로 옆 건물 자립관으로 갈수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힘들 거나. 아니면 여기서 편하게 돈을 모으고 싶다.거나 그럴 때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다른 기숙사가 필요없이 여기 있죠.

상: 돈은 안받아?

청: 돈 받죠.

청: 7만원인데 2명에서 쓸수 있으니까. 방은 좀 작은데요 침대2개 책상1나 있고.내 년정도면 더 좋아지죠. 새로 건물지으니까.

상: 그럼 다시 주제쪽으로 환기하면 .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니? 여기 친구들 말고 그전 옛날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때?

청: 연락이 많이 끊겼어요. 여기 친구들 외에 친구들이 없어요.

청: 정말 친구관계가요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힘든점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솔직히 저희 나이때는 다. 학교다니잖아요. 저는 중학교이후 그만두고.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다니고요.

딱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할 수 있나. 당장 용돈벌이는 할수있거든요 피자배달이나 그런거 할 수는 있는데. 그런건 정규직업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학교도 그만뒀고. 짱개배달도 재미없거든요. 뭘 할수 있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던거 같아요.

상: 다른 친구들은 그런것과 관련해서 힘든점은 없었어?

청: 많죠. 학교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학교 다닐때는 그만두고 나면 얼마나 편할까 그랬는데. 학교그만두고 난 뒤로는 더 힘든것 같아요. 자유시간도 많고 잠자는 시간도 많고 그렇긴한데. 학교를 그만두고는요 더 자고 싶은데 집에서 눈치보이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는 빙 돌아다니다. 들어가고 그런게 진짜 더 힘들었던거 같아요.

청: 시간 매우느라고 눈치보이니까.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나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것도 힘들고 용돈도 못받으니까 할 것도 없고.

상: 일해보본적은 있어?

청: 일 안해봤어요.

청: 저같은 경우는요 제 친구들은요, 초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왔거든요.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오래 같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는 싶은데 애들은 수업을 가잖아요.집에서는 학교가라고 하고,학교는 가기싫어요. 그래도 졸업장은 따야하잖아요. 얼굴만 비치면 출석체크 돼요. 그래서 학교 안갔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친구집으로 갔어요. 부모님 나가시면 친구집에가서 자다가 배고프면 학교가서 밥먹고 그런식으로 매일같이 살맞대고 있던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여기 오니까요. 살맛이 안났어요.여기서 뭐하고 있는건지.처음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여기 왜 보내서 내가 이려고 있나.그러다가 여기있는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이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애네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면서 그 친구들이랑 연락이 끊어져요 여기 있다가.. 가장 바라는 점이 뭐냐원요.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상: 친구들한테 연락오거나 그러면 받을수 없어?

청: 그게 허락이 안되요.

청: 이메일확인도 안되고 전화도 못쓰고, 공중 전화밖에 없어요.그것도 동전으로 쓰는데.

상: 그럼 예전친구들하고 거의 연락을 못하겠다..

청: 전 이제 20살이잖아요. 지금쯤 딴 친구들은 대학가고 그렇거든요. 가끔 만나면요. 그냥 앉아서 술만먹고, 할말이 없어요. 처음 여기 들어와서는 한달동안 잠을 못잤어요.내가 여기서 뭐하는건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해해야죠.

상: 결론은 이해해야해. 그거네. 그럼 학교를 그만둘 당시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본인이 가기싫어서 그만둔건지?. 그때 힘들었던 점은 어떤것들이 있어?

청: 저는요 학교 가기싫으면 안갔다가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 한 3일동안은 아침 7시까지 가서 친구들하고 잘지내고, 그랬는데 3일이 지나니까 선생님이 자퇴서를 그냥 집으로 보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써서 냈다고 하더라구요.

청: 그냥 이유도 없이.

청: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냥 이유도 없이 자퇴를 당한거예요.

청: 요즘 학교들이 그래요. 이 학생을 좀 가르치기 힘들다.. 그러면 집으로 보내요.

상: 자퇴서를?

청: 네.

청: 말잘듣는 애들만 있으면 저도 선생님해요.

청: 말 잘안듣는애 있으면 그애를 나가게끔 몰아요.

청: 그런걸 가르쳐야 선생님인데 그냥 포기하는거예요.

청: 포기하고요. 애는 그냥 제치고,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애는 자퇴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학교 가면 왜왔냐고 그러고.

청: 저는 자퇴된건지도 몰랐어요.학교가니까 왜왔냐고.

청: 정규학교다니면요 그런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라서 제자를 가르치는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다. . 자기 일을 하는것 뿐이라고.

청: 어떤 선생님들은 직접 교실에 들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안들어도 그

만이야. 나는 설명만하는되고. 내일을 하는것 뿐이라고.

청: 그래도 월급은 다.달이 나온다고 그러고..

청: 그래서 그렇게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만두고는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너무 싫기도 하고 아버지도 그만두라고 그러시고.

청: 솔직히 저 주제 맘에 안들어요.

상: 그래? 왜?

청: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좋은점이 더 많아요.

청: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점 그렇게 더 많은거 같아요.

청: 학교를 그만두잖아요. 솔직히 학교 공부가 싫은애들을 학교에 있게 해서 뭐해요. 차라리 그애의 능력을 키워주는게 좋다고 생각해요.굳이 다니기 싫은학교 억지로 보내가지고 안나닌다고 그러면 기분속상하고 그런거 보다 지들 하고 싶은거 찾아서 보내는게 좋은거 같아요.

상: 그럼. 아까는 학교 그만두기전에 학교에서 힘들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럼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어땠어?

청: 처음에 일주일정도는 정말 좋아요.근데 한 2주넘어가면 질려요.

청: 친구가 없잖아요.

청: 학교도 많이 놀러가고 그러죠.

상: 그래? 학교 가본적 있어? 그만두고 원래 다니던 학교?

청: 저는 친구들 기다.릴 때. 한번 가봤어요. 학교 운동장에 딱 갔는데 경비랑 선생님님이 내쫓았어요.

상: 아 그래.

청: 집에서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는 꼭 그앞(학교)으로 지나오는데 선생님들 있으면 민망해요.

상: 친구들 교복입어? 너희도 교복입어? 여기는 교복안입지?

청: 네. 교복 입는건 지금은 부럽긴 부러워요.

청: 한번은 부러워가지고 집에서 교복을 입고 나갔는데 애들이 방학이에요 하하

상: 어떻게 그 시기를 못맞추냐?

청: 학교를 안다니다.보니까.

청: 하하

상: 난감한 시츄에이션이네.

청: 학교를 그만두면 친구관계 힘들다고 했잖아요. 학교 그만두고 친구들 만나면요.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몇 개월있다가 만났는데.좀 그런거 있죠. 자기들끼리만 잘놀고. 지들은 학교 이야기 하는데 저는 뭐 할이야기도 없고. 학교도 안다닌데. 학교에 누가 이쁘다. 그러는데 네가 뭘 알아.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상: 남자들 모이면 그런이야기 하는구나.

청: 하하

상: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안 맞다는거지?

청: 그렇죠.

청: 그리고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니깐요. 학교다니는거 말고 할것이 뭐

있나. 할것이 없었던거 같아요.

청: 그런거 혹시 이야기하고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

청: 없죠. 보통 다. 학교만 다니잖아요. 제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면 진짜 할게 없는 것 같아요.내가 뭘해야하나 그런 생각만하고.부모님은 그냥 니 할대로 해라 포기했다.. 그런식으로 나오고.

청: 그럼 진짜 막막해요.진짜 할게 없어요.

상: 그때 일하는거 이런거 혹시 해보려고 한적있어?

청: 일을 해본적도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해봤자 잠깐이잖아요. 제가 고졸도 아닌데 일을 해봤자 무슨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었어요.

상: 주로 어떤일을 해?

청: 주유소가 만만하죠.

청: 주유소. 피자배달.

청: 짬깨 배달도 있고.

상: 짬깨배달은 면허증 있어야 하는거 아냐?

청: 없어도 되요.없어도 다.해요.

청: 대신 면허증 있는 애는 4000원받으면 없는 애는 3500원받고 그러죠..

청: 그거 거의 사장이 걸리면 몇십만원 벌금물잖아요.

청: 근데 면허증 있는사람보다 없는사람이 더 배달 잘해요.

상: 왜?

청: 오토바이 야매로 배운사람들이 더 잘하죠.하하. 운전면허 없어도 어렸을 때부터 몰아봤던거라 하는게 타는게 익숙한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면허증만 딴거고 솔직히.

청: 면허증을 안따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게요. 그 돈 있으면 그거가지고 놀죠.

청: 운전 면허같은 경우예요 학원등록하는데 50만원 넘게 들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경우 대부분은 그냥 운전할 줄 알거든요.

청: 야매가 짬이예요.

청: 하하

청: 저는 오토바이 배우고요. 차에도 관심 많아서 몰래 끌고 다.녔거든요.부모님한테 안걸리기 위해서 새벽에 많이 끌고 나가거든요.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음주를 배워요.

청: 으하하.

청: 하하. 그러니까 지존이죠.

청: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끌고 다니는건 눈감고도 하죠.

청: 야매가 나쁜점은 당연히 많죠. 근데 실력으로 따지면 다르죠.

청: 실력은 야매로 한사람 못따라가죠.

청: 하하

상: 어떡하니.참.

청: 저희가 겁이 없는거죠. 그러다. 사고나면 못타죠.

상: 그럼 지금은 운전면허증있고?

청: 아뇨. 차도 대포차 몰았었어요.

상: 대포차? 그게 뭔데?

청: 세금 안나오는는 차요.

상: 정말 아이들의 세계를 도저히 알수가 없다. 이런거 처음들어봐.

청: 정말 어른들은 모른다니깐요.어른들이 우리들을 안다고 하는건 다. 구라예요.

청: 요즘은 부모님차 많이 끌고 다니죠.

상: 아. 그렇구나.

상: 너희들 실습하러 회사에 가고 그러지는 않아?

청: 네, 실기 실습 시험 볼 때 학교를 바꿔서 본다고는 하는데 회사에 가본적은 아직 없어요.

상: 다른 직접 기업에 가서 해보고 그런것은 없었니?

청: 네.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 계통으로 하고 계세요. 공장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제가 집에 놀러갔을 때 아버지 일이 바쁘시면 제가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따라 납품 다녀봐서 아는데요. 여기서 알려주는것 만큼 힘든 곳은 없어요.

청: 여기랑 직장이랑은 틀리데요. 일하는 자체가.

청: 여기서 직장이랑 똑같이 해준데요. 근데 직장가면 놀아요.

청: 좀 분위기 엄숙하잖아요.

청: 여기서는요. 내가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되잖아요. 직장에서는 똑같은 과제를 주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좋아서 한시간만에 끝내고 다른사람은 10시간 걸려서 해도 난 일이 끝나면 나가도 되잖아요.

상: 요즘엔 능력제니까.

청: 근데 여기는 그 시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상: 아.그럼 기업체 가서 어렵고 그런것도 없겠다..

청: 근데 솔직히 여기있는 사람들 중에 기업체 나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안될꺼 같은데.

청: 근데 직장을 다니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요.

청: 여기 기계들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많거든요.그래서 용어들이 막 일본식 그런게 많은데요. 여기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학교로 나라에서 하는곳이기 때문에 정식 지정 명칭을 쓰잖아요. 제가 아버지 공장에 가서 일해보면 아버지가 뭐 가지고 와라 그러면 못알아 들어요.

상: 아.

청: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다. 배운다고 생각해야 되요.

상: 아. 무슨말인지 알것같아.

상: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온 경우도 있고 주위분들이 알려주셔서 온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이곳에 보내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다.거나 그런 것 없었어?

청: 저요.집에서 거의 안 살았어요.솔직히 옷갈아입고 씻고 나가서 잘때되면,, 부모님들이 안자고 있으면 안들어와요. 부모님들이 잠이 들어야지만 들어와서 한숨 자고. 집에서는 깨우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달라고 해서 밥만먹고 다시 나가는거죠.

청: 저희 아빠는 학교 그만두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신나게 놀아라.그래서 그나마 편하게 지냈어요.

상: 하하. 그럼 부모님하고 트러블을 그다.지 없었나 보다.

청: 아. 근데 할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요. 아빠가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격이 너무 많아서. 약간좀 그런게 있어요.그런것 때문에 많이 집도 나갔는데. 한번 잡히면 안때려요. 봐줘요.

청: 맞는게 낫지 .삼촌한테 칼날라와.

상: 어? 삼촌? 그럼 친척들하고 힘들고 그런게 있었던거야?

청: 제가 처음 힘들었던게 삼촌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청: 거짓말 치기가 좀 힘들었어요.

상: 어떤 거짓말?

청: 학교 어디 다니니?. 친척들이 그러면요.

청: 아 맞아. 그런거 힘들어요.저 여기 다니는데. 방학은 언제니 그러면.자세히 모르니까 대략 7월 27일 그때쯤이에요.그러면 개학은 언제하고? 이렇게 묻고. 개학하면 뭐하고?? 이런거 물으시는데. 여기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청: 맞아. 그래서 짜증나요.학교 어디 다니냐하면 할말이 없다니깐요.

상: 그럼 이야기 안했어?

청: 피하기가 힘들어요. 피하기도 못하고.

청: 할머니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공부잘하고 있지?

청: 맞아 그러면 정말. 뭐라 그래// (여러명이 함께)

청: 네. 라 그러면 좀 미안하고.

청: 네.라 그래도 부모님들이 눈치가 더 있어요.

청: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짓말해라. 그래놓고선. 눈치 주잖아요.

청: 물어보는것도 학교 어디 다니냐? 이게 아니고 학교 잘 다니냐? 이러면 할말이 없다니까.

상: 여기 다닌다는 이야기는 안해?

청: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거고요. 여기 다닐때는 이곳 다닌다고 이야기하죠.

청: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의 의견을 받고 했는데. 친척분들이나 할머니경우는 일반학교 다니는게 훨씬 좋잖아요. 좋은것처럼 생각하잖아요.그래서 거짓말을 해라 그래요 일반학교 다닌다고.

청: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여기서 공작물 제 손으로 깎아서 가져다. 드리면 좋아해요.

상: 뿌듯해 하시겠다..이제는 적응이 되셨나보다.

청: 좋아하다? 난 셋덩이 뭐하러 가지고 왔냐 그러시던데.하하

청: 하하

청: 당연하지. 형네 아버지가 하시는거니까 맨날 보실꺼 아냐.하하

청: 우리엄마는 신기해해. 이런거 어떻게 깎냐고.

청: 이러건 기초니까 그냥 버리는거죠.

청: 저희는 깎아봐야 요만한게 큰거잖아요. 나가면 다. 이따만한거 깎고 있어요.저희는 도면 보면 A4용지에 딱 한 장나와요. 그거 보면서 깎는데.거기가면(공장)도면이 벽만하니깐요. 어떻게 봐야되는지도 모르고.

상: 작은거라도 먼저해야 큰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 여기서서는 작은거 하는데 나가서는 냉장고 문짝같은거 큰거 찍어내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던데. 도면도 볼 줄 몰라요.

청: 저희는 아직 무조건 각진거.나사같은거 밖에 아직은 몰라요.

상: 교과과정에 나온것만 하는구나.

청: 직업전문학교는 교재가 따로 있어? 다. 똑같이 쓰는 교재? 아니면 선생님들이 정해주시는거 하는거야?

청: 있어요. 기계기능사학과라는 책이랑요 여러 가지 있어요.

상: 그럼 교과서 같은게 있는거야?

청: 네.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 끼리 모여서서 책을 만드셨어요. 저희가 따로 편하게 배울수 있게요.그래도 별로 배우는거는요. 그냥 우리가 알아가는거 뿐이죠.

청: 진도가 빨라요.

청: 이렇게 그냥 배우는거보다는요. 한번 내려가서(실습실) 자동화기계라는게 있거든요. 그런거 한번 접해봐야하는데 맨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니까 쉬운거 같은데. 내려가서는 못해요.

청: 맨날 하는게 현장실습이죠.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기계를 만지는 것과 나가서 기계를 잡는것은 전혀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알려주려면 진짜 뽉세게 하더라도 그렇게 배워서 나가야 보람도 있고 금방 알아듣기 쉬울텐데 그런게 없는거 같아요.

청: 다른 직업학교는 기계조립과는 기계조립만 배우고 선반과는 선반만 배우고 그러거든요.그래도 여기는 다.배우죠..

청: 참. 근데 이런거 이야기해도되요? 주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힘든점인데??

상: 응. 주제도 돌아와주면 고맙지.

청: 하하

청: 별로 없는거 같아요. 다.들 공감하는거니까요. 몇가지 밖에 없는거 같아요.

상: 지금 그냥 생활하면서. 힘든점. 우리가 이것을 할려는 이유가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도 하고, 검정고시 하는 청소년들도하고, 혼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도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각자 힘든점이 조금씩 다.를거라고 생각하거든. 너희들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돈이야기가 좀 덜하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용돈이야기 많이 하거든. 아르바이트 많이하고 돈없다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나쁜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런 차이점을 알기위해서 여러 분야의 청소년들을 인터뷰 하는거거든.

청: 근데 돈이야기하면 참.. (웅성웅성).

청: 지금은 신부님이 가지고 계세요.1년후에 졸업할 때 그때 줘요.

상: 그러면 너희들이 받지는 않아?

청: 용돈을 살짝 받기는 하죠.

청: 네. 일주일에 한번씩 용돈 신청이 있어요.

청: 애들이 막 자유롭게 이야기해도요. 다. 단았어요. 마음을 별써..

청: 그러니까 한명이 말을하면 다른애들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래요.

청: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요 마음을 단았다고 보면 되요.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청: 일반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 인터뷰 하는거랑요. 저희들이랑 좀 틀리잖아요.

청: 가장 중요한것은요 이런거 보다요 이상한 골목같은곳에 가서 남성분들이 인터뷰하는게 더 나은것 같아요.

상: 어. 우리 그것도 해. 다른 남자선생님께서 담당하셔서 하고 있거든.어떻게 하나면.

청: 새벽에 나가야 해요.

상: 맞아. 동대문쪽에 배회하는 아이들 있지.그런애들.

청: 동대문애들은요 그냥 옷구경하러 오는 애들이죠.그냥.돌아다니는 애들이요.

청: 영등포쪽에 막 골목 로타리 같은곳 있어요. 그 골목에 들어가면요.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피고,, 완전 노숙자처럼 똑같이 하는데 어린애들이 많거든요.

상: 진짜?

청: 영등포엔 많아요.저도 한번가서 놀랬어요. 진짜.

상: 우리도 영등포는 생각못했는데.

청: 가장 많은 곳이 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단순한곳이 영등포, 여의도, 한강.

청: 한강있는쪽이랑 여의도 공원있는쪽. 거기앞에 맨날여자애들이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와요.그 여자애한테 놀자고 그러면 그게 계속되는거예요. 가본애가 또가고. 또가고. 맨날 술먹고 자고. 노는거예요.

청: 63빌딩앞쪽에 앞에 거기앞에 맨날 청소년들 모여있어요.

청: 부산같은 경우는 해운대 바닷가. 광안리에 많죠. 진짜 많아요.

청: 어른들이 생각하시는거 보다 사태가 심각해요 지금.저희는 맨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하죠.

청: 인터뷰하려면 여의도 같은데 가서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고.

청: 부모님 앞에서는 이야기하기 좀 힘들죠.

상: 사실 그 생각도 했어 학교에서 인터뷰하면 말하기도 좀 그런것도 있잖아. 그래서 롯데리가 같은곳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런곳에서는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 시끄러워서.

청: 네. 그렇죠.

상: 그리고 그나마 학교에서 인터뷰한다니까 그래요 와요. 그러시지.우리 거절 당한 적도 있거든. 학교밖에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마음 좀 열어줘

청: 근데요 열리지가 않는거예요. 저희 마음대로 열수도 없어요. 닫혀있는걸요.

청: 연다고 열면 열리는게 아니예요.

청: 저는 닫혔는지 열렸는지도 몰라요.

상: 하하. 생각을 안해봤어?? 그냥 힘든점 이야기하기 그러면 이런점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거 있지 않아?

청: 어른들의 사상.

청: 네

청: 어른들의 사상 자체를 완전히 돌려놔으면 좋겠어요.

청: 평소에 담배피거나 술먹는다고 넌 이런거 하면 안된다고.. 때리는것 같은거나 심하게 말하는거 있잖아요.

청: 그렇게 말하시는 어른들도 보면요.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 담배피고 술먹었어요.파지고 들어가보면.

청: 우리 어릴때는 니들보다 훨씬 담배많이 피고 술많이 마셨어도 공부는 했다..

청: 그건 말이 안되는거지.(웅성웅성)

청: 솔직히 우린 공부안하나? 하지.

청: 그래도 귀담아 듣는건 아닌데. 들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청: 그리고 어른들중에 그런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어린이들과 친하다.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청: 그건 잠깐 이해하는 거죠.

청: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뒤에서는 애들 욕을해요.안할것 같죠? 다.해요?

청: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그러면서.

청: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면서.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너희 다. 감싸줄 수 있어. 하는데 말도 안되는거죠.먹살잡아야죠.

청: 으 하..하하.

상: 상처받았구나

청: 차라리 더 싫어요. 그게. 욕을 할려면 차라리욕을 하는게 더 편해요.

청: 차라리 때리는게 더 마음편해요.

청: 차라리 정신차리라고 죽도록 패준사람이 있었으면요 이렇게 안됐을 거예요.

청: 살살 돌려서 말하는사람 더 싫어요.

청: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려고.

청: 여우도 아니고.

청: 사실 때리는건 힘들거든. 때리는 사람도. 애정을 가지고 나쁜짓 했을때 불러서 '너 왜그래' 그러면서 때리는 사람은 애정이 있는거야.

청: 그런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청: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서 머리쓰다.듬고 그러면 더 이상해요. 제 마음이 더 안 편해요.

청: 근데 아까는 선생님들이 애들 때려서 싫다고 했잖아. 학교에서 애들 맨날 때리고.

청: 근데 그런거 있어요. 학교다니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때리잖아요.

청: 말도 안되는 이유로 때려요.

청: 화장실에서요. 담배 안폈는데 담배폈지? 담배냄새 나는데? 그러면서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청: 선생님한테 존내 잘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안경쓰고 공부 열심히하고 공부1,2등 하는애들 그런애들은 선생님들이 진짜 안때려요.

상: 잘못해도? 담배퍼도?

청: 네. 좀 애들 모여서 담배냄새도 나고 술냄새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런애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일단 싫어해요. 선생과 제자를 떠나서 선생님들이 사람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상: 인격적인 대우를 못받는다는 거네.

청: 네.

청: 요즘은 하다.못해 때리고 있으면요. 잘못했어요 하는건 안먹혀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짝 올려봐요.

상: 아.

청: 선생님들이 애들 때리는거 보시면요. 재미로 때리는거 같아요.

청: 재미로 때리죠.

청: 요즘엔 몽둥이로 안때리고 주먹으로 때려요.

청: 미끼던져놓고 그거물면 일단 바로 잡아요.

청: 몽둥이는 폼으로 들고다닌거 같아요. 던져버리고 그냥 때로요.

청: 학교다닐때 엄청 불만이었겠다.

청: 공부잘하는애들은요.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죠.

청: 공부잘하는애들은 하나걸리면 그냥 넘어가 줘요. 근데 우리는 안그래요.

청: 근데 더 짜증나는건 뭐냐원요. 학교 그렇게 싫은데요. 학교 그만두면 친구관계도 힘들고, 할 것도 없고 그게 짜증나는거죠.

청: 그게 짜증난다기 보다는 그게 힘든점이에요.

청: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할것은 없고. 학교는 너무 다니기 싫고. 그래서 내가 찢었다고.

청: 전 수업시간에 장난치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머라 안했는데 유독머라는 선생님이 와서 툭툭치면서 뭐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힐끗 쳐다봤는데. 뭐야 하면서 뺨을 때렸어요.

청: 전 학교 그만두고 골목에서 담배피면서 지나가는데 와가지고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 선생도 있어요.

청: 그건 고맙지 차라리.

청: 근데 나는 그 학교 학생도 아닌데 나한테 막 욕했어요.

청: 차라리. 차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담배피는 학생들왔을때 내려서 때리면요 차라리 그게 속편해요.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고가는 선생들 있어요. 그러면 저게 선생이야 그런소리 밖에 안나와요.

청: 우리는 차라리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은 대놓고 뺨했다고 해야하나.. 그런거예요.

청: 일종의 반항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깐 나도 싫다고 표현하는거죠.

청: 표현을 저희가 말로 안하고요. 행동으로 많이 한거죠.

청: 술먹고 학교와서 막 행패부리고 그런거. 교실에서 담배피고 그런거.

상: 그럼 나와서는 그런 선생님들 안봐서 좋았겠다..?

청: 네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말을 하면은 귀담아 들어주시니까 그것 자체가 좋다는 거죠.

상: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거 자체가 안된다는 거지?

청: 네. 저희가 말하면, 공부도 안하는게. 이러면서 때린다는 거죠.

상: 아. 그렇구나.. 여기서는 그렇것들 때문에 힘든점은 없는데. 그럼 주제로 다시한번 돌아가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한마다씩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줘봐.

청: 이제 점심먹는 시간 다.뒀거 같다.. 점심먹으러가야지.

청: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자살시도 같은거.

상: 자살시도 했었어?

청: 아니. 그렇게 아니라 학교그만두고 집에 그냥 있으면서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사는것도 그렇고. 저같은 경우에는 3일간 죽다. 살아났어요.

상: 왜?? 약먹었어?

청: 아니요. 하하 그렇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나란

놈이 살아서 세상에 도움이 될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서 그
땐 매일같이 술만먹고, 안좋은 쪽은 많이 갔죠. 사실 학교친구들은 저를 만날
찾아다녔어요. 초등학교때부터 항상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나라도 빼고 생
각할 수 없는 친구들이고요. 사진처럼 딱 머리에 딱 박혀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빼버리고 다른 친구들로 채워넣어줬죠. 그리고 부모님과 많은 싸움.
부모님의 부부싸움.

상: 너에 관한걸로?

청: 네.

청: 전 여기서는요 많이 웃고 그러는데요. 밖에서는 잘 웃지도 않고, 그때는 몸에 막
치장을 많이 하고, 완전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나이트같은데서 기도도 보고,
어쨌든 상상하기 힘든 그런거. 상상도 못하실거예요.

상: 너가 힘들지 않은 범위안에서 이야기해 줘.

청: 음. 여기까지가 최대인거 같아요. 주위에서 사람 죽는 것도 막보고, 어떤 사람
일하다. 마음에 안들면 짹 닦아서 산에 묻어버리고.

상: 진짜로 그래?

청: 네. 솔직히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섭다는 생각자체로 내 아픈기억을
지워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어쨌때는 그게 편했어요. 기도보고, 안좋은곳에서
일하고 나에게 얼마정도의 수당이 들어오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하다가. 한 2개월정도 살았는데, 삼촌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좋은곳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상: 어째서?

청: 하하.네.

청: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들을 만났는데. 제가 어디론가 잡혀가서 겁나
맞다가 정신을 잃었어요.그리고 일어났더니 삼촌이 눈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리
고 나서 니가 사람이 될래? 지금 여기서 죽을래?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제
가 여기로 오게된거예요.

상: 아. 삼촌이 여기를 추천해주신거야?

청: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제가 바뀐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
더라고요. 부모님과도 이야기가 되고, 부모랑 자식이니깐요. 뽀수가 없나봐요.
여기들어오고나서 집에가면 말씀은 안하셔도 맛있는 반찬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한거예요. 제가 학교다닐때 다른애들보다 열심히 안했으니까, 다른
애들 대학가서 헛질하는 동안. 저는 여기서 일년 뽀세게 해서 그애들 따라잡자.
그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여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그래서 한 6개월지
나고 나니까 웬만한 가족 부럽지 않게 화목해 지더라고요.

청: 아. 좋다..

상: 아름답다..

청: 하하

상: 여기 들어와서 가족들과도 좋아지고. 좋네. 상: 그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

청: 종이치네.. 이제 마무리 하고 점심먹으러 가야지. 오늘 수고 많았어. 너희들이랑
여러 가지 재밌었던거 같네.힘든점에 대해 이야기하는거였는데.하하. 이야기 많
이 해줘서 고마워요.

구분	내용
유형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3
장소	직업전문학교(D직업전문학교)
소재지	서울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4:00-15:3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요? 학교를 그만둔 이후 힘든점. 정규학교 있죠.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힘들었던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라든지. 여기들 어와서도 개인적으로 힘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다 다.를테니까 잘 생각을해서 힘든점에 대해서.아니면 내가 그때 이런생각했는데. 이런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그런거.

상: 지금 생활하면서 힘든점. 학교그만둘때쯤. 학교그만두고 나서 부모님하고 힘든 점이라든지.친척분들 때문에 힘들었던것, 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지.이런점들이 개인들 마다 다.를거예요. 그런거에 대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청: 학교를 그만두기전에 힘든점은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 잘들어주지 못하잖아요.

상: 예를 들면.?

청: 학생이 많으니까 한 학생이 뭐가 힘든지 뭘 원하는지 선생님이 들어주질 못하는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못들어주니까 학교를 그만두는점이 제일큰것 같아요.

상: 그럼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들어줬으면 하는게 뭐가 있었어?

청: 우선은 뭘 들어주기 바라기 보다는 이런생각을 하는걸 들어줬으면 하는거죠.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죠.나는 이런것 때문에 힘든데 선생님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그런게 힘들다는 거죠.

청: 저는 여기에서도 회의할 때 뭘 바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런거보다는 애들이 무슨생각을 하는지 들어줬으면해서 회의하자고 그랬거든요.

상: 회의도 하니?

청: 한달에 한명씩 다. 모여서 해요.

상: 그렇구나.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경험이 있을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

청: 저같은 경우에는요.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왔는데 나이가 만 16세니까 엄청 어린거잖아요. 여기오면 1년 기술배우고 바로 취직하니까 직업학교그러면 밖에서 인식을 별로 안좋게 보잖아요. 기술배우고 공장 취직하고 그런다고 하면 좋게 안봐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 그러면 좋게 보는데. 인식같

은게 안좋잖아요. 친척이나 주위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랬어요.

상: 그런걱정을 했어?

청: 네.

상: 실제적으로는 주위에서 혹시 그런이야기들은 적이 있거나 그랬어?

청: 그렇진 않았어요.

상: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특별하게 이야기하는거 따로 없고?

청: 네.

상: 그냥 이해해주시는 상황?

청: 네.

상: 음.다.들 조용해서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하. 자율적인것이 좋지않아?

청: 맞아요.하하

상: 사실 이런 인터뷰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걸 이야기하면되지.

청: 저는 학교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좋아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잠깐 다녀보고 중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다녀봐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 다니다가 나왔는데도 막막하고. 학교에서는 딱 한가지 길밖에 안가르쳐주는거 같아요. 공부해서 대학나와서 거기서 나뉘는거 같은데 솔직히 세상이라는것이 학교를 안나와도. 자기가 전공을 정하면 어렸을때부터 기술직을 해서 해도 될텐데. 그런게 마음에 안들어요. 공부라는 한가지만 알려준다는게 맘에 안들어요. 학교를 나와도 솔직히 막막해요. 한국 전체가 공부하나로 목표로 학교를 다니니까 경쟁률도 너무센거 같고요.

청: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힘든것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할게 없고 그런거 같아요.

상: 그럼 **이같은 경우에는 너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을 한거야?

청: 꼭 그런건 아닌데, 저는 다니고 있다가 필요성을 못느껴서 몇 년간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접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게 뭔지 먼저 찾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걸 전혀 못찾겠더라구요.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능준비만하고. 부모님도 집에와서 조차도 다. 공부하는 소리니까. 공부가 안맞는 사람은 전혀 안맞는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일찍나와서 찾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상: 찾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해줄래?

청: 저는 학교에서 빼뚫어져서 나온게 아니라 원하는걸 배우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혼자서는 못찾겠더라구요. 막 시간이 처음 몇 달간은 괜찮은데 1년지나니까 막 뭘가는 배우고 싶은데 그걸 못찾겠으니까 그걸 알아야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집에서는 그런걸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학교나 나가라고. 공부하라고 하고 짜증나고. 뭘가 배우고 싶기는 한데 못배우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걸 청소년들

한테 좀 알려주고 배포해줬으면 좋겠어요.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이런곳도 광고 같은것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청: 그럼 여기는 다.들 어떻게 알고 오게된거야??

청: 대부분 소개로 와요. 저는 여기 전에 졸업했던 분이 소개해주셔서 오게됐어요. 저는 원래 이게 하고싶은것이 이걸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이거 해라 이러는게 너무 싫은거예요.

상: 누가 무조건하라고 했는데?

청: 누나요.

청: 뭐해라 뭐해라 그러는게 넘 싫었어요. 그래도 여기왔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내가 뭐하고 싶은지 그런거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상: 누가??

청: 누나들이요. 친척누나들이요.

상: 누나가 여러명인가 보구나.

청: 거의 강요적으로 오게 됐죠.

상: 다른친구들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청: 저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는 다. 마친후에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대안학교 찾아서 중학교3학년까지 다.녔는데요 . 아직까지 공부에대한 개념은 별로 없는데요. 누군가가 교복을 입고 다니면 그거에 대해 마음이 좀 약해져서 입고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그래서 대안학교찾아서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여기서도 공부에 대해서만 집착을 시키니까요. 일단 생각은 그런데 몸은 안따라주니까 화도나고 그래서. 대안학교도 아직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학교 소개해달라고 해서 오게 된거예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나오고 나서 운동을 계속하다가 ., 거기서는 대안학교긴 대안학교인데. 거긴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계신 과장님과 이야기하다가 공부안되는거 공부로 밀고나가면 내가 지칠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거 많이 해봤거든요. 상담도 많이 해보고. 모래놀이 그런것도 해보면서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딱 찾아본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이런곳에 관심도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는 여기있는 사람도 보다 제일먼저 들어왔는데요.2005년도에 들어와서 교육관에 있다가 방황해서 좀 나갔다. 들어왔는데 . 일단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원해서 들어왔으니까 아직 후회는 안해요.

상: 열심히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네.

상: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넌 시간을 어떻게 보냈니?

청: 처음에 나가기 전까진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가면은 누가 잔소리도 안하고. 나가면은 내세상이다.라는 생각에 딱 나갔는데.그때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좀 안되서 거기서도 못받아주고 그러니까. 나가서 있다가 눈이 확 돌아가면. 생각이 좀 흩어지더라도 그걸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느꼈어요. 진정 내가 선택한게 이길인가보다 생각하고 다시들어왔죠.

상: 마음을 다.잡고 이제 들어와서 잘 생활하고 있는거네.

청: 아직까지 마음이 좀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예전처럼 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 옆에 **는 여기 모인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보이네. **랑?

청: 동갑이에요.

상: 그래? 많이 어려보이네.하하. **는 학교를 그만둔게 언제야?

청: 저요? 전 고등학교 입학 할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여기 원서냈다고 가라고 해서.

상: 그럼 너는 일반고등학교 가려고 그런거야?

청: 네. 갈려고 했는데 여기 원서 넣어놨다고 가라고 해서.

상: 그때 마음은 어땠어?

청: 별로 안좋았어요.

상: 지금은 어떤것 같아??

청: 음..재밌는것도 있는데 안좋은거 같아요.

상: 혹시 아직도 공부하고 싶거나 그렇지 않는아? 다들 검정고시 보나?

청: 저랑 **는 방통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검정고시 보고.

상: 그럼 방통고는 학교다니면 졸업장 주는거고 검정고시는 시험을 보는거지?

청: 네.

상: 이제 한번씩 다. 이야기해서 목소리는 다. 들어본거 같고.

청: 하하.

상: 다시 한번 주제를 상기하자면.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점에 대해 이야기하는거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보면 주제를 잊고 이야기하게될때가 있어서.하하.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말해주는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힘들었다.거나 그런말들 해주고 있는데. 여기오기전에. 집에 있을때 부모님과 의 갈등이 있었다.거나. 힘든점 그런건 없었니?

청: 힘든건 없긴했는데. 초등학교때 꼬맹이라서 시키는대로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는는 1학년때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뭔가 안하거나 잘 못하거나 그러면 그런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안써주는거 같아요. 진짜 겨우 3년전인데 제가 많이 어렸던거 같아요. 그때 아무도 신경안써주니까 아.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다들 신경을 안쓰니까 내멋대로 살아도 되나보다. 그래서 3학년때까지고 막 그러다가.

상: 막 어땠는데.?

청: 그냥. 저 멋대로 학교에도 대충 출석체크 하고 교과서 그런거 다. 안가지고 다니고 가져다. 버리고.숙제 그런거 안하고 그런식으로요.

상: 그 시간에 출석체크만하고 뭘했어?

청: 땡땡이 치고 나가서 놀고. 피시방가고 돌아댕기고.

상: 혼자?

청: 네 저는 혼자요. 그러다가 3학년때쯤에는 야간 생각이 좀 바뀐거 같아요. 졸업 할때쯤.

그땐 고등학교 면접보러가잖아요. 그때 공부를 하나도 안해서 성적도 그렇고 내신도 안좋고. 갈수 있는곳이. 제 인천에 살았는데 거기서 갈수 있는곳이 제일

인식 안좋고 거기 쓰레기들만 가는곳 이런곳밖에 없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때 조금 그나마 철이 들었던거 같아요. 면접을 12시반쯤 보러가는데요. 12시 반쯤 점심시간이잖아요. 내려오는데가 언덕처럼 되어있었는데 그 학교 다니는 선배들이(그 학교 교복입은) 담배피면서 무리지어서 건들건들 거리며 걸어다니고. 아 여긴 아니다. 싫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거기 가기 싫어서. 막막했죠. 학교 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3년동안 내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멋대로 했다가 공부하나고 안하고 성적이 안나오고, 안나왔으니까 학교도 좋은데 못하고. 아 여기는 아닌거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안다니고 말지. 여기는 못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면접을 보긴봤는데요. 제가 성당다니는데요. 주보에 여기 소개나온거 보고 그거보고.

상: 진해서?

청: 네. 부모님이랑 상의해서요. 여기 오게되었어요. 아빠가 인테리어,, 목공쪽 일을 하시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은 공장가서 뭇일한다고 별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쪽계통 비슷한 일을 하시니까 엄마도 아빠 잘 설득하시고 이해해주셔서 부모님이 여기보내주시고 방통고 입학했는데. 여기와서는 전에보다 많이 신경써주시고. 저희가 졸업해서 바로 취업나간 생각하니까 저희 스스로 장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것 같아요.

상: 그럼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와서는.

청: 여기와서는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편 되겠다.. 이런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보다 더 훨씬 좋은거 같아요.

상: 좋은 점들이 많은가봐. 오전에도 다른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의 좋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주었는데. 인터뷰 주제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힘든점이었는데.여기들와서는 그전보다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그런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구.

청: 네. 학교는 좋은데. 기숙사가.

청: 아무래도 대부분 우리들이 어리잖아요. 금방 나가서 놀고싶고 활발하게 활동할 그런 시기의 청소년들이 너무 시간에 맞춰서 끌려다니는 시간이 많은거예요.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년밖에 안되잖아요 이 학교가.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너무 짧아서 그런걸수도 있는데. 그런것 보다는 차라리 기간을 좀 늘려서 조금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청: 일반학교도 너무 공부공부 하는것 보다 좀 활발하게 생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 교사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들어주는 사람도 교사인거 같아요. 그런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다닐때좀 편하게 다닐수 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상: 아까 **가 이야기한것 처럼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런것에 대한 안내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것이 그런 맥락에서 다. 연결이 되는것 같네.

청: 학교를 그만두면은 학교에서 버림받다 시피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런걸 상담해 주는게 많이 필요한거 같아요.

상: **이는 상담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아본거야?

청: 그런게 사회에 대중화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아는사람만 알고.

청: 거기는 특별하게요. 거기계시는 선생님이 하시는게 아니라. 모래놀이라고 해서 그걸 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거거든요. 거기 제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중학교를 가기싫어했던 건요..초등학교때부터 제가 하고싶고 원했던게. 운동하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그런걸 좋아하거든요. 이런걸 전혀 안듣고 어른들의 머리에 나오는거랑 청소년들의 머리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른들쪽에서는 전혀 어려운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들쪽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뭘 이야기해도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끊고. 솔직히 그런게 화가나고요.제가 초등학교때부터 담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같이 있다.보면 화가나서 그렇고.누가 욕을 하면 그걸 들어줘야 하나까 이걸 어떻게 들어줄까 그런생각에 답답하고. 저는 여러학교를 전학다니면서 여러 아이들이랑 몰려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라도 지금 힘든것이 뭔지. 학교다니면서 힘든점이 뭔지 그런거 물어보는거.

상: 그런걸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청: 그런걸 안물어봐요. 일단은 선생님들은 공부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죠.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지 모를때. 그럴때 화가나요. 화가나다. 보면 누구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상: 어른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직접 좀 물어보고 힘든점이 뭔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잘 이해해줄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이야기인거 같네.

청: 네. 그리고 어른들은 자기말하고 하고 이걸 지켜달라고해요. 그걸 안지키면 제일먼저 손찌검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이 더 많아지는거 같고요. 사춘기라는 것도 어른들도 다. 겪어왔는데. 그런걸 다. 이해해가면서 말을 들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청: 지금 어른들은 고지식한거 같아요. 무조건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것 처럼 이야기를 해요.이제 다른 길도 있는데. 공부가 아닌 다른길을 찾아줄려고 부모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런게 별로 없고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힘든애들도 많죠.

상: **는 안힘들었고?

청: 저는요 학교다니때 그냥 즐기면서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공부 안해도 좋으니까 학교는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학교를 빼박하게 다.녔어요. 다.녔거든요. 맨날 빠지지 않고는 다.녔고.거의 놀러다.녔죠.

상: 다.들 개인적인 상황이라던가 그런게 다 다르니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거나 마치게 되거나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친구들과는 어떻게 잘 만나? 여기서 만난 친구들 말고. 그전에 학교다니때 친구들이라든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것 같애? 여기서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는 하던데.

청: 시간내서 나가서 만나보면서. 옛날에 했던 행위들.

상: 행위들??하하

청: 네. 담배를 물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중에 한애는 좀 욕을 잘하는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맞아죽어도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애도 학교 때려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삿대질 하고 나왔는데, 저랑 몇 년 연락을 못하다가 저는 여기들어와서 연락이 된 후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더 안좋아진거 같아요.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을 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취방 얻어서 아르바이트계속하면서 일하는건 성실하게 잘 하는애인데, 그전에 있던 버릇이 그대로 있는것 같아요. 딱 보면은 안쓰럽긴 안쓰러운데요. 어찌됐어요. 거처온 과정이 지금 딱 멈춘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방황하고 그랬는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안잡아줘서 그런거 같아요. 어른들이 잡아준다고 해도 손찌검을 하고나 욕을 하지. 어른들 다.반수가 타이르는 사람이 어딴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른들도 못하면서 괜히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막 와서 손찌검 먼저하는 사람들. 저는 제일 싫었어요.

상: 그 친구보면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고 사는게 안쓰럽고 그런거야?
청: 네.

상: 그럼 학교다닐때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관심을 안주고 이야기도 잘 안들어주고. 그런것 때문에 힘들거나. 내 적성도 아닌데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런것들이 다. 이유가 돼서 부모님이 직업전문학교 가는것을 더 좋아하셔서 아니며 추천하셔서 이곳에 왔잖아. 실제로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나왔는데 어렵거나 힘든점은 없었어?? 예상대로 좋았다.던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건 없었어??

청: 부모님이 제일 힘들었고.사회고정관념이라고 해야하나.정규학교를 벗어나면 나뿐애다.. 뭔가 나쁜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다니는 거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가서 제가 배우고싶은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꼭 학력란이 있더라구요. 거기다가 초등학교 중퇴라고 쓰면 눈초리가 확바뀌고,, 그런데 싫고. 부모님들도 무조건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자기는 잘 못배워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공부잘 배워서 살아라. 강요하는건 알겠는데 그 강요가 너무 지나친 느낌이 들어요. 주가 되는것을 헛갈리는것 같아요. 공부하라고만 하고. 솔직히 공부안해도 어느분야에서만 잘하기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하는데 무슨 물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공부하라고 공부안하면 안된다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가까운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도 의욕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요. 어린나이다. 보니까 빼뺏어지죠. 주위에서 너무 제가 기댈곳도 없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좋은 뜻으로 나왔는데도 사회라는 곳에서는 그걸 안받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빼뺏어지는것 같고.

청: 그런 고정관념들이 싫어요. 꼭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청: 좋은생각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것을 할려고 학교를 나왔는데도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해주니까 좋은 생각으로 학교를 나왔던 학생도 빼뺏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상: 좋은 뜻으로 나왔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더 어려웠던거구나.,

청: 저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면 할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뼈뺏하게 다녀도 열심히 다니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청소년시기에는 학교를 당연히 다녀야한다는게 인식이 되어있어서..

상: 다른 친구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 사회나 학교같은곳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줬으면 해요. 공부해서 무조건 좋은대학가서 좋은직장 얻어서 잘먹고 잘사는 그런길이 아니라 이렇게 직업학교나 다른 시설이나. 좋은곳 많잖아요. 사실 인식이 안좋아서 그렇지. 그런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저희같은 경우는 그런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찾아서 여기에 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은 깡패, 양아치,, 그런거나 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런식으로만 사니까.

상: 아르바이트는 안해봤어?

청: 저는 안해봤어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여기 와서. 나이가 어려서요.

상: 그렇구나. 혹시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 그러면 나가서 생활하는데 어려운점 있어?

청: 어려워요.

상: 뭐가 어려워?

청: 여기 생활에 적응이 되어있는데. 막 들어오기 싫고. 잡혀져 있는 기본기가 흔들리다고 해야하나? 그런게 있어요.

상: 주로 무슨일해?

청: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만 소외되는 것같고. 그친구들보다 제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나만 그 친구들중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거. 만나면 괜히 심난해져요. 그래서 자주 안만나고. 만나면 마음이 좀 힘들죠.

상: **는 여기생활에 적응을 잘했나보다.

청: 아니예요. 힘들어요.하하

청: 저같은 경우는요 여기학교가 싫어서 나가는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누나가 계속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싫었으면 배우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았을거예요. 그래도 학교다니는 동안 열심히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은거예요. 제가 하고싶은일이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하나까.

상: 하고싶은일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

청: 저는요 무대위에서 랩하고 그런걸 좋아해요. 그쪽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고싶은게 따로 있는 상태에서 하라니까 그게 힘든거죠.

상: 여기서서 두가지 다. 하기 힘드니까 그런가??

청: 꼭 그런건 아닌데요. 할 수는 있는데. 다른것보다 내말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20살인데도 애쫓급하니까.

상: 누가?

청: 집에서요.

상: 아.가족간의 갈등이 좀 있는거네.

청: 네.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거죠. 하고 싶은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청: 돈을 못벌어도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면서 지내는게 좋은거 같아요. 후회는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그래요.

청: 가족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업전문학교와서 졸업하고 직장다니고 돈벌고. 이런게 일반적으로 잘 사는거다. 라고 인식을 하시니까.

청: 우선적으로는 공부를 그만두면 너는 돈벌어야 한다.. 기술배워라. 그게 전부 다. 예요. 어른들이 대부분 예체능쪽은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하는사람들한테 호감을 안갖는게 대부분인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인정을 안해주잖아요.

청: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어른들이 생각하는게 정해져 있는거 같다는.

청: 어른들은 이미 큰 상태고 저희는 커가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거니까 당연히 생각이 엇갈리겠죠.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거죠.

청: 언제부터 우리나라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상: 어떤인식?

청: 공부아니면 안된다는.

상: 조선시대때부터 아닐까? 고려시대때는 무관들도 알아줬는데. 조선시대부터는 선비에 대해 매우 좋게 생각하고.유교사상도 관련이 되는것같고.

청: 그럼 사상은 어떻게 못바꾸겠네요.

상: 근데 요즘 인식이 많이 달라진거 같아.

청: 근데 인식이 달라지고는 있는데 저희처럼 생각이 트여서 탈선을 해서 하는애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예하고 그냥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 다른생각하고 있꼬. 그게 알게모르게 세뇌교육이 되는거죠..결국은 부모님과 똑같이 살고. 항상 소수의 인원들만 그런생각을 하니까 바뀌지 않을것 같아요.

청: 근데.학교 그냥 졸업하는애들보다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아픔을 좀 겪었던 애들이 나중에 나이들어서 자식들을 인정해주고 더 잘 이해해줄것 같아요. 다른사람들 보다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해봤으니까 돈에 대한것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것도 그렇고 지도할 때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상: 본인이 그런경험을 했으니까 자식이 나 이거 저거하고싶다고 할때 좀 들어줄수도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해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거 같네.

청: 그런 경험을 못해보신 분들이 지금의 어른들이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못들어 주는거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해본적이 없으니까.

상: 아.

청: 저같은 경우는요. 어른들쪽에 동의를 하는게요. 공부가 자기 적성에 안맞아서 때려쳤잖아요. 운동이나 음악은 취미도될수 있거든요. 어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게요. 일단은 어른들은 자기 자식이 일단은 안되는걸 원치는 안잖아요. 자기 아들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할려고 보니까 어른들 자신들도 소문도 듣고 신문도 찾아보고 해서 여기를 보내시는 거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사회에 나갔을때 필요한 것을 찾아줘서 거길 가라는 뜻이죠. 청소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걸 하고싶죠. 이때 청소년도 나중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걸 하면 되는데.

상: 그제 청소년들시기에는 멀리 내다. 보면서 행동하고 그러는게 쉽지 않으니까.

청: 청소년들이 자기가 철이 안들었다고 해도 어른들 말을 이해도 할 줄 알고, 아닌건 아니다. 라는걸 생각할 줄도 알고 어른들이랑 의논도 자주하고 이야기도 좀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것 같고요. 어렸을때 막 때리고 구박받고 그런게 가족들이 용서가 안되고 그럴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행동으로 부모에게 보일때 어느 부모가 청소년의 행동을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공부에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자격증이라도 땀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격증을 따놓으면 기계분야는 이쪽에서 좀 그러니까.

상: 인정도 좀 받고 그런다고??

청: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생각하고 부모생각도 하고나서,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거죠.

상: 청소년들도 자신이 원하는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가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그거구나.

청: 네. 부모님이 뭘 하라고 시켰는데. 부모님이 시키는게 누굴 때리고 욕해라. 담배를 피라 그러는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다. 자기한테 좋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일단 그렇게 싫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뭘 선택하면 자기는 무조건 싫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버리고요. 이제는 진짜 청소년도 성인 되 가면 자기 아들보고 누구때리고 와라 그런건 시키지 않을거잖아요.. 우리도 청소년이지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거고. 어른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른이 될 수 있다는걸 생각해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 **이는 언제 그런걸 깨달은거 같아.

청: 전 17살 때 깨달았어요.

청: 그런 계기가 있었어??

청: 저는 어머니가 안계세요. 돌아가신거 아니고 그냥 어디 잘 계시거든요. 일단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남자들이 살다.보니까 말도 많고 의논도 해가면서 그러고 살거든요,, 예전에 어머니가 계실때에는 전혀 말을 못하고 기가죽어 있었거든요. 맨날 뭐 던지고. 그래야 부모님들 직성이 풀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살면서 이야기도 자주해가면서 나는 이런쪽이 좋은데 아빠는 어떠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빠도 무섭긴 무서워요. 옛날에 경찰생활하시다가 이제는 목공일 하시는데. 요즘엔 남자들이라 살다.보니까 힘쓰는일에도 좀 편하기도 하고. 서로 기대는거 같고.의지도 되고. 그제 계기가 돼서 저도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서 생각도 많이하고 이해도 했으니까.

청: 17살 때가 학교다닐때였어?

청: 네. 학교다닐때였어요.

청: 근데 청소년들은 그런말을 안하잖아요. 어른들한테는 일단 말을 하면 일단 말이 안통한다. 생각하지만요. 자기가 자기뜻대로 생각해서 말하는거지. 솔직히 어른들한테.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많이 털어놓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지긴 편해져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뭔가가 또 있잖아요.

상: 청소년들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 같다..

청: 네.

청: 먼저 이야기도 좀 하고 .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말 안들어주고 그런다는게 아니라. 어른들이 다. 잘못됐다는게 아니예요. 어른들 말도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청: 그게 힘드니까 이러고 있지.

상: 아버지가 많이 이해해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거 같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니?

청: 네. 지금은 좋다고 생각해요.

청: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의견을 못따라 주더라도요. 웬만하면 자기가 부모님 중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분 한테 이야기를 하면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청: 저 친구 말도 맞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찾는사람이 부모님인데 좀 이해력이 있으시고. 어렸을때 좀 잘 자라신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하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안그런 부모님이 더 많거든요. 험하게 자라신분도 많고. 그런게 안통하시는 부모님이 많아요. 친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고. 상담을 딱 했는데 다.짜고짜 안돼.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죠. 민감한 시기라 그렇게 상처를 딱 받고나면 어른들은 다. 이렇구나. 그런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몸소 느끼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거의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상: 이거는 상황따라 다 다르지. 환경도 다르고 본인이 성격, 본인의 성격도 다르고 부모님의 성격이나 생각하시는것도 다 다르니까 모두 정답이야.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면 되지.

청: 제 생각에는요. 학생들도 자기 미래나 삶 같은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진짜 중요하다는걸 많이 느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것처럼 선생님이 아무말 안하고 신경안써준다고 제 마음대로 해도된다고 생각해서 아무생각없이 그런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이해가 안가는게 왜 그랬을까? 내가 살아갈건데 앞으로. 그때 그러다고 나중에 달라지는게 없었는데. 그때 왜그랬을까?? 지금 정규학교 다니는 애들도 자기가 앞으로 뭘할건지 진지하게 생각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상: 그런 시기에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주고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네. 그럼?

청: 조금요.

청: 저같은 경우는 고민있어도 잘 누구한테 털어놓거나 그런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약간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하란 소리 안했는데 스스로 할려고 하면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갈피를 잘 못잡고 그런거예요.

상: 그런거에 대한 후회가 있었구나.

청: 네.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고쳐진거 같아요.

상: 이렇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전에 내가 그랬었다는것을 이런자리에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소심한거에서는 좀 벗어난것 같은데.

청: 네.하하

청: 이런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청: 내가 고민들어줄테니까 고민이야기해봐라. 이런사람이 없잖아요.

청: 하긴 친구들 사이에서나 가끔 이야기할까. 이렇게 여러명과 차근히 이야기해본 적은 거의 없을것같아. 기회도 없고.

청: 혼자 생각하고 혼자하고.

상: 그런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니? 누가 이야기해봐라. 도움줄게 아니면 조언해줄게.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청: 정말 도움이 되요.맞아요.

청: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들어주는 사람 말고. 일반 사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줄까.. 그런 생각들.. 내가 만약에 이런행동을 하면 밖에 사람들.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술배우잖아요. 다른 친구들 경우는 교복입고 고등학교에서 수업받고 있을텐데,내년에도 그러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1년배 워서 내년에는 취직하잖아요. 나는 평범하지 않다.. 자신이 특이하게 생각되죠. 이질감이죠. 재는 나랑 다르다.. 그런것 때문에 힘들죠.

상: 혹시 서태지 아니?

청: 네.

청: 이름만 들어봤는데.

청: 서태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래부르고 그랬죠. 컴백홈.그런거

상: 그때 서태지의 영향력이 정말 컸거든. 그 노래도 가출청소년들이 집에 많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구.서태지가 중학교 중퇴했나? 그런데 음악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어렸을때부터 노래배우고 춤배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음악과 관련해서 큰 영향력을 쫓거든.성공사례지.

상: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하고.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너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후배들이 생활할때는 지금보다 훨씬나은 상황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청: 점점 나아질것같아요.

상: 소수의 의견을 사회에서도 점점 더 듣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사실 이 프로젝트도 아이들이 어떤생각을 하는지 알아오고, 도움이 필요로 한게 뭐지 사람들에게 보고서로 알려라 그런것이거든. 이것만 해도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거라고 할 수 있고.여러분들이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청: 나라발전에.

상: 앞으로 비슷한 경험을 할 후배들한테도 좋은 경험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거지.

청: 근데 그런모임은 없나요? 정부나 단체같은곳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끼리 토론을 하는 모임같은건 없나요?

상: 해밀센터가 있어. 한국청소년상담원이라고 들어본적 있니?

청: 들어는봤어요.

상: 해밀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을 하는건데. 여러분처럼 정규학교이외에 직업학교, 대안학교, 방황하는 거리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거든. 상담도 하고 나 이런거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고. 또 캠프도 하더라고. 비슷한 상황과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캠프도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

상: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해밀센터. 우리 한번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가는거지만 해밀센터는 계속 상담이랑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 한번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야.

청: 그런거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상: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부분에서 좀 미흡한것들도 있고. 지금 아직 다. 정착된것이 아니고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깐 너희들도 좀 옆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알려두 주고.

상: 그럼. 시간도 다.되어가고 슬슬 마무리하면서. 또 생각나는 힘들었던점들 없니?? 포괄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인식, 부모님들의 강요,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거.

상: 전공은 지금 맘에 들어?

청: 지금은 뭐라도 다.. 하하 뭔가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배워서.

청: 근데 뭘배우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

청: 저. 뭘배우고 싶은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배우니까 그냥 좋은거예요.

상: 뭔가를 활동적으로 하는게 좋은가봐? 만들고.

청: 네.

상: 그럼 돈과 관련하여 힘든점은 없어? 용돈이나 그런거.

청: 별로 없는데. 학교 안다니니까 돈을 안주던데요.

청: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네.

청: 그거라도 이용해서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싶으신가봐요.

청: 그런건가.

청: 하하.

상: 이제 시간이 다.되었거든. 오늘 수고 많이 했고. 2차때에 컴퓨터로 하는 작업을 하거든 그때도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수고했어요.

청: 수고하셨습니다.. 짹짹.

구분	내용
유형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집단 인터뷰 4
장소	직업전문학교(D직업전문학교)
소재지	서울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6:00-17:3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오늘의 인터뷰를 시작을 할게요. 인터뷰 요령은 생각나는대로 다. 이야기한다..
아까 이야기해줬죠?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뭐냐하면 정규학교를 그만둔 이후
힘든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학교도 있고
친구관계, 가족관계.그냥 생활하면서. 여가시간 보낼때 힘든점도 있고. 많아요.
아무거나 다. 이야기 해주면 되요.

상: 여기 학교들어오기전에 빈 시간이 있었을텐데. 그때 어땠더라. 하고 되돌려보
고.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힘든거 아무거나 이야기 해주면 되요.

청: 전 학교를 그만두고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할
라고 보니까 돈이 좀 되는거 하려고 보니까 고졸이상 그렇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시내 아르바이트 시간당 1600원 그런거 하고. 이런거 하는게 불법이다.
보니까요.어디가서 몇몇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상: 어디서 떼어먹히진 않았어?

청: 네 그런건 없었고요.

상: 잘 안주거나 그런건 없었어?

청: 그런건 없었는데요. 몇일씩 밀렸다. 주고 그런건 있었고. 아무래도 연락처도 불
분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나간다는 핑계로 한달치를 까고 월급을 주고 그런게
많았어요.

청: 맞아.

청: 저는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요. 솔직히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애들은 가출하고 그런애들이 많잖아요.거기서도 학교가 어떻게 그런걸 따지더
라구요.

상: 학교 어디다니는지 따진다고??

청: 네. 그런식으로.

상: 어떤일 해봤는데?

청: 매점같은거 그런곳에서. 저는 거기서 일하고요 다른애들은 식당이나 패스트 푸
드점에서 일하고요. 거기서 조차 학력을 따지니까 영아니다. 그런생각들었어요.

상: 학력따지면 월급도 다르게 줘?

청: 그런건 없어요..

청: 저같은 경우는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살았는데 자취방같은거 구하다. 보면.
맨처음에 나가면은 돈이 없으니까 일하잖아요. 일하기전에 안했을때 밥먹는게

제일 문제였어요. 쌀떨어지거나 그러면..

상: 배고파서?

청: 네. 그렇죠.

청: 어떨때 쌀떨어졌는데 귀찮아서 안가고.

상: 돈은 있는데?

청: 어떤때는 돈까지 없으면 큰일나죠.

상: 짐알아보고 그런것 직접했어?

청: 저는 도와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좀 힘들고 그래서.

청: 서울 올라와서요.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거기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혼자 살다.보니까.

상: 경제적인거?

청: 네.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청: 아르바이트 해도 별이가 좀.

청: 아르바이트해도 생활비 그런거 들어가니까 내가 쓸 돈이 없는거예요.

청: 겨우 밥만 먹고.

청: 가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은 모으잖아요. 근데 돈을 쓸데가 피시방, 노래방, 술집 그런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좋은거 같아요. 막. 동이나 구 같은곳에 보면 청소년문화회관 그런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들어가면 주소나 그런거 써야하니까.. 청소년증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청: 할인받는거 빼고는 없어요.

상: 그런데 가서 주소쓰고 그러고 혜택받고 그래본적 있어?

청: 별로 없어요. 근처에도 별로 없지 않아요? 알려주는곳도 없고.

청: 학교를 그만두거나 한 사람들 한테. 어른들은 피시방이나 그런곳 가지말고 오토바이 타지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려다. 보면 솔직히 그런것 빼고는 할게 없어요.

상: 그러면 학교를 그만둔게 가출해서 그런거야?

청: 출석일수 모자라서요.

상: 그럼 학교에서 자퇴하라고 그런거야?

청: 그런건 전 몰랐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그런 전화왔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안다.녔어요.

상: 다른 친구들은?

청: 작년에 제가 교육관에 왔는데요. 그전엔 지방 보육시설에 있었는데. 여기는 주말마다 외출이나 외박을 주는데. 거기는 처음가는곳이고 그곳 보육시설에는 외출이나 외박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도 싫어지고. 집보다 학교가 더좋아지고 그런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외출이 안되니까 창살없는 감옥같은거 있죠. 그리고 또 들어가면 공부만 시키거든요.

상: 거기서도 직업전문학교였니?

청: 아니요. 단독같은곳에 있는.

청: 쉽터?

청: 아노.

청: 그룹홈

청: 네. 맞아요. TV도 잘안보여주고 못틀게 하고. 기타있었는데 그것만하고, 공부만 시키고. 제한하는게 너무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싫어지고 학교빼먹고 애들이랑 놀러다니고. 그래서 그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청: 그럼 거기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거야?

청: 여기는 다른 보육시설 있을때부터 예전에 알았어요.

청: 여기 오고싶다고 해서 온거야?

청: 마땅히 갈곳도 없고. 여기 기숙사니까. 또 여기서 기술배우고. 장래성도 그렇고요. 여기서 직장 거의 100% 취업시켜주니까 여기 들어왔죠.

청: 그것말고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요. 저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하셔서 중국에 계시고. 여기서는 집안에만 있다.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정관념이 딱 있으시잖아요.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된다.. 무조건 안중계만 보시고. 학교를 무조건 가야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해도 학력이 안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특성상 오래는 못하잖아요. 이곳저곳 옮기다. 보면 또 애가 적응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거 그런게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랑 다. 연관지어 생각하시고.

상: 그럼 학교를 그만두게된 시기가 언제야??

청: 전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친구를 괴롭히다가 마침 그때 학교폭력이니 뭐니 봄이 한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의자가 돼서 막 끌려갔죠. 제가 괴롭힌 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TV에 나오는것 처럼 이런애들 순악질이라고 그러면서 이런애들 그만두게 안하면 우리에 무서워서 학교보내겠다고 막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다.기보다는요. 학기초에 보면 중학교부터는 초등학교 여기저기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름대로 있는 척도 해보일려고 하고 그런애들중에 하나였는데요. 막상 때리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청: 하하

청: 그래서 전 학기초에 당한것도 있고해서 좀 괴롭혔더니. 그게 문제가 좀 심해져서 정신병원도 다니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막 쓰레기취급하고.. 친구랑 같이 괴롭혔는데 다. 혼나고 나서 부모님 모시고와서 교실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데 저혼자만 거기서 성깔있게 하다.보니까. 한마디를 더했다고 저만은 용서를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줄지에 제일 많이 괴롭힌 애로 찍혀서 학교를 안가니 그러다가 마침 아버지가 안되겠다. 중국으로 와라 그래서 가게됐어요. 처음에 그만두자마자 바로 중국갔다가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거기서도 옛날버릇 남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적응못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있을때는 그래도 가출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때 이혼하시고 그래도 별로 그때 못느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그런문제도 있었던거 같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난 후에 저는 안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변해서 적응이 힘들었던거 같아요. 중국가서도 막 가출도 하고 그

러다가 아빠가 그냥 한국에 가라 그러셔서. 아는 사업체 사장님 밑으로 보내셨는데. 또 거기서 그래서.

상: 또 때렸어??

청: 네. 좀 그런게 많아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배운것도 없고. 레스토랑 서빙해도 1600원 받고 고생만하고 쓰레기만 치우다가 어. 좀 잘한다고 주방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도 안가르쳐주고 자기들 끼리만 다.해먹고.

청: 하하

청: 그러다가 결국. 가끔 엄마랑 연락했었는데 엄마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번해 보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상: 중국갔을때는 어떤점이 힘들었어??

청: 우선 언어가 힘들었고요. 애들이 잘 안섞어서 냄새도 나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애들도 있었고요. 또 새엄마가 있었는데 중국사람이었거든요. 엄마라고 불러야한다는게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렸을때부터 때국 놀이라고 그래서 반감이 좀 있었어요.

상: 중국에서는 가출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었을텐데.

청: 아 그냥. 부모님이랑 둘이사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3개월정도. 저판에는 신세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거의 그렇게 생각안했다고.하하. 오전에는 그애 아버지가 오시고 오후에는 일 때문에 집에 안계시니까 오전에만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오후되면 나와서 평소처럼 생활하고 그랬어요.

상: 아. 그랬구나. 고생했네.그때 혹시 되돌아켜보면 어떤 생각하고 살았던거 같아?

청: 글썄요.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상: 학교그만두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자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을텐데. 그 과정 중에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힘든점 그런 것 없었니?

청: 중학교1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학교에 가기가 귀찮아지는거예요. 걸어가도 10분거리인데. 방학숙제를 다. 안했어요. 개학날이 다가오는데 가기 싫어서 몇 일 안나갔는데.몇일 안나갔는데 괜찮은거예요. 친구들과하고도 연락도 잘되고. 나가서 놀고 그게 더 편한거예요. 그래서 한달 두달 세달 하다.보니까 날짜는 지나고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학교나오라고. 출석일수가 73일인가.그렇거든요. 제가 그거 다.되기전 하루전에 나가겠다고 기다리시라고 그랬는데. 먹고 자고 하다.보니까 언제 됐는지 모르게 2001년이 되있더라구요.하하. 그래가지고 별로 힘든건 없었고요.

상: 그래도 여기 들어오게된 계기가 있을거 아냐?

청: 예전에 가출해서 있다가 째새한테 동대문에서 어슬렁 거리는게 수상하다고 잡혀서 **상담소에 강제로 처박혀서 1년간 있었어요. 거기있었던 재작년 말쯤. **가 자기 여기 간다고 보내달라고 설치고 다니는거예요. 거기 과장님한테요. 과장님이 갑자기 호출하더니 너도 가고 싶냐고. 거기 가면 자동차 기술 같은거 배운다고 그래서 바로 간다고 했죠. 입학식 한 달 놓쳤다고 교육관에 들어갔고 거기서 1년 째박혀 있다. 여기 들어오게 되었어요.

상: 가출은 왜 하게 되었어?

청: 게임을 너무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 유행했던 디아블로 2 하려고.

상: 그때 부모님하고의 그런건 없었어?

청: 지대 혼났죠. 많이 혼났어요.

상: 지금은 부모님이 어떠셔?

청: 엄마랑은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만나는데 재혼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재혼 안했는데 동거라고 해야하나.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만 해가지고 수중에 돈만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청: 저는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싸이가 그건 좋더라구요. 만나니까 친구들 지갑에 돈도 많고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고..

상: 너희도 취업하면 돈도벌고 그러잖아.

청: 그래도요. 부럽더라구요.

청: **이는 언제?

상: 그러면 학교 고1까지 다니고 고2올라가면서 여기 곧장 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게되었어?

청: 저요? 저희 아빠가 기술이 뛰어나시는데요. 우리 동생 다니는 공부방에 수녀님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이런곳 있다고 가보라고 했어요.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1되어서 고1때 나왔으니까. 수녀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추천해주시는거예요. 한 일주일 생각했어요. 갈등하다가 아빠도 기술 뛰어나니까 너두 이거 배우라고. 그래서.

청: 진짜 인생 편하게 살았네.

청: 그리고요 제가 학교 그만두게 되게요. 애들이 짜증나게 해서요. 그냥 학교를 안가게 되었어요. 저야 집에서도 부모님이 서로 싸오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한달인가 집을 나가 있었는데.

상: 한달동안 뭐했어?

청: 피시방이랑 싸우나 있다가 돈이 떨어진거예요. 그래서 친구집에서 일주일 머물다가 밤에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어느날 피시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찾아오신거예요. 울면서 집에 가자고 그러셔서 집에 갔어요.

상: 여기 오니까 어때?

청: 좋았어요.

청: 카드찍어야 하는데.

상: 어? 그래? 카드 다. 찍고 와.

청: 카드 찍는게요. 학교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찍는 순간 다. 노동부로 기록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되고.. 학교랑 학생이랑 내통해서 문제 생기고 그런게 있다고 많이 까다롭게 하더라구요.

상: 설명 잘했어. 고마워. 하하

상: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청: **이 집에 돌아온 이야기까지.

상: 집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때 힘든점은 없었어?

청: 그냥 길거리에 있었는데 힘든점은 별로 없었어요. 보름 동안 저 혼자 있다가 이틀인가 같이 있다가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상: 그때 친구들 집에 들어갈 때 집에들어가고 싶다.든가 그런생각은 안했어?

청: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상: 그때 나쁜어른들은 안만났었어?

청: 네. 없었는데요.

상: 아르바이트나 이런건 해봤고?

청: 편의점에서 해봤어요.

상: 돈을 떼이거나 그런적은 없었고?

청: 네.

상: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시키고 돈을 떼먹고 그런건 별로 없나봐.

청: 왜그러냐면요. 요즘엔 카드가 있어서 언제 시작하고 끝나고 그런거 쓰거든요. 기록기 거기 남아있으니까 안주면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왜 안주냐고 보여주고 그러면 안그러면 신고당하고. 몇배로 벌금 물거든요.

상: 아. 그렇구나.

청: 전 주요소에서 일했었는데요. 여기 있다가 나가서 하게 된거거든요. 그러나다. 맹장걸려서 다시 들어오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주말에 나갈 때 생각해보니까 전에 일했던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가서 1,2주 일했는데 20몇 만원인가 받았어요.

상: 맹장염 걸렸을때는 수술비는 어떻게?

청: 여기서 내주셨어요.그때 교육관에 있었을때거든요.

청: 교육관은 기숙사랑 달라?

청: 원래는 같은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기숙사.직업관은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교육관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빵빵해요. 놀러도 다니고.

청: 교육관은 교육시설이고 여기는 학교고. 노동부에서하는.

상: 교육관이 여기있는거야?

청: 지금 새로 짓고 있는거요.,

상: 진짜 학교 그만두고 부모님과 연락끊었는데 아프면. 이런곳에 속해있지 않으면 치료를 받기 힘들겠다. 너희들은 그나마 운이 좋네.

청: 전 아르바이트하는데 제가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거 좋아해서. 두산타워였는데. 내부 리모델링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한 6개월동안 했더니 사장이 막 월급 올려주고 그랬어요.

상: 매상 좀 올려드렸나보네.

청: 두타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들은 신발신고 다니는데 좀 느리게 보였어요. 그때 힐리스 신발을 사서 아르바이트할 때 신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경비원들은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저 잡으러 다니고.

청: 사장님은 장사 잘하고 그러니까

청: 더 낮겠죠.

청: 지금도 가끔가서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그러죠.

상: 이제 순서가 되었네.하하.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되거든. 학교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어?

청: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무지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 학교 생활이 규칙적이라서 짜증나는거예요. 이시간 되면 공부해야 되고 집에 가는 시간 또 있고 반복된 생활이 귀찮고.집하고 재미없어서. 그때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상: 너가 스스로 그만둔거야?

청: 네,,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하다가 언제 한번 아리랑치기라고 하나. 그거하는 형이랑 누나들이랑 한 5일정도 어울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봐도 그건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만 둔다고 하니까 하루정도 신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나오고. 그거 이외에 힘든건 별로 없었는데 아르바이트 좀 하려고 하며 학력따지고 그러니까.. 아리랑 치기 하는형, 날치기 하는형들 만나고 그런게 힘든 거 같아요.

상: 왜 영화보면 좀 그렇잖아.조직에서 나오려고 하면 무지 맞고.

청: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청: 어. 발가락 4개던데. 하하

청: 하하하

상: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럼 여기 학교는 어떻게 오게된거야?

청: 엄마가 기독교 신자이신데 이런곳 있다.더라 그래서 오게됐어요.

청: 그럼 학교 그만둘때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

청: 네. 그때도 아버지가 부도나서 힘들때 그때 관둬서요. 그 와중에도 관둔다니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좀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못이기시더라구요.

상: 그다음에 구박은 안하셨어?

청: 눈치는 보이죠. 구박은 안하시고. 컴퓨터 켜놓고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집에는 있기 싫고. 그래서 나돌아 다.녔어요.

상: 나돌아 다니면서 고충은 없었어?

청: 돈없어서 힘든거. 뭐.

청: 저는요. 그리고 어린나이에 아르바이트 하다.보니까요. 만 몇세 미만인가 아르바이트 금지 되어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오래있었던게 아니고 왔다.갔다.했거든요. 그러면서 해서 16살인가. 막 서빙같은거 하다가 단속 떴다고 하면 냉장고 안에 숨어 있고. 그런적 있었어요. 나오면은 다. 일어 있고. 그런게 있었어요. 단속이 찾아서 30분일하고 40시간동안 냉장고에 있다가. 그런적도 있었어요. 일자리 구해도 급여짜고 나이가 어리니까 안써주는게 많고. 마치 자기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써주는거 처럼 그러고 몇일씩 밀려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랬어요.

상: 일하는데 있어서 대우하는거 나이 어리다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거 그런건 어땠어?

청: 그냥 모. 뭐가 좀 잘못되면 철이없어서. 못배워서.가방끈 짧아서 그렇다..

상: 그런이야기 들으면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어?

청: 그러면 몰래 구석에 쭈구리고 앉아서 지금까지 배운거 필기한번하고.
 상: 하하. 그래도 나오지는 않았네. 잘 버텼네.
 청: 주방장 한번해볼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한 4개월동안 잔신부름만 하고. 마지막 날 면발 한번 잡았는데 좀 태워먹어서 맞고, 뽀뽀뽀니해도 제일 힘든건 무슨 일만터지면 무조건 항상 사건의 중심에 있고, 제일 먼저 의심받고, 그렇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죠.
 상: 그러면 어떻게 그상황을 넘겼어?
 청: 구석에 쭈구리고 앉아서 필기하고.
 청: 그러면 나중에 진짜범인 나타나거나 그러면.
 청: 근데 아무래도 거기 계속 데리고 있을려면 직접 너지 그러지는 않아도 눈치를 계속줘요. 그래서 막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편견이라는거 고정관념이 그렇게 가장 힘든거 같아요.
 상: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
 청: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집에서 놀 수 없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려고 해도 나이도 좀 그렇고 배운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정규직 같은곳 취직하기도 힘들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그렇게 힘든것같고요. 학력같은거 많이 안타지고 그런다고 해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한글자라도 더 배운사람 쓰지 못배운사람 쓰지 않잖아요. 그런거 같아요..
 상: 친구들하고 사이는 어땠어 잘 지내?
 청: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야~ 너 좋겠다.. 그리고 영웅대접받다가 . 하나둘씩 연락 잘 안하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자주 볼때는 친하고 자주 어울릴기회가 있었는데 자주안보니까 연락이 뜸하죠. 저같은 경우는 그만둔지 8년 가까이 되니까요. 지금도 솔직하게 연락하는 애들은 몇 명안되요. 친하게 지냈던 애들도 한 6년 있다만나고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렇죠.
 청: 근데 그런거 제외하고는요 나름대로 괜찮은거 같은데요. 일찍 그만두고 여러가지 경험해보는것도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생각해보면 도움이 되는거 같아요.
 상: 너희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는거 보다 오히려 성인들과 대화하는것 같아. 사회경험을 일찍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하고 하고 싶은거 뚜렷하게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구.
 청: 제가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학력을 물어보길래. 어떤 고등학교 이름을 대면서 거기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상고나 공고 이름을 대면 거기서 일하는애들 정보망이 있으니까 인문계고등학교를 댕겨예요. 거기서 사장님이 인문계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대단하다. 그러신거예요. 그렇게 3개월정도 하다가 들통났죠. 근데 그때 생각을 한게 나중에 들통날꺼 뻔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줄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색안하고 잘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니까 나중에 사장님도 봐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해주는곳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들여보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한달정도 급여 밀려서 주고. 들어보면 웃긴애들도 많아요. 사장쪽에서 볼때 안좋은게 뭐냐면 하루를 딱 일하고 하루치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애들

은 무조건 100% 그날 일하고 하루 3만원받고 다음날 안나오고, 또 한 몇일 잘 일을 해요. 그러다가 2주 일치 가불해달라고 해서 그거 받고 그냥 안나오고.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게 좀 많은거 같아요.

상: 그렇구나. 또 혹시 가출하거나 그랬을때 갈 때 없고 그래서 어디 도움을 청해본 적 있어? 하긴 정보가 별로 없지?

청: 없는게 아니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청: 솔직히 시설같은데 들어가면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차타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실상으로는 동대문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거기 가출한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쪽으로는 안와요.

청: 그런거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요. 도와준다고 해도 선뜻 믿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인데. 돈을 벌어서 주면서 할꺼 하고 그런거 아니고 청소년봉사라는 타이틀 아래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잘해줄까 정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상: 어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보다.

청: 그런것 보다는 워낙 부모님들이 힘드시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 세상에 도둑놈뿐이라고 믿을놈 하나 없다고 그러시는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좀 박히는것 같아요.

상: 혹 도움주는 이동차량 그런것 못봤어?

청: 현혈차밖에 못봤어요.

상: 동대문에 이동쉼터 이렇게 나간다고 하던데. 많이 못봤나보다.

청: 요즘예요. 시설들이 대안학교등으로 이름을 바꾸더라구요.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았잖아요.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최고 100명 수용할 수 있으면요. 그 인가 때문에 60명정도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안그래도 시설도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들어온 애들 가출 좀 안시켜보겠다고 하는건데 나가야 하는거니까. 그냥 되풀이 되는거잖아요.

청: 인가를 받기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거죠.

청: 상담소에서요. 원래는 60명인데. 어짜피 교육부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70명 정도 데리고 있고. 근데 상담소에서는 미국에 데이탑이라는 기관이있는데 TC라고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든곳이 있거든요. 교육관에서도 하는데요. 더군다나 상담소는 거의 TC 체제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밖에서 놀다가 온 애한테 아침부터 모닝미팅이라고 아침부터 거기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단 말이에요.근데 그게 몸에 안배이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놔두는데 두세달 지나면 하라고 하죠.

상: 아. 그렇구나.거기에 맞춰서 하는게 쉽지는 않겠네.아.그럼 다시 인터뷰 주제를 상기하며. 더 하고 싶은 말들 없니?? 처음에 여기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그런게 힘들고 그랬을것 같은데. 어땠어?

청: 사람들이랑 지속적으로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게 두렵다고 해야하나. 너무 오랫동안 단체생활 이런경험이 없어서. 처음엔 그냥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요. 학교

그만두고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어서요. 대인기피증이라나 그런거 있었어요. 아직도 좀 그래요. 어디 가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상: 아직도 그래?

청: 네. 좀.

상: 그래도 여기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적응하고 있는거지. 방학지나고 안오는 사람들도 있다며..

청: 네 아직도 방학인줄 아는 애들도 있어요.

청: 하하

상: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혹시 아직까지 이야기 못한거. 아. 나중에 지나서 이거 이야기할걸 하는거,,후회하지 말고.

청: 아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중에 대학들어난 애들보면 사회복지사가 평생 직장이라고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하면서 하는거 보면 그런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상: 내가 볼 때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면 안되는거 같아.

청: 방송에 보면 평생직장이다.. 그걸로만 광고를 하잖아요. 솔직히 사회복지사가 월급이 많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상: 맞아. 전문용어로 소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보니 빨리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일이 힘든 만큼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청: 근데 여기서 꽃동네 봉사 가거든요. 거기 가서 몇일봉사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나올 때 나중에 되고싶은 직업란에 제가 사회복지사 쓰고 그랬어요.근데 나와서는 그런 생각 잊어버리고.하하

청: 여기에 몇년전에 생활하던 **형이 꽃동네 봉사갔었는데요.그때 열몇살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안돌아오고 있다가 몇년 후에 지금 25살인가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사회복지사 되어서 지금도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상: 아. 훌륭한 분이네. 봉사활동 갔다가 거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로써 일하고.

청: 아 갑자기 생각난건데요.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요. 사람들이 불량학생이다. 그런식을 하다.보니까요. 자신감이라든지 그런거. 많이 주눅들고. 뭘 생각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뭘하면 꼭 내가 몰라서 속는거 같고. 그랬어요.

청: 회복이 힘들어요.

청: 아. 한번 그러면 마음이 회복하기 힘들다는거지..

상: 그래. 오늘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도움 준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모두들 수고 많았고요. 고마워요.

유형3.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구분	내용
유형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집단 인터뷰 1
장소	소년원(S소년원)
소재지	경기도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4:00-16: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인제.. 이 내용을 정리 하려고 해.. 이거는 좀 . 더 .자.. 그러면 인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학교를 그만 둔 뒤에 힘든 점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미리 얘기 들은 거 아니네. 어. 근데. 어떻게서. 그거 인물로 뽑았나?

청: 그까 여기 제일 늦게 온..

상: 아~~아. 맞아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 그지 왜 그걸 부탁했냐면. 기억이 더 생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오래되면. 기억이 가물가물 할까봐. 아. 또 다른. 그 조건이었나?

청: 그리고 나이.

상: 나이. 나이가 몇 살.

청: 만 14세에서 만18세까지.

상: 어. 그래 나이. 였고. 뭐. 인물 순으로도 뽑는다.네. 그리고 말빨. 말 잘하는..

청: 그건 아니예요.

상: 그건 아니고.

청: 예

상: 만나서 반가워요. 어.

청: 예

상: 자, 한번 시작해 볼까. 힘들면 조금 쉬었다. 중간에 할꺼니까 그냥 생각나는대로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청: 예..

상: 어. 어.

청: 아침에 일어나서요.

상: 어

청: 친구들 학교 가는데..놀 사람 없으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상: 아~ 아. 그렇구나 남들 다. 학교 가는데 나만 집에 있네?

청: 네.

상: 그때 기분이 어떤 거야?

청: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 어. 아무 생각 없고.. 또. 참 친구 얘기 잘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거

야. 어.또 힘들었던 점.

청: 교복 못 입는거요.

상: 아.. 맞아. 교복 못 입는거.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뭐 부러웠던 거예요?

청: 예.

상: 아.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처음엔 좋지 않아요.

청: 예 처음엔 좋아요.

상: 어. 처음에. 늦게 까지 자도 되고. 그지. 학교 안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청: 예.

상: 근데 그게 한 어느 정도 가요?

청: 한 두 세달 갑니다..

상: 두 세달? 어~~어 집에 굳이 집에 안가도 되고.그지. 근데 그게 한 두 세달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찌. 어떻게..

청: 후회됩니다..

상: 어?

청: 후회된다고요.

상: 어 후회되고.음.. 그 다음 또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청: 다른 또. 친구들도 없어요. 더 좋은 친구들

상: 음?

청: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못 사귀요

상: 아~ 친구를 많이 못 사귀다고? 음. 그래 그런 점도 있겠다. 어떻게 학교 나오고 나서는 주로 누구랑 논거예요?

청: 아..난 다른 친구도 많이 있긴 있는데. 학교 말고 또 따른 더 많은 친구들 막 타지에서 오는 그런 친구들.. 못 살게 구니까...(잘 안들림.) 그런것도 있어요.

상: 아.. 아 그래요. 예 잘했어요. 또 어떤거?

청: 사람들이 학교 안다닌다고요. 친구 부모님들이 학교 안다닌다고 막 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상: 아~ 놀지 말라고.

청: 그까 애는 질이 안 좋다는 식으로 말하죠.

상: 아~ 그래 그런 일도 있겠다.. 어. 그래. 또 어떻게 있을까?

청: 막 나중에 커가지고 학교 못나와 가지고 직장 같은거 ..못 얻으면 어떻하나 그런 생각 들고..

상: 으~음. 참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애. 아.. 참 얘기를 잘한다.. 어 또.. 영덕, 영덕. 집이 영덕이 아니지?

청: 예~에.. 이케 학교 아다니면 커서 후회할 일들이 후회될 일들을...

상: 아. 미리 좀 걱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청: 예. 좀...

상: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형님은

청: 예?

상: 어.

청:예..생각 좀.(잘 들리지 않음)

상: 어. 생각 나는데로 얘기하자. 생가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꼭 해볼까..

청:애들 고등학교 입학한다고요 그런거.지 학교 입학 원서내고 그러는데 저 혼자 이제 막 혼자 그런거 애들이랑 그런 말 못하고. 있고.

상: 어. 아~ 그치!. 뭐 성적도 딱히 좋은 것도 아니면서 그치. 이래저래 넣는다고 할때. 나는 그때 할말이 별로 없었구나.

청: 네...에

상: 근데 어떻게 비슷한 경험들 아닌가?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다.. 나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있을까요?

청: 딴 애들 학교 끝나고 오면은 학교 얘기하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

상: 어~~~~

청: 할말이 없고..

상: 아~ 같이 끼어들지는 못하는구나. 어떤 이야기는.. 특히 뭐가 그래요. 학교. 선생님 씹어대는 이야기?

청: 그런 것도 있고요. 시험 때는 막. 시험 같은거.. 어떤 거. 어떤 거. 지네끼리 말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상: 그래 맞아. 그런 점..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청: 막 그지 갔죠.(희미하게)

상: 아..그래 같이 안 놀수 도 없고. 그지? 어. 참. 참 중요한 얘기했다.. 또 또 어떻게 있을까?

청: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그런 것도...

상: 음. .음.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잖아. 친구들이. 그지? 밖에 학교를 안가면..그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손길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청: 막.. .애들이 나를 막. 그간 .놀다가 보면은 막 따른 학교 애들이랑 놀다.보면 막 밤9시 10시 되면은 또. 아 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밤 오늘 밤 새자고 밤새우고 막 학교도 안가니까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부모님 일 나가시니까 .. 또 놀고. 그러다가 막 아빠 같은 무서우면 가출하고.(희미하게 들림)..

상: 음..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외박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청: 예 .

상: 아무래도 학교 안가도 되니까. 그지. 어.. 그리고 금방 친구 중요한 얘기했었는데.

청: 나쁜 친구들...(잘 들리지 않음)

상: 어 그래. 만나게 된다고. 주로 예를 조금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본인 경험이어도 되고 아니면 친구 얘기여도 괜찮고.

청: 그까. 제가 학교 안가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놀다. 보면. 막 밤 늦게 돌아다니고. 가출하고. 돈 없으면 막 돈 뺏고.

상: 뺏? 뺏 뜯는거 얘기하나 보구나. 어

청: 돈 뺏고 야간에 막 피시방 같은데 들어가서...

상: 어. 밤샘하게 되고?. 음.. 부모님들은 어떠셨어? 내가 학교를 그만 둔 뒤에는?

청:처음에는 막 학교 계속 복학 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다가 포기해요. 학교는 포기하고 나쁜 일만 하지 말라고. 그냥 집에만 잘 들어와 자라고. 이런식으로..(.. 끝말이 잘 들리지 않음)

상: 음. 근데 어때? 내 자식이 학교 그만 두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 친척들에게 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청: 어. 엄마 친구랑 한테 막 챙피하니까 .. 그런 얘기 못하다가

상: 음.

청: 막.. 따른 부모님들..이렇게 안좋게 보고(잘 들리지 않음).. 친척들은. 친척들도 막 안좋게 보고. 그래요..

상: 음. 음. 그렇잖나. 그지?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좀 쪽 팔려 하시고 그지? 친척들.. 친척들 모임에 가면 어때요? **군..

청: 예?

상: 친척들 모임에 가면.

청: 챙피해요.

상: 아~아 왜.. 어른들이 뭐라 하셔?

청: 예.. 예 그렇죠. 학교. 학교 왜 그만 뒀냐고. 그러면서..

상:음..

청: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요

상: 기분 좋은 소리 듣는 것 보다 좀.. 그지. 기분 나쁜 말 많이 듣겠다.. 친구(?)들 모임이면은 좀 어땠던거 같아요?

청: 막. 그냥.. 가끔씩 애들이 막 너는 커서 뭐할래 이러면서 막.. 못해도 중학교는 졸업해야지 막 애들 졸업했으니까 막 너는 커서 뭐할래.. 막 놀리는 식으로 막..

상: 아..

청: 그래도 중학교 졸업해라. 막 이렇게 하다. 기분 나쁘면 막.. (잘 안들림..)

상: 그때 애들이라면 누구.?

청: 친구들.

상: 아. 친구들. 졸업 안하는. 졸업도 못하고 뭐할래.. 아..

청: 예..

상: 그래 그런 얘기 자주 좀 들을 것 같다.. 그지? 혹시 또 다른 뭐 일들 없어요?

청: 같이 사고 쳐서요.경찰서 가도요. 그까 애는 학교 다닌다고 구속 안시키고, 저는 학교 안다닌다고 구속 시켜요.

상: 음. .으~~음. 그러니까 똑같이 사고 치고도 대우가 좀 다르다.매..

청:예. 막 차별 당해요.

상: 어. 오늘 어. 예를 한번 들어볼래.차라리. ..어떤 일이 있었어?

청: 경찰서 같은데 가면..

상: 음.

청: 학교 다니고. 학교 안다니잖아요. 학교 안다니면 개 취급 받고.

상: 예. 그래요? 뭐. 취급한다고?

청: 개 취급..
 상: 개 취급해. 그럼 개 취급한다는게 어떤거야?
 청:
 상: 그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야?
 청: 예..일단은 때리고.(잘 들리지 않음.)
 상: 아..어쩌면 똑같은 사고를 친건데도 그지? 참 대우가 많이 다르다.. 으..음. 또 어떤게 있었을까? 우리 홍덕 군도. 한 말씀 해보시죠.
 청: 예?
 상: 어. 어떻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니어도 다른 얘기..괜찮아.
 청: 저 하나로 인하여.. 그 부모님들이 말 싸움 하는거..
 상: 아~~~~~, 내 문제 갖고 부모님들이 잘 다.투신다는 얘기구나?
 청: 예.
 상: 어.그런 일들도 많을 것 같애.. 혹시 학교 안다니니까 용돈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청: 용돈, 일해 가지고 .. 써가지고..
 상: 어. 그래요? 어.. 뭐 집에서 받아 쓴건 별로 없어서?
 청: 예~에
 상: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때? 학교 안다니니까 용돈도 안주고.
 청: 그냥, 그.. 돈 벌어서 쓰라고 해요.
 상: 으~음. 그럼 부모님한테는 받은 적 별로 없다. 그지? 어~ 그럼 어떤 일들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면 아무래도 뭔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꺼 아니야
 청: 예~ 주로 주유소, 배달.
 상: 주유소, 배달, 어~ 짜장면 배달? 아니면 피자?
 청: 예~에
 상: 어~ 또 어떤 일 했어요?
 청: 공장이요.
 상: 공장도 다.녔어? 어~ 그럼 월급을 얼마나 받은거니?
 청: 친척 공장이요.
 상: 아.친척공장.. 친척 공장이 있어? 어~어 혹시 그런거 할 때도 학교 안다니기 때문에 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
 청: 그런건 없어요
 상: 으~음, 뭐 일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학교 안가는 애들은 ..
 청: 그까 학교 안다니면요.. 그만큼 이를 풀타임으로 뛰죠.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상: 아~ 일을 많이 했구나. 이 친구는 일 많이 했나보다. 한번 하면 끝까지 해요?
 청: 예~에
 상: 얼마나 해요? 한 번 시작하면.
 청: 한 번 시작하면은 같은 곳에서 거의..한 오육 개월 있다 나올때도 있고.
 상: 음 ~ 그렇구나. 무슨 일을 해봤던 거야. 아까 뭐. 배달하는거 말고. 다른 일은 없어요?

청: 예~에

상: 으~음. 혹시 다른 친구들은 일할 때 이렇게 뭐 부당한거.. 돈을 제대로 못 받았
다.던지. 뭐 때렸다.던지. 그런 경험은 없나?

청: 딱. 일, 일, 하루...다르데 갔다. 못 나갔는데(희미하게 들림) 그런데, 주급
안 컷습니다.

상: 음. 그게 뭐야.

청: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주급으로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 음. 그래

청: 예. 근데 딱 하루 재껴다고 그거 안컷습니다.

상: 어~ 그래. 그런거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월급 받을 때까지.. 주급 받을 때까
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면 그 동안 일했던 거 다. 땡이라고 그러데.

청: 예~에

상: 아~ 혹시 다른 친구는 그런거 없어? 주급이든 월급도 마찬가지로일꺼 아냐. 근데
어떻게 항의도 못했어요? 항의 해봤던 적은 없어?

청: 돈 달라고 그러니까 막 .. 그쪽에서 때려 치라고 그랬어요.

상: 그랬어? 으~음. 또 어떻게 있을까. 우리 한 두가지씩만 얘기하고 좀 쉬어야
겠다. 그지? 두 가지씩만 더 얘기해 볼까/

청: 뭐.. 그 주유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또 사장이..‘너는 학교도 제대
로 못 다니면서 일이 학교 보다 더 힘들텐데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고..

상: 아~ 아. 그런식으로 대할 때.. 사람 꺾어보지도 않아 놓고. 그지? 이런 식으로..
이런식의 얘기들은 꽤 들을 것 같은데.. 학교도 안다니는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듣지 않나요? 음~ 돌아가면서 하자, 두 개씩만 하고 쉬자.
하나. 음 하나했고. 영덕군?

청: 저는 학교 안 다니면.. 부모님께서 뭐 징역..징역 받기를 바라고.

상: 아~ 막 그러셨어요?

청: 가서.. 일년동안 있다가..나. 집에 오라 그러고. 그런 말도..

상: 아~ 그런 말을 막 하셨다고?

청: 예~에

청: 아이들 수학여행 갈때도..

상: 음

청: 막 개들 돈 받고요 막 수학여행 갔다. 남은 돈은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제 돈으로 일해서 써야된다는..그럴때 많이 섭섭했어요.(말 끝이 흐려
져 희미하게 들림)

상: 아~ 그랬구나. 근데 많이 섭섭하게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가거나, 학교들 무슨
행사할 때 친구들 많이 못 가잖아.

청: 예

상: 그럴 때 조금 많이 심심하다고 그러던데. 아이들 다. 수학여행 가 있고. 뭐 놀 애
들이 없었다. 뭐.아까 여자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음.. 그 다음에. 또?

청: 가끔씩. 아~ 아버지가 막 술 드시고 와가지고 공부 막 제대로 못하게 하게...

미안하다고. 공부.. 아빠가 부족해서 막..미안하다고 우실 때. 엄청 속상하고.

상: 으~ 음. 음. 그때 마음 좀 그랬겠다. 그지? 아버지가 그리도 우시나. 정말..음.
그 다음 또..

청: 부모님하고. 화내고. 욕하고 얘기할 때. 그럴려면 공장에나 가라고..(말 끝이 흐려져 끝 부분이 들리지 않음)

상: 진짜 그랬어? 공장이나 가라고? 음. 근데 그게 되게 말도 험하고. 험악하게 말하고 그러셨나봐.

청: 예. 좀 그렇게 험악한건 아닌데.가기 싫다고 해도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그래가지고.. 막 집에 안들아가고..(희미하게 들림)

상: 아~ 그래. 좋아. 제네들 뭐하나 열심히 부른다.. 그지? 누군지 알아요? 알 것 같은데.

청: 예~

상: 자 한가지씩만 더하고 쉬어야겠다. 더우니까 그지? 집중하기 힘들다. 그지. 하나 더 해보자 뭐가 있나?

청: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 막 욕할 때.

상: 부모님 욕해?

청: 예. 학교도 안보낸다고.

상: 그럼 부모님이 뭐라하셔?

청: 그냥.....우셔요.. 나가.. (말 소리가 적고 주변에 소음 때문에 희미하게 들림)

상: 아~ 그 다음에. .아 친구야. 잘

청: 저는 외할머니 생신 때 갔는데 친척들 와가지고 너 뭐하면서 지내야고, 학교 왜 짤렸냐고..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요.

상: 음. 친척들이 그지.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애. 그 다음에 또?

청: 생각 잘 안나요.

상: 일단 건너 갈까?

청: 누나와. 가족이 차별할 때

상: 아~~ 얘기 해..

청: 막 누나. 뭐냐. 뭐 해줄때도 생일 지나면은 막 옷사주잖아요. 옷 사줄때도 차별 나게 누나는 막 비싼거 사주고.나는싼 거 막. .그런거 사주고. 돈 벌어서 쓰라고.. 그런것도 좀 가족들이 차별대우할 때.

상: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차별당하면. 그 다음

청: 생각 안나요.

상: 생각 안나요? 그럼 다시 시작할 때 두 친구부터 시작하기다..잠깐 쉬자.
(잠깐 휴식)

상: 더워서 미안하긴 한데 힘 냅시다. **군도 힘내자.

청: 예~

상: 내가 이름을. 금방 기억했어. **.해가지고.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이제 힘든 점은.. 아~ 아까 그 복학 어떻게 하다가 복학 할려고 했었는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청: 예~ 막 후회 되가지고 버텼는데. 진짜 막 잘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고 버텼는데. 결국 다니니까 또.또. 다니기 싫어지고.

상: 음~ 그게 다니기 싫었던 이유가 어떤거예요.

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거..

상: 아~ 규칙적이 생활을 한다는게 참 힘들다.. 그지?

청: 예~

상: 어. 혹시 학교 안에 가서 뭐 누가 안좋은 시선으로 보고 그런건 없어요?

청: 막~ 막. 학교에 가기가. 잘 어울리지 못했죠. 거의 (자세하게 들리지 않음)

상: 아~ 학교 가서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음. 선생님들이 좀 보살펴 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흔히들 어떻게..

청: 선생님들 막 이랬는데요. 보통 애들 막 때리다가. 저는 복학생이라. 저랑 어울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래요.

상: 아~ 그럼 내가 좀 같이 다니는 애들은 같이 찍히는 애들이네.. 어..아~

청: 예. 쯤만 잘못해도. 막 때리고. 보통 애들고 다르게.

상: 아~ 다르게. 음. 그니까 좀 안좋은 쪽으로 다르게 대했다. 이거네..

청: 예.

상: 음. **군도. 학교에 다시 복학 안했다. 했나? 복학했었나?

청: 복학 했습니다.

상: 으~음. 복학했어? 먼 맘 먹고 복학했던거예요.

청: 군학 그 입학 할때까지 열심히 다니기로..

상: 다니기로 했는디. 어..

청: 나쁜..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끝 부분이 잘 들리지 않음)

상: 어. 그럼 여기 들어보면서. 학교가 끊긴 거예요?

청: 예.

상: 아~ 예.. 우리 노란. 노란맨. 음

청: 했었는데.. 딱. 처음에 복학 할려고 생각 했던게. 이대로 놀면 안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안되요.

상: 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청: 1학기는 잘 나갔는데요 2학기때. 그.친구들 하고 또 딱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학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출석일 수 모잘라고.그래가지고.

상: 음.. 그랬구나. 그니까 마음은 잘 할려고 했었는데. 그지? 잘 안됐구나. 학교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대했던거 같아요?

청: 복학생이라고 거의 터치는 안했는데요. 아. 좀 그런게 있어요. 터치는 안하는데 저한테만 딱 집중되는거. 복학생이라.

상: 음.. 집중된다는건 어떤 의미예요?

청: 제가 그까 탄 애들하고 비교 했을 때 제가 쯤만 똑타은 잘못을 했는데도 저는 복학생이라고 더 안좋은 시선으로 보고요.

상: 어~ 혹시 그런게 학교 뿐만 아니고, 이.. 사고 쳐갔고. 파출소나 경찰서 가셔도 그런거 있지 않나요?

청: 복학생이라고..

상: 복학생이라고. 아니면 학교 안다니다고? 음

청: 복학생이라고. 어쨌든.. 아.. 그리고 구속 됐을 때요.

상: 음.

청: 구속 됐을 때 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조건이 없어요.
보석이 거의 안 받아 들여져요.

상: 음.

청: 나가서 애는 또 사고 칠 가능성도 있고. 그럴꺼라고 안하는데. 학교 다니는 애
들은 학교를 일단 다니니까 거기서 먹어줘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요.

상: 음. 학교를 다니라고 계속..

청: 네..

상: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파출소나 경찰서 갔을 때 아저씨들이 좀 더 험
하게 대했던 일은 없어요?

청: ~ 그런건. 없어요.

상: 어떤 딱지를 계속 썩운다.라는거.. 느낌 있잖아. 학교 안다니는 .

청: 아~ 그런거 있어요.

상:어. 그까 뭐든지 해도 잘 못할거다.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는.. 보지는 않는지.

청:.....

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청: 일단 학교를 안다니면 정상적으로..그. 생활을 안하니까 ..낮하고 밤이 바뀌었잖
습니까.. 그리고 그 낮에는 어차피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할게 많으니
까. 딱..밤에는... 밤에는 할것도 없고.. 심심하잖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애들하
고 막..그냥 막 놀다가도 막 돈 없으면. 막. 흠치게 되고. 막 어차피. 내일 학교
같은 것도 안가니까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서.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돈도 없
고. 그러니까 나쁜 짓하게 되고..

상: 음~~ 아무래도 나쁜 짓하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지요?

청: 예~에

상: 아~ 아니 참 좋은 얘기 해 준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학교를 안가니
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니까 그 남은 시간들을 주로 뭘 했던 것 같은지..

청: 저는 아까..아까..어..집에서 가만히. TV만 보고.. / 잠자고..

상: 잠자고. .맹해지는 느낌 들것 같은...

청: 너무 심심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상: 어.어.어.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청: 어.어리석다는 생각.

상: 어리석구나.....전에 누굴 만났더니 뭐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가 찍 쳐다보더니.
니는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하면서. 밥 먹는 것도 부모들이 아까워한다고.
그러드만.. 너무 극단적인 경운가? “너는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음. 또 어
떤게 있을까? 학교를 그만 둔 뒤. 학교를 그만뒤서 힘들었던 점.

청:.....

상: 여자 친구 사귀는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청: 그런것도..
 상: 아님 여자 친구는 학교 다닌다.든지..이래서..
 청: 그까. 막 반팅 같은거 할때. 떨어져서.(잘 들리지 않음)
 상: 어.어.
 청: 반팅 같은 거 하면 막, 애들이 막 그니까. 학교 다니니까 학교 때 막 그 남자여
 자 만나지 않습니까?.
 상: 예~에
 청: 반팅하는데. 막 여자애들이 딱 저한테. 딱.너~ 너는 어디 학교. 어디학교 . 막
 이러면. 나 학교 안다닌다고.막 (떨리고..) 괜히 막 쫓 쫓스럽고. 민만하고. 그
 러는 경우도 있어요.
 상: 음~ 그렇구나. 근데 반팅할때는 반이 아니어도 끼워주는 거예요?
 청: 예.
 상: 친구들이? 아. 끼워 줬다가 나가서 여자친구가 물어보며, 쫓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어! 혹시 뭐 소개팅에서 소개팅이나 여자친구 사귀면서 뭐 애로
 사항은 없는지.
 청: 그까 사귀기 전에 어디학교 다니냐.막 그러믄. 뭐. 그러믄은 그냥 말 따른 걸로
 들려요. 할 말이 없고요.창피해요.
 상: 음..혹시 친구 사귀는 애들이 좀.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귀는 애들이
 좀 범위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그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 학교 안다니면
 그런 아이들하고만 많이 어울리는건지 아니면은 . 아님 계속 학교 다니는 친구
 들하고 계속 만나는지.
 청: 예./ 예.
 상: 둘 다.요?.. 어~
 청: 예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다니는 애들은. 있는데
 다니는 애들은 적어요.대부분 거의 안다녀요..
 상: 음. 그렇구나. 음. 근데. 또 어떻게 있을까? 친구들 혹시 학생증이 없어서 어려
 움 겪지 않아요?
 청: 예.버스카드 만들때.
 상: 어. .그렇지 버스카드 만들때.어어.
 청: 그 막. 신분증. 막. 어. 학생증 달라고 그럴때. 없어가지고. 못하고. 막. 친구들
 때문에. 도서관 가는데. 여자친구랑 도서관 가주는데. 나는 뭐지. 학생증 없다
 고. 안된다고.
 상: 도서관도 안 들어다.보내줘요?
 청: 학생증. 막. 그. 없으면.
 상: 아. 그래요? 어는 도서관에.그런 대가 있어?
 청: 저희 동네요.돈 내고 하는 그런 도서관 있잖아요.
 상: 아 그래요.
 청: 나라에서 막 공짜로 그런데 말고, 돈 내고 막. 그 개인 도서관 같은데는 학생증

있어야 되요.

상: 아~ 아. 참 그것도 참 무안하겠다. 그지? 여자 친구랑 같이 갔을 때.. 또 학생증 없어갔고 할인 혜택 못 받은 적 있지 않나요?

청: 영화볼 때. 영화보러 가서 학생증 없다고 학생 할인 안되고 성인 요금 내고 볼때.

상: 그럼 성인 요금 다. 내야되는거예요?

청: 네~에

상: 또. 그 동네마다 보면 있잖아. 버스 탈 때 찍하고 찍으면 ‘청소년입니다.’ 이런 거 나오는 동네 있지 않아?

청: 맞아요. 다. 있어요.

상: 다.. 요즘은 웬만하면 그지? 이게 교통카드로 하니까. 그문 할인 학생카드 써요?

청:.. 학생꺼. 학생꺼. 쓰는데요.

상: 써요?. 어. 그문 청소년입니다.. 이거 나오잖아.

청: 네. 그럴 때 기사아저씨랑. 싸우잖아요.

상: 어. 한 번 예를 들어서..

청: 학생 머리로 아니면서 학생카드 갖고 다닌다고. 학생이라고.. 머리 긴 학교도 있다고. .막 거짓말한다고.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머리 길이가 두발 자율하는.

상: 음. .두발자유회는 있지.

청: 학교 안다니면서 학교 다닌다고 막 ...어디 근처 말고.. 또 그리고 머리 두발 자율화 하는 중학교 다닌다고.물어보라고..그런것도 있어요. 등본 떼러갈 때.

상: 어. 어. 등본 떼러갈 때.

청: 일하다가 등본 떼러가서..(....잘 들리지 않음..) .신분증....달라고.

상: 아.. 그러면 내가 못 떼는거네. 직접. .아.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럴때는. 어. 어. .진짜. 또 없어요? 학생증이 없어서 뭘 못하는 일?

청: 면허 탈 때.

상: 면허요? 뭐. 오토바이 면허?

청: 예. 오토바이 면허

상: 아. 원동기구도 뭔가증이 있어야 되나?

청: 예. 학생증 갔다가 . 등본도 떼어야 되고. 또 학교 직접가서 생활기록부도 떼어야 되고. 그런 거요.

상: 아..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그 어떻게 땀어? 원동기.. 만 애들 있지 않나? 배달 했으면..

청: 아뇨.

상: 어. 어. .무! 면허로 하는 거야?

청:(웃으면서) 예..에

상: 무면허도 써 줘? 이런. 배달 집에서?

청: 예.

상: 아.. 혹시 또 다른건 없나? 학생증이 없어서 불편했던 일..

청:

상: 이제 막 생각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지?. 음.

청:

상: 또 뭐가 있을까.. 음?

청:.....,,

상: 형님들 어떠십니까? 어. 별로 안좋았나보다.

청:.....

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뭐가 있을까?

청:.....

상: 아이디어 있는 사람만 계속 얘기해 봐..

청: 생각 안나요.

상: 이제 생각이 안나요? 또. 뭐가 있을까? 음. 혹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고 학교를 안가니깐 환경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나쁜 짓을 하게끔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음

청:.....

상: 근데 셔츠가 다..다르다..근데 왜. 다른거지?

청: 그냥. 저기.

상: 아. 몇 개? 세 개가 있는거예요? T-셔츠가 음. 옷은 여기서 되게 깨끗하게입니다..

청: 그러쥬. 할게 없으니까.

상: 음. 빨래하는 거예요?

청: 예.

상: 하루에 몇 개씩 갈아입나보다.

청: 가끔.

상: 애는 훨씬 더 깨끗하네. 애는 다리나봐. 친구는 보니까 빨래 이렇게 딱딱 맞춰줬고. 접어서 말리는 스타일 같은데.. 근데 앞에 줄을 잡은게.

청: 겔 때. 잘 개서.

상: 겔 때 잘개서 그러는 거예요? 어.어.. 그 다음 또 없나?

청:.....

상: 그럼 좀 쉬었다. 할까? 좀. 어차피.

청:그. 막. 어른들한테 괜히 무시 당하고..(? 끝말이 들리지 않음)

상: 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청: 뭐지.. 막 그 너는 진짜 커서 뭐 될래.이러고 막. 웬만하면은 일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냐. 공사장 들어가서 돈이나 벌지.. 회사 못 갈려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교도소 같은데나 또 들락거리지. 말 심하게 하면. 또 상처 받고.

상: 으~ 음. 막 말을 하셨구나. 그지?

청: 아..경찰아저씨들도 딱 나쁜짓.. 학교 안다닌다고 막. 아침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왜 안가냐고.. 그러면서. 괜히 경찰들한테. 찍혀 가지고 맨날. 그냥 가고 있는데도 잡아가지고. 막 소지품 검사하고.

상: 으~음.

청: 그.불편함...(들리지 않음)

상: 그가 낮에 뭐 활동한다.느게 되게 힘들다.. 그지? 찍힐 일이 많은거네..으~음

청: 그리고 아침에 한 열 두시 반 되가지고 막 슈퍼 같은데 가도 학생 학교 안가.이러면 할 말 없고.

상: 어~ 어. .게도 학생증은 없지만. 어디 술이나 담배 사러갈 땐 편안한 점도 있지 않아? 친구들한테 다. 잘 줘요? 담배나 . 사러가면? 검사안해? 그. 학생증검사나..

청: 머리 길고.. .(목소리 작아서 들리지 않음)

상: 학생으로 안보는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까 여자친구들은 그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던데... 나이는 어린데도 그냥 증검사 안하고도 술, 담배 파는거 보고.. 친구는 어땠어요?

청: 담배는 사는거 좋은데요. 근데. 모르는 사람...친구...
(이야기 도중 누군가 들어와서 쿡김. 뭔가 많이 잡았느냐는 애기가 오고 감.)

상: 또. 뭐가 있을까.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군은? 음. 우리 그럼 한 두가지씩만 얘기하고 끝내자 그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으니까?.어

청: 네~예.생각안나요.

상: 이제 생각이 안난다고? 어떻하냐. 최대 머리라도 짜내보면. 두 가지씩만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많이 나왔거든.

청: 스승의 날 때.

상: 어~ 그래.어 맞아. 어. 한번 얘기해봐.

청: 스승의 날 때 애들은 막 카네이션 사러 막 간다고 막 꽃 집가고.막 그러는데. 너 누구 선생님한테 갈 꺼니. 누구 선생님한테 갈꺼니. 막 물어보면. 난 중학교 1학년도 못다.녔는데.. 선생님이.이름도 생각.. 기억도 안나고. 그냥.. 인제 막 다 다른 학교들 그 뭐냐. 다른 학교 이동해서 다른 애들은 막 카네이션 사서 선생님 꽃달아드리고..(즐겁게 노는데..) 나는 그냥 . 동네 피시방에 가서 애들 기다리고..

상: 음~ 아 맞네.. 어. 형님 참 중요한 얘기 했다.. 어. 형님처럼 얘기해 보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할당량 두 개 다. 못하면 못간다..

청: 중학교때..졸업하고.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도 못하니까.. 한명.한명. 졸업하고. 학교 정하고. 전 못하고.

사: 그가 또래들은 졸업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지? 고등학교 가서 얘기하면 난 할말이 없다는 거지.. 음. 좋아. 하나.

청: 부모님께서. 부모님 생신할 때. 그때 선물 안 줘가지고. 안 들여가지고 섭섭하고.

상: 음. 부모님이 섭섭해 하셨다고요?

청: 예. 부모님이 좀.. (다른아이: 그게 뭔 상관이야..)

상: 그래. 그게 학교 그만 두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청: 아~ 그냥 학교 안다닌다고. 몇 일 있다가 부모님 생신인데. 학교도 잘 안다니고. 그래 갖고. 좀.

상: 아~~아. 알겠다. 그가 생신이면 뭔가 자식으로써 뭔가 무슨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지?

청: 예

상: 어~ 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 생신에 드릴게 없었다. 이거 애 기하는거야? 어?

청:예

상: 음. .영덕군 했고, 그 다음엔

청: 부모님이요. 부모님 친구들하고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 친구들은 자기 막 아들, 딸들. 어디 학교 가고 성적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 못할 때 그 때. 그런거 보면. 좀 그래요.

상: 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 그지 좀 그지. 우사스러운 일이 있구나.어.

청: 친구들 만날 때. 막 못 알아 듣는 말 할 때. 유식한 말로. .안배우고. .이상한 말 할 때. 차별감이 엄청 느껴지....(말끝이 흐려짐). 얘기할 때 .그 때 못알아들어요. 뭐 하는 애긴지.

상: 어. 어 그지. 내가 학교를 아다녀서 공부를 안한게 오래되서 실은 새로운 지식 들을 모르는거다. 그지? 어. 형구 얘기한게 맞아. 좋아. .이젠 마지막 하나씩.

청: 명절 딱 돌아오면. 가족. 친척들 다. 모였는데. 딱 .년 요번에 학교를 가든지. 검정고시를 꼭 해야된다고..이런 말 들을 때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니까 뭐 계속 그런말 하니까.

상: 음. 음. 혹시 뭐 새배돈에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청: 예. 새배돈에도 . 고등학교 막 올라가는 애들 돈 더주고. 학교도 안다닌다고. 그냥. 일이나 하라고 새배돈도 안주고.

상: 어. .그래. 그래. 그렇기도 하겠다. 그지? 니가 벌어서 써라. 그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하나씩만 더 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힘내고. 어. 하 나씩만 더. .영덕군..

청: .. 생각해 볼게요.

상: 어. 그래. 넘기자

청: 형은 막 대학교 가는데 저는 학교도 안다니니까 차라리 일을 해서 형 대학 학 비나 벌라고 .. 이렇게..

상: 어. 아. 옛날도 아니고 뭐 그지? 동생이 돈 벌어서 형 학비 대라 이거야? 어. 그래서 그 말이 뭘 말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말하실 때.

청: 제가. 형 시다.바리..

상: 형 시다.바리.(웃음).라는 거야? . 어. .아까 또 차별 당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 자 한바퀴 돌았다.. 또?

청: 그거 막 설문조사 같은데 학력 쓰는데. 초졸. 쓰면 쪽 팔려요.

상: 어. 맞아. 맞아. 뭐 인터넷 가입할 때도 학력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있지 않아?

청: 네~예

상: 그지? 회원가입할 때. 그 뭐. 대충하면 되지. 너희들이 진짜 중퇴..해. 그대로 해요?

청: 예.

상: 어~ 어. 좋아.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또 돌려?.어

청: 아니요. 막 여자랑 남자랑 사귄때. 너 어디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면서.. 그러 했

던건가..

상: 그거 했던거야. 그래. 새로운 걸로

청: 아침에 어쩔 때 일찍 나왔는데. 교복 입고 가는 애들 보면 부러워요.

상: 아 그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다시 돌려라.

청: 저 했어요. / 다. 했습니다..

상: 다. 했다고? 니들 둘이만 남은거야? 좀 도와줘라.

청: 아침에 진짜. .어느 날 진짜요. .10시 막 그때 일어나잖아요. 이제 애들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할 것도 없고 심심해가지고.잠이나 더 자고. 그러다가 막 체력도 바닥나고.

상: 그렇지. 체력이 바닥나겠다.. 그래. 맞아. .어.어.어 이.. 낮, 밤이 바뀌고. 너희들 먹는거 제대로 안 챙겨 먹지? 나가 있을때.. 어. 체력이 바닥나고.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거지. 너무 지겹잖아 애들 학교 끝나기 까지 기다.릴려면..

청: 예. 그래서 일부러 늦게 자고. 그래요

상: 어. .그래요. 진짜 그런건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허무해서 늦게 자냐? 음. 지금 중요한 얘기 한 것 같다.. 자. 우리 **군.

청: ..아. 딱 학교 안다니고. 같이 애들이랑 비행을 .. 비행 한 다음에. 딱 가출. 뭐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상: 근데 그리워지는 이유가 뭐냐? 밖에 나가 있으면. 뭐 고생스러워서 그러는거예요?

청: 집에도 막 있기 싫고.어떻게 하다가.

상: 그래서.이제 집에 있기가 싫어 가출 하잖아?. 근데 가출한 동안 왜 특히 학교가 그리워졌는지야..

청: 그래 길 같은데 걸어다니면. 막 여자애들 개들 교복 입고. .그렇게 다른 애들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 많고. 좀 부러워요.

상: 음. 나가 있으면. 더 학교 다니는 애들 . 더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그러는거야?

청: 그래도 학교 다닐때는 학교에서 공부 안하고. . 막 그 늦잠자는. 아. 그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것은 싫었지만, 그래도 그 때 추억이 있잖아요. 선생님 몰래 막 담배를 핀다.든가. 그런거.막 화장실에서 몰래 피고 막 그런거.. 막 스릴감 . 막 학교에서 나쁜 짓. 사고쳐도. 그런 스릴감이 추억이 돼서.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상: 아~ 근데 어떻게 어느게 더 맛있냐? 그 뒷간에서 먹는게 더 맛있냐?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몰래. 피는 거.

청: 몰래요..

상: 그런 스릴이 없잖아. 지금. 학교 안가니까 그지?

청: 예~에

상: 몰래 피고. 담벼락 넘어가고. 그지?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제는 뭐해도 누가 봐주는 것도 없고. 좀 그런건 재미 없겠다.. . 잘했다.. 자. .혹시 뭐 또 더 생각나는 거 있는가?

청: 없어요.

상: 있으면 마지막으로.

청: 애들 학원다닐때.
 상: 음.
 청: 막 학교 때문에 학원 가잖아요. 근데. 나는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상: 어.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어.
 청: 나도 막 학원다녀가지고 공부 막. 밤 열두시. 열한시까지 해서. 해보고 싶고.막.
 근데 막상 그렇게 할려면 안되고. 그래가지고..
 상: 음. 음. 그래도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나보다 그지? 음. 그래. 여기
 와서도 공부 무지하게 하게 되지 않나?. 검정고시 쳤나? 참..
 청: 예. 저희는 아직 안 봤어요./ 봤어요.
 상: 들어갔어요? 이번에 봤나?. 엇그제 일요일날 시험 봤잖아. 8월 8일인가?
 청: 아.8월 3일이요. 목요일
 상: 붙었어요?
 청: 붙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평균 73인가?
 상: 어. 그래. .그럼 중졸 졸업한거예요?
 청: 예..
 상: 그럼 대입시험. 고졸이 대입인거지?
 청: 예
 상: 대입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청:예.
 상: 여기 있는 동안 일년 동안 남았다. 하지 않았나? 빠짝 하면 다. 하고 가든데.
 청: 네.예
 상: 어. .뭐 더 생각나는건 없으십니까? **군.
 청: 없습니다.
 상: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어때요?.. 요기는 실은 선생님이 친구들을 내놓
 지 앓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자꾸 예전거 생각하면 힘들다고....
 힘들어 한다고.
 상: 뭐지.. 예전거 자꾸 기억하는거 그 자체가 자꾸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고. 시간을
 안 내줄려고 했는데 . 결국 꼬셔갔고. 친구들 만나게 된거야. 근데 얘기 하니깐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뭐 고통스러 기억 떠올리게 했나? 그건 아니고? 그
 래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고 선생님이 또 언제 올꺼냐면, 그때는 개학을 했
 나 모르겠다. 친구들 만날 때. 31일날 목요일 날 개학했어요? 그럼 수업 안하
 고. 또 만나게 될꺼예요. 요. 이 시간 쯤에. 그때는 지금 얘기한 것 처럼. 선생님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친구들이 얘기한 것 친구들 얘기 뿐만 아니
 라 다른 친구 한 얘기도 같이 넣을꺼예요. 그 이야기들은 친구들이 나도 그렇
 다. .아니다. 이런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재밌을꺼야. 이렇게 지겹지는 않
 을꺼야. 자. 수고 많았습니다..
 청: 수고하셨습니다..

구분	내용
유형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집단 인터뷰 2
장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	경기도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6:00-17: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이건 하나의 연구 때문에 하는 거야.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잘 연구를 해서 다른 친구들, 혹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걸 살펴 볼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런거 전혀 인적사항이 남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혹시 목소리 듣고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지는 않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설명이 혹시나 신경 쓰이나?..

청:아니요.

상: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요. 편안하게.. 그렇지. 한 것도 얘기해도 되지. 와서 서로 아는 사이인가? 네 명?

청: 네.. 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상: 그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해 본 시간이 있었나?

청: 맨날 오가며 얘기해요.

상: 맨날 오가며 얘기하고. 그럼 안면은 있는 거네요?

청:네. 상: 아무 얘기든지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청: 네

상: 그냥 너무 깊게 얘기 할 필요는 없고,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 할 필요 없고, 생각 나는데로 그냥 아무 얘기가 내 났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 볼까? 아. 녹음을 할게요. 녹음을 하는 이유는 친구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 있지. 다른 . 친구들은 대폰거야. 친구들은 대표로써 면접을 하는거고. 인제 그런 걸 또 연구하려면 친구들이 한 얘기를 갖고 선생님들이 또 내용을 풀어갔고 이렇게 정리를 할꺼예요. 머리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건 그냥 일반 녹음기고, 이건 MP3인데 이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는 뭐냐하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힘든 점’이야. 어~ 딱 이 제목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아무나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 볼까?.

청: 음.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힘든 일이요?

상: 어!~어 청: 학교 다닐 시간에 집에서 할 게 없고, 잠자고, 친구들 다. 학교 다니는데, 그 시간에

상:어 그래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다.

청: 할 게 없어서 집에서 막 혼자 있고. 밤에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이들 다. 교복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막 사복 입고 다니고.. 되게 부럽고.

상: 음..

청: 교복. 처음에는 좀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교복 다시 입고 싶고. 입은 애들 보면은 부럽고.

상: 아~ 그럼 학교를 그만 두고 '아이 좋다.' 이런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야?

청: 얼마 안되요. 얼마 안되. 한달? 한달도 채 안되요.

상: 아. 그다음부터는 지겹고, 그냥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부럽고

청: 예.

상: 학교 갈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 예~

상: 근데 한 달은 되게 재밌겠다. 그지?

청: 예.

상: 쪼금 늦게 자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청: 예

상: 그래.. 참 중요한 얘기했다.. 또 어떻게. 힘들었지?

청: 음...

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친구, 돈문제 용돈 이런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청: 만약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게 되면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주유소 같은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상: 예..예

청: 그러면은 막상 그 사람.내가 진짜 일을 하게 되면은 힘들기야 힘들겠죠...근데.... 공부 하는게 더 쉽죠.. 공부하는게 더 쉽죠.

상: 아~~ 일이 더 어렵다는 거구나.

청: 네. 학교 다닐때는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상: 어 ~어

청: 집에서 빈둥 빈둥 놀면 노는데 왜 주냐고.

상: 아.. 노는데 왜 주냐고?. 웃음..맞어. 부모님들이. 아무튼 용돈 문제가 제일 걸릴 것 같은데.

청: 네..

상: 학교 안다니니까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다. 고거 같고 혹시 실갱이 벌인 적은 없어요? 용돈 문제 잤고?..

청: 있죠.나가서 니가 한번 돈 벌어봐라.얼마나 힘든걸 아니까. 힘들지? 공부하는게 제일 쉬운거야.

상: 어..

청: 엄마가 바뀌서 일하자.내가 공부할게 너가 나가서 일해. 맞아. 내가 학교 갈게 교복 바꿔 입자고.

상: 어..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혹시 돈 때문에 또 불편했던 점 없나?

청: 없어요. 상: 돈은 다. 주셨어요?.

청: 예?. 아니요. 그냥..제가 일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엄마한테 그냥 돈을 이렇게 주구서 필요할 때 달라고 그래요.

상: 아~~음. 그럼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청: 저요? 주유소랑요.호프집에서 서빙하는거랑, 그리고 중국집에서 전화 받는거..

상: 아~~아 혹시, 학교 안다니고 또 나이가 어린거잖아요?

청: 예

상: 그래서 일하는데. 뭐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거나 그랬던 적은 없나?

청: 되게 힘들죠? 딱 가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갔다.오면은 막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다. 그거 뭐지? 학교.이력서에 보면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적으면은요. 학교 어디까지 자퇴했다고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상: 아. 이력서에.

청: 민망하고..

상: 아. 이력서에 그 자퇴했다는거 적어야 되는 거구나..

청: 예..

상: 고걸 보고 주인들이 뭐라해.

청: 예?. 뭐.. 그냥 막.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저의 느낌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상: 어..그래 그럴수도 있겠다.. 음.. 혹시 뭐 일을 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청: 예

상: 다른 친구들은 청: 저는. 잘 받았는데. 없어요.

상: 어. 친구들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됐어?.

청: 고기집에서 써빙..부페랑.

상: 고기집 써빙?.청:예.

상: 아~ 요즘도 젊은 애들 잘. 아줌마들이 주로 해서..

청: 저희는 주유소 같은데서는 안하구요 고기집 이런데서만 해요.

상: 그거는 단가가 쎄겠다. 주유소보다는?.

청: 예.웃음

상: 음..음 그럼 혹시 또 일하면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런거는 없었어요?

청: 아뇨. 오히려 기특하다고 막.예. .팁 주세요 팁

상: 아~~아 근데 그게 보면 학교를 안 다니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

청: 예

상: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었는지..

청: 아뇨. 학교 끝날 시간예요. 애들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일가구요.

상: 아~~아 낮에 오전부터 하는게 아니라?

청: 5시.6시경부터.

상: 그럼 사람들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네?

청: 네.

상: 아. 그렇구나. 혹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이런건 없나? .

청: 음. .저는 제가 일을 다닐때에는 부당함 같은 거는 없었어요. 자기가 일 해가지

고 돈 벌어가기 때문에. 별로.뭐.. 부당함 같은 것은 없었어요.

상: 어. 별로 없었어요. 음.. 좋아. 그 다음에 또. 일하는 건 그냥 건너 띄고 또 다른 건? 어떻게 있었을까. 힘든 점. 꼭 힘들었다.기 보다. 불편했거나. 이런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 동생뻘에.

상: 동생?

청: 제가 학교를 안가잖아요. 글면 동생이 집에 있으면 동생한테 공부를 하라고 애기를 해요. 그러면 동생이 그래요 '누나가 안하는데 내가 왜 해' 막 이래요.

상: 어..어. .참 누나의 그 파워가 없어지는거네. 말 발이 안 먹히는거네

청: 그리고 학교 다닐때는 교복 입고 버스 타면 요금이 적게 들잖아요.근데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어디 나갈 일이 생겨서 사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복 입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학생이요' 하면은 안되요. 학생이면 지금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짓말 하나고. 그런적도 있어요.

상: 음.. 그리고 또 뭐 동네마다 찍으면 '청소년입니다.' 이런 소리나는 버스도 있잖아,..청: 아.. 맞아요. 사복입고요, 꾸미고요, 막 화장 하면은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딱 찍으면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쪽 팔려요. 되게 쪽 팔려요 그거 진짜..

상: 그래도.아까워서.어떻게.. 할인요금 받아야 되잖아. 영화관 같은데 가면 할인 받나? 청: 학생증도 있어야 되는데. 애랑 저 같은 경우는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생증 갖고라고 해요. 그럼 저희는 못 갖고 가요. 학생증이 없어서.

상:어. 그러면, 영화관 이런데 가도 할인혜택 못 받겠네..

청: 예.. 다.. 성인. 그냥.

상: 다. 성인요금 내버려?

.청: 예..

상: 어..어떻게든 깎으려고 안하고?

청: 웃으면서. 예..

상: 청소년증 만든적은 없어요?

청: 저는 학생증은 없었구요. 요번에. 민증을 만들었어요.나도. 그래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상: 음.. 이제 민증 받을 나이가 된거구나? .

청: 예. 전 나왔어요.

상: 어.. 그래서 뭐 학생증이 없어서 은행가서 뭐 만들고. 통장 만들거나. 이..나를 증명할 수 있는게 별로 없잖아..민증 나오기 전에는..

청: 네..

상: 그래서 어떤,, 혹시 고거 관련된 어떤 사건들은 없었나?

청: 등본 떼때.

상: 아..

청: 아르바이트 할때 등본 떼때..

상: 아.아르바이트할 때 그걸 내야 되구나.

청: 예.

상: 근데 그걸 어떻게 떼? .

.청: 엄마가 떼 주세요. 그래서
상: 내 손으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구나. 어. 그것도 되게 불편하겠다..음. 혹시 친구 관계에서 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친구 관계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
청: 저는 학교 다닐 때.. 음,...애들..제가 아이들 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근데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나를 멀리 하는거 같아요.
상: 아. 그래요.
청: 그때 좀.. 많이..힘들었어요..
상: 아. 그랬구나. 그래 이런 좀 마음 아팠던 적은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어때 친구 관계에서.
청: 없어요.
상: 그럼 그때 만났던 친구들 계속 만나는 거예요?
청: 네.
상: 나온 뒤에도?
청: 애랑 저랑 같은 학교예요
상: 그럼, 얼마 된거예요? 학교를 그만둔지?
청: 앤 1학년때구요. 전 3학년 때요.
상: 인제 그리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나이를 모르니까
청: 아.. 열일곱 때, 열아홉 때,..지금은 고3
상: 그러면 몇 년쯤 된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청: 저는 한 5개월, 애는1년?. 1년 좀 못됐다..
상: 어. 5개월, 1년 다. 되어가구나? 친구는 얼마 된거예요?.
청: 저요? 중학교 2학년 때.
상: 그러면, 지금 나이를 몰라서 내가 계산이 안돼.
청: 아. 열아홉이요
상: 열아홉이면?. 만3년 넘은건가?
청:예.. 아.4년
상: 4년? 아 친구들은 그러면 고3 나이인가?
청: 예
상: 아~하 4년 된거구나. 우리 친구는?
청: 저는 스무살, 스무 한 살
상: 어. .왕언니구나?. 그럼 얼마 정도 된거예요?
청: 인제 거의 4년쯤 됐어요.
상: 4년 정도? 그럼 꽤 오래 됐다. 그지? 음. .. 혹시 그 친구 관계 관련해서 또 없어요? 내가 학교를 그만 뒀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전 친구를 만나는데 부모님들이 달가워하지 않거나 그런건 없나?
청: 그런건 없는. 없어요. 근데요 딱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놀러 나오는데 저희가 모르는 말을 막 말하면은요 저희가 못 알아들으면 되게 민망해요.
상: 아.
청: 학교 다니다. 학교 만의 막.. /예. 막. 학교에서 가르켜 주는./ 유행 같은 말투 같은거 있죠.

상: 음.

청: 그런거를 애들이 사용하면 되게 할 말이 없어요/맞어/ 학교를 일단 안다니는 상태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막 어울리고 그랬는데. 밖에서 만날때는 그런거 있죠

상: 음. 그렇구나. 그럼 밖에 나와서도 계속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대부분 놀았던 건가?

청: 네../ 학교 친구들 하고./

상: 근데. 새로 사귀는 애들의 경우는 어떤 애들이야. 주로.

청: 난 새로 사귀 친구가 없어/ 친구의 친구라든지 뭐 그런식으로 연결해서.

상: 아. 보통.우리가 끼리끼리 논다. 해갔고 안다니면 안다니는 애들하고 어울릴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나봐..

청: 아니요?. 그래요. 그지?

상: 어.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거야.

청: 저희가 먼저 자퇴하고 애가 학교를 안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랑 놀고 막 그랬어요. / 그때부터 한참 놀기 시작하면서 이젠 완전../

상: 음. 아. 그럼 둘이 학교를 같이 그만두면서 더 친하게 된거야?

청: 예~ 제가부터 관두고, 애가 관두고.

상: 아~ 친구 관두기 전에 물어 봤을 거 아냐. 관둘까 말까. 물어보지 않았어?

청: 제가 학교 계속 가라고 그랬는데. 학교 안간다고.

상: 학교 가라고 그랬어?

청: 전 그때 김정고시 하고 있었고.

상: 아~~아.청: 맨날 아침에 전화하고.

상: 어때. 어떤 친구가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먼 저 나온 입장에서 서로 뭐라고 대답하는거야?

청: 그냥 뻔하죠. 후회한다../처음에는 그러는데 뒤 늦게는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죠 /

상: 아. 후회한다고.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나봐..

청: 예

상: 그래 이렇게 열심히 다니라 해도. 그지? .

청: 그건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마음이 굳어 버리면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상: 아. 그런것 같아요.음. 혹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 잠자고, 게임하고, 놀고, 밥먹고, 애들이랑 그냥 밖에서 놀고.뭐. 그리고

상: 어. 근데 노는 시간이 주로 언제가 되지?

청: 밤.웃음.

상: 밤이 되잖아.. 그럼, 노는 수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상: 왜. 너무 곤란한 질문을 했나?

청: 웃으면서. .아뇨/ 아뇨

상: 그런니까 아무래도 밤 늦게 노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밤 늦게는 항상 노는 꺼리가 어른들도 항상 놀아봐도 뭐..뭐. 놀꺼리가 몇 개 안되잖아?. 그래서 친구들은 어쩔나 싶어서..

청: 음. 저희도 뭐. 술 먹고. 그렇게 했죠. 밤에. 음.

상: 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일찍 들어가기 보다는 내일 학교 안간다. 생각되니까 한번 분위기 딱 잡히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청: 음../새벽에도 들어가고, 막 밤새고도 들어가고.

상: 어.. 음

청: 학교를 가야되면은 그 학교 가야된다. 생각이 있으니까 놀다가도 들어가게 되는데. 내일 학교 안가니까 토요일 밤처럼 일요일날 학교 안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다가 내일 학교 안가. 이라고 놀다.보면 밤새서 놀때도 있고.

상: 그러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 어떤데요?

청: 엄청 맞죠..웃음..

상: 어.. 또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 .. 지금은 자유토론이니까 막 생각나는데로 얘기하는건데. 우리 두 친구 좀 더 얘기해 보까.. ..또 어떻게 있을까?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청: 소풍가는거. 애들..

상: 어~어 청: 부러워요/ 맞아/ 수학여행, 뭐 어디 수련회 같은거 가는 거./ 요새는 예전에는 막 끄해봐야 뭐 박물관, 뭐 롯데월드 이랬는데 요샌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막 제주도도 가고, 중국, 일본도 가고 / 너무 막 가고 싶은 거 막 그런게 있어요. 애들 막 사진 찍어서 갖고온거 보면은. / 맞아/ 아. .막 부럽고./ 그래도 학교에서 가면 좀 더 싸잖아요. 혼자 가는거 보다.

상: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단체로 어디가고 멀리가고 이런 거는 잘 안됐다. 그지?

청: 예. 상: 어. 그건 아쉬울 것 같다.. 음. .

청: 예~~

상: 그 다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네?..

청: 빨리 얘기해 / .. 또?

상: 음. 계속 얘기해야지. 우리가 한 30분. 아니 5분까지 계속 얘기.. 몇 가지씩, 한 세 가지씩만 더 얘기하자, 세 가지 얘기 다.하고 좀 쉬면 될 것 같애..

청: 음. .웃 입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상: 그게 무슨 얘기야?

청: 맞아/ 맨날 학생은 어디를 가든 교복을 입으면 다. 소화가 되잖아요. 어디 뭐 영화관예를 가도 교복만 입으면 되고 다. 그러는데, 맨날 옷을 입어야 되니까 / 사복을 입어야 되니까/ 사복을 입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상: 음. 청: 맨날 옷 사야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용돈 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상: 그렇잖나..

청: 옷 입는 것들.

상: 음. 치장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거다.. 음.

청: 예~에

상: 그러고 저녁에 친구들과하고 놀려면 아무래도 뭐 술 먹고 이럴려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돈 들은 다. 어떻게 구해?

청: 사달라그래요. 친구들한테.

상: 친구들한테?..

청: 미리 돈을 구하거나./아르바이트/ 당일 아르바이트

상: 당일 아르바이트? 아~ 당일 아르바이트여도 얼마를 버는데?
 청: 한 사오만원? / 사만원.
 상: 뭐 하면 그 사, 오만원을 벌어?
 청: 엑스트라..
 상: 아. 엑스트라?..
 청: 예
 상: 그럼 그렇게 많이죠? 청: 예.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갔고, 한번 촬영하
 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하는데 사만원이에요
 상: 아.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런거? 청: 웃으면서. 예..영화 같은거.
 상: 어~ 그거 좋네. TV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청:근데 되게 힘들어요?
 상: 우리 보기에 그냥 지나가는거 같은데?.청:예..
 상: 근데 아니야?.청:예,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상: 기다리고 있어야 되요. 그 조금 나오기 위해서. 청: 예. 조금나오기 위해서. 그
 장면을 촬영을 계속해요 / 계속해요. 계속.
 상: 아. 계속 그 지키고 있어야 되구나. 아.유 참,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구나. 친구도
 해봤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청: 아.뇨, 한번도 안 해봤어요..
 상: 그 단가 썰다.. 사, 오만원이면..
 청: 예.. 열두시 넘으면요 십만원 때로 넘어가요. .돈이. 밤 열두시가 넘으면.
 상: 어.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뭐. 조건 없어?
 청: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상: 어. 그거 괜찮은 아르바이트네.어. 그래 그런거 하고.. 또 돈이 궁색할 때 뭐하게
 되나?
 청: 음..
 상: 아무래도 좀 노는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소회 말하는
 이 유혹들이 있지 않나요?
 청: .. 전. 잘
 상: 별로 그런건 없었나?
 청: 예..
 상: 어..아무래도 인제 애들끼리 뭐 지나가는 애들 돈을 좀 이렇게 필요하면 얻기도
 하고, 뭐 앵벌이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청: 앵벌이 까지는 아니예요.
 상: 뭐. 그 뽕땅 친다.나 뭐냐?..
 청: 뽕이요?
 상: 뽕. 뽕?
 청: 뽕은요? 학교 다닐때 / 그래 중학교때까지 하는거고요. 고등학교때는 뽕 같은
 거 안 뜯어요. 욕먹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상: 아. 그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거고.
 청: 예.예./ 전혀 생각 없는 아이들이나..
 상: 아.. 거. 나이에 맞춰서 놀아야 되는거구나..
 청: 예. 웃음

상: 미안하다..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한 것 같아..

청: 웃음

상: 그래도 돈이란게 갑자기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모으고 부모님한테 얻더라도 그 . 어느정도 얻을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쁜걸 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점잖은 얘기들만 하니까. 그 주제는 넘어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지? 혹시 친척들하고 관계 이런건 없나?

청: 시골 같은거. 가기 막 눈치 보여요. 자퇴하면/ 맞아./ 따른 아이들은 뭐 공부도 잘해서 언니들은 대학도 가고/ 사촌 언니들은 대학도 가고/ 막 유학도 가고. 저는 뭐 자퇴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시골 같은데 가면, 넌 요즘에 학교 잘 다니냐고 이런 말 하면 되게 ...

상: 그치.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치?

청: 예./ 저희 보다는 저희는 뭐 그냥 웃으면서 때우면 되는데요./ 엄마/ 또 엄마나 아빠는 요새 뭐 애 학교 잘 다니니? 이러면은..

상: 그 뭐라 했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얘기 하셔?

청: 지금은 다. 아시죠?. 처음에 자퇴했을 때는 되게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모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니?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니?.

상: 어. 엄마들이 더 난감해 하셨구나.청:네.

상: 아. 그럼 친척들도 학교 안가는거 알고 나서 대하는 태도가 어때?

청: 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거의 보육원에서 다.녔기 때문예요. 보육원에서 다닐 때는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또 많아요. 근데 관두고 나서 막상 친척집에 한번씩 놀러간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상: 아. .어른들의 시선이. 그게 말은 안 해도 좀 느껴지는거지..

.청: 그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친척하고 저희하고 사이가 별로.그렇게.. 좋진 않아요.

상: 어. 좋진 않구나.

청: 예.

상: 하여튼, 친척들 만나면 그렇고 또, 친척 들 중에 또래가 있으면 또 어른들끼리 있으면 우리 애는 어떻게든 너집 애는 어떻다...

청: 제가 사촌오빠가 있는데. .제가 생일이 빨라서 나이는 같은데 생일일 빨라서 한 살 어려워. 그 오빠는 막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공곤데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저는 자퇴 해갔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상: 어. 그럼 어른들이 좀 비교 하시냐?

청: 예..

상: 음. 그런거 있고. 혹시 뭐 친구는 친척 간에 그런 것 없었어? .

청: 있었어요.저 보다 한 살 어린 친척 동생이 있는데요 개는 막 학교에서 딱 인제 공부하고 끝나면은 학원 가고 그러고 바로 집에 와요. 나가질 않는데요. 인제 딱 시골 가면요, 개가 딱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안다니니까요. 엄마도 어떻게 할수도 없고. 보면은 막. 이렇게 공부하는 애 보면은 되게 막 비교 당하는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거 보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

상: 음 그렇겠다.. 그리고 또 뭐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희 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는 않잖아.그지? 밖에서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랑, 학교에서 배우는 . 공부해서 배우는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

청: 예.

상: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난감했던 적은 없니?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어떤 지식이 짧아 갖고 불편했던 적은 없니?

청: 그런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상: 그런거는 없어요. 어. 뭐. 가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뭐 말귀를 빨리 못알아 들어가지고. 뭐 이런.

청: 뭐. .그런건 한번도 없었어요.

상: 어.없었어요? . 어..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또하자 그지? 머리 아프지? 이거 집중적으로 고민하니까..

청: 네.

상: 덥고, 오후고 이래서 더 힘들꺼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 .또 어떻게 생각하니?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힘든 점?

청: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안다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은 낮에 돌아다니면 막, 제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손지검 하면서 막 제네는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길래 막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막 마음 아프구요

상: 어..

청: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요 제네 막 하는 행동, 양아치처럼 하는 행동 같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구요, 막. 그냥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상: 아. 그렇겠다.. 그까 다른 애들도 많이 돌아다닐 시간도 아닌데 주로. 낮에 그지.

청: 예

상: 일단 돌아다니면, 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좀 그랬네.

청: 예.

상: 거시기 하다. .그지? . 전라도 사투리로.. 그래 그것도 중요한 애긴 것 같고. 또 어떻게 힘들었을까?

청: 음. ...

상: 아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했잖아?

청: 예

상: 그래서 주로 방에서 많이 뒹군다고 했었지?

청: 예.

상: 그럴 때 자신에 대해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

아이들 동시에: 한심하다..

상: 한심해 ? ..

청: 왜 이려고 있나? 왜 괜히 학교는 그만 뒤 갔고, 그런 생각 많이.

상: 어..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들은 하지 않니?

아이들 동시에 : 해요.

상: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니?

청: 그냥 뭐 해야지.

상: 음

청: 이렇게 놀 바엔 차라리 뭘 해야지. 막 . 이런/ 차라리 뭘 배워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런대를 가는게 낫지. / 맞아/ 어. 그래가지고.

상: 음.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시간이 참 천천히 가는 것 같다. 그지?

청: 예~에

상: 뭔가를 배운다.. 뭐 배워 본 적은 있니?

청: 예. 미용

상: 아. 미용. 음. 자격증 땀어?

청: 아뇨 전 자격증은 안 따고요. 그냥 컴퓨터에서 미용을 배워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상: 아. 그랬어!. 어.. 그런 것 좀 재주를 갖추어도 좋을 것 같다. 그지? 음. 뭔가 배우고 싶다.. 근데 배운다고 해서. 그것도 좀 돈이 드는 일이잖아, 그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럴려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또 실제 할 수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청: 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해 주던데.

상: 해줬어? 그래서 미용 학원 다녔던 거야?

청: 네

상: 어. 그래서 얼마나 다녔니?

청: 지금요? 다닌지 얼마 안됐어요

상: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다녔던 거야?

청: 네.

상: 어.. 혹시 뭘 배우다. 그만 둔 적도 있니? 뭘 배우다가..

청: 예

상: 뭐 어떤거.

청: 무용이요

상: 미용? 얼마나 다녔던 거야?

청: 무용이요. 발레

상: 무용? 어. 발레? 어.

청: 디게 오래 했어요. 근데 머리를 찢르는 바람에 화가 나갔고. 아..아. .엄마가 계속 찢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용하면 안찢라도 된다. 이랬더니. 그래도 학생다.워야 한다고 찢르래요. 찢르고 무용 안하잖아요. 아니면, 지금 예고 가 갖고 다리도 엄청 앓았을텐데..

상: 어. .다리도. 무용하면 잘 했겠다..

청: 하도 찢갔고 살이 다. 났어요.

상: 어. 무슨 현대무용 했었어?

청: 발레.

상: 아. 발레. 발레 한다고 했었지.. 음. 그때 조금만 마음. 엄마가 잘 그지.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 어.. 앞으로 ..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주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니?

청: 그냥. 뭘 배우면은 인제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죠.

상: 음.

청: 학교 다닌 애들보다 안다니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을 때를 막 그려보면 좋아요.

상: 음. 청: 막 애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 당당하게 나는 학교 안다니고 이랬어도, 이렇게 했어도 이만큼 성공했다.

상: 음.. 맞아. 맞아. 음. 그게 참 중요한것 같애. 그게 근데 검정고시 쳐서 합격하고, 그래서 대학 특채나 이런데 갔을 때 좀 학교를 계속 다녔던 아이들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잘 되었을때 되게 뿌듯해 하는 것 같드라. 선생님이 만나 본 아이들도. 음.. 그것도 중요한 애긴 것 같고. 또 어떻게 있을까? .

청: 음. 맞다., 길거리 이렇게 동네에서요 다른 애들은 학교 가있는데, 이렇게 막 슈퍼를 갈려고 뭐를 사러 갈려고 그러거나 그렇게 딱 가면 어 누구 아니니? 왜 학교 안가니? 이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어. 그래.

상: 음.. 주로 밖에 나와서 니가 하고 싶은 걸 할려고 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청: 예.

상: 어. 그게 하나.. 아까 다섯가지씩 얘기하기로 했지? 다. 채우면 이제 가자.. 또..

청: 집에서 눈치 보여요. 저는.

상: 어떻게.청: 애들 다. 학교 갈 시간에 누워 있고, TV 보고 그러면 엄마 눈치가 보여요 상: 음.. 막 췌려보니?

청: 그런건 아닌데요./ 잘 해주는 것 같은데도../ 한심 한 듯 쳐다. 보면서 은근히 더 챙겨주고 그럴 때 / 네, 되게 미안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상: 어떤 애 만났더니. 밥을 먹고 있는데 한참 쳐다보니 그러고도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야..

청: 밥이 넘어가야. 우리 엄마도 한번은 저 자퇴하고 얼마 안되서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제가 늦잠을 잤어요. 근데 그 때 엄마가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애들 학교 갈 시간에 너는 잠이 오냐고.. 빨리 너도 공부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상: 음.. 그런것도 있겠구나. 이제 네 개 남았다. 좋아. 음.

청: 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도 어리고 스무살이고 하다.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상: 아.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아. 그건 아주 긍정적인 것 같다. 그지?. 청:네.

상: 책을 많이 읽는 다는 건. 책을 읽게 되었다. 남은 시간에. 또?

청: 음. 막. 엄마 친구데요. 저랑 나이 똑 같은 자식을 둔 그런 엄마들이 만났러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음. 수능 보는데 수시 쓸 생각은 있어? 수능 준비는 잘 되가? 학원 어디 보내? 막 이러고 이럴때.

상: 니한테 아님 엄마한테?

청: 엄마한테.

상: 엄마 속이 뒤집어 지겠구먼..

청: 그래요. 엄마가 막. 너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고개도 목 들고 다닌다고.

상: 어. 좋아.. 자, 이제 오라운드에서 사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 음.

상: 집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 친구들, 뭐 일 했을 때 뭐 다양한....

청: 친구들이 수학 여행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할 일이 없어요
 상: 아. 놀 애들이 다. 빠져서..
 청: 집에 있으면은 애들 학교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데./ 맞아/ 애들이 수학여행 막 이박삼일씩 갔다.오잖아요. /이박삼일동안 혼자예요/ 음. 혼자예요. 진짜예요
 상: 그러면 무슨 기념일과 관련해서.있잖아. 아이들 학교에서 축제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청: 맞아. 축제 때ですよ. 막 애들이 학교 축제라고 해서 가면요. 학교 학생 아니라고 나가라고 못 들어 보낸다고..
 상: 그래? .
 청: 네.. 출입금지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다. 그래요. / 같은 학교 다.녔어요/
 상: 관계자의 출입금지야?
 청: 네. 다른 학교도 외부에서 못 오게 딱 차단을 시켜요. 자기 학교 애들만 들어 올 수 있게. 되게. 막. 축제 같은 것도 못가고 막..
 상: 음. 청: 운동회 이런것도. 체육 그런것도요 못. 가고./ 학교 축젠데. 친구들이 오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못오게 해서.
 상: 그래 그렇다.. 애들이 특별한 날이 있으면, 조금 더 외롭고 힘든거네?
 청: 예. .애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그럴 때 혼자 빠져야 되는 그런.. / 맞아 /

상: 아.. 그래 좋다. 두 가지씩 얘기했고, 또?
 청:음..
 상: 또 뭐가 있는 것 같애?
 청: 음.....학생이어서 할인되는거?
 상: 음.
 청: 그거?
 상: 근데 할인 되는데. 그래서..
 청: 그런 것도 .. / 아. 맞아 그런거 있어요. 교복 입고 가면 싸게 해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는 교복을 입고 저는 사복을 입고 가요. 그러면은 친구는 할인을 받는데, 저는 원가 다 받을 때..
 상: 아. .옆에 서 있었어도 마찬가지야?
 청: 예. 제가 학생 증명 할 그런게 없으면요 그제 안되요/ 맞아 다.. 안경집도 그래요 상: 다.. 하나 하나 확인하네. 어디가도 그렇다고?
 청: 안경집이요?
 상: 안경집도 할인 안되니?
 청: 예 상: 학생 뭐. 우대.이런거 있잖아.
 청: 학생은 다. 할인 되는데요. 막. 학생 같이 막 안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학생으로 안 받는 사람도 많아.
 상: 음. 그러니까 무슨 특별우대를 못 받는다고?
 청: 예. 학생 대우 못 받아요. 학생인데도.
 상: 음. 근데 정말 중요한 애긴 것 같다.. 음. 언니도 한 말씀 하시지요.
 청: 네. ... 얘기해도 되? / 아무애기나.
 상: 어. 아무애기나 해도 괜찮은거야.

청: 학생으로 안 볼 때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난 학생인데 학생으로 안 볼 때.
 상: 음.
 청: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러 갔어요. 담배 살 때는 줘요. 주는데.. 버스 탈 때는 막..
 상: 술, 담배 살 때는 학생으로 안봐줘서 좋고, 쉽게 살 수 있는데.
 청: 네. 근데요 그거예요. 저희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사요. 사요 줘요 근데
 줘는데도. 주는건 한편으로 좋은데요 . 좀./좀 그래요/ 그게 또 신분증 안 받고
 담배를 주니까 그게 또 속상해요
 상: 어. 왜?
 청: 우리가 그러게. 얼마나 삭았길래. 확인도 안하고 주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상: 서글프다. 그지? . 삭았나. 그래그래.
 청: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들 끼리,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하룻 밤 묵을
 때.. 밤에 친구들 하고 놀 때나 놀다.보면은 피곤하잖아요. 피곤 할때도 있잖아
 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어디서 잠을 자야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아니면 모텔 같은데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좀..혼란 스러워요.
 상: 근데 그 때 신분증 보여 달라고. 음. 그러면 어떻게 하니?
 청: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친구네 오빠..
 상: 아. 그럼 그 사람이 인제 보여주는거야?
 청: 예.진짜 호프집 가면요. 막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호프집 가면요, 막 저보
 고는 막 신분증 안 보여 달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신분증 보여달라고 막
 그럴 때..
 상: 아.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니?
 청: 예.
 상: 나도 삭았나?
 청: 나눈요. 여관 같은데도요 검사 안할 때도 있어요.
 상: 어. 그 마음이 참 찻찻한 거거든.
 청: 한편으로는 좋죠. 좋은데. 한편으로는 나빠요/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묘해요.
 아니 왜, 왜, 다른 애들 다. 하고 나는 검사 안해?. 막 이런 생각으로. 그래요.
 상: 어..
 청: 잠질방도요 요즘에는 미성년자 못 들어가잖아요.
 상: 밤에는 그지?
 청: 예. 근데 전 들어가요. / 나도 들어가/ 애랑 저는 항상 새벽에 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요
 상: 그것도 참 마음이 그렇다. 그지?
 청: 예. 씻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나와서 보면은 몸은 또 이러네요.
 청: 애들은 막 와가지고 요새 시간 땀에 못간다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 어 우린
 들어가도 되는데. 뭐야.. 막 이려고.
 상: 어. 참 중요한 얘기했다. 또 뭐가 있을까?
 청: PC방 같은데.
 상: PC방 같은데도. 음. 비슷한 얘기다. 그지?

청: PC방도 가면 뿔려요.

상: 음..아. 다. 뿔을 수 있구나. 얼굴만 들이대면. .

청: 예. 예. 교복을 입고 가도 뿔릴 것 같아요. 막 나이트 같은데. 안양 같은데 일번가 이런데 있잖아요. .. 그러면 막 밤에 돌아다닐 때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뼈끼 들이 막 잡아요. 학생이라고 그러면, 학생처럼 안보이는데 왜 교복 입고 다니냐고. 들어오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학생이라구요 이려고. / 저는요 나이트 스테이지까지 끌려 갔다가요. 불러갔다가요 학생증 주고 다시 나왔어요? 모두 웃음

상: 그걸 뭘 말하는 거니? 스테이지까지 불러 들어갔다는 건

청: 끌려 들어 간거예요./ 뼈끼/ 뼈끼가 데려간 거예요. 상:음.. 청: 손님 끌려고..

상: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자. 비슷한 얘기는 건너 띄고, 새로운 얘기로. 더 얘기 해볼래?...

청: 음. .은근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나네.

상: 그래 맞아.. 조금만 더 말을 키우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생각해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쪽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청: 음.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랑 안다니는 애들이랑 딱 취급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 이런거 있어.

상: 잠깐 뭔가 얘기를 할려고 말아갔고. 미안..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줄까?

청: 예 생각할 시간을.

상: 말을 좀 정리 해야 하니?

청: 예

상: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해라. 그럼 먼저 얘기해봐

청: 막 남자친구를 막 만들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학교를 다녀요.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뭐 인사를 해야 될 때/ 소개시켜 줄 때 / 어디 학교 다니니? / 어디 학교 다니니? 이러면 .. 아.. 점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상: 그리 말하면. 눈치 보이는 거야?

청: 예. .그리고 또 그런거 있어요. 뭐 내가 개랑 결혼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되게 막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낮 뜨겁고..

상: 아. 그렇구나. 또 뭐 비슷한 얘기가 있니?

청: 저는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놀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일예요 가서 놀아요. 밤늦게까지. 그러면 막 한참 재밌게 놀다가 막 애들이 집에 간다. 그래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저희가 니. 아 쯤만 놀다가 한 삼십분만 더 놀다. 가자 이래요. 그러면 아 그래 니는 학교 안가니까 너는 놀 수 있지만 나는 학교 가야 되. 이러면서 그냥 갈 때...

상: 어.. 아니. 친구들이 그렇게 지는 학교 가야 된다고 가는거야?

청: 예..

상: 아.청: 진짜 그래요. 놀다가도 막 택시타고 집에 가요 그냥

상: 남겨진 자의 마음이 어떠냐?

청: 아~~ 외로워요./ 또 외롭고..

상: 서글프다. 그지? 청: 예.

상: 참. 누군 왕년에 학교 안 다녀왔냐. 그지.

청: 맞아.. 학교도 같은 다녔는데. 같은 반 애들인데. / 맞아/

상: 아까 무슨 얘기 할려 했어.

청: 어.. 그니깐요.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안다니면요 학교를 다녔을때는 그냥 부모님한테 외박한다. 그러고 친구네. 그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그러는데요. 학교 안다닐때는 막 그냥 외박하고.. 그래요 .

상: 음. 그러면, 그때랑 뭐가 다른건데. 학교를 다닐 때랑 그러면. 외박하는게.

청: 근데. 외박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맞고 그냥 나가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는 엄마 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요. 막 이런 말을 막 허락을 받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상: 음.. 그럼 부모님이 잘 안 찾으셔? 학교를 안다니 이후로는. 외박해도.좀 그게 다르니?

청: 저는 그러다.. 인제 그니까 학교 그만 두구서 부터요. 암말 안하고 그냥 막 나가 있을 때는 부모님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 드려요.. 그냥 놀다가 내일 들어간다고. 막 그러고

상: 어.. 선생님 이해를 잘 못했는데. 미안. 이해를 잘 못했는데.그러니까 학교를 다닐때는 말 안하고 외박을 했다는 거니?

청: 아. 그러니까 .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요 딱 부모님한테요 엄마 저 오늘 애들. 그까 친구네 집에서 좀 공부하다가 친구네 집에서 자다가 내일 바로 친구랑 학교 갔다가 내일 바로 집으로 가게요 이려잖아요. 그러고 학교를 안다니면요 / 학교를 안다니면.. / 그냥 막. 그냥 말도 없이 외박한다.구요

상: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잘. 보고도 잘 안하게 된다.라는 거구나. 청: 예..예

상: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경험 많니?

청: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상: 음. 근데 부모님이 찾는 것도 좀 다르다고 그러던데..

청: 예. 학교 다닐때랑 안 다닐 때랑 차이가 있죠. 다닐 때는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자고 일어나서 애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찾으시는데. .뭐. 집에 와도 할 것도 없고.. 잘 안 찾으시는 것 같아도. 찾기가 찾는데. 학교 다닐때보다 좀 들 찾는 것 같아요.

상: 어. 좀 그런거 있는 것 같애.

청: 그러고 또 그런것 있어요.

상: 뭐.?

청: 핸드폰 비도요. 학교 다닐때는 잘 내주다가요. 학교 안다니니까요. 뭐 공부 안하는데 내가 왜 돈을 내줘 니가 돈 벌어서 내..

상: 그래 맞아. 청: 그래갔고 저 지금 핸드폰 세 달째 정지 뒀어요? 핸드폰비 못내서요 제가.

상: 그럼. 니 스스로 벌 때까지 니 부모는 절대 안대 주겠다는 거야?

청: 근데 벌어도요. 벌려고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딱 하고 나잖아요. 근데 핸드폰 비는요 둘째 친구요. 옷사고 싶고요, 애들이랑 놀고 싶고 그래서

못해요.

상: 음. 그래도 여전히 삼개월째 못 쓰고 있는거네.

청: 웃으면서. 예./그래서 애는 맨날 애껴 써요.

상: 청: 맨날 제 깃 써요. 상:어.. 그래 그런 것도 있겠다..

청: 예.

상: 부모님이 좀 옛날에는 잘 처리해 주고 이런 것들 잘 안해주시는 거다. 핸드폰 비, 그지 이렇게

청: 예.. 용돈

상: 돈 이렇게 용돈 같은 것들 꼬박 꼬박 주시지 않고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어.. 이제 하나씩만 더 얘기하면 끝나겠다.. 또 뭐가 있을까? .

청: 음

상: 참 아이들이 많은데.. 그 동안 선생님들이 여러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너희들이 참 잘 하는 거 같애. 못 들어 본 얘기를 참 많이 한다. .뭐가 있지?

청: 다. 말한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상: 어. 조금 더 생각해 봐봐. 거의 다 나왔는데 혹시 또 새로운 아이디어 들이 많이 있어 갖고.. 뭐가 있을까?

혹시, 노는건 좀 다르니?. 노는 장소는?

청: 똑같아요. 학교 다니나 안다니나

상: 그건 거의 비슷했어.

청: 노래방 / PC방

상: 어.청: 학교 다녀도요 할 건 다.하고요. 학교 안다녀도 똑 같애요. 똑 같은 것 같아요

상: 그건 차이가 별로 없다. 또 뭐가 있지? 선생님이. 뭐 단서를 줄까?. 음.....

청: 다른 애들과 비교 했을 때, 누구는 옷을 잘 입고, 누구는 옷을 못 입고 다닌다.. 그럴 때 ..

상: 누구 누구를 비교하는 거니?

청: 예를 들어. 만약에 나하고, 내 친구..

상: 근데 그게 인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더 비교가 되는 거니?

청: 비교 될 수 도 있죠

상: 음. 아무래도 사복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러나 보구나.

청: 예~~예

상: 교복이 아니고 사복이니까 옷도 좀 필요하고, 옷 맵시도 좀 필요한거네?

청: 예.. / 유행에 좀 뒤쳐져요.

청: 학교를 다니면요 / 학교를 다니면요 개네는 순식간에 이렇게 막 타요. / 소문이 빠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모르고 지나 갈 때가 많아요.

상: 아..

청: 그리고 애들이 막 어. 너 그거 뭐야. 이러면은요. 어. 너 그거 몰라? 막 이려고..

상: 아..유행에 좀 뒤쳐지는구나. 나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아 맞아 맞아.

청: 유행에 뒤쳐져요. 학교 다니면 애들이 금방 금방. 다..

상: 정보들이 빨리 들어오니까.

청: 예..

상: 아 그래 맞아, 그건 참 중요한 얘기다. 유행에 뒤쳐진다. 그게 그런 개념이니?

청: 예

상: 땡시라는게. 좋아 .

청: 남자 친구도 많이 못 사귀어요.

상: 아 . .그래?

청: 예. 학교 다닐 때는 남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남자 친구도 사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근데 집에 있으면요 아..

상: 아무래도 사람을. 이렇게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아는 경우 아니고는

청: 예..

상: 직접적으로 사람을 어.

청: 인맥이 줄어요

상: 아.. 인맥이 줄어든다고?

청: 예

상: 아. 아니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인간관계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청: 그렇진 않아요. 그런건 별로 없어요

상: 어. 혹시 학교 또 그만 둔지 좀 되거잖아. 두 친구는 어떻게 새로 만나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인것 같아

청: 예. 저같은 경우에는 사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막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를 그만 두고 사회 친구를 만나면은요 오히려 편안한거 같으면서도 좀 그. 사회친구랑 같이 있다.보면은 뭐 나의 고민거리같은거 .. 어떻게 어떻게 지낸다는 이야기 같은 거를 서로. .둘이서 이야기.해결 할 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상: 음.. 그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다는 건가?

청: 예

상: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친구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학생이다. 아니다.. 나는 사회인이다. 어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지 되게 혼란 스러울테가 있을 것 같은데..

청: 좋을 때는 학생, 나쁠 때는 사회인? 뭐. 막..

상: 사회인?

청: 저는 빠른 팔구예요. 그럼 막 엄마가 뭐. 누구는 막 이렇게. 이런식으로 말할 때. 아. 나 아직 어리잖아. 막 이렇게 말해요. 다른 때 어디 니가 나이가 몇인데. 막 이려고 아.. 나 나이. 이렇게 할 나이 났다고. 그런식으로

상: 아. 난 사회인이다..상황에 따라 바꾸네. 신분은?..

청: 예..

상: 어..

청: 할인 해 줄 때는 학생,.. 담배 사고, 술 살 때는 어른.. 웃음

상: 어..

청: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사회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를 놀러가요

같이 놀러 가다.보면은 얼굴이 되게 어리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요.

상: 음. 그러니까 또래들은 사회인으로 다니는데 얼굴이 어려보여 갖고 사회인, 어른으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니?

청: 예..

상: 어. 한 두 개 만 더 하면 끝날 수 있겠다.. 시간이 다. 똘네? . 친구 하나 얘기해 보자....

청: 친구들이요. 친구는 학교 다니는데 저희는 안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친구가 .. 어. 학교 앞으로 몇 시까지 와.이러면은 .텔러 오라고 하면은 딱 가 있으면, 애들이 다. 학교에서 이려고 내려오는데. 어 재 뭐야. 재는 누구길래 저기서 있어. 막 이런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내려오면서 친구 기다리고..

상: 음. 음.

청: 친구 막 기다리고요. 막 그러다가보면은 애들이 딱 부러운데. 막 그런 말 들으면은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요.

상: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화가 난다고?

청: 아니. 딱 애들 교복 입은 걸요. 보면 되게 부러운데. 나도 다시 다니고 싶은데. 애들이 막 재 누구야. 재 누구데 막 우리 학교 앞에 있어 막 이런 말 들으면은.. / 스승의 날 학교에서. 선생님. 막.. 칠판에다. 선생님 이려고 막 써놓고요. 진짜 애들이 막 파티 해 주는데 우리 막 학교 끝날 때에 찾아가서 우린 막 인사해.. / 애들 학교 다. 끝나고 없을 때 찾아 가갔고, 그런게 되게..그래요. .

상: 아.. 또 그렇구나.. 그래도 선생님을 찾아 가나봐? 그지?

청: 예. 일학년때 선생님이요.

상: 아. 그때 선생님은 잘 해 주셨어?

청: 아니요. / 잘 해 주셨어요/ 못 해줬는데요../ 기억에 남아요 / 기억에 남아요..

상: 아. 그래.

청: 표정도 남고..

상: 아.. 스승의 날 같은 날도 따로 찾아가야 되구나. 애들 없는 시간 때 이용해서..

청: 예.. 상: 마음이 그렇겠다. 그지.. 거시기 하겠다.. 진짜. 그지?..

청: 웃으면서 . 예. 상:

이제 마지막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어. 뭐가 있을 까?

정말.. 너희들 다른 애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줬어. 정말 고마워.

청: 어. 맞아. 학교에 보면요. 애들이 생일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 애들은 막 이런 종이. 이만한 종이에 생일 축하한다고 막 번갈아 가면서 / 롤링 페이퍼/ 막 써주는데요. 학교 안 다니고 집에 있으면, 써주는 사람도 없고 / 축하. 받는 것도 / 맞아. 애들이 막 생일 빵도 해주고. 그런거. / 학교 가면 뭐..애들이 생일이라고 생일 빵이라고 때려주고..그래요/ 축하해 주고 그러잖아. 생일 선물 주고 애들이. / 근데 집에 있으면 웃음 상: 받을 것도 없고.혼자서. 막.

청: 그리고 그런게 있어요.

청: 학교에서요 만약에 담배를 피거나요. 그냥 막 혼자 막 혼자 일어나서 필 때요. 앓. 지금 이 시간에 애들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 피고 있겠다..

/ 그 쉬는 시간인데../ 난 이게 뭐야.

상: 음. 근데 어느게 더 맛있냐?

청: 숨어 피는게. 몰래 피는게 긴장되고 막 스릴 있어요. 저희는 그런거 막 그런것도 있어요. 교무실 앞에 짹 서가지구요.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빨리 도망가기/ 음..

상: 몰래 피는게 더 맛있어. 아..

청: 그까 누가 빨리 도망가나.그지? / 맞아/

상: 아. 담배 피우다가.

청: 교무실 앞에서 여자애들, 남자애들이랑 쪽 서요 제일 큰 2층 교무실에서요. 그런 다음에는 선생님을 신발 신고 올라가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막 굽 소리 나잖아요. 누가 빨리 빨리 도망가나. 걸리면 안되니까

상: 걸려서 맞을 값에 일단 스릴이. 넘치는 그런걸 못하는 거구나. 뭔가 긴장되고, 하지말라고 해야 더 재미 있는데.. 막상 멍석을 깔아 놓은게 더 시시하다. 그지?

청: 예.. 집에서 생각나요. 지금 쫓으면 일교시 뭐고. / 맞아/ 몇 교시 때든 뭐 체육하고 있겠다../ 몇 시에는 막 점심시간./ 이젠 점심시간./이젠 점심시간 먹을 때 쫓에 맞춰 전화하고..그리고../ 뭐해그러면. 밥먹어. 그리고/ 나. 밥 먹어..

상: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니까 다. 부러운 것으로 남는구나

청: 예.. 지금은 다. 하고 싶죠.

청: 색동분대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저희들을 부러워 했는데, 이젠 저희가 부러워요. 처음에는 좋죠. 늦잠도 잘 수 있고/ 맞아/ 근데 ..

상: 근데 그게 길지 못하다는 거다. 그지?.

청: 예. 맞아요.

상: 그래. 아. 중요한 얘기 다. 했다.. 또 뭐 더 할 얘기 있니?

청: 없어요. 상: 인제 쥐어 다. 찼니?

청: 웃음

상: 그래 마감해도 되겠다.. 또 얘기해볼래?

청: 학생일때는요. 막 학교 다닐 때 설날 때 가잖아요. 용돈도 많이 주고요./ 세배도 많이 주구요/ 너 한학년 올라 갔으니까 더 써라 그랬는데. 학교 안다니니깐요. 학교 안다니는데 뭐가 이쁘다고 쥐. 막 이래요 어.막 이러시면서 만원 주실꺼 오천원 주시고. 엄마 힘들게 하지마. 엄마나 고생시키지 말라고../ 잔소리만 더 듣고/ 음.. 맞아../ 그리고 학교 갔는데 가면은 막 피리 같은거 불고 그러면은 막 상품권 주고 그러는데 근데 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것 도 없고..

상: 그런게 아쉽다. 그지?

청: 네~~~~에

상: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게 다. 추억이고 우찌 보면 글로 인해서 버는 그 짹짹한 수입들이 있었는데.

청: 네~~에

상: 그게 좀 찢리는거네.. 청: 네~~에

상: 그래 잘 썼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즐겁게 시간을 가져줘서 고맙다.

구분	내용
유형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집단 인터뷰 3
장소	소년원(Y소년원)
소재지	경기도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7:00-18: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모르니까 목소리가 누군지 잘~ 모를 꺼고.. 단지 목소리만 들어갔고 너희가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 꺼야. 정리한거 다음에 와서.. 정리 바로는 안되니까 나중에 다시 와서 이 정리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너희들이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청: 예~~에

상: 음. 땀지. 자 선생님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딱 한가지야. . 오늘 질문할건 학교를 그만둔 뒤 힘든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 물어 볼꺼야.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랑 이 두 가지로 녹음을 하도록 할게

청: 예.

상: 자 여기다. 놓고. 선생님 목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청: 호호호..웃음

상: 한번 생각해 봤니? 학교를 그만 둔 뒤 힘든 점이 뭐가.

청: 예

상: 자유롭게 얘기해 보자.

청:네 근데요 어른들이요. 너 어느 학교니? 이렇게 물을 때요. 그때 대답 못할 때 있잖아요.(다른 청: 맞아. 맞아)

상: 어. 쪽 팔려..

청: 막 부끄럽고. 막..

청: 그리고 뭐지 막 인제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저희가 학교를 안가잖아요 그리고 막 교복 입는 애들을 인제 딱 보면 인제 우리는 사복을 입고, 개네는 교복을 입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막 니네는 몇 살이길래 학교 교복을 안 입었어? 막 이라고 학교가 벌써 끝났어? 막 이라고 .. 혹시 조퇴했어? 이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지 막 ‘학교 안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나쁜 시선으로 볼꺼 같고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상: 음. 음. 그럼 그럴때 어떻게 했니?. 그렇게 물어보.참 그렇게 다 한번씩 누가 물어볼 것 같은데. 낮에 다니면.

청: 예..그러면. 그냥 막 어른들이 ../ 예. 아니요. 막 이렇게 웃고. ‘네’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상: 어. 그렇구나. 다른 친구들은?

청: ...

상: 비슷한 얘기해도 되고, 또는 다른 얘기해도 되고.

청: 학교 안다녀서 무시해요. 막 이렇게
상: 어떻게 무시해.
청: 배운 것도 없다고..
상: 어..으~음
청: 아~ 막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지? 학교를 안다니니깐 너는 부모님이 포기한거다. 뭐 . 너는 뭐지? 너는 부모님이 .. 그렇게 가르켰으니까 넌 그렇게 빠뜨려 나가는거다. 막 그런식으로 해갔고 막 .. 부모님 욕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막 일부 뒤에다가,, 뒤에 계시면서 막 저희는 앞에 있는데 뒤에서 욕하시는 분들 막.. 니가 학교를 안다니니까 그렇게 버릇이 없지. 막 이러면서 . 원래 좀 ...뭐. 애한테는 그런거 물어보지 뭐.. 그러는 지똥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상: 으~ 음. 무시와 관련해서 또 비슷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청: 학생 취급 안 할 때요.
상: 그게 뭔지. 예를 좀 들어볼래..어
청: 그러니까 뭐 어떤 공원에서요. 애들이랑 이렇게 막 재밌게 떠들면서.. 막 수다. 떨면서 막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 큰 처자들이 왜 그러냐고..
상: 아~
청: 그런거 있잖아요. 맞지?(다른 청: 응) 다. 큰 처자 그런 소리 들으면요 어쩔때는요 처녀라고 해서 아~ 내가 성숙돼 보이는구나 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학생 취급을 안 해주니까요 그땐 좀 싫죠.
상: 어~
청: 그리고 이럴 때. 버스를 탔는데요. / 버스비!./
상: 아. 버스비.
청: 와~. 너는 교복도 안 입었는데 니가 무슨 학생이야. /학생증 없어서요/ 니 학생증도 없고, 교복도 없고. 니가 무슨 학생이야 너는 어른이지. 너는 기본요금 아니..어른 기본요금 내라고 막 그러 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상: 그 어떤 때는 또 동네마다 보면은 막 ‘청소년입니다.’ 소리 나잖아. 교통카드
청: 예. .. 교통카드요. .
상: 어. 근데 낮인데 뭐 옷은 교복은. 교복을 안 입었는데 , 쪽 소리나면 뭐 기사 아저씨들이 한번씩 쳐다.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청: 예. 맞아요. / 그리고 막 카드가 있잖아요. 저희가 카드 이제 만약에 카드를 찍잖아요. 글면 어쨌건 저희 주민번호로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근데 딱 이상하게 쳐다. 볼 때 너.너 이거 카드 니꺼 맞아? 막 이럴때.(웃음)
상: 음.. 으~음 맞아. 뭐 다른 얘기 또 해도 되고.
청: 그거요.
상: 뭐.
청: 그만 둔 학교 ...
상: **가 제일 낮다. 딱 적어 갖고 왔네. 이 안에서 모범생 아니야?

청: 웃으면서. 아니요. (다른 아이: 제일 먼저 말을 하려고) 길을 가다가요. 그만
 둔 학교 선생님을 딱 마주쳤을 때 미안한 마음하고요. 또 부끄러운 마음 그런
 것도 있어요.

상: 어. 아~~ 근데 선생님은 너 알아보시니?

청: 네../ 네..(아이들 웃음) .

상: 아~

청: 부끄러워../ 맞아. 맞아..

상: 선생님이 요즘 뭐하냐도 물어볼꺼 아냐.

청: 네.

상: 그럼 뭐라 그래

청:(웃으면서) 전 하는게 없잖아요. 하는 게 아니 그냥 거짓말을 좀 하거든요. 그냥
 뭐 .. 뭐 이렇게 (다른 아이: 일해요.막 이래요.) 어. 맞아 ..

청: 어.애들 졸업식 했을때.

상: 졸업식?

청: 아~ 애들 졸업식 했을 때../ 맞아 따른 사람 ..할 때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상: 아~ 아 그러면 학교는 안가더라도 근처에 가서 졸업하는거 봤었니?

청: ..

상: 좀 맘이 그렇겠다.. 마음이 어땠냐?

청: 예. 그냥 짜증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상:으~음. 그렇게 가면 집에서 어떠냐? 소위 말하면 친구는 졸업식하고 너는 졸업
 식을 못하고 집에서 뭐 좀 가만히는 놔 둘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님 반응들은
 어때? 학교 안다닌 이후에.

청: 부모님은 그냥 막 어차피 그만 뒀으니. 니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 둔 거니까 니
 가 알아서 검정고시 이제 공부하고서 니가 배우고 싶은거 배우라고..

상: 으~음

청: 아빠가 이제 복학하라고.강조는 안하세요. 그냥 옛날에는 학교 안가면은 너 왜
 학교 안가 학교 가야지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학교를 그만 뒀잖아요. 그러
 니까 이제 너 복학해라. 복학해라.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그냥 니가 알아서 이제
 부터 니가 결정한 일이니까 니가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잘 맡은. 맡겨진 일에
 잘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 그렇구나! 그래도 부모님이 이해해 주는 부모님도 있네.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딸이 학교를 그만 둔 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은 없니? 뭐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친척이나 뭐 할머니나 뭐

청: 네가요. 이거 적어 오면서요.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애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상: 아. 그랬어?

청: 예. 학교 그만두고 난 뒤에 힘든 점 없냐고.막 물어 봤는데요. 아니요. 없는데요.
 더 좋았데요 .오히려.

상: 어~어

청: 왜냐면 놀 수 있으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건지.

상: 아니야. 그럴 것 같애. 학교 그만두고 정말 신나지 않냐? 늦잠 잘 수 있으니까
그치?

청: (아이들 모두 웃음).

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니? ‘아~ 좋다.. 이 기분!’

청: 별로 안가요./ 열여덟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제 열아홉이니까. 열아홉 살 될 때
이제 생각이 딱 바뀌죠.(다른 아이: 늦잠잘 때.)

상: 어? .늦잠잘 때?

청: 저는 좀 일찍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막 열여섯살 때 학교를 그만 뒀는데요 열
일곱 살때 딱 이제 아~ 괜히 그만 뒀다..막 그런생각 들어요. 진짜로요. 옛날에
는 진짜로 애들이랑 막 그냥 놀고. 아침에도 그냥. 음. 다른 애들은 일찍 학교가
고 일찍 씻고 막 학교가고 늦게 막 저녁에 집에 오고 막. 놀 수 있는 시간이 줄
어들잖아요. 근데. 아. 옛날에는 그냥 그 정도 열여섯살 열일곱살에는 진짜 그냥
좋았어요. 막 밖에서 술 먹고, 막 애들이랑 어울려다니고..막 피시방가고 점질방
가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열일곱살 때 딱 느꼈어요. 이제 아~ 내 나이
에는 역시 그냥 공부는 안하더라도. 공부는 못하더라도 학교는 갔어야 됐고, 졸
업장은 있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상: 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야..?

청: 예.

상: 어~~어. 다른 친구들은 어땠니?

청:후회 많이 하고요. 학교 막 가고 싶어요.

상: 어~ 어. 학교 가고 싶었어?

청: 네..

상: 어~ 어 특히 언제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은거야?

청: ...

상: 언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특히 많이 들었어?

청: 그냥... 학교 친구들이 갈 때. 그때. 가고 싶었어요.

상: 음. 아.. 교복에 대한 미련들도 많이 있니?

청: 교복...교복 입는 거 너무 좋아요./ 맞아..교복/ 학교 안다니는데도요 막 친구네
집에 가서 교복 빌려갔고 입은 적도 있어요.

상: 어.

청: 근데 부모님한테 미안한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모습을.참. 보기 좋아 하시는데요. 그렇게 못 해 준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요.

상: 음.맞어. 그런 마음도 들꺼야..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는거네.

청: 예~~예.예

상: 음. 혹시 그런거 말고, 또 다른거 힘든 거..혹시 너희들 학교 안다니면 뭐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어떤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청: 네.

상: 어. 일과 관련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니? 일하면서.

청: 그런 적 보다는요. 저는요 애들이 학교에서 아~ 나 다. .. 친구하고 막 전화해

도 막. 아. 나 담임한테 오늘 혼났어. 막 이렇게 애길 하잖아요. 글면 맞어. 나도 학교 다니면서. 담임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혼날 때 그때가 딱 좋았던 시절인데.. 막 네 그래갔고. 학교가 더 다니고 싶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 아. 오히려 더 부러웠니? 그런 얘기 하는게.?

청: 아니 옛날에는요 진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야 니 왜그래. 막 이러문은 아~ 신경쓰지 마요. 저한테 간섭하지 마요. 막 이런식으로 애길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차라리 그런 선생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제가 만약에 진짜로 이게 다. 꿈이고. 만약에 진짜로 다시 중3으로 돌아간다.면은 진짜로 저는 학교 졸업장을 그래도 딸 거예요. 공부는 못하더라도 졸업장만은 땀고 싶어요.

상: 음. 졸업장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구나. 그지? 다른 친구들은?. 음.

청: 너 얘기 좀 해..

상: 어. 그래 얘기를 해야지.다. 같이 열심히 얘기를 해야지.

청: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

상: 어? 어제부터 고민을 했을꺼아냐.무슨 얘기를 할까. 일 한적은. 아르바이트 한 적은 없니?

청: 네. (웃음)

청: 아르바이트 한적 있어요.

상: 혹시 언니들이 경험이 많아서 얘기를 잘하거나. 동생들은 좀 해보자..이. 열여섯?

청: 열일곱.

상: 열일곱?

청: 열일곱.

상: 어.어.. 그도 언니네.. 그러고 보면. 학교를 그만둔지 얼마나 됐어?

청: 네?

상: 학교를 그만 둔지 얼마나 된거니?

청: 이년이요.

상: 이년? 그럼 언제 그만 둔거야? 중3?

청: 중학교 2학년이요

상: 이학년때. 어. 이년 동안 그래도 이거.이 일 저일 많이 해봤을 것 아냐..

청: 아뇨.

상: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본 적 없니? 어.. 그러면 그거 있잖아. 학교를 그만 두고 나면, 용돈은 어떻게 됐니?

청: 달라고 했어요.(웃음) ..

상: 잘 주시냐?

청: (동시에) 아뇨./ 예.. / 아니예요.

상: 어. 용돈을 잘 안..

청: 니가..벌어서 써라..

상: 어~어..학교 다닐때는 그래도 학교 안 간다고 하면 그게 무기잖아. 돈 안주면은 학교 안가 이렇게 되면. 그게 무기니까 부모님이 막 주시고 그러는데 학교 안

다니면..어떻게 되나 해서. 먹어도 괜찮아.어..

청: 먹어?..먹어 먹어.

상: 하다가. 5분정도 더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하자.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힘든 거니까. 조금 지금 쉴까. 과자 먹는 동안 쉴까?. 그래. 과자 먹는 동안 얘기하지마.

청: 예.

(휴식 시간..)

상: 자. 또 어떻게 생각하니? 학교를 그만 두고 힘든 점은..각자 일곱가지씩 얘기하자. 동생들도 좀 해보자.

청: 생각해야 되요.

상: 음? 생각이 아직 안났어? 한 바퀴 다시 돌릴까? 그 다음 은미?. 음.

청: 한 가지씩 우선 하는 거예요?

상: 음.

청: .음.....아~ 이런 고정관념이요.막 뭐지? 저는요 우리집에 있잖아요. 그른. 막. 뭐지. 파른 사람들이.막 .그냥 이웃들이 보면요. 야 너는 학교도 안다니면서 일도 안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학교도 안다니면서 왜 일도 안해. 그러면 또 일하는. 제가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요. 제가 많이 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상: 음..음

청: 만약 일을 또 한다고 하면은 .. 막 사장님들이 막 일부러 막 집 나왔을 때는 막 돈 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상: 어.

청: 막. 애는 어차피 학교도 안다니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상: 음. .아~~ 그럼 일을 해도 제대로 뭔가..못,, 해.

청: 근데. 그. 자기가 뭐냐.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 동의서를 다 받고서 하면요. 제대로 월급 다 받아요.

상: 아~ 그까 그게 아니고. 아까 뭔가 숨기고. 그지? 그까 소회말하면, 불법인거지. 너희들 일을 쓰는 것도.

청: 네.

상: 그럴때 고걸 이용해서 그러면..제대로 돈을 안준다는거니? 어.

청: 네.

상: 주로 어디서 일 할때 그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던 거니? .

청: 주유소.

상: 주유소? 으 ~음. 좋아.. 그것도 중요한 애긴 것 같다.. 또.

청: 근데. 학교를 그만 두니까.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상: 음.

청: 사촌 동생들이랑 뭐 친척들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와서 막 숙제 같은 거 하잖아요. 방학때도 막 친척들 집에 놀러가니까. 사촌 동생이 와서.. 이거 뭐냐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때 참 난감 한거 알죠? (웃음) 아. 나 이거 모르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 주지. 속으로 얘기하면서. 뭐. 아이고. 이렇게 하던 건데. 이러면서 막. 아는 척하면서. 은근히. 뭐 아빠한테 다시 물어보라 그러고. 그럴때요.

상: 어. ~ 그 순간에 조금 당황스럽겠다.. 그지? 어. 그것도 중요한 얘기 같다.. 또 어떻게 있을까?

청: 예..?

상: 돌아가면서 얘기하는거야.. 일곱가지..어

청: 뭐...학교로 친구 찾아 갔을 때.

상: 어 학교로 친구 찾아 갔을 때?

청: 애들 막 교복 입고 나오면 나도 막..전에 거기서 같이 나왔으니까. 저도 학교 다니는 애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놀러 다니면... 그때부터 막 놀 수 있잖아요. 오전에 혼자 있다가 . 오전에 혼자. 집에서 막 게임하고 그러고 있다가 .친구들과 놀면 재밌고 그러니까요.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아 괜히 학교 왔다.. 안가다. 가니까./ (다른아이; 그. .고생이지.(자세히 들리지 않음).)

상: 어.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다.. 그지? 그럼 주로 친구들을 학교 교문 밖에서 기다렸던 경험이 많아 ?

청: 네.

상: 만날려고? 애들이 끝날 때쯤 나는 인제 가서 기다리는거지. 놀려고.

청: 들어가면. 눈치 보여요.

상: 어 ~ 어. 그래도 정문 앞에서는 기다리지 않을 것 아냐.. 골목에 ..

청: 아뇨. 정문 앞이에요.

상: 어.. 그래..그다음 중요한 얘기했다.. 또.

청: 학교.. 그만 두고요?..

상: 으 ~음. 그러고 그건 언제? 친척들 모였을 때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니?

청: 저요?

상: 어. 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

청: 제 얘기 안해요.

상: 왜 안하는거니?

청: 몰라요.

상: 근데 니가 학교 안다닌다는 걸 부모님들이 친척들한테 얘기 하시니?

청: 다. 아는데../ 맞아../ 전 몰라요.

상: 어..

청: 전 몰라서요.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랑. 이모랑. 외할머니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일 친하니까요. 아는데 .. 일단 친척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는 서울에 가서 특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좀 공부 좀 하고.. 예술 쪽으로 좀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서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도 다니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상: 아. 그럼 교회에서도 니가 학교 안다니는 걸. 그만 둔 걸 모르고 있는거니?

청: 네.

상: 아.. 왜. 니가.

청: 서울에 있는 줄 알아요.
 상: 아. 니가 서울에서 무슨 특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줄.
 청: 서울 있긴 있지만.
 상: 아~ 그래서 거의 숨기고 있다.. 친척들한테.
 청: 예.
 상: 혹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 보잖아. 이제 어느 학교 다니냐? 몇 학년이 나? 뭐 . 진학 준비 어떻게 하나.이렇게. 물어볼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 예. 많이 있어요.. / 맞아요./ 아. 짜증나./ 먼 친척들.
 청: 취업은 어디. 어디로 가니?. 그런거..
 상: 어. 아까 친척들이 너한테 뭐 물어 볼꺼 아냐.이것저것.
 청: 안물어봐요. 학교 안다니는지 알아서 안물어봐요. 대부분.
 상: 어. 그럼 니가 친척들 만날 때.. 마음이 어땠는데.
 청: (작은소리로) 그냥 그래요.
 상: 그냥 그래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 어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봐
 청: 그냥 그래요. 음. 그냥 뻔뻔해요.
 상: 아. 뻔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뻔뻔하다는건 그냥 쪽 팔린다는 이야기니?
 청: 네.
 상: 그거하곤 다른거니? 뻔뻔하다.? 뭐 무안하다.. 민망하다..이런 개념이니?
 청: 예.
 상: 아~ 그럼 친척들이 너한테 묻지도 않고 부모님이 너에 대해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만나면 멀뚱 멀뚱 쳐다.보고 끝나는거야.
 청: 웃음.. 따른 얘기해요..
 상: 아. 다른 얘기..일부러 다른 얘기한다고?
 청: 예.
 상: 게도 너만한 또 친척이 있을거아냐 ..
 청: 아뇨 저보다 다. 어려워.
 상: 아. 다. 어려.
 청: 애한테 이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인 것 같아요.
 상: 아.. 그래?..
 청: 네.
 청: 그런 것 있어요. 친척들 모였을 때 .. 음 그 작은엄마 아들이요. 뭐 상을 받았어요.
 상: 어. 맞아 그런 얘기..
 청: 예. 상을 받았을 때 우리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애 오늘 일등해 가지고 뭐 상장을 받았니..마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 어. 어 맞아/ 맞아
 청: 그럼 옆에서 우리 엄마는 꼬집어요..(작은소리로 : 이 놈의 지집애..) 웃으면서. 이 놈의 지지배 그러면서. 이 학교도 안 다니면서 재는 좀 봐라. 이러면서..나중에 다. 친척들 가고 난 뒤에 막 뭐라 그래요. 학교 다시 갈 생각 없냐. 그러면서.
 상: 그래. 참았던게 폭발을 하겠다. 그지?

청: 네.에
 상: 혹시 또 뭐 힘든 점 없니?
 청: 친척들이요. 어. 제삿날 때 집에 올 때요.
 상: 음.
 청: 어.. **이는 왜 이렇게 학교도 안다니고 맨날 말썽만 피운다고 그러면서. 학교는 공부는 못해도 /다니기라도 해라/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라고./우리 아빠도 그래/ 그런말 할때. 고모들이 막, 친척들 얼굴을 보면은요. 못 보겠고. 막. 혼자. 혼자 있고 싶고 막.
 상: 아.. 맞아. **아.. 참 말을 잘 하구나. 조용히 차근 차근하게.. 맞아 그것도 중요한 애긴데. 또..친척들 얘기는 아니어도 되고. 또 다른 얘기.
 청: 막 이거요. 친구들인데.. 뭐지? 진짜 동창. 그니까 초등학교 제가 어느 날은요 애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어디.. 아침에 이제 찜질방을 갔다 나와 갔고.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또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누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너무 낮이 익은거예요. 그래갔고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 동창인거예요. 근데 개는 교복을 입고 있고, 나는 사복을 입고 있고. 내 주위에 애들도 다. 사복을 입고 있는거예요.
 상: 음.
 청: 그든.딱. 딱 봤을때부터가 이렇게 생각할꺼 아니예요. 솔직히 어.재 학교 안다니 나봐. 막 이렇게 생각할 꺼 아니예요. 연락도 안한지 오래됐으니까. 그니까 뭐. 어 야.안녕 그니까 너 학교 안가? 막 이러면은 .. 어 나 안다녀..왜?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 때.. 진짜 마음은 아니어도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어. 안다녀. 아. 그냥..이렇게 장난으로 넘겨도. 막 힘들어요.
 상: 음. 친구는 궁금해서 묻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지?
 청: 네.
 상: 꼬치꼬치 대답해 주기가. 어.좋다.. 그 다음 또 다른..
 청: 어. 일할 때요.
 상: 어. 조금만 설명해 줘.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청: 제가요. 일을 좀..안 좋은쪽의 일을 좀 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이렇게 (소리 내 웃음) 배달..
 상: 어. 그래그래. 배달을 나갔어?
 청: 어디 배달을 나가?
 청: (계속 소리 내 웃음)
 청: 배달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하잖아요. 그까 아침에는 이렇게 뭐. 거래처 애들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가면은요. 애들이 인제 교복입고 박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막 그. 카맨이 있어요. 그. 그 오빠가 막 너는 학교 안다니고. 왜 이런 일하냐면서 이렇게 물었을때요 . 예. 좀 대답도 못하고. ..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좀.
 상: 음.. 그렇다.. 그지.
 청: 그니까.그런 모습 보면서.
 상: 음. 혹시 일할 때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거나. 그런건 없니? 학교를 안다니고.

또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청: 왜 그런 유홍업소 같은데는 뭐 학교 이런거 상관 안하잖아요.

상: 음.

청: 뭐 편의점 이런 곳은 이력서 써내야 되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롯데리아./그 때 막 중퇴 이렇게 적어서 내봐요. 그러면. (웃으면서) 그러면 찝려요.

상: 으..음. 아. 편의점 이런데..

청: 예. 뭐 중퇴. 졸업도 안하고. 막. 일하냐면서.

청: 부모님 동의서도 같이 있어도요.

상: 어.

청: 중퇴를 하면. 좀 차별을 하더라고요.

상: 그 중퇴를 했다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청: 그냥. 어. 사고쳐서. 학교를 그만 뒀구나. 말썽 피워서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상: 음. 그럴 것 같애. 됐고. 그 다음 또.

청: 집에서 TV 볼때요..

상: TV 볼때?

청: 막.. 화면에 막 애들이 교복 입고 나오는거 있잖아요.

청: 막. 그 연. 막. 뭐라고. 그러지? /드라마? 시트콤?/

상: 음. 요즘 뭐 애들 게임하는거. 이런 것도 다. 교복 입고 하잖아. 그 뭐냐. 여자 사인방이야 오인방인가.

청: 아. 맞아. 애들이 막 교복입고 나오면은요. 엄마 막 옆에서 너도 저렇게 교복 입고 다녔을 때가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할 때..할 말이 없어져요. 옆에서.

상: 음. . 혹시 시간이 많이 남잖아. 학교를 그만 두면,

청: 예.

상: 그래서. 그. 시. 어.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힘들었던 점은 없니?

청:..음..

상: 아님. 이 얘기 안해도 괜찮아.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해도 괜찮아.

청: 어..부모님께요. 막 미안한 감정이 있고요. 어... 많고. 그 다음에..

상: 시간이 많이 남잖아. 그러면 뭐하니?

청: 그냥 컴퓨터..

상: 오락 이런거..

청: 예. 컴퓨터 하나 하거나. 누워서 TV 보거나. / 노래방 가고./ 누워서 뒹굴거나..뭐 노래방가고.

상: 음. 누워서 뒹굴구나. 게임 되게 중독.. 거의 중독 수준이겠다..

청: 중독.. 아. 맞아요. / (인터넷? 잘 안들림). 안들어가면 불안해요./ 아침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 맞아. 맞아./ 특히 캐릭터 게임에는 이케이케 물..같은 거. 물 이미지 막 그런거 돈벌이가 되니까요. .진짜 돈벌이가 되거든요. (다른 아이 : 웃음) 그걸로 팔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상: 어. 니가 그 수준도 됐었니?

청: 예. / 그랬었어요. 이미지 끝장 났었어요.

상: 아 그랬어? 거 아무나 그거 팔 수 있는 뭐 아이템 생기는거 뭐 아니잖아. 잘 해

야 되잖아.

청: 예.예. 아빠가 . 일년에 오십 넘어야되요.

상: 어..

청: 우리 아빠가요. 리니지를 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도요. 저희 아빠가.. 리니지가 되게 높은거예요. 막 창조였던 말이에요. 근데. 막 아빠가 한 때는 제가 학교를 안다니잖아요. 근제 제가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랬던 적도 있어요. 막.. 인제 너.. 피씨방 아르바이트하면서. 피씨방만 하기에는 돈을 너무 조금 벌잖아요. 그니까 막. 아빠한테 리니지 배워. 아빠가 아이템같은거 다. 줄테니까 너도 더 키우라고.그러면서 돈 벌이 그것도 된다고. 막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아빠한테 이런거나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학교 다녔으면은 뭐. 돈 걱정도 안해도 되고. 뭐 부모님 눈치도 안 보이고..뭐 그냥 학교만 가면 되고..제 때 시간만 들어오면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 아..그런 것도 있겠다.. 혹시 돈이 아쉬워서. 뭐 어땠냐? 학교 안다니날때 뭐 돈이 나올 일이 별로 없잖아. 부모님께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도. 어느 정도잖아..

청: (웃음)

상: 학교 다닐 때 뭐.. 거짓말 칠 수 있는데. 고. 얘기 한번 해봐. 용돈이 부족해서..

청: 안 받는데. 용돈.

상: 안 받고 가면 어떻게. 친구들하고 놀아도 돈이 필요하잖아.

청: 친구들이 주로 사요..(웃음)../ 맞아요.

상: 그럼. 항상. 너는 얻어만 먹니?

청: 아뇨 어쩔 땐 줘요.

상: 너한테? 그 친구들이..

청: 아뇨. 오빠가요.

상: 으~ 음 그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항상 얻어 먹지는 못하니까 너두 쓰고 싶은 데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줌. 어디 구. 구할 생각들을 하지 않니?

청: .없어요.

상: 없어?

청: 돈에서는 힘든 건 없어요.

청: 저희 아빠도요.

상: 그래.. 그럼 돈을 다. 주셨다는거니 집에서?

청: 예.

상: 필요한 만큼?

청: 예. 돈은 줘요.

청: 그냥 아빠도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애 학교도 안다니겠다. 뭐지? 돈 까지 뭐. 니 학교도 안다니는게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 할 거 아녜요.

상: 그래. 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청: 아.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 받을까봐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아빠 나 나갔다. 올게 이러면, 돈 있어? 그러면 아니 없는데.. 이러면은 그냥 지갑에서 돈 몇 만원씩 꺼내주고.

상: 음.

청: 저희는요 가난해서 돈도 좀 밖에 안줘요.
 상: 어..
 청: 용돈도 안줘요. 그래서 맨날 나가서 친구들거 얻어 먹고. 어쩔 땐. 막. 같이 사 먹을때도 있고, 놀때도 있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친구한테 빌 불기도하고/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상: 음. 그럼 어떻게 해 자급자족 해야 되잖아. 필요하면. 그래서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데고 그러지도 않나?
 청: 애들.. 애들 돈 뺏고 다녀요.(아이들 웃음)
 청: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돈 좀, 차비 없다고 거짓말 치고.. / 앵벌이야.앵벌이.
 상: 그래. 앵벌이도 했어?
 청: 그건 집 나갔을 때요.
 상: 어..어.
 청: 근데.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앵벌이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집 나가 있으면 돈이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음. 맞아/ 막막하잖아요. 부모님도 없으니까. /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뭐해요.
 상: 그래 . 너. 어떻게 돈을 구했냐? 그 얘기 좀 해봐.
 청: 저요? 저는 줄 때도 있는데요.
 상: 예.
 청: 막.. 엄마랑 아빠랑 나쁜 것만 한다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상: 어. 그래 그럴 것 같애.어.
 청: 근데.밖에 갔다가 애들 딱 만나면 , 애들이 어 나 어떻게냐. 돈 어떻게냐 그러면 애들이 같이 막.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막. 돈 뺏고.(웃으면서).
 청: 야..얼마있어?.(웃음)
 청: 뭐 그런식으로.. / 먼저 친한 척 해야 되요. 안~녕.. 안녕해봐,, 야 너 누구야 ../
 청: 몇일동안 집에 있어 갔고요. 준 돈 모아서 그 돈을 한꺼번에 쓸 때도 있고.
 상: 음. 그래도 늘 돈에 이렇게 굶주려 있을 것 같애. 늘 돈이 모지란단 느낌이 참 많이 들 것 같아. 그지?
 청: 저두요.
 상: 어.어
 청: 그럴때면은 그냥 아빠가 돈을 줬는데도 부족할 때는요. 일해야 되겠다.. 아.빨리 일해야 되겠다..
 상: 음. 일해야 되겠다.. 어. 근데. 막상 일 할려고 보니까 일할 자리가 많니?
 청: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상: 그래 고 얘기 좀 해봐. 막상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청: 찔려./ 찔려.
 상: 나이가 안된다.거나. 중퇴생이여서 그지?.
 청: 예.
 상: 안 받아 주거나..
 청: 안 받아줘요.

상: 어. 뭐하고 싶었던 거니?
 청: 그냥 평범한거. 썬빙..
 상: 썬빙. 그래 맞아.
 청: 고기집도 요즘 안되요. 썬빙 같은거요.
 상: 어리다고?
 청: 아니. 아줌마들을 더 많이 썬요.. / 대부분 아줌마들.
 상: 어. 고기집도 안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게 뭐냐.
 청: 주유소..
 청: 주유소도 요즘은 ... 주유도 잘 안 받죠./ 편의점도 막 한참 많이 막 청소년들 많이 받아 줬는데요.
 상: 편의점도 술하고 담배를 파니까 그지.
 청: 예. 근데 인제. 청소년 안되고. 막.. 그런거 말고도 막 이런것도 있어요. 복조리 판매..
 상: 그런 것도 해봤어?
 청: 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 해보진 않았는데요. 썬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딱 붙라고 딱 썬 있는데 썬 있었어요.
 상: 어~ 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그런데 늘 이렇게 신경이 가 있을 것 같은데.
 청: 예
 상: 해봐서 돈 많이 벌었던 적 있니?
 청: 아니요.
 상: 뭐. 일해 갔고..
 청: 근데요. 학교 다녔을 때는 막 전단지 아르바이트하는게 하나도 안 썬했어요. 근데요 학교 안다녔을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할라고 하면. 너무 썬 팔려요./ 맞아. 창피해요./ 돌아다니기. 썬.그래요.
 상: 그게 왜 썬 팔려.. 창피한 건데.다닐 때 하고 안 다닐때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청: 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도 다. 있고. 친구들 옆에 다. 있고. 막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무슨 썬빙을 어떻게 하나. 어. 그냥 전단지라도 해서 몇 푼이라도 벌려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아줌마들이 대부분 계시잖아요.
 상: 음.
 청: 근데 만약 학교를 안 다니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유. 학교도 안다니는 것들이 전단지야.. 그냥. 뭐지. 더 나쁜 썬 일을 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상: 으.. 음. 혹시 시간이 많고. 그러다가 또 아무래도 학교 안다니면. 학교 안다니는 애들하고 만나지 않냐?
 청: 맞아요./ 맞아.
 상: 그러면. 사고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청: 맞아요. / 오토바이.
 상: 그 이야기 썬 해줘라. 아무래도 썬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냐?

청: 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학교 안다니다. 보니까요. 뭐. 애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먹다가 애들이 막 우리 한번 오토바이 타보자 이래서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오토바이 애들이 타고 가다가 그거 타다가 또 걸리잖아요. 걸리다. 보면, 애들이 또 들어가고.

상: 조금 있다. 같이 쉬자. 그러면.

청: 애들은 또 다. 경찰서 들어가고 조사 받고 .나머지 애들은 도망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뭐 담배하고 술 살 때. 어. 우리가 길거리에서는 못 피잖아요.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막 따르면서 숨어서 막 피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 욕 먹고. 막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엄마 아빠 또 불려가면 또 욕 먹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또 그 다음날 집에 가도 할것이 없으니깐요 밖에가도 또 똑같은 일 또하다. 보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거예요.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고.

상: 음..그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기회도 참 많을 것 같아.그치? 어. 계속 어울리고. 또 시간 많이 남고. 어. 밤에도 불려내는 사람이 많지 않니?

청: 새벽에.

상: 새벽에?

청: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오늘 외박하잖고. 유혹해요. / 맞아.

상: 아. 그렇게 꼬시는 애들도 있어. 유혹하지 그지.

청: (웃으면서) 오늘은 안가. 막 이려고. 학교를 안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새벽까지 놀다가자. 뭐 외박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고.

상: 음.. 그러니까 그것도 규칙적인 생활이 잘 안될 것 같애. 자꾸 이렇게 시간 많으니까. 혹시 시간 많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뭐 이상한거 시키고 그런거 없니?

청: 그런 건 없는데../ 그런건 없어요.

청: 또 있어요. 어.

상: 어. 또 있어.. ?

청: 외로운 점.

상: 외로운 점?

청: 외로웠던 적이 있어요. 왜 학교 다닐 때는 생일 되면 막 놀러와~ 이러면서 생일날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상: 음.

청: 집에 놀러오고. 생일날. 맛있는거 해놓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일..인제 학교를 안다니니까요. 애들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까 생일만 되면 이제 외롭고. 인제 가족들..

상: 특별한 날은 좀 그렇겠단.. 그지?

청: 저도 있어요. 저는요 뭐냐 이제, 학교를 인제 친구네 집에 만약 놀러가잖아요. 개는 인제 학교를 다니는 애예요. 그러면 개가 인제 어~ 엄마 내 친구 왔어 그러면은 인제. 아주머니가 어 애 어디 학교 다니는 애야 이러면은 막 제 친구가 막 거짓말을.해요. 어. 애 우리 학교 다녀. 같은 반이야. 공부 잘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할 때 솔직히 말해서 길으로는 네.네 이러면서 막 웃고 개한테

도 야..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고서는 막 개도 그냥 솔직히 자기도 미안하겠죠. 저한테. 솔직히 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아. 미안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러는데. 솔직히 진짜 너무 씁쓸해요.

상: 음. 그렇겠구나. 어. 그래..좋다. 어. 참 중요한 얘기했다. 또 어떻게 있을까?

청: 우리는 이렇게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랑 노니까요

상: 음.

청: 집에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오면요. 엄마랑. 그니까 가족들. 부모님이랑 마주치잖아요? 그럴때 뭐. 야. 학교 안다닌다고 얘기하면요. 뭐. 야 친구가 가면은 이제 나중에 엄마가 애랑 놀지 말라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상: 어. 음. 너. 니네 엄마도 개랑 놀지 말라하고. 또 다른 애들은 그 집 엄마는 또 너희들이랑 놀지 말라하고 어.

청: 네. 똑같아요.

상: 어. 혹시 있잖아. 사고 쳐갔고. 경찰에 갈 일들이 있잖아.

청: 아. 맞아.

상: 그럼 조서 쓸 때 학교 안다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

청: 맞아, 맞아. 맞아./맞어요. 막 때려요/.

상: 어.

청: 이런적도 있었어요. 이름,***.직업 이러는데 원래 이래요 학생이예요. 이래요. 근데. 무직 / 무직/ 막 이렇게 말하면은. 막. 아유..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사고 나 치고 다니지..(맞어..) 이래서 안돼. 애들은 이래서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못 된거야. 막 이렇게 말씀 하실 때..

상: 아.. 정말 시간이 다. 돼서. 한 두가지 정도만 더 말하자 또 생각 나는거 없니? 음..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거니까 다 한명이라도 빠지면 안되는구나. 어. 또 생각나는 거 없니?

청: 음.. 저는 엄마가 아까. 자기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엄마는 학교를 못 다녔다고. 대학교 못 다.녔다고 그러니까 너라도 대학교를 가야지.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어. 학교 안다니고 어떻게 할거냐고. 그런 말 할때.

상: 음. 어. 그래. 그런것도 있겠다.. 어.또 어떤 경우가 있지?

청: 음.중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 교복 맞추잖아요.

상: 음

청: 우리는 이제 중학교 중퇴하니까 이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복 맞추러 간다고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 줌..

상: 교복에 대한. 어떤 한이 많다.. 그지?

청: 예..

상: 혹시 또 뭐 생각나는거 없어?

청: 그 길.. 길가고 있는데. 이제 막 설문조사 할 때.(맞어. 맞아). 어디학교. 어디학교. 어디 학생이세요. 막 이러면은.. 저 학교 안다니는데요. 안다녀요?..그때 줌 그래요.

상: 아.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그럼 여기까지. 모두들 수고했어요.

구분	내용
유형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집단 인터뷰 4
장소	보호관찰소(S보호관찰소)
소재지	경기도
1차 인터뷰 일시	2006년 8월 10일 18:00-19:00
비고	-

* 상: 상담자, 청: 인터뷰 대상 청소년

상: 오늘 얘기할 주제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어떤 힘든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돼. 민수는 그만둔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최근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친구는 한 1년 반 2년 다. 되어가잖아.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 최근부터 거슬러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다. 정답은 없고, 너희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꺼야.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거니?

청: 그냥. 잔소리 듣는 거.

상: 잔소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래?

청: 그냥. 학교 안다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구박을 많이 받죠.

상: 누구한테?

청: 부모님한테.

상: 뭐 때문에?

청: 학교 안다니니까.

상: 다른 친구들은 어때니?

청: 힘든 점 없는데요.

상: 어. 그럼. 니가 원해서 학교를 그만 둔건가?

청: 다니기 싫어서요.

상: 한 2-3개월 지났잖아? 6월에 그만둔 거니? 5월?

청: 6월 초나 5월말에 짤렸을 꺼예요.

상: 어. 그럼. 불편한 건 없니? 청: 불편한 거 없어요.

상: 어. 그래. 형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자. 너는 어떠니? 방금 잔소리 얘기했는데.

청: 저는 항상 즐거운데요.

상: 항상 즐거워? 정말?

청: 저는 힘든 점이 없어요.

상: 걱정되는 게 없니? 학교 안다니면서.

청: 그냥 걱정이죠.

상: 뭐가 걱정인데?

청: 폐인 될 까봐.

상: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거야. 폐인 될까봐? 구체적으로.

청: 학교 안다니니까.

상: 학교 안다니니까 왜 폐인이 되는데?

청: 집에서 컴퓨터만 하니까.

상: 폐인이 된다는 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청: 네. 바로 그거예요.

상: 그냥 멍하게 하루가 가는 거니? 뭐가 준비하는 게 없어서. 폐인이 된다.. 니가 생각하는 거니?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니?

청: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 어. 그래 또 어떤 경험이 있니? 힘들었던 거?

[힌트를 주다. : 친구, 가족과의 관계, 생활 중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면 된다. 인터뷰의 목적은 이것을 알아서 어떤 게 힘든지를 알아야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상: 아까 부모님이 잔소리하신다고 했는데. 용돈은 어떠니?

청: 심각해요.

상: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돼. 용돈은 어떻게 얻니?

청: 일단 거짓말을.

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청: 못 받죠.

상: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주시는데?

청: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상: 하경이는 어머니? 용돈문제. 어떻게 보면 용돈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냐?

청: 달라는 대로 주는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상: 그래도 학교 안다닌다고 하면 돈 쓸 데가 어디있냐고 그러지 않냐? 학교 갈 때면 차비가 필요하다.거나. 참고서나.

청: 저는 게임방 간다고 하면 줘요.

상: 그러면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벌려고 일 같은 거 해보려고 한 적은 없어?

청: 지금. 오늘 면접가는데요.

상: 어. 어디로 가는데?

청: 게임방으로.

상: 이번에 처음 시도야?

청: 많아요.

상: 어. 그러면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

청: 뭐.. 그냥.

상: 아르바이트 뭘 했는데?

청: 게임방 아르바이트. 주유소. 이거저거.

상: 이거저거가 뭐가 있어?
 청: 짜장면 배달.
 상: 면허 있어야 되지 않아?
 청: 면허 있어요. 원동기 면허.
 상: 그런. 아르바이트할 때 나이가 어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어른들이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었던 점 한번 생각해 봐. 청: 힘든 점은 없었어요.
 상: 민수는 학교 그만두고 뭐 하는 일 없니?
 청: 하려고 해도 보호관찰 때문에.
 상: 어.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보호관찰과 관련이 있니?
 청: 아니요.
 상: 근데 어떻게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건 너희 또래에 해서는 안되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거 아닌가? 보호관찰 일은 학교를 그만둔 후의 일이니?
 청: 학교 다니는 동안에.
 상: 어. 그러면 학교 그만둔 거와 보호관찰이 관련이 있는 거네.
 청: 지금 휴학중인거죠.
 [고등학생이므로 언제든 복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상: 원했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하고 맞물려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네? 그 핑계로 그만둔 거야?
 청: 거의. 그렇죠. 저는 일어나기 싫어서 그만 뒀죠.
 상: 중근이는 어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너 희들하고 같이 놀자고. 다가오는 경우들 많지 않니? 소위 말하는 유혹들 있잖아. 그런 건 어때? 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상: 뭐. 좀 더 놀자거나. 나쁜 짓 하자거나. 그런 유혹들 없지 않니?
 [학생들의 다소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면접을 미루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안내]
 상: 그럼. 주로 어떤 일들을 경험했었는지 말해보자. 1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그치?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니?
 청: 그냥. 무슨 생활을 했냐구요?
 상: 그래. 무슨 생활했냐고?
 청: 그냥 저는 집에 있으면서 일 구한다음에 일 하고.
 상: 일을 끊이지 않고 했던 거니?
 청: 아니요. 제가 끈기가 없어서요. 금방 그만뒤요.
 상: 얼마나 했었는데?
 청: 오래하면 한 한 달 하는데요. 한 일주일? 아니면. 보름?
 상: 하다가 처음에 원래는 길게 할 거라고 약속을 했을 것 아냐? 중간에 일방적으로 니가 그만 둔거니?
 청: 네.

상: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청: 끈기 없다고요.
 상: 끈기 없다고. 그 소리 맨날 듣는 소리겠네?
 청: 네.
 상: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청: 저요? 한심하죠.
 [집중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며, 더 이상 면접이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
 어버리는 피면접자의 태도에 대한 면접자의 느낌 전달]
 상: 그래. 무슨 일을 했었니? 한달을 하던, 일주일을 하던.
 청: 그냥. 뭐. 주유소랑. 배달..
 상: 그런 거를 할 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잖아. 그럴 때 일을 하면 사장이라던지 그런 사람들이 뭐라 안그러니? 자기
 네 애들하고 비교를 한다.던지.
 청: 없어요. 자기네는 돈 버는 걸로 끝이니까.
 상: 그냥. 일 해줘서 고맙다.. 그거니?
 청: 네.
 상: 중근이는 어떠니?
 청: 저는 뭐. 별로 인한 것도 없는데.
 상: 그럼. 계속 시간이 그냥 가는 거야?
 청: 그냥 집에 있으면서 태권도 나가면서. 집에서 컴퓨터하고 밥 먹고. 그냥 그래요.
 상: 그럼. 하루 종일 시간이.
 청: 남아돌아요.
 상: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니?
 청: 친구들은 뭐. 학교 안다니는 애들은 연락을 하거나 연락이 오구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끝날 때 연락이 와서 그 때 나가서 만나요.
 상: 주로 저녁에 만나서 밤 늦게 놀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겠네.
 청: 네. 거의 그럴 때가 많아요.
 상: 어.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니? 오늘은 무지 일찍 일어났겠다.. 너희 둘 다..
 일찍 오려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청: 저는 어제 밤 잤어요.
 상: 밤 새고 왔어? 어. 밤에 놀았니?
 청: 아뇨. 아침에 늦을까봐.
 상: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어. 보호관찰소에 정해진 시간에 안가면 왜. 난리가 나는
 거니? 청: 늦게 오면 욕 먹어요.
 상: 어. 그래서 너희들 긴장하고. 어떻게든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야?
 청: 네. 상: 보호관찰 받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철저한거니?
 청: 중요하니까요. 상: 중요하니까. 얼마 남았니?

청: 저는 아직 1년 남았어요.
 상: 2년 받았니?
 청: 네. 저는 8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 저 1년 조금 넘게 남았어요. 10월 달인가. 그러니까.
 상: 보호관찰 받는 건 어떠니? 학교도 안다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건데.
 청: 이거 말 안하죠? 이런 거.
 상: 누구한테?
 청: 저기. 밖에.
 상: 어. 얘기 안하지.
 청: 진짜 힘들어요.
 상: 보호관찰 받으면서 언제?
 청: 진짜 힘들어요.
 상: 뭐가 가장 힘든데.
 청: 일단 피곤한데 꼭 와야되고. 오면. 또 억지로 해야 되고.
 상: 안왔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청: 혼나죠. 이런저런소리 듣고.
 상: 기분이 나쁘니?
 청: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상: 근데. 다른 거는 너희들이 별로 신경 안쓰는데. 보호관찰만은 너희들이 날밤을 쉴 정도로 아주 긴장해서 받고 있는 거네. 학교 안다니면 나쁜 짓을 할 시간이 많지 않냐?
 청: 많은데요.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니까. 안해요.
 상: 또 걸리면 소년원 직행이지?
 청: 네.
 상: 근데 그런 유혹들은 많잖아.
 청: 근데 참아요. 참을 수 밖에 없어요.
 상: 근데 용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혹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유혹들이 들어오니? 청: 주로 돈이나 오토바이.
 상: 뭐 어떤. 폭주족?
 청: 흠치자.
 상: 흠쳐서 팔면 얼마 받는데?
 청: 팔지는 않고 타고 다녀요. 저희는 타고 다녀요.
 상: 그럼. 애들이 여자애들 달고 타고 다니는 건 거의 흠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
 청: 많아요.
 상: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
 청: 거의 대부분.
 상: 그럼 참. 땡기겠다.. 타고 싶을 거 아냐?
 청: 이제는 누가요. 이제는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보기 싫어서.

상: 또 어떤 유혹이 있니? 돈과 관련해서.

청: 그냥 돈이죠.

상: 그럼 뽕 뜯기, 이런 거, 소매치기?

청: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상: 아니. 그런 유혹이 들어오냐. 그런 거지.

청: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돈이 없으니까.

상: 그래도 돈을 벌어서 구하는 거는 무리잖아. 아르바이트 해도 시급 얼마 이렇게 받아서는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니? 돈이 없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은?

청: 일을 구하죠. 저는 돈이 없어서 일을 구한 거예요.

상: 일을 하게 되고, 또? 또 다른 유혹은 없어? 여자친구 만나고 그러지는 않니? 많이 만나잖아.

청: 이제는 안만나요.

상: 여자애들 만나면 어떤 성적인 유혹, 이런 거 남자애들이 많이 받잖아. 그런 거는 어때?

청: 니가 말해 봐.

상: 어, 여러 여자 만나니? 만나는 애들이 주로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니? 여러 다리 걸치고 있어? 청: 많을 때는. 전에는 8명 정도.

상: 혹시,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어?

청: 저는 청소년증있어요.

상: 어,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청: 네, 학생증 대신에 다. 되요.

상: 어, 그거 가지고 버스나 영화보는 거는?

청: 다. 되요.

상: 어, 다. 돼?

청: 저는 뭐 영화도 보러 안가고, 어려보여서.. 초딩 수준이라서.

상: 어, 낮에 사복 입고 다녀도 어른들이 별 말씀 안하시니?

청: 네.

상: 애들이 교통카드 찍을 때 청소년이라는 말이 나와서 불편하다는 이야기 하던데.

청: 어, 저는 그냥 어른 걸로 찍어요.

상: 아, 그럼 할인율 안 받는다는 거니? 학생 교통카드 안쓰는 거니?

청: 네, 학교 다닐 때만 쓰고.

상: 아, 아예 안쓰는 거니? 그럼, 청소년입이다. 이런 소리 안나오겠네.

청: 네, 그냥 안 써요. 그냥 천원 내고 타요. 귀찮아서.

상: 그럼, 영화관 같은데는?

청: 친구들이 가져다가고, 그러면 애들 거로 할인받고.

상: 근데 학생증은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되잖아.

청: 그냥, 해 줘요.

상: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 그냥 같이 가서 옆에 있는 애 꺼 보여주면 그냥 친구인 줄 알고 해 줘요. 가끔은 동생인 줄 알아요.

상: 얼굴이 어려보여서 이점이 많다는 거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해? 가족들 사이에서는? 너희들 학교 안다니는 거 부모님들께서 친척들에게 말씀하시니?

청: 네. 친척들이 알고 있죠.

상: 친척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떠냐?

청: 좀 민망하죠. 친척들 만나기가 싫어져요.

상: 뭐가 하시는데?

청: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학교를 안다니는 걸 친척들이 알고 있으니까 만나도 분위기가 좀. 다닐 때랑은 대하는 게 좀. 틀리다고 할까.

상: 어떻게 틀리는데.

청: 그냥. 좀 말이 없고. 말이 줄어들어요. 저는 더 잘해줘요. 학교 좀 다니라고.

상: 잘해줌으로써 학교들어갈 마음이 생기도록? 주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청: 제가 좀 그럴까봐 대놓고 얘기는 안하고. 저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는데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상: 되게 어색하겠다..

청: 친척들 있을 때 집에 있기 싫어요.

상: 부모님들은 쪽팔려하지 않으시니?

청: 엄청. 아빠는 안그러시는데 엄마가. 나도. 맞아. 아빠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상: 엄마는?

청: 엄마도 나만 잘하면 된다고 말은 하시는데. 쪽팔려하시는 것 같아요.

상: 학교 다니는 애들 계속 만나니?

청: 몇 명.

상: 친구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야?

청: 학교 안다니다.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보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몇 명 만나는 애들만 만나고. 학교 안다니면 친구들 없죠.

상: 너희들은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친구마저 없으면 더 심심하잖아.

청: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들. 그런 애들만 몇 명 만나고. 이 친구는 중학교 친구. 상: 사고도 같이 친거야? 공범이나 너희 둘이?

청: 네. 상: 너희들 오토바이야? 2년 정도면 많이 받은건데. 뭐 뭐 붙은건데?

청: [핸드폰 사기, 오토바이 갈취 등 설명]

상: 한번이 아닌 것 같네. 2년 정도 받은 거 보면. 이제 더 걸리면 소년원 직행이네.

청: 네.

상: 그래. 아까 친구 얘기 하다. 말았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 정도 만나고. 중학교 때 학교 그만 둘 쯤에. 그 때 친구들은 연락이 안되는 거니?

청: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이어진 친구들이 좀 친한 거고.

상: 그럼, 새로운 친구는 어떻게 만나는 건데?
 청: 그 친구를 통해서 만나고.
 상: 어, 그럼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니?
 청: 네.
 상: 어,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학교 잘 다니고 그러는 모범생들이 아니고, 학교 안다니거나 그런 애들.
 청: 아니에요. 그치?
 상: 약간 사고 치는, 공범인 애들이 꽤 많지 않냐?
 청: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애들은 다, 학교 다녀요.
 상: 만나면 다, 학교 얘기 할 거 아니야?
 청: 저희 있을 때는 학교 얘기 안해요.
 상: 그럼, 학교 그만 둘 당시에 부모님께 뭐 하겠다고 나름대로 자신있게 말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청: 검정고시 본다고 약속.
 상: 꼬셨던 거지. 그 준비는?
 청: 저는 그 때요, 그냥, 학교 다니기 싫다고, 어느 나 엄마가 와서 자퇴서 쓰고, 그만 두고, 그 때 엄마가 너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검정고시 본다고.
 상: 근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
 청: 안되고 있어요.
 상: 안되는 이유가 뭘까?
 청: 일단 귀찮고, 해 봤자 금방 포기할 것 같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짜증도 나고, 할 것도 많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일단 최고로 저는 돈 벌고 싶어요.
 상: 돈을 버는데 너희처럼 아르바이트해서는 얼마 못 벌잖아.
 청: 그래도.. 해야죠. 한달에 한 4-50.
 상: 근데 그렇게 하는 아르바이트는 직업은 안되잖아.
 청: 그거는, 일단 미성년자니까, 민증 나오면 해야죠.
 상: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는 거야?
 청: 저는 20살부터, 미래 준비할 계획이고.
 상: 일단 지금은 아르바이트가 시간을 떼운다.. 그런 개념이 많은 거니?
 청: 일단, 돈을 번다고.
 상: 그럼, 돈은 벌었니? 학교 그만둔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청: 돈은 못받은 게 더 많고.
 상: 아, 돈을 떼었다고?
 청: 한군데는요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상: 누가?
 청: 그런 데가 있어요. 친구랑 같이 일했는데요.
 상: 중간에 연결한 애가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니?
 청: 그런 게 아니구요, 처음에 인터넷 보고 갔는데 거기서 한 달을 일했는데, 우리

가 월급 받는 날 그만두고, 월급은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는데, 왔는데, 저는 안 가고 제 친구가 왔는데요, 며칠 뒤에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다가 떼었어요. 도망갔어요.

상: 그 때는 그럼, 일을 시킨 사람이 안 준 거니?

청: 네. 그래서 엄마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상: 왜?

청: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엄마는 아는데요, 자꾸 까먹나봐요. 근데 엄마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거 다,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상: 그렇지. 돈을 떼인 거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네. 너희들 수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청: 도망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상: 고생해서 일한 건데.

청: 그렇죠. 처음이에요. 그렇게 오래한거는.

상: 얼마나 했는데?

청: 한달. 처음으로 내가 간만에 참아가면서 한달 한건데..

상: 뭐했는데?

청: 주유소 같은데서요. 자동차 왁스 팔고 설명하고 그런 거. 힘들잖아요.

상: 정말 간만에 참아가면서 했는데,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니?

청: 이 친구도 있기는 했었는데, 뭔가 했었는데, 박스 접는 것도 했었고, 저하고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애랑 돈 떼먹고 도망간. 거기서 잠깐 일했었어요.

상: 너도 떼인 거야?

청: 저는 떼인 것도 아니구요. 잠깐. 한 2-3일.

상: 그러면 그 2-3일 일한 것도 못받아?

청: 못 받아요. 상: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거야?

청: 최소한. 보름, 일주일 정도 일한건 못 받아요.

상: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날이 있는 거구나. 그럼, 너가 전에 일주일하다가 보름하다가 그만 둔 그런 거는.

청: 아.. 그런 거는 돈 못 받아요. 배달은요. 일당이라서 주는데.

상: 그러니까 주급이나 월급이면 그 날짜까지 못 가면 돈을 떼이는 거다.. 그치?

청: 그렇죠. 주유소는 일주일해서 못받고, 게임방은 한 15일. 보름했는데, 근데 제가 뺏긴 게 많아서. 금고에서, 적자났다고 돈 못받고, 근데 뺏긴 게 좀 많아요. 하루에 한 1, 2만원씩 뺏치고, 원래 다. 그래요.

상: 법적으로는 며칠이라도 일을 한거니까 돈을 받을텐데.

청: 근데요. 그런 거요. 일을 시작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계약서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일 안하면 돈 안받는다고, 그런 거 싸인하고 하니까. 상: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거는 거야? 왜 돈을 벌고 싶은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하고 그만 둔 하고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

청: 네. 지금. 그냥. 쓸데가 많으니까.

상: 주로 뒤에 쓰는 건데?

청: 주로 게임. 이것저것 사고 싶으니까.

상: 그래도 뭔가 해야지. 하고 작정을 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니? 계획한 대로 일이 되기 보다는 안되는 경우가? 근데 그 원인이 뭔데? 너네들 되게 자신 없어 하는 것 같다..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뭐. 끈기가 없다.. 인내심이 없다.. 어때? 학교를 그만둔 뒤에 자신감이 더 줄어든 것 같니?

청: 아니요. 학교 다닐 때 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 지금이 더 낫니? 학교 다닐 때 보다 나은 거니? 자신감이나 부딪혀보자. 이런 거. 청: 네.

상: 또 다른 이야기 없을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학교를 그만 둔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거.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있니?

청: 없죠. 부모님밖에. 계장님.

상: 계장님이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청: 어디 보내주고.

상: 어디?

청: 학원 같은데. 공짜로. 그런 게 도와주는 거죠.

상: 어. 그런데 학원 보내주는데 너희들이 안가는 거니?

청: 네. 근데 싫어요.

상: 너무 지나치게 도와주는 게 싫다는 거니?

청: 아뇨. 너무 억지로가. 싫어요.

상: 도와주는 거하고 억지로 하고 어떻게 다른 건데?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주변 사람들이.

청: 그냥.

상: 아니. 보호관찰도 빼고. 그냥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니?

청: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인내심도 없고 해서 제대로 끝까지 해 내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

청: 아니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해요.

상: 끝까지 한 게 뭐가 있는데?

청: 그 돈 못받은 거. 요즘에는 진짜. 끈기가 많아졌어요. 게임해서.

상: 그런 끈기는 어떻게 해서 키워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청: 어느 때부터 갑자기 되었어요.

상: 그게 중요하잖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갖춘건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 이 정도 하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선옥 꿈틀학교
노일종 돈보스꼬 청소년센터
박경자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상순 성남보호관찰소
박환석 안양소년원
신용갑 국가청소년위원회
양봉환 서울분류심사원
양철수 국가청소년위원회
오영희 법무부
이연정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주영아 한국청소년상담원
차영환 서울소년원
차은선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채유석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상택·전상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 · De-Ping Lu · 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량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기·마츠다 시게키·무꾸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운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해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정현 · 신순갑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인 쇄 2006년 11월 17일

발 행 2006년 11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24-5(93330)

